

나는 일하고 싶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계십니까? 삼성생명은 오랜 경험속에 쌓인 여러분의 높은 경력과 능력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계속해서 이 사회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삼성생명으로 오십시오.

삼성생명 생활설계사를 모십니다.



생활설계사도 삼성생명에서 시작하면 든든합니다.

- 1억원 이상 고소득 생활설계사 158명, 월 500만원 이상 1,668명, 월 평균 소득 151만원으로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97년말 과표기준)
- 입사 후에는 생활설계사 전문교육인 육성과정 및 재무설계과정을 통해 경제·금융 서비스 전반에 걸친 폭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지도장의 책임육성을 통해 보험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 고정급 및 능력급 보수체계 병행으로 안정적인 수입확보가 가능하고 학자금 지원, 대출 등의 혜택을 드립니다.



생활설계사, 어디에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 삼성생명에서 시작하십시오.

• 전담지원부 02-300-3714 • 동부지원부 02-300-3751-6 • 서부지원부 02-311-4481-6 • 남부지원부 02-3451-1371-6 • 권역지원부 02-761-6095-6
• 동남지원부 042-229-0141-5 • 부산지원부 051-630-6341-6 • 대구지원부 053-250-5261-6 • 호남지원부 062-230-5251-7

가족사랑 이웃사랑

SAMSUNG

삼성생명

남자!

feminist journal

if

페미니스트저널 이프

집 남자를 알고 싶다

작을 만나면, 관심시켜주. 작품을 읽게 마십시오?

이탈리아의 여장왕오우의

남자와 사랑이여

과학자가 쓴 '이후세대' '소녀' '여러'

수다방이 밝은 '과학' '과학' '과학'의 남자

저자 <그대 그리고 나>와 작가 겸정수에게 보내는 프로포즈

특집 서양귀신, 한국귀신 귀신의 세계에도 성차별은 있다

male gaze

국영, 국영, 국영, 국영, 국영, 국영

의 격렬리얼 "은밀이 연대하고 과감이 뒤집자"

다이어트와 문학의 의미

만화, 색채, 그림, 남자와, 정조

입술을 보듯 성기를 보지!

98 여름

R 5000

약한 전파는 거저 줘도 안 써!

몇 푼 짜다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약한 전파를 쓰는 이동전화는 거저 줘도 싫다.
안 터지고 끊어지는 스트레스 이동전화는 싫다.
우리가 가는 곳 어디서나 터져주는
강한 전파의 이동전화를 원한다!

전파의 힘이 강하다!
파워디지털 017

SHINSEGI
신세계통신

그래, 빙그레

“방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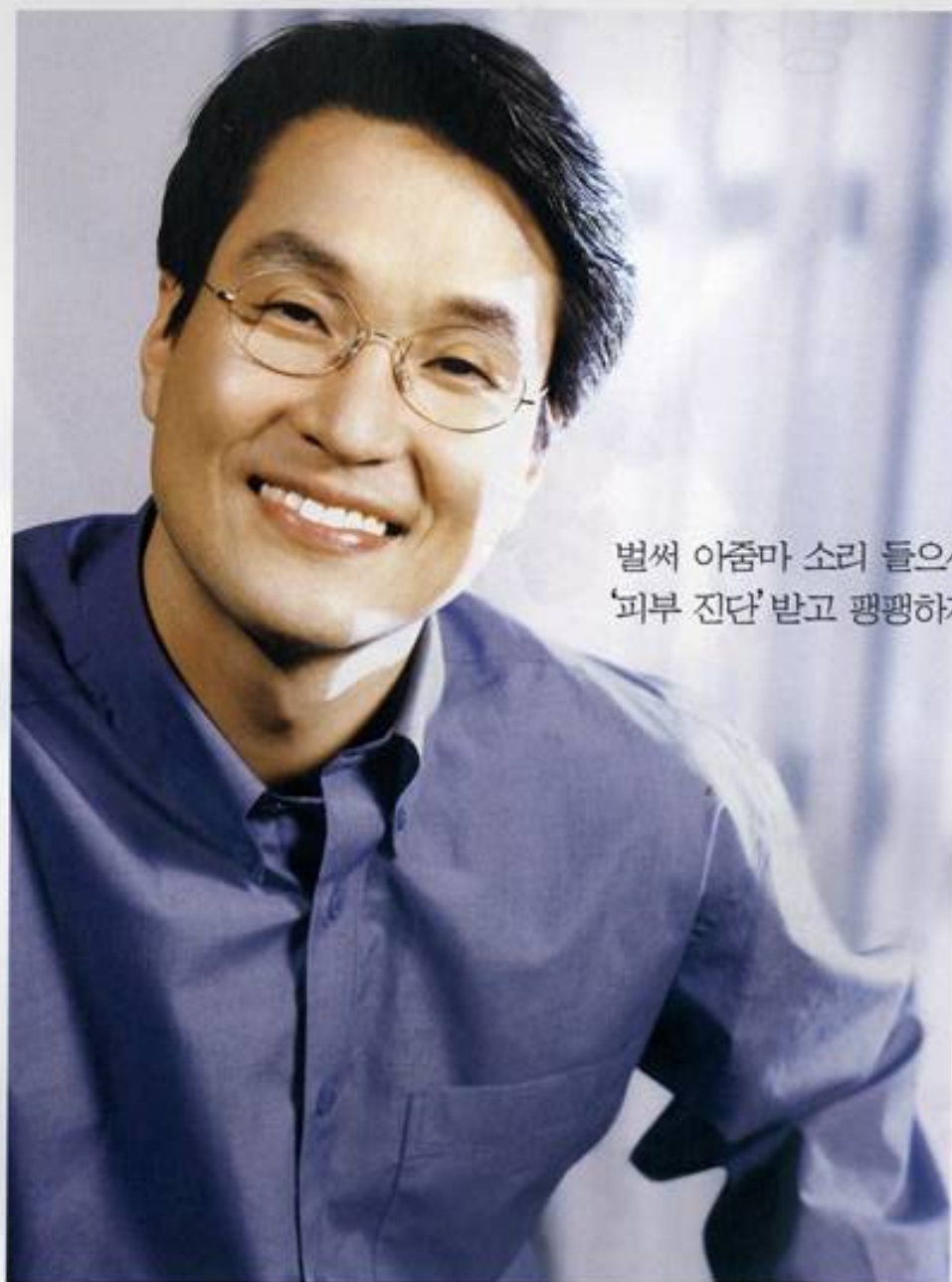
네? 이 포미콘이
그 포미콘이랑 비슷?
그래~ 이 포미콘이
그 포미콘이야!
응응~ 맛있으니까 다시 나왔구나?
번갈다 포미콘!!

제가 좋아하는
이 포미콘이
옛날에 나왔던
그 포미콘이래요.
음~ 부드럽고
깨끗한 포미콘!
전 깨끗하고
순수하게 좋아요!

좋은 건 다시 돌아오는 거야!

포미 콘 500원

B 빙그레
It's Quality. It's Bigger.



벌써 아줌마 소리 들으세요?
'피부 진단' 받고 팽팽하게 사세요!

탄력있는 피부 - 파메스 퍼밍 프로젝트



탄력이 급속히 떨어질 때, 피부진단 받으세요. 어느날 부터인가, 탄력이 눈에 띌 정도로 떨어지고 느슨해진 당신의 피부는 이미 심각한 상태입니다. 몸이 위기를 느낄 때 특별진단 받듯이, 파메스 퍼밍 프로젝트로 피부진단 받으세요.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팽팽해집니다.

탄력 강화 전문 에센스 - 파메스 퍼밍 프로젝트

투명 젤상 골 추출물, 히알론산, 진주 추출물 등이 고농축으로 함유되어 피부를 지속적으로 촉촉하고 부드럽게 지켜줍니다. **핑크색 나선형** 필수 미네랄과 필수 아미노산, 당류로 구성된 '비타폴렉스-SP24'가 피부 깊숙이 전달되어 탄력 잃은 피부를 단기간에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블루색 나선형** 순식물성분 황금추출물이 얼굴의 붓기를 진정시켜 얼굴선을 날씬하게 잡아줍니다. 탄력 강화성분의 상승작용으로 집중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효과 빠른 피부진단 - 파메스

PAMESS

1년 365일, 일주일마다 지극히 평범한 것처럼 늘 똑같은 생활은 싫어!

남은 여권이 영문보장 직전까지 문이기는 엄청난 계기도

원래부터 남자를 뒤흔트린 여가도

네가 무척 한 분아, 하루하루가 네가 새로운 해

동에 만리, 서에 만리

어디로 가든 모든 리얼리티는 나,

귀신 같은 해방이래서 내가 더 행복해 눈으로 사회에 평안이 도전해 나.

한 사람의 아내의 나!

백제의 강의를 강의하면서 강하고 남다른 마음으로 무릎 꿇는 나!

때론 강한 권위자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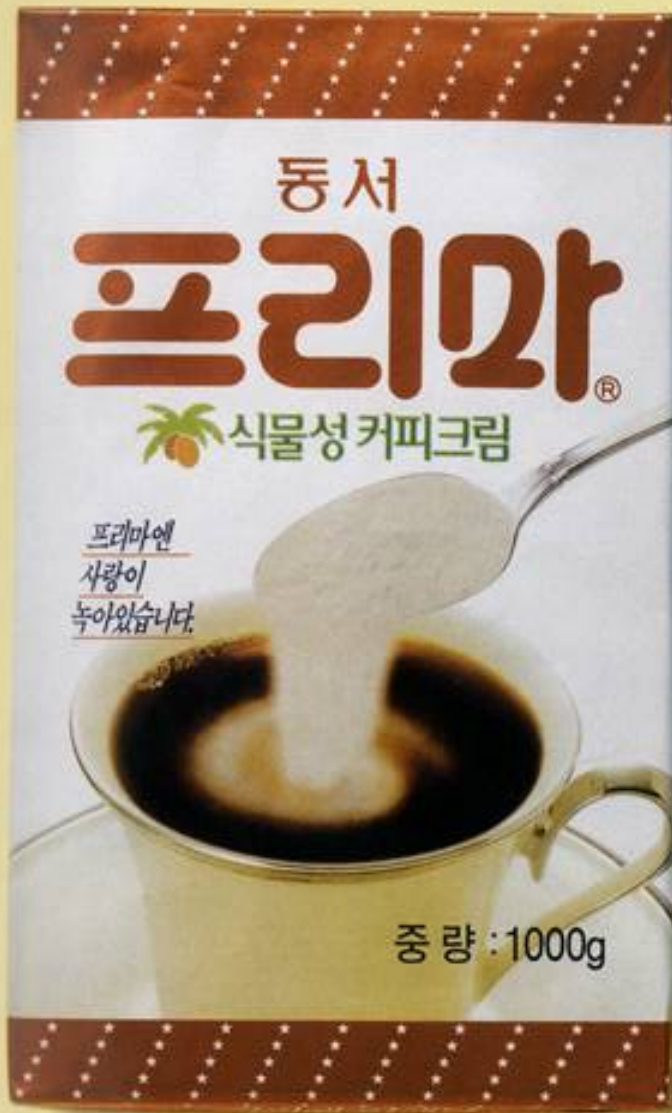
때론 카멜레온처럼 나만의 멋진 면을 보여줘!

생방송의 세로네가지 색다른 맛.

dongaTV 채널 34!



프리마는 행복합니다



요즘들어 동서프리마를 흥내내는 제품이 생기고 있으니깐요.

동서프리마의 겉모습을 그대로 흥내낸 제품이 생기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걱정이 앞섭니다. 겉모습은 비슷해도 프리마 속까지 닮기는 어렵기 때문이지요.

100% 순식물성 아자유로 만들어

맛이 깨끗하고 고소한 프리마!

우리나라 커피를 드시는 분들 열 분 가운데

여덟 분이 선택해주시는 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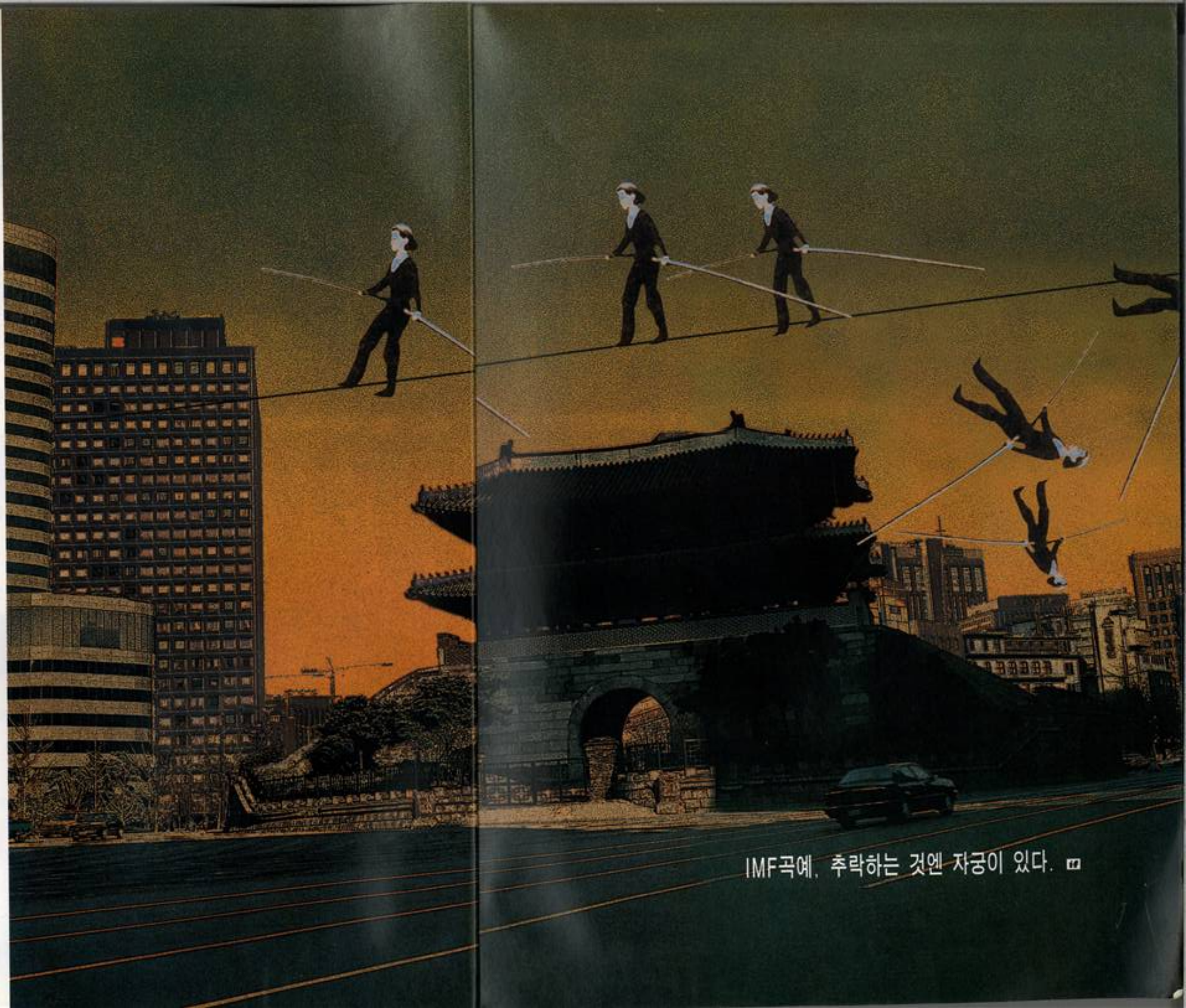
그 이유가 있습니다.

커피엔 언제나 식물성 프리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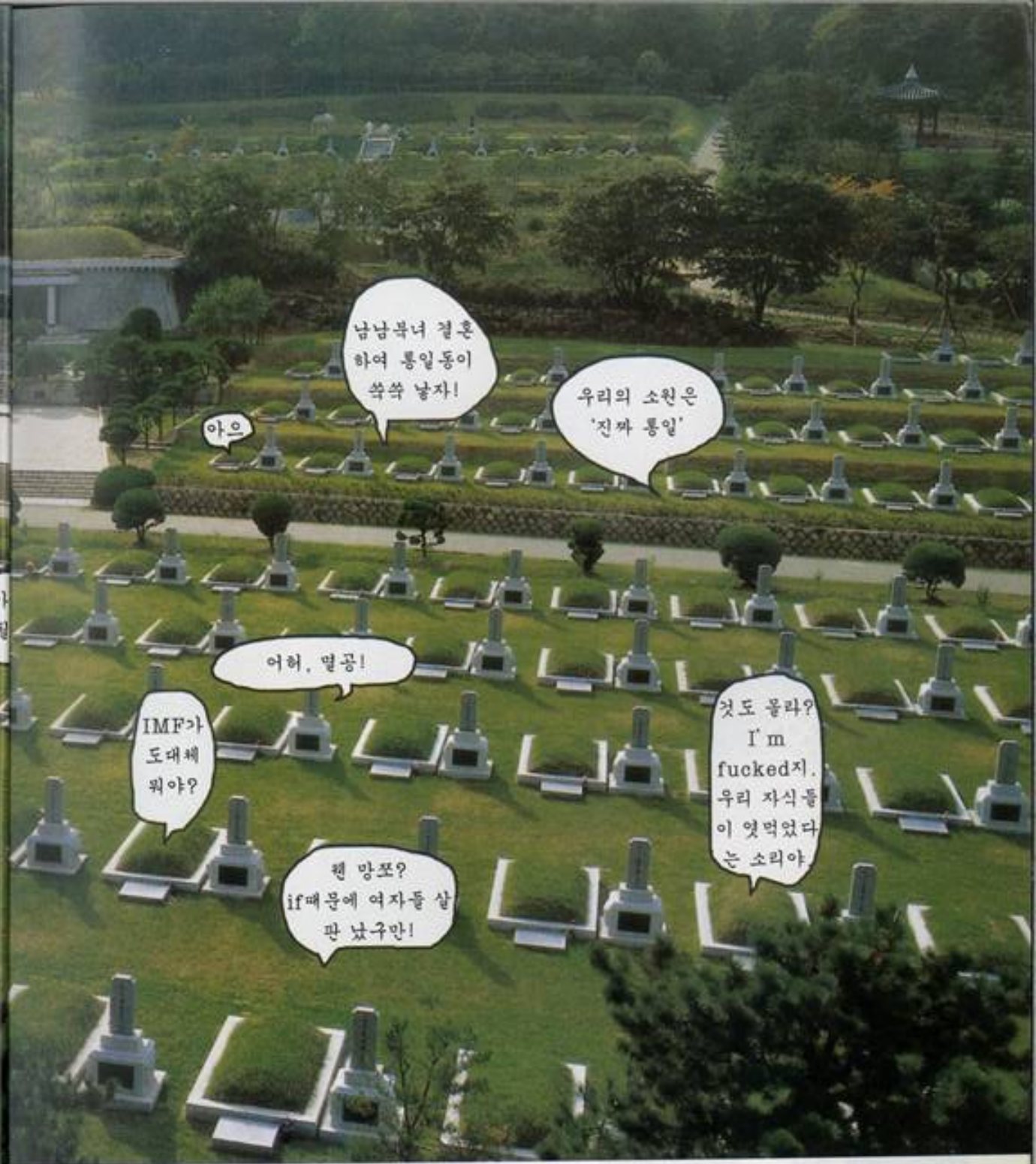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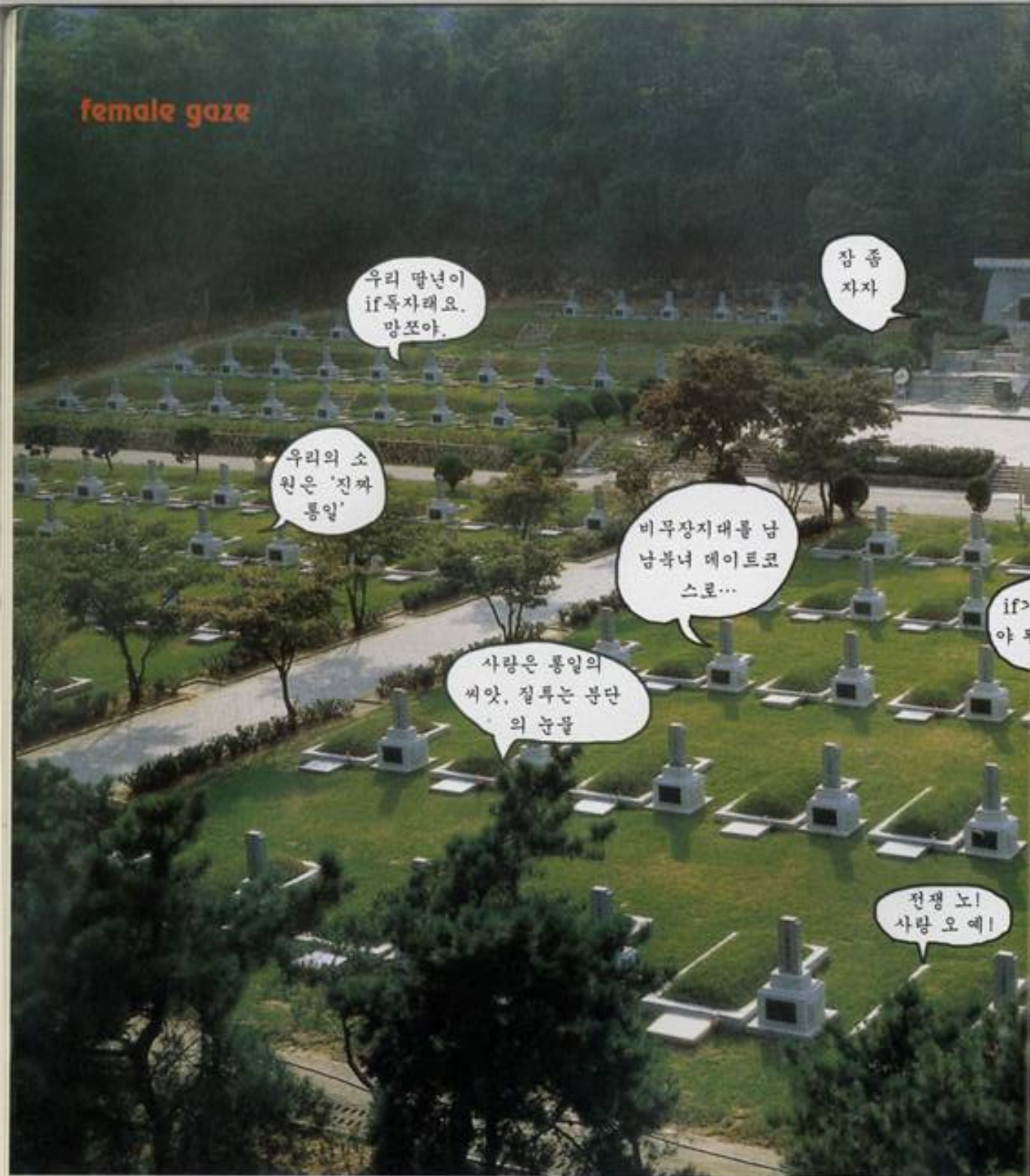
프리마

중량 : 1000g

female gaze



IMF곡예, 추락하는 것엔 자궁이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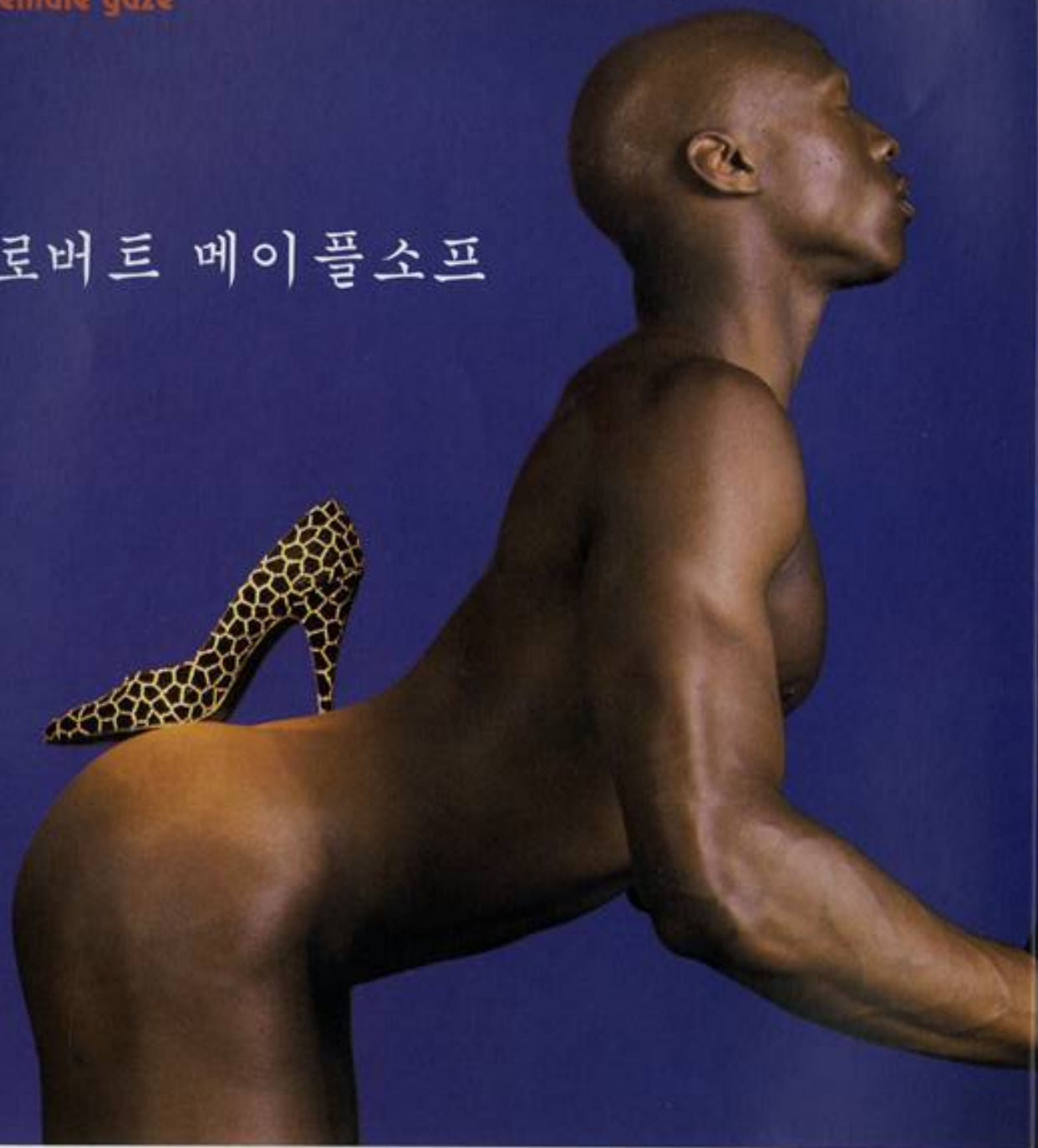
넋들의 희망

6월 25일 동작동 국립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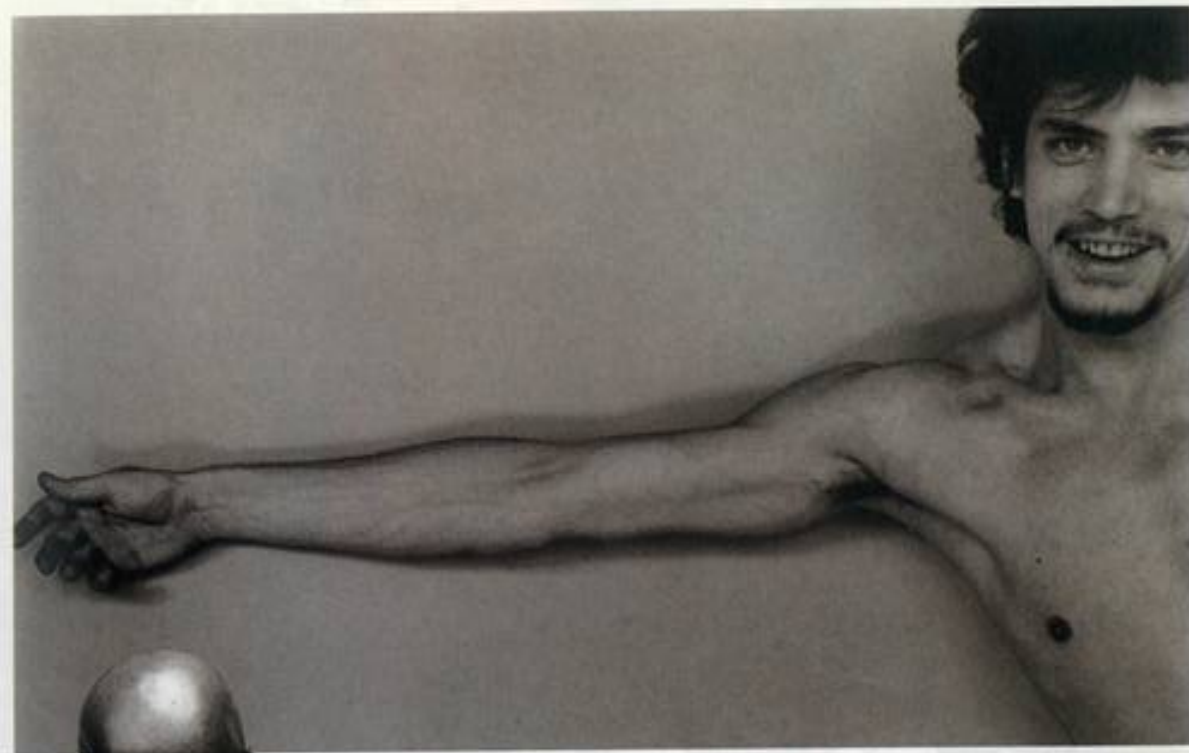
올해도 어김없이 수많은 넋들이 잠을 깨고 일어나 이야기 꽃을 피웠다.

if가 살짝 엿들어본 국립묘지 지상회의

로버트 메이플소프



▲ 〈젠 무디〉, 1984. ▶ 〈젠 무디〉, 1983. 로버트 메이플소프는 신체에 대한 전복적인 시선을 던지는 80년대 대표적인 사진 작가다. 그는 성적 변별성에 의미를 제기하면서 성의 정체성을 모호하고 가변적인 것으로 만든다.
(관련 글) 「집중탐색」(144쪽~149쪽)



▲ 〈자화상〉, 1978. 자화상은 그의 예술의 시작이자 끝이기도 했다. 사춘 위기와 불안의 극단을 드러내던 그의 자화상이 잠시 찾은 평화.

▼ 〈칼라 릴리〉, 1987. 판단과 감정이 배제된 고전적 아법으로 다루어진 정물. 그가 에이즈로 죽기 전에 찍은 이 릴리꽃은 그 현란한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만개 이후에 찾아오는 죽음의 향기를 품고 있다.



female gaze

남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기획 |
제작 토크사람들(<http://www.blupers.com>)

if창간 1주년을 맞아



if가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아, 살아 있음이 참 행복하구나” 하고 느낄 때가 그렇게 흔하지 않다. 그 흔하지 않은 즐거움 중의 하나가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는 일이다.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그런 일이 어디 그렇게 흔한 일이겠는가?

「if」와 if를 만드는 친구들을 만난 것은 그러므로 내게는 큰 행운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 행운이 나만의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더욱 기운이 난다. if를 통해서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고 뜻을 공감하고 수다를 떨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에 동참할 수 있다는 기쁨이 여러 어려운 일들을 힘들어하지 않게 해준다. 여기서 동참한다는 것은 단지 if를 만드는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 동시대의 고민을 이 책을 통해서 공감하고 내 주변의 친구들과 이에 대해 이리저리한 얘기를 나눈다는 것, 한 권의 책을 머리맡에 놓아두고 바라본다는 매우 단순한 행위를 뜻한다. 이 단순한 행위가 이 땅의 우리 여성들, 너와 내가 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단초가 되는 것이 아닐는지...

미래가 없는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의 열린 시각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이 때 if의 할 일이 너무도 막중하다. 점인들 얼마나 무겁겠는가... 그 큰일을 하기 위해 밤과 낮, 몸과 마음을 던져, 그야말로 철없는 가시내처럼 물과 불을 안 가리는 if를 만드는 우리의 젊은 자매들에게 무슨 힘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작금의 우리들 선배 몫이라고 생각한다. if를 만드는 젊은 여성동지들의 힘들고 고된 일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선배들의 무심함이 부끄럽고 안타깝기도 하다.

이제부터는 선배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if 일년 후의 알찬 결실로 맺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if의 찬란한 발전을 위해서 건배! 

발행인 윤석남

풍고 패러디

뒤집으면 이프가 보인다!

feminist journal

페미니스트저널 이프

이름을 바꿔
이름을 바꿔



여보! 험뮌~
뒤집으면 보인대구?

하나를 골라도 실속 또 실속!

확실하게 뒤집어 보자구요~

IMF 걱정 끝!

99.99%
이프 맞아?

무너만
if 아네요?

대체, 뭘 뒤집지는 거야?

if강령

웃자! if를 놀자!

if 창간1주년을 축하합니다



특집-남자를 알고 싶다 58



남자의 생각

남성다움의 신화는 깨졌다(홍진숙) 62
"여자를 만나러가십니까? 채찍을 잊지 마십시오" 남성철학자의 여성혐오주의(류숙렬)

남자의 마음

남성노동요에 드러난 남자들의 성과 사랑(박미라)
여덟 남자의 사랑이야기(김경훈 외) 78
어떤 여자의 남성편력기. 무기여 잘 있거라(이부아)

남자의 성

아후씨의 섹스다이어리(배종훈)
무기의 일생. 남자 또는 개로 불리우는 당신에게(이호인)

남자의 네가지 유형

당신의 남자는 어떤 유형인가요?

남자 BEST WORST if 수다쟁이 혹은 최고의 남자, 최악의 남자



이여자 김정수 44

(그대 그리고 나)의 작가 김정수에게 보내는 프로포즈(오한숙희)

남자에게 124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신정후 교수에게(김진영숙)

남랑특집 - 귀신의 세계에도 성차별은 있다 222

한국귀신과 여성 귀신지사, 여성지사(박미라)
서구공포영화의 여성괴물 거부장제의 타자가 걷는 운명(주유신)

IF SPIRIT

웃자!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려왔다. 그러나 이번 웃고 있다. 웃음은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든다. 폭발하는 열목자. 자못이호르는 분수처럼 그렇게 웃고 있다. 자, 웃자!

이웃

우리는 이제로 헤어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내면에서 자인스킬적 지각은 하나의 욕망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욕망을 지니고 있으며 그 욕망이 과격하다는 것을. 그리고 있다. 이 세상을 한번 신나게 뛰놀아 버리고 싶다. 상냥하지 않은가? 어떻게 될까?

놀자!

우리는 그동안 눈물과 고통에만 익숙해 왔다. 어차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고통과 인내, 희생의 지각은 학습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중독시켜 마침내 노예의 행단을 진상한다. 이번 놀고 싶다. 재미있고 싶다. 놀고 싶다. 그리하여 여가들을 즐겁게 만들고 싶다.

female gaze 8

IMF 곡예 추락하는 것에는 자궁이 있다/ 남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국립모지 자상회의 <넋들의 회양>/ 남성사건작가 에이플소프의 작품세계

정가의 여성들 34

새정부 여성정책 이끄는 우연파워(최진숙)

뉴스우먼 22

연극 <마요네즈>서 분수염마로 열연한 이주실
전주에서 개인전 연 화가 김안순
여성사건작가협회 초대화장원 박영숙
여성사이버작가 '새파란' 등단
(올해의 사회주의상) 수상한 공동체가정의 조순실
40년만에 탄생한 첫 여성총경 김강자



WOMAN STREET 38

한국영화 사상 칸영화제 경쟁부문 처음 진출한 조은영 감독
동덕여자대학교 여성학센터 개관
여성정치네트워크로 미래 여성정치가 키운다
IMF시대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들, 생계가 위태롭다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주택건축상담 무료로 하세요"

계릴라걸 120

"은밀히 연대하고 과감히 뒤희자!"



CONTENT 98년 여름



잡설 하나 황제처럼 먹어도 살이 빠진다? (양성희) 178

잡설 둘 나는 나를 배당한다? (김정복) 181

남자의 성경험 130

마음이 '동'하면 몸이 '동'한다 (변정수)

만화

색녀열전 남자의 정조 (수박투리) 134

미스노 (한국화) 232

남자의 if 세상 신시대엘라/ 신백설공주/ 신장자는 숲속의 공주 54

유채지나 영화산책 138

여성의 쾌락을 위한 남자 벗기기—〈풀몬티〉가 보여주는 뒤집기 전략

집중탐색 144

성의 이분법, 그 경계선을 허물다

—육체의 고정관념과 싸우다 전사한 남성사진작가 에이플소프(박신의)

Review 153

광고 광고에 등장하는 레즈비언 이미지(지혜)

미술 거울과 색안에 관한 대화—김지현, 정정업 전(오혜주)

영화 〈미스터 커티〉와 〈투깝스3〉(정만아)

음악 얼어붙은 가요계 독일 여성신인들—오영란, 서영은, 아이미(이영경)

출판 if가 품은 여름의 책

if 옷이야기 187

여성과 남성은 서로 같이지고 싶다—젠더리스 록의 역사(이재진)

여성화가의 자화상 193

나는 나를 찾지 않는다—여성화가들의 존재증명(제미란)



어머니들이 만든 세상 203

화장 뒤에 숨겨진 여자의 일생

CROSS-OVER 239

통굴 얼굴을 보듯 성기를 보자

사이버원도우 컴퓨터는 남성의 기계인가? (장여경)

여자의 여행 나이 육십에 떠난 유럽 배낭여행 (박형욱)

세계의 여성들



여자의 꿈 214

남자가 되고 싶었던 여자아이(박영숙)

이럴텐 이렇게 218

“나는 소비니스트피그를 이렇게 띄웠다”

상대적이고도 절대적인 페미니스트 백과사전(난영) 220

허스토리 264

“내 책은 내 인생에 보내는 고발장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갈아가게 하소서』 펄낸 박정원씨(박혜숙)

if 창간 1주년 축하메시지 42/ 116

광고패러디 16/ 41/ 186/ 201/ 252



표지 : 남자대립구를 특징주제로 한 이번 호의 표지는 남자누드로 결정됐다. 그러나 남자 누드모델을 구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 동안 이호의 표지모델은 모두 알몸임으로 소개받은 아마추어 모델들이었다. 고집에도 이번 역시 지원자가 생겼다. 벗기를 마다하지 않고 이프표지를 위해 모델이 되어준 두 남성독자가들은 “살을 잃기 위해 사를 쓴다”는 문학지향성 신동학씨(표지사진 오른쪽)와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최현준씨(표지사진 왼쪽).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라. 이 예쁘고 아름다운 두 남자의 벗은 몸을 본 사람은 스튜디오 안의 사진작가뿐이다. 눈을 빛내고 힘을 끌어 삼켜 기대하던 이호의 여성독자들에게는 접근금지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래도 인화되어 나온 사진들을 보면 편집실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어머, 너무 썩었다”, “여자 몸보다 예쁜 거 아니냐?”, “아름답게 물렸네”. 훗날 보기가 흥분을 자아내는 것은 만고의 진실 아닌가? 이번 호에는 많은 남자들이, 고집하고 아름다운 두 모델처럼 벗어벗은 맨 아몸과 몸을 드러내고 진정한 고백을 했다. 독자 여러분들도 그들의 참모습을 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하기 바란다. 그것이 이번 특집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두 분 남성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사진 박영숙

제호 : 잡지의 장르를 설명하는 ‘페미니스트저널’과 고유이름 ‘if’를 합해서 만들었다. 우리는 페미니스트들이 ‘인악에-’라고 가장해본 세상을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페미니즘이 완결된 어떤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리고 물에 잠겨있지 않는 페미니즘(infinite feminism)이라는 의미에서 아니겠로 읽을 수도 있다. 그 외에도 ‘m Feminist’ 또는 ‘m Female’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엄마들이여, 비명 좀 지릅시다!”

연극 〈마요네즈〉에서 '푼수엄마'로 열연한 이주실

배 우 이주실씨를 암투병중인 중견 여배우쯤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라면, 극장 마너에서 공연되는 연극 〈마요네즈〉의 그를 보며 당혹했을지 모른다.

무대에 오른 그는 콧소리로 종알대며 엄마의 존재를 거추장스러워하는 딸에게 주책스럽게 말을 건다. 그는 딸에게 돈 많이 벌어서 “찰랑거리는 밍크코트”를 사달라거나 빨간 원피스를 몸에 대며 비비안 리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속 없는 엄마 역할을 천연덕스럽게 해낸다. 그의 건강을 염려하며 다소 불안하게 앉아 있던 관객들은 이내 주책스럽지만 사랑스러운 연극 속의 엄마를 보고 긴장을 풀어버린다. 그래서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객석에서는 수시로 웃음소리가 터진다.

이주실씨는 65년 〈방향〉으로 데뷔해 30여년간 60여편의 연극을 통해 강인하면서도 섬세한 연기를 보이며 동아연극상, 대한민국연극제 백상예술대상 연기대상 등 굵직한 상들을 휩쓸었던 관록있는 배우다. 일반인들에게는 연극 〈위기의 여자〉의 모니크, 자신의 이야기를 연극화해 눈물바다를 만들었던 〈쌍코랑 딸코랑, 이별연습〉,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에서 전태일의 어머니 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동안 정통연극을 통해 선공은 연기를 보였던 그는 지난 4월 1일부터 극장 마너에서 공연했던 〈마요네즈〉(전혜성 원작·각색, 문성희 연출, 이주실·김수기·김진희 출연, 이해경 기획)의 어머니를 통해 일상의 세계로 한발 내려온 것 같다.

분장실로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연극을 보러온 그의 대학시절 친구 두 명과 함께 담소중이었다. 학창시절의 젊은이처럼 뭐가 즐거운지 시종 깔깔대며 웃고 있었다. 친구들이 떠나고 나자 그는 극중의 엄마처럼 장난스럽게 눈을 찡긍하며 말을 꺼낸다.

“친구들이 이 엄마가 맘에 안든대, 비슷한 나이 또래니까 자기 얘기 같은가 봐요. 이 엄마가 고상하고 교양있는 중년의 모습이 아니라 뻔뻔스럽고 주책맞잖아. 그래서 내가 너 맘에 있는 걸 들킨 것 같으니까 싫은 거 아니야? 그랬어요. (하하)”

겉으로 보이는 그는 자신이 세상을 뜨면 외롭게 남게 될 딸들을 위해 일찌감치 자식을 해외에 떼어보낸 아픔을 품고, 무대의 조명이 꺼지면 바닥을 기며 무대에서 내려와야 할 만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그에게 〈마요네즈〉의 철없는 어머니는 어떤 식으로 보여질까.

“아픔이 많았던 엄마인데 또 아주 희극적이죠? 아무리 희극적인 사람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픔도 있고요. 내 엄마라면 귀찮고 싫을 거야. (웃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외로워서 비명지르는 거 아니야? 옛날 우리 엄마들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다가 산화해버리지 말고 이 엄마처럼 비명도 지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여자들에게 비명을 지르라고 선동(?)하는 그는 용감하다. 목숨을 연장시키며 침대에 누워 있기보다 쓰러질 때까지 무대에 오르기를 택한 그의 용기는 생명에 대한 외경에서 시작된다.

“살아 있는 것은 움직이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축복이구요. 배우가 아니었다면 끝까지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나머지 인생을 빛나게 살 수 있게 한 모든 연인들에 외경을 갖습니다. 무대에 오를 기회를 주고, 와서 박수를 쳐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요.”

이런 그에게 이후의 계획을 묻는 것은 무의미해 보였다. 움직일 수 있는 날까지 그는 무대에 오를 테니까. **■**

글 김형선/사진 박영숙



‘열혈부인’의 자기언어, 폭넓은 공감대를 얻다

전주에서 개인전 연 여성화가 김인순

지속적으로 여성문제를 고민하고 표현해 온 여성화가 김인순(56)씨의 개인전이 열렸다(4.17~4.23/ 전북예술회관). ‘함께 사는 세상, 함께 가는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전북여성운동연합 주최 제1회 여성문화제의 일환으로 초대된 것이다.

젊은 시절 ‘여류화가’로서의 길에 회의를 품던 중 불혹의 나이에 80년대를 맞게 된 김인순씨는, 80년대 중반 우리나라 최초의 페미니즘전시라 할 만한 〈반에서 하나로〉전을 기점으로, 여성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하는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다. 이후 그의 관심사와 정열은 올곧은 일관성을 보여주는데, 시대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 여성의 상황과 고통, 혹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 일말의 희망 같은 것을 그의 작품 도처에서 찾아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그가 가장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생명을 탄생시키고 일궈나가는 존재로서의 여성—어머니이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들의 사회적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는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여성에게 있어 육아가 갖는 의미, 모성의 의미, 생명의 의미에 대한 고민을 작업의 주된 주제 중 하나로 잡게 된다.

〈절반이 하나로〉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전시에는 구작과 신작을 합쳐 25점이 출품되었는데, 여성들의 얼굴 스케치, 역사적 혹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여성문제들, 성차별을 표현한 작품, 경건한 모성을 그린 작품, 여성과 생명 혹은 여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연결시킨 작품, 고구려

고분 벽화의 형식을 빌어 인류의 복을 비는 대형 걸개그림 등이 출품되었다.

90년대는 우리에게 정말 다른 안목을 만들어준 것일까, 80년대에 만들어졌던, 그 당시의 처절했던 상황을 직설적으로 그런 작품들이 이제 전혀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80년대에 걸맞는 작가였다고보다는 오히려 90년대 이후를 책임질 작가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구사하는 직설법은 ‘다양성’을 빙자하여 횡행하고 있는, 미술의 본질과 상관없는 ‘에매모호함’을 면죄부로 삼는 요즘의 혼탁한 작업들 속에서, 새로이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다. 그 가능성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는, 작가의 가치있는 시각이 예술의 풍부함과 만나는 지점에 있는데, 이번 전시에서 그 지점들이 곳곳에 숨어 있음을 새로이 발견한 것이다.

전시기간 내내 전북지역의 매스컴과 지식인들의 호응이 대단했다는 게 행사 주최측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김인순씨가 무엇보다 기뻐하는 것은 그의 전시를 계기로 전주지역의 미술인들, 특히 여성작가들이 (밤이면 밤마다) 함께 모여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앞으로의 방향성 등에 대해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래서일까, 일주일간의 외박(?)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아주 환하고 건강해 보였다. □

글 오혜주/ 사진 박영숙

우리나라 1세대 여성사진작가 박영숙씨를 중심으로 50여명의 여성사진작가들이 모여 <여성사진작가협회>를 만들었다. 여성작가들이 사회에서 겪는 소외감을 극복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세력화해 보자는 것이 그 목적. 여기에 박영숙씨는 또하나의 욕심을 보탠다. "의식과 철학을 가진 사진작가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집단이 되도록 할 생각이예요."

이처럼 '철학을 가진' 사진작가를 강조하는 박영숙씨는 평생 사진작가 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다. 그래서 간혹은 "사진작가가 사진의 테크닉이나 가르치면 되지 웬 미학, 철학에 여성학까지 가르치려드느냐"는 불평을 듣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그는 유별나고 고집스럽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된 데에는 나름의 배경이 있었다.

"결혼을 하고 경제적인 문제에 얽매이다 보니 개인전 한번 여윌게 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개인전을 해도 팜플렛 제작이나 홍보를 제대로 하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내가 사진작가로 살아온 기간에 비해 전시회 횟수가 많지 않아요. 그게 나를 더욱 긴장시켰던 것 같애. 게으른 작가가 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

그러면서 그는 공부하는 작가가 '기술만 가진 작가'와 어떻게 다른지, 작품수준에서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 경험하게 된다.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할까. 그렇게 공부했던 덕분에 그는 사진작가면서 사진평론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의 한 명이기도 하다.

실제로 그는 80년대 후반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들어가 석사과정을 마쳤고, 지금도 젊은 예술가들과 모여 공부를 한다. 그래도 부족해서 미학이나 서양철학사,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더 공부해야 한다고 열의를 불태운다.

그가 사진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사실 대학교 2학

년 때부터였다. 그는 61년에 모교인 숙명여대에 사진동아리 <숙미회>를 만들었고 65년에 첫 번째 개인전을 열어 작가로서의 인생을 시작했다. 숙미회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홀트의 어린이들, 정신박약아, 양로원의 노인 등을 주제로 다루는 다큐멘터리작품 전시회를 열어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었다. 벌써 40여 년이 되어간다. 그때 사진을 같이 시작했던 친구들과 후배들, 그리고 그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만난 여자동료들은 지금 모두 이런저런 이유로 사진작가이기를 포기했고 지금은 그만이 '유일한' 1세대 여성작가로 남아 외롭게 그 길을 가고 있다.

"사실 많이 외로워요. 대학 졸업하고 『여상』이라는 잡지사의 사진기자가 됐는데 거기 사진부장이랑 사진 작업 때문에 많이 부딪쳤어요. 결국 '넌 여자고 결혼도 안 했으니 까 네가 나가라'고 회사에서 말하는 거야. 권고사직을 당한 거예요. 또 70년대엔 한국일보 여자 사진기자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권고사직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때부터 그는 페미니스트 사진작가로서 의식을 굳혀나갔다. 그리고 나이 오십이 넘은 지금까지도 슬하에 "여자라서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 했다.

그래도 그는 요즘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들떠 있다. <여성사진작가협회>에서 젊은 '동지'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이다. ■

글 박미라/사진 최하영



“자기철학 있는 여성작가만 오세요”

여성사진작가협회 초대회장인 박영숙

사이버문단에서 가상의 모습으로 작품활동을 하는 여성사이버작가가 탄생했다. 그의 이름은 '새파란'. 정신연령은 20세이며, 모습은 컴퓨터화면에만 뜨는 그래픽인간이다. 지난 5월 10일 창간한 사이버문학지, 『문학운동』(하이텔 golwave)에 실린 4편의 엽편소설이 그를 설명하는 전부이다.

「첫사랑」, 「그 집의 풍경」, 「팬티」, 「생물」 등 성을 주제로 한 새파란의 소설은 여성의 삶에 대한 통찰이 예리하면서도 다분히 전복적인 구성방식을 가지고 있다.

사이버가수 아담이,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에 한 무명가수의 목소리를 결합한 존재라면, 새파란은 문학상 수상경력이 있는 실존하는 작가로서 그를 위해 그래픽이미지가 제작됐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새파란은 『문학운동』의 창간에 앞서 창간준비를 하고 있던 콘텐츠 제공업체 <아이템>에 전자메일을 보내, "가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이버작가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쯤에서 '새파란'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왜 사이버작가로 활동하기를 원했나. 혹시 여성작가가 경험하는 부자유스러움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은 이유가 있었나?

우선 표현의 자유를 들 수 있겠다. 거대 담론의 몰락과 함께 온 광범위한 이념으로부터의 해방이 나를 사이버세계로 이끌었을 것이다. 희망전대, 작가는 이제 자기 자신과 사회와 이념과 관념으로부터 탈출할 필요가 있다. 모든 기존의 세계를 (부정하지 않고) 파괴할 자유. 그것이 내겐 필요하다.

자신의 작품에서 담고자 하는 주제나 경향이 있다면?

표현이 자유로우면 모든 것이 자유로울 수 있다. 문학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 상상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섹스로부터의 자유까지. 그것이 내 문학적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섹스는 '잡자리'가 아닌, '배설'이 아닌, '생활'이고 '창작'이다. 섹스는 문란함이 아닌 순수다. 나는 그것을 이번 『문학운동』에 발표한 글에서 표현하고 싶었다. 앞으로도 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는 것을 긍정하기 위해 무거운

관념에 사로잡힌 평론가, 독자, 그리고 나아가 사회의 모든 사람들과 싸울 것이다.

이름을 '새파란'으로 지은 이유는?

'새로운 파란'이라는 뜻은 나의 의도와 동떨어진 해석이었다. 나는 그야말로 순수한, 이제 막 시작하는, 때묻지 않은 '나'를 '새파란'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컴퓨터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는가?

절대 아니다. 여자가 아름다워야 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나는 그 표정 없는 얼굴에서 나의 표정 없음을 발견하고 새삼 당황했고, 그리고 우울했다. 그러나 내 몸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는 것. 나는 아름다움을 목적이 아닌 '필요했던 것'으로 삼고 내 육체를 부정하지 않으며 살 생각이다.

컴퓨터 밖으로 나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계획은 있나?

내가 밝히고 싶지 않다고 해도 누군가는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밝힐 것이다. 하지만 내 소망은 절대 '밝혀지지 않는 것'이다.

페미니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앞에서 순수함을 말했다. 순수함이란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길 찾기'와 같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쩌면 아직 길을 찾고 있는 '태아'일 것이다. 100%는 없다. 길을 찾는 것은 좋겠지만 길이 곧 목적지인 것처럼 표현하는 일부의 '페미니스트'들은 못마땅하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이문열의) 『선택』 중 일부(여자의 목적—앉아서 오줌누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즉 아이를 갖고 키워야 하는 문제)를 믿는다. 그러나 나는 『선택』은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선택』을 극복하는 '여자'를 더 사랑한다. 나는 '여자'를 키우는 '여자'가 되고 싶다. 페미니즘은 결국 '남자극복'이 아닌 '여자 찾기'의 문제다. ■

글 박미라/ 그래픽이미지 아이템



“기존 세계를 파괴할 ‘자유’가 필요하다”

여성 사이버작가 '새파란' 등단

“대 학교 때 야학을 했어요. 거기 오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막 졸업하고, 다락방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이었어요.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하기엔 너무 어린, 내 여동생 같은 애들이었지요.”

야학이 끝나면 그 아이들의 어린 손을 잡고 그들의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조순실씨는 과연 “이 아이들이 나와 무엇이 다르길래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나?” 고민하게 됐다. 그리고 그 때 자연스럽게 이런 아이들과 같이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결심은 변치 않아서 83년 결혼한 이후 그는 남편과 함께, 노동자와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온 생애를 바쳤다. 그리고 지금은 안산에서 가정이 없는 청소년들과 공동체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다. 그에겐 15살짜리 친딸도 한 명 있다.

도대체 재정지원은 어떻게 받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묻자, 소식지 소액구독료, 소액 후원금 이런 것들로 생활해나간다고 대답했다.

“신혼초에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1년 교사생활해서 모은 돈 200만원 중에 100만원은 남편에게 쥐주고 결혼준비를 시켰고, 나머지 돈으로 혼수준비도 했어요. 부모가 해주신 혼수는 이불 2채였죠.”

그래서 그는 가난한 생활에 도가 텅 났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 누군들 움직이면 세 끼 밥 못 먹고 살라. 그렇게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신의 인생이 무엇보다 뿌듯하다. 그는 지금 생활교사 한 명과 2~6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사는 가정을 다섯 곳이나 꾸리고 있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는 건 신혼초에 충분히 단련받았기 때문이란다.

물론 어려운 일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딸아이의 문제가

더욱 그랬다.

“낯모르는 아이들과 함께 살기 시작한 건 딸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처음엔 많이 울어요. 학교에선 ‘거지대장’이라고 놀림당하고, 집에 와선 엄마의 관심도 못 받았으니, 그러던 아이가 이젠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같이 사는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하고, 그 애들과 똑같이 생활하려고 하고.”

아이가 부모의 삶을 이해하게 된 건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의 역할도 컸다. 고민하는 아이에게 부모의 생각을 이해시키고, 자부심을 심어주었던 딸애의 선생님을 그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정말 자식은 부모만 키우는 게 아니구나, 사회가 함께 키워가는 거구나.”

요즘 공동체 가정과 함께 대안학교인 <들꽃피는 마을> (98년 4월 개교)을 운영하고 있는 조순실씨는 여자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로 마음이 쓰인다. 여성이 성적으로 상품화되는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여자아이들의 주변에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예민하고 복잡미묘한 생각의 소유자로 길러졌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아주기도 쉽지 않다.

“여자아이들은 역시 우리사회에서 더 심각한 피해자들이예요. 가족들에게서 받은 상처도 더 많고 깊지요.”

어쨌든 조순실씨의 사회로 향한 애정과 책임감, 그리고 그의 묵묵한 실천이 인정을 받아 한국여성민우회가 주는 ‘올해의 사회주부상’을 받게 됐다. 그가 꾸리는 열린 가정이 이렇게 험한 시대, 우리 사회에 꼭꼭 닫아걸린 모든 가정의 문까지 활짝 열어젖힐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

글 박미리/사진 조여권



“가난으로 단련되니 평생이 자유롭네요”

여성민우회가 주는 <올해의 사회주부상> 받은 공동체가정 조순실



“청소년 윤락 앞에서만은 제 자제심이
무너집니다”

40년만에 탄생한 첫 여성총경, 김강자

김강자 부총경
1위판문우승

행 인들을 아랑곳 하지 않고 대로 한가운데서 무섭게
패싸움을 벌이는 청소년들. 그들을 피해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면서도 연신 뒤를 돌아보며 가다가 “아저씨, 뭐
구경났어요?” 하는 편견 한마디에 뒤도 안 돌아보고 종종 걸
음치는 어른들. 그러나 용감히 싸움판 한가운데로 뛰어들
어 단호하고 정확한 어투로 ‘자신만만하게’ 패거리들을 설
득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문 여름 단비 한 줄기 같
은 싱그러움과 놀라움을 안겨다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3월 18일 여경으로선 최초로 총경직에 오른 서울남
부경찰서 김강자 방법과장(52)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
날 그를 포함한 총 75명의 총경들이 탄생했지만, 세간의 시
선은 그에게 집중됐다. 이번 인사에서 유일한 여성총경이
며 해방후 40년만에 두번째로 탄생한 여성총경이기 때문이
다. 그래서 이튿날 남부경찰서로 김총경을 찾아갔을 때 서
너 평도 새 안 되는 그의 사무실은 온갖 꽃향기로 질식할 듯
했다. 인터뷰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걸려온 축하전화 한통
한통에 김총경은 절도있는 상냥함으로 활기차게 그러나 간
단명료하게 응답하곤 했다. 그러나 이 ‘절도’가 일순간 열
기어린 ‘분노’로 돌변하는 순간이 있다.

“우리나라 어른들, 정말 많이 반성해야 돼요. 제 관찰구
역인 구로공단, 속칭 ‘별집’ (쪽방)에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들면서 자연스럽게 미성년 매매춘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런 애들이 밤에는 몸을 팔고 낮에는 환락계에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지만 길 가는 누구 하나 이런 애들에 관심조

차 없어요. 개내들이 자기 애들이라고 해보세요? 그냥 허죽
허죽 웃으며 바라보기만 하겠습니까.”

김 총경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이 가출청소년들의 ‘미래’
다. 눈에 쉽게 띄는 이들의 ‘일탈행위’도 문제지만, 강남의
유흥가에서 서터를 내리고 사회 고위층인사들을 주 고객으
로 끌어들이는 음습한 매매춘은 그를 한층 분노케 한다.

“앞으로 여성계와 힘을 합해 이런 윤락행위를 근절시키
고 싶습니다. 경찰이 밤낮없이 윤락가를 지키고 있어봐요.
누가 감히 어린 애들에게 윤락행위를 시킬 수 있겠어요? 그
러나 경찰 내부가 윤락업소 주인들과 검은 사슬로 연결돼
있는 한 힘든 일이죠...”

김 총경의 또다른 관심사는 경찰조직 내에서 여경의 위
상 높이기. 82년 여경조직에 첫발을 내디딘 그는 91년 경
정을 역임하는 등 1,500여 여경들의 대선배 역할을 다해왔
다. 88년 여경창설기념일 주창, 91년 여자형사기동대 설치
와 서울경찰청 내 여경 일직제도 마련 등 늘 ‘황무지를 일
구는 맘으로’ 최선을 다해온 개척자이기도 하다.

김강자 총경은 앞으로 여경 위상을 ‘합리적’으로 높이기
위해선 여경들 스스로가 “의무 없이는 평등하게 권리를 주
장할 수 없다”는 각오로 어떤 임무에도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

글 이은경(여성신문 기자)/ 사진 여성신문사

새 정부 여성정책 이끄는 우먼파워



새정부 여성정책의 최고사령부인 여성특위 우후정 위원장

김 대충 대통령은 생각보다 여성 등용에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다. 선거 전 국무위원 5~6명을 여성으로 하겠다던 공약을 떠올려본다면 오히려 여성계가 무안할 정도의 결과였다. 쓸만한 인물이 없는데 어찌겠느냐는 투의 항변을 늘어놓는 새정부측에 여성계는 상당히 실망하는 눈치다. 물론 여성계 안팎에선 준비된 여성이 부족하다는 자성도 없진 않다. 하지만 언제 한번 기회를 줘야 연습도 해보고,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번이야말로 그런 기회가 아니냐고 반박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턱없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새정부 조각이긴 했지만 여전히 새정부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던 여성계가 가장 시선을 집중시킨 곳은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이다. 여성부나, 정무장관실이나, 위원회나 불붙던 논쟁 끝에 낙찰된 여성특별위원회. 향후 5년간 새정부 여성정책의 최고사령부가 될 여성특위를 과연 누가 이끌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모두들 궁금해했다. 여성계의 기대 속에 출범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인선이 최근 이상덕 협력조정관의 임명을 끝으로 모두 완료됐다. 우후정 위원장을 사령관으로 총 41명의 인선이 확정된 것이다.

여성계 실망시킨 새정부 조각(組閣)

우후정 위원장은 그다지 개혁적인 인사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개혁적인 이미지와 여성운동의 대표성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 최초의 여성 헌법학자, 초대 한국여성학회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윤위원장은 여성학이라는 이름이 생소한 70년대 초반 일찌감치 여성의 인간화를 앞세운 논문을 발표하면서 여성학이라는 학문을 예고했던 인물로 평가받는다. 한경남도 안면

이 고향. 홀홀단신 월남해 험거운 유년시절을 보냈지만 그의 인상은 참 온화하고 넉넉하다. 제자들에게 그리움의 대상으로 남은 채 떠나게 돼 기쁘다는 말을 퇴임이 변으로 털어놓을 정도로 정이 많은 사람이다.

여성정책 최고사령부, 여성특별위원회

우후정 위원장의 법학과 제자이자 여성운동 후배인 차명희 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이 여성특위의 실세 자리인 사무처장직에 올랐다. 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으로 있으면서 가족법 개정운동을 주도한 차명희 사무처장은 부소장직을 그만둔 뒤, 왕성한 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에 비하면 한동안 뜸한 생활을 했다. 그 때문에 여성특위의 가장 외외의 인물로 꼽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림자 보좌역과 소리내지 않고 꾸준히 업무를 켜기는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겠느냐는 게 주위의 평이다.

여성특위의 주요 여성정책과 국회 답변 및 홍보 등을 책임지는 정책조정관에는 장성자 전 정무장관 조경관(54)이 임명됐다. 66년 이대 영문과 졸업. 83년 한국여성개발원이 출범할 때부터 연구원으로 활동. 12년간 개발원에서 생활하다 96년 정무장관실로 자리를 옮긴 장조정관은 세계화추진위원회 '여성참여10대과제' 선정 당시 실무팀장을 지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드러내놓고 일을 벌이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일단 일을 맡기면 확실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민간단체와 '다리놓기'가 주요 업무인 협력조정관은 이상덕 전 서울여성의 전화 회장(43)이 맡게 됐다. 이대 의류직물학과 76학번. 졸업후 잡지사 근무를 하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 발을 디디면서 여성운동의 길을 걸었다. 박영숙 전 평민당의원 보좌관, 한국환경정책연구원, 북경세계여성대회 NGO 총무, 한국여성의 전화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여성단체에서는 소문난 마당발로 통한다. 여성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오숙희씨와 쌍벽을 이루며 무대에 설 정도로 입심도 좋다. 80년 광주가 아니었다면 연극배우든 연극학 교수가 됐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활발한 성격.

여성특위 과장급 여성들도 다채로운 이력의 인물들이다. 정책조정관실 정책담당관 나영희(40)씨는 국민회의 여성국장 출신이다. 80년 숙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재야활동을 하다 89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정책실장을 지냈다. 국민회의 입당은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의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아직도 대학생이냐는 질문을 간혹 받을 정도로 소녀 이미지가 강한 얼굴이다.

나영희씨와 함께 국민회의에서 여성특위로 자리를 옮긴 협력조정관실의 조성은(35)씨는 87년 평민당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정당에 발을 디뎠다. 여성국, 연수원, 지방자치위원회 등 당직을 두루 거



여성특위 장성자 정책조정관



여성특위 이상덕 협력조정관



여성특위 이복실 총무과장



행정부 황인자 여성담당관

친 조성은씨는 국회의원회 내에서는 박선숙 청와대 부대변인, 김현미 국회의원회 부대변인과 함께 차세대 여성주자로 점쳐져 왔다. 이대 정외과 81학번, 남편은 국회의원회 출신의 경기도 의왕시장이다.

올해 초 총무과장에 임명되면서 최초 여성 총무과장 탄생으로 화제를 모았던 이복실(37)씨도 여성특위에 합류했다.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79학번, 행시 28회 출신, 교육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나 여성정책에 뜻을 품고 정부장관실로 자리를 옮겼다. 할 말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 딱 부러지는 성격의 소유자로 소문나 있다.

5개부처 여성정책담당관, 누가 될 것인가

여성특위 실무자들과 함께 새정부 여성정책의 브레인역은 5개부처에 신설된 여성정책담당관들이 맡게 된다. 여성정책담당관이 들어서는 부서는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교육부, 이 가운데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확정됐으나 나머지 부서는 5월 공채를 통해 6월경 확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에 임명된 조희진(36)씨는 우리나라 여성검사 2호로 현재 일선에서 뛰고 있는 여검사 가운데서는 최고 선임자이다. 고대 법학과 81학번, 사시 29회, 90년 서울지검 형사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수원지검을 거쳐 법무부로 옮기기 전까지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근무했다. 조희진 검사가 법무부에 발령을 받음으로 해서 법무부에는 여검사가 총 2명으로 늘었다. 법무부 검사 가운데 여검사는 최윤희 검사와 조희진 검사 두 명, 최윤희 검사는 조희진 검사 다음으로 검사에 임관한 여검사 4호이다.

행정부 여성정책담당관은 황인자 전 정부장관2실 조정관(43)이 맡게 됐다. 82년 5급 특채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체신부를 거쳐 88년부터 정부장관실에서 여성관련 업무를 추진해온 그는 알아주는 여성정책통이다. 외대 영어과와 서울대 정치학 석사를 마쳤다. [E]



최진숙

여성신문사 사회부 기자



한국영화 사상 칸영화제 경쟁부문 첫 진출, 조은령 감독의 <스케이트>

청각장애 소년에 대한 회상' 그려

지난 3월 한국 영화계에는 반가운 소식이 하나 날아들었다. 97서울단편영화제에서 예술공헌상을 수상했던 영화 <스케이트>가 칸영화제 단편영화 경쟁부문에 선정된 것이다. 51년 역사의 칸영화제에 장·단편을 통틀어 한국영화가 경쟁부문에 진출한 것은 처음이어서 총무로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영화를 만든 조은령 감독은 뉴욕대학을 졸업한 스물다섯 살의 서울도박이다. 대원외고 2학년시절 영화를 공부하기 위해 단신으로 미국유학을 떠났었다. 대학 4년 동안 찍은 습작들은 그가 영화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도발적인 실험, 기상천외한 풍자 대신 광범하지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삶의 진솔한 이야기들.

16mm영화 <가난한 사람들>은 집 없는 중년과 정신지체아 소녀의 우정을 담은 대학시절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졸업후 8개월만에

제작한 <스케이트> 역시 12살짜리 소녀와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소년의 짧은 만남을 그린 영화다. 스케이트를 타다 우연히 만난 한 소년이 말 못하는 방어리움을 알고 도망쳤던 어린 날의 기억,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기억을 떠올리며 안타까워하던 어느 아주머니의 마음을 그리는 한편의 서정시처럼 맑고 담백한 영상으로 그려냈다.

영화에 유난히 장애인에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대학시절의 체험 때문이다. 유학시절 한 인교회에서 만난 뇌성마비 친구. 그로 인해 알게 된 장애인단체 <말알>, 장애인들의 몸을 씻기고 공부를 가르치고 심부름을 하면서 그는 이전엔 알지 못했던 수많은 종류의 신체적 장애와 그로 인해 겪는 인생의 깊은 고통을 이해하게 됐다.

독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한 조은령 감독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조은령 감독의 <스케이트> 한 장면

의 일상에 있다. 그는 진지하게 말한다.

"경험하지 못하면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고 노력하지 않으면 영영 달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 조은령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 이유다.

김윤익(경향신문 기자)

동덕여자대학교 여성학센터 개관

여성 박물관, 도서관,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어

동덕여대 정문을 들어서면 고풍스러운 옛 건물들 앞에 신식자재를 뽐내고 서 있는 멋진 5층 석조건물이 눈에 확 띈다. 지난 4월 7일 개관한 동덕여대 여성학센터가 바로 그것. 연면적 812평에 지상5층 규모다. 여대라는 점을 살려 장차 사회적 수요가 클 여성학을 특성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설립됐다. 조원영 총장의 얘기를 들어보자.



여성학센터 전면의 모습.

"'여성교육'이라는 본교의 설립정신을 살

리고 앞으로의 시대변화를 대비하여 늦었지만 여성학육을 대폭 지원하려고 합니다."

세련된 외관 못지 않게 여성학도서관, 한국 여성연구소, 여성박물관 등으로 구성된 내부도 일한 내실을 자랑한다. 1,2층에 자리잡고 있는 여성학도서관은 1만4천여 권에 달하는 동서고금의 장서를 소장하고 최첨단 정보검색 시스템까지 갖춰 학생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

는 곳. 3층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동덕여대 여성학의 예가. 한국여성연구소가 나온다. 이어 4층과 5층에는 여성관련 민속학적 유물이 망라된 여성박물관과 춘강기념관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동덕여대 연구소는 기존의 여성연구소들과 달리 현장과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아직은 시작 단계라 미흡한 점이 많지만 빈민운동 등 줄곧 현장에서 활동해온 김경애 소장은 이 점을 열두에 둔 연구활동을 하겠다는. 연구소 한편에는 상설 전시공간도 마련돼 있다. 센터 개관에

맞춘 첫 전시회에서는 <배를 타는 일본군> 등 위안부 고 김덕경 할머니의 그림 22점을 감상할 수 있다. 개관해서 일주일 동안 무려 1,000여 명의 학생과 일반인들이 다녀갔을 정도로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이 학교 학생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문을 개방했다. 출입시 별다른 준비할 것도 없으며 여성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대학의 문턱을 낮추고 편안한 공간, 열린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에 서다. 지역주민은커녕 졸업생에게도 여간 까

다롭지 않은 국내 여타 대학들의 고자세와 비교해볼 때 여간 고무적인 현상이 아니다. 개관식에 참석한 민주당 이미경 국회의원은 "하드웨어는 만들어졌다.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 곳을 찾는 이들의 몫이다"라며 코멘트. 그의 말대로 여성의 창의력과 주체성 확립에 기여할 동덕여대 여성학센터의 의미있는 자리매김을 기대해본다. 참, 동덕여대에는 99년 하반기부터 국내 최초로 학부에 여성학도가 생긴다! 이진화



지난 5월 1일, <여성후보자 공동출정식>을 가진 여성정치네트워크.

여성정치네트워크로 미래 여성정치가 키운다

피보면, 여성후보자의 출마결정을 도와주는 일부터 시작해 유권자접촉, 연설, 이미지에이킹, 홍보 전략, 자원봉사 활용방법, 기금 확보 방안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 및 방

법에 대한 교육이 주가 됐다. 여성지도자 교육프로그램이 중점을 두는 것은 여성을 위한, 여성에게 맞는 선거운동 전략을 교육하는 것. 실무진의 얘기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 남성후보자들은 이미 공조직을 경험하고, 시조직까지 갖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여성들의 경우 옆에 아홉은 조직기반 없이 출마합니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자원봉사자나 어머니회, 부녀회, 교회, 사회봉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98 지자체장 선거를 계기로 4개 여성정치단체가 여성정치네트워크를 만들었다. 4개 단체란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이 네트워크는 지난 2월 4일 발족해 여성후보자들의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시켰으며 지난 5월 1일에는 '여성후보자 공동출정식'을 가자 여성정치세력의 가시화를 꾀하기도 했다. 숨가쁘게 움직여온 이들 단체의 활동을 살

피보면, 이러한 남녀의 차이를 파악해 선거전략을 세우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후원금이나 기금마련에서도 그 차이는 드러난다. 남성들은 소수에게서 다액의 후원금을 지원받지만, 여성후보자의 경우 다수에게 소액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바자회나 기타 후원회 등을 통해서 썸짓돈을 모으는 것이다. 이들은 보다 실제적인 교육을 위해 전·현직 여성정치인들에게서 실제 경험담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고 또 선거 연설문을 직접 작성해 모의 선거연설회도 열었다. "여성과 남성은 출마 동기부터가 다릅니다. 남성후보자들은 개인적인 명예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지극히 남성적인 욕망에서 비롯하지만, 여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녀회라든지 학부모회 등 초보적인 사회활동과 지역활동 내에서 실제의 문제들과 부딪쳐 싸우고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정치의식이 싹틔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자신의 생활정치 경험을 살려 지방정치인으로 제도권 내에 들어간다면 더 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점들을 무각시키고 힘을 북돋아주는 교육을 합니다."

후보자 교육에 있어서의 어려움도 만만치 않았다. 아직까지도 '정치는 남성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의 낙후된 인식과 가부장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여성후보자들이 쉽게 단념하게 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남자들은 출마하는 것 자체가 명예가 되지만, 여치구나 없게도 여자의 경우는 잘못하면 편히 집안 안심시켰다는 소리를 듣게 돼 출마하기 전 자신의 가족과 시댁부터 설득해야 한다는 것

이다. 합숙훈련에 참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엄마와 아내 역할, 해야 할 가사일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점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현역 남성정치인들의 부정 부패와 이권개입이 노골화되면서 깨끗하고 꼼꼼한 여성의 이미지가 유권자들에게 신선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여성정치인의 재선율이 높은 것도 이를 증명해준다.

그간 공천과정에서의 불공정 사례와 여성 공천할당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많은 선거를 치렀지만 이번 선거가 끝난 후

에도 4대 여성정치단체는 연계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을 생각이다. 아예 상설화된 여성정치교육의 장을 열어두고, 여성들이 지역구의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감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에서부터 깨끗한 정치를 통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여성정치가 지방생태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함이다.

이진화

IMF시대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들, 생계가 위태롭다

10여년 경력의 35세 미성년 0모씨는 지난 해에 입사한 20여 명 규모의 봉제공장에서 2개월이 넘어도 월급을 주지 않아 97년 11월에 할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었다. 아이 둘을 탁아소에 맡기고 있었기 때문에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할 바에야 탁아비나 아껴는 셈치고 집에 있어볼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일용직의 남편도 작년말부터 급격히 일이 줄어들면서 차 맥없이 일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시 취직을 했는데 여기서도 2달이 지나도록 월급을 미루고만 있다. 동료들과 힘을 합쳐 체불임금을 요구해 보고 싶어도 그나마 취직하기 어려운 시절인데 행여 잘못 찍혀 그만두라고 할까봐 많은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다. 게다가 요즘엔 현장분위가 너무 살벌해 모두 죽은 듯이 일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씨의 아같은 사례는 지난 3월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상담사례다.

IMF 한파에 가장 혹독하게 몸을 드러낸 이들이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이다. 특히 이들은 퇴직금이나 저금 등의 여유금액이 없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바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여성고용관련 전문상담기관인 <평등의 전화>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인천, 마산, 부산에서 상담받은 총 161건의 사례 중에 임금체불이나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고용불안 상담이 131건으로 81.4%를 차지했다. 이 고용불안 사례 중에서도 임금체불 건수가 가장 높고(50.4%), 그 다음이 정리해고(39.7%), 개별해고(5.3%) 순이다.

또 상담자의 64%가 기혼이며, 미조직 사업장이 89.5%, 30인 미만 사업장이 70.5%를 차지해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혼 여성노동자들의 고충이 더욱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에는 파출부, 간병인, 식당

일까지 35세까지만 좁은 추세에서 40대 이상의 기혼 여성노동자들은 한번 실직당하면 더욱 갈 곳이 없다.

평등의 전화는 상담사례들을 분석하면서 무엇보다 '고의성 체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핑계로 잇속을 챙기려는 악덕기업주들이 고의적으로 월급을 주지 않거나 지불 횡수를 줄인다는 것이다.

이모씨가 다니던 회사는 97년 12월말부터 휴업을 했다가 98년 1월에 부도를 낸 후 인근에 회사명과 사장 이름을 바꿔 다시 회사를 차렸다. 그리고 사원 130명 중에 80여 명만 개별적으로 입사를 시켜 현재 공장이 가동중이다. (마침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상담사례) 또 일거리는 줄지 않았는데 사장이 폐업신고를 냈다고 말하면서 직원들에게 4개월째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와에도 정규 여직원 전원을 계약직 또는
일용직으로 돌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거
나 수습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 수습사원 전원
을 해고하는 등의 부당해고, 잔업이 늘어났는
데도 잔업수당을 주지 않는 등의 부당노동행

위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평등의
전화의 주장이다.

특히 영세사업장 기혼여성노동자들의 경우
남편이 대부분 임시직, 일용직 등 고용불안정
이 심각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엔 실질적인 생계부양자가 되는 경우
가 많다. 따라서 이들 기혼여성노동자들에게
실업에 대한 대책마련과 취업촉진을 위한 적극
적인 정책의 수립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다.
박이라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주택건축 상담 무료로 하세요."

일반인도 쉽게 건축에 대한 무료상담을 받
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작년 5월부터 한국여성
건축가협회는 (주)대우건설과 여성건축설계
사무소 소장 8명으로 상담팀을 꾸려 주택건축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매주 화요일(오전 9시~오후 6시) 대우건설
주택문화관에서 여성건축가협회 회원 중 소장
급 건축가 8명이 주택의 신축, 증개축에 대한
건축법과 기본적인 공간계획, 행정절차, 예상
공사비, 공사기간, 건축설비, 건축시 제세공
과금, 건축재료 등 전반에 걸친 내용을 상담
해주고 있다.

큰 규모의 건축상담이 아닌 '집'에 관한 이
야기인지라 처음 이 기획을 준비했던 대우건
설측은 주부층을 주 이용층으로 보고 여성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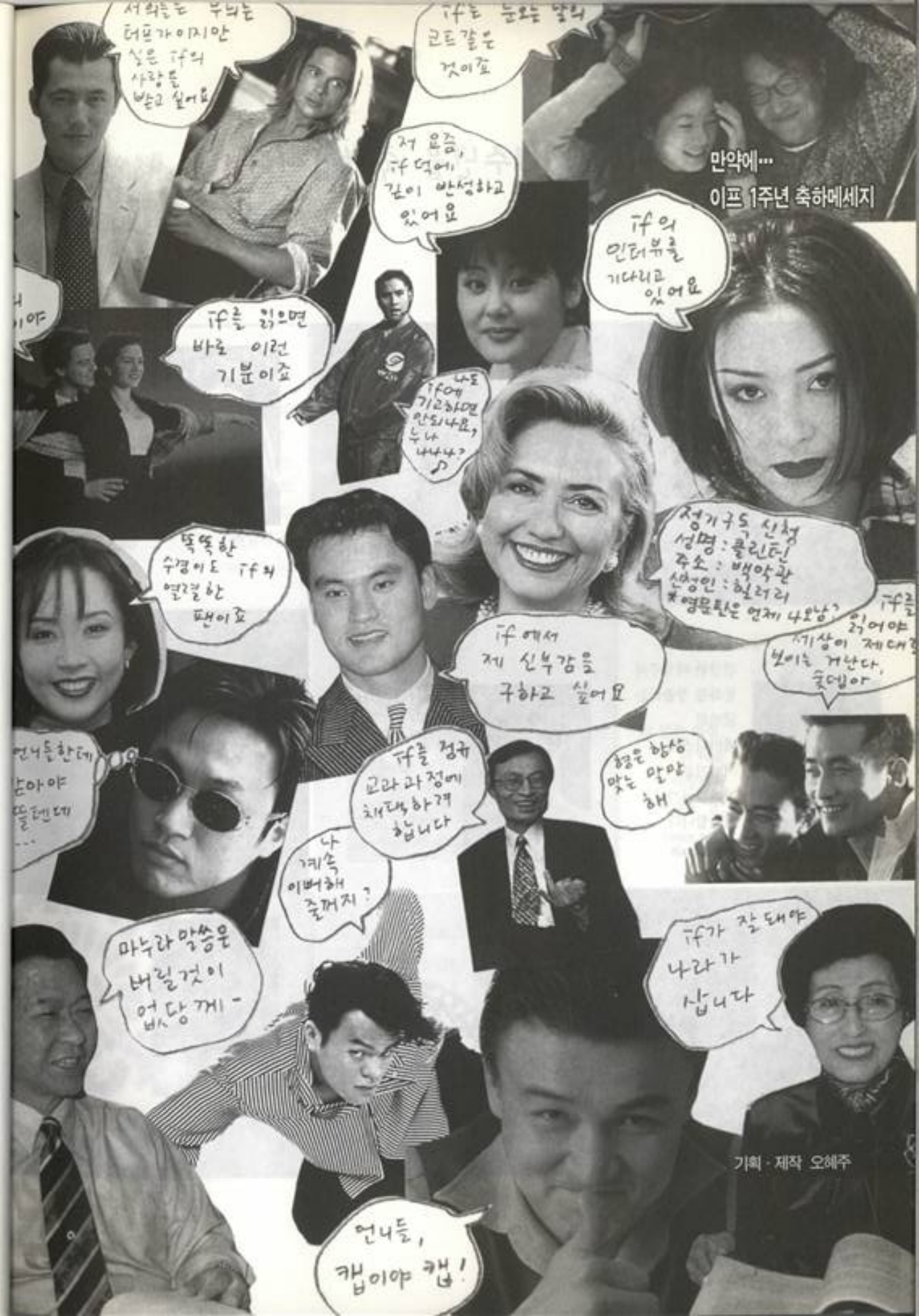
축가협회측에 의뢰를 했다. 이에 전문능력
을 지닌 여성건축가협회측에서도 흔쾌히 사회
봉사를 자처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상담객의 대
부분은 남성들이었다. 부동산을 소유한 여성
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예상했던 여성상담객은 적었지만 일년여 동안
무료상담을 하면서 보람있는 일도 많았다.

"궁금한 점을 꼼꼼히 조사해 A4용지 한 장
짜리 질문지를 만들어오신 70대 할아버지
손님이 있었어요. 건축에 관한 논문 같은 그
질문에 답하느라 꼬박 세 시간이 걸렸지요. 적
극적인 자세로 찾아오는 분이 있으면 대담도
성실해지지요. 이런 일들을 통해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박영순 상화건축사무소 소장의
말이다.

그러나 상담예약이 두 달씩 밀리던 작년과
는 달리 요즘은 경제위축으로 상담객이 뜸하
다. 이에 대해 박소장은 "자투리 땅이나 재테
크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경기가 풀릴 몇 년후
를 대비해 지금부터 건축계획을 잡고 천천히
실행해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한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전화예약 후 직접 방
문을 하는데 구청에서 발급하는 가족대장, 토
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지적도 첨부), 대
지·건물의 현황사진이나 도면 등을 준비하면
짧은 상담시간을 알차게 이용할 수 있다. (전화
예약 (02)259-5454)

김영선



만약에...
이프 1주년 축하메세지

기획·제작 오혜주

IF 창간1주년을 축하합니다



21세기 여성의
미래, IF가
선도하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후경

IF는 삶이
힘겨울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꿈과
희망입니다. 창간
1주년을 마음껏
축하드립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신여경



2천만 여성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되소서.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양애



여성미디어
운동의
선구자.
힘있는
여성언론으로
우뚝서길
기원합니다.

국회의원 권영자



건강한
여성공동체는
세상을
바꿉니다.
IF 1주년을
축하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장성



폭넓은 가슴
열린 지면으로
여성운동의
지평을
확대해나가는
IF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정희경



우리나라의
건강한 여성주의
문화를 창출하는
굴지의
페미니스트
저널지로
자리잡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국회의원 이미경



첫돌을 축하하며,
세계일류의
페미니스트지로
비약하길...

국회의원 김장숙

뿌리깊은 병케, 성찰을 통해하는
부기되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 이사장 김원복

IF가 있어 여성들의 앞날이
밝습니다.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이호재



건강한 여성주의
문화를 선도하는
IF의 창간 1주년을
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회의원 김명선

더 많은 여성,
더 아픈
여성들과
함께하는 IF.

국회의원 임진솔



당당하고
외연하게,
그리고 큰
목소리로.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
김현미



여성의 자존심을
담는 IF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회의원 오양순

여성의 주류화,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새정치국민회의
여성특별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새정치국민회의 동대문
김지구당 위원장 김희선



페미니스트
기업으로
우뚝서기를
바랍니다.

한-4052 부대변인 김영호





드라마작가 김정수에게 보내는 프로포즈

오한 숙희(여성학자, 방송인)

전 원일기에 이어 김정수의 대표적 히트작으로 기록될 <그대 그리고 나>가 끝났다. 섭섭했다. 실로 오랜만에 나를 태순이(텔레비전 중독자라는 뜻)로 복귀시킨 드라마가 아니던가.

아쉬움 속에 마지막회를 한참 보다가 나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내가 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동기가 기억났다. 그건 외숙모의 전화였다.

“애, 그 드라마에 여성학 교수라는 사람이 나온다. 그런데 좀 이상해. 네가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애. 한번 봐.”

도대체 드라마 작가들은 여성학하고 무슨 뎀수가 졌나. 얼마 전에는 일일연속극에서 화목한 대가족의 생활에 파란을 일으키는 며느리의 직업을 여성학 강사로 설정하더니 또 이상한 여자가 여성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다구! 도대체 연속극들은 언제까지 대중의 현재적 정서만 고집하며 극단적인 인물묘사와 보수적인 여성관에 집착할 것인가.

홍 지성이나, 미숙이나

내가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무렵, 극 전개는 동규(박상원)와 수경(최진실)의 사랑 싸움과 결혼을 둘러싼 갈등에 가 있었다. <그대 그리고 나>라는 다소 진부한 제목과 연결시켜 볼 때 주제는 젊은 연인들의 사랑의 행로쯤이겠거니 싶었다. 어쩌다 가끔 보아도 박원숙 역의 여성학 교수님은 코믹한 양념 정도인지라 여성학 음해의 혐의를 두고 전무적인 시청 태도를 유지하기에는 다소 맥이 빠졌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미숙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혼전임신을 한 후 애증어린 복수전을 펼치는 그 당찬 여자를 보는 짜릿함에, 그리고 그 귀추에 대한 궁금증으로 나는 급격히 중독자가 되고 말았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게는 못 놔둔다. 망하면 같이 망해야 공평한 거 아니냐. 내 아이 내가 낳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나. 나는 이제 네 말 안 듣는다. 두고봐라. 억울해서 못 참겠다.

씩씩하게 야재장사를 해서 돈을 모으는 자립심과 부끄럽지만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는 책임의식이 있고 그 남자를 여전히 사랑하면서도 울며 불며 매달리지 않고 똑바로 조리있게 자신의 입장과 투지를 피력하는 그 여자는 살아 있는 여성운동이었다. TV에서 저런 여자를 보다니! 주말의 저녁 밥상에 오른 찐 반찬도 미숙을 보며 먹으면 달았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무렵부터 여성학 교수님에게서 중대한 혐의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여성의 자립을 외치며 독신주의를 고집하던 홍지성(박원숙)이 일명 캡틴 박으로 불리는 뱀사람 박재천(최불암)에게 매료당하는 중년의 로맨스에 불이 지펴지면서 여성학 교수님이 답살 돌는 애교꾼으로 돌변한 것이다. 제 아무리 지성을 외치는 여자도 남자의 야성 앞에서는 ‘그대 그리고 나’를 꿈꾼다는 메시지로 해석되었다. 그동안 내가 남자다운 남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홍지성의 대사를 들으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을 몇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화가 났다. 야한 여자는 자신의 남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좋고, 그런 것이 진정한 여자다운 것이라는 남자. 페미니즘 운운하는 여자들 보면 하나같이 남자들에게 별로 매력없는 여자들이라는 남자. 제가 사랑받지 못한 데 대한 적개심으로 남자 전체를 공격



오한숙씨

작가 김정수의
숙녀가 궁금해졌다.
미숙이를 보면
여성의 자립심이나
주체성에 대한
의식이 느껴지는
반면 홍지성을
통해서는 여성학에
대한 냉소를 떨칠 수
없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하고, 남자의 사랑을 받는 여자들을 질투해서 '신데렐라 콤플렉스', '착한 여자 콤플렉스' 하면서 비판한다는 남자 동등.

혐의는 박원숙의 연기력이 인정받는 것에 비례했다. 급기야 돈 많은 여성학 교수가 아이엘 에프 시절에 '처녀 결혼'이라는 명분으로 간장 하나 해서 먹어가며 모은 돈을 평평 쓰기에 이르렀다. 여성학 한다는 여자가 남자 하나 나타나니까 눈이 확 뒤집혀 그간의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깡그리 던져버린 것이다. 문제를 삼자면 이자놀이, 집장사해서 돈 번 여자가 여성학을 달고 사는 것도 배놓을 수 없었다. 여성학은 먹고 살 걱정 없는 여자들의 지적인 장신구라는 비난이 기왕에 없지 않았기에.

당찬 여자 미숙이는 해피엔딩했다.

오후, 동정이나 책임감 때문에 결혼하려는 건 싫어. 한

때는 오후를 미워하고 원망했지만 이제는 아냐. 얘기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고 든든해. 이제 됐어. 그 동안 미안했어. 다 잊어버려. 나도 잊을게. 우리 서로 좋은 것만 기억했음 좋겠어.

가슴 아파도 당차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주 자립을 관철하는 순간, 남자가 회귀했다. 미혼모라는 현실 앞에 상투적인 여성의 비굴함이나 궁상깨가 해결책이 아니어서 산뜻했다. 고통 속에서 인간적 성숙마저 획득한 것이 기쁘고 신났다.

홍지성은 물 먹었다. 마지막회에 드디어 그의 여성학 강의 장면이 떴다.

여자가 남자와 더불어 살며 행복하다면 더 좋지 않겠나. 남자는 서로에게 행복해지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아내가 힘들게 일하는데 신문만 보고 모른 척하는 남편은 행복해질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오늘부터 남자들에게 청소기 돌리는 것부터 가르쳐야 한다.

그 동안이야 어쨌든 강의 내용은 흠잡을 데 없었다.

작가 김정수의 숙녀가 궁금해졌다. 미숙이를 보면 여성의 자립심이나 주체성에 대한 의식이 느껴지는 반면 홍지성을 통해서는 여성학에 대한 냉소를 떨칠 수 없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악속장소에는 김정수씨가 먼저 나와 있었다. 아무도 그가 유명한 드라마작가임을 몰라봤다. 아줌마임을 자처하는 그는 사람을 아주 편안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행여 여성학 하는 사람이나 여성운동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까봐 조심스러웠으나 수다를 좋아한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하여 대화 분위기는 금방 무르익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여성학 교수라고 하면서 나오대요. 너무 놀랐어요. 그걸 듣고 환호하는 아줌마들을 보고 또 한번 놀랐어요. 제게도 겸임교수 요청이 들어왔어요. 난 제 분수를 알아요. 나 같은 사람이 가서도 안 되고 나는 내 일만 하겠다는 생각이예요."

홍지성이라는 인물의 창조 내력부터 물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있구요. 나를 포함해서 여자들은 다 닭살이라고 하는데 남자들은 아주 좋아해요. 제 남편도 무뚝뚝한 편인데 드라마 보는 모습을 보면 홍지성이 나왔을 때 눈이 좀 가늘어지면서 웃음이 배어나더라구요. 사실 박원숙씨 연기에 힘입어 인기를 얻는 바람에 애초의 계획보다는 역이 커졌어요. 드라마라는 것이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닭살 돋는 그 여자를 하필이면 여성학 교수로 설정했더라 말인가.

"아, 그거요. 솔직히 조금 비꼬는 마음이 있었어요. 요즘 교수라는 직함이 남용되는 것 같아요. 어디서 뭐든지 하나만 강의해도 다 교수라고 불러주고 스스로 교수를 칭하고 나오는 사람도 적지 않은 걸 보면서 그걸 꼬집고 싶었어요.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여성학 교수라고 하면서 나오대요. 너무 놀랐어요. 그걸 듣고 환호하는 아줌마들을 보고 또 한번 놀랐어요. 제게도 겸임교수 요청이 들어왔어요. 난 제 분수를 알아요. 나 같은 사람이 가서도 안 되고 나는 내 일만 하겠다는 생각이예요."

아버지의 딸 김정수

아마도 텔레비전이 만들어낸 여성학 교수 수업을 칭하는 것 같았다. 영향력 있는 작가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여성학에 대한 곡해나 거부감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사

뭇 비장한 마음까지 먹고 있던 나로서는 교수에 대한 세태를 풍자하려 했다. 니 일이 좀 싱겁게 되고 말았다. 다만 대학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진짜 여성학 교수들이 많은데 그 한 사람을 모델로 삼아 결과적으로 여성학이 회화화된 게 아쉬웠다. 그러나 여성학의 대중화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페미니즘의 상품화가 스쳐 같은 여성학 교수의 등장을 부른 것이니 더 뭐라 할 것인가.

"인터뷰하기 전에 if잡지를 미리 보내주셨더군요. 대학에 다니는 우리 딸 애가 보고 아주 재미있다고 열심히 보네요. 내가 여기 나간다고 엄마 같은 사람 거기 나가면 혼날 텐데 하고 놀리더군요."

딸의 입을 빌어 if의 눈에 비칠 자신의 한계를 미리 말하는 것 같았다. 아무리 아줌마를 자처해도 예리한 감각을 가진 작가임에랴.

김정수는 어머니의 딸이기보다 아버지의 딸로 자랐다. 여수의 부잣집 아들로 자란 그의 아버지는 멋쟁이요, 문화적으로 호사가요. 딸들에게는 대책 없는 익애형 아버지였다. 딸들에게 설거지 한번 안 시키고 그 시절에 생일케익까지 사줘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게 했던 아버지. 특히 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는 글 잘 쓰는 딸 정수에게 돈독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는 남편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문제가 적은 않은 분



김정수씨



김정수가 대본을 읽던 드라마 <전원일기>

“친구들과 결혼
얘기를 할 때면 다들
‘선택받을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선택은 내가 한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할거라고
말하곤 했어요.”

이셨어요. 그러나 지금도 저는 아버지 얘기만 하면 행복하고 수다스러워져요. 어려울 때도 아버지 생각을 해요. 갓 결혼하고 한동안 가난하게 살았는데 돌아간 아버지가 날 보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아버지, 나 이렇게 힘든 것 잠깐이에요. 걱정 마세요 하고 혼잣말처럼 했어요.”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항상 칭찬받고 자유롭게 살았던 덕에 그는 남자에 대해 피해의식을 느끼지 못했다. 같은 드라마작가로서 절친한 사이인 박진숙씨가 가족내의 딸아들 차별문제를 다룬 <아들과 딸>을 썼을 때 정말, 그런 집안이 있느냐고 물었을 정도이다. 오히려 남자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다.

“친구들과 결혼 얘기를 할 때면 다들 ‘선택받을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선택은 내가 한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할거라고 말하곤 했어요.”

칠 년 위인 남편과 결혼할 때 김정수는 아주 적극적이었던 모양이다. 특별한 결혼관은 없었고 잘 생긴 외모에 반해서, 동생의 담임교사이자 친구의 오빠인 남편을 신랑감으로 내심 점 찍었다. 처음에는 동생 친구로 어련히 취급하던 남편이 대학생이 된 어느날 그를 보더니 많이 컸다고 했다. 그리고 결혼해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았다.

만미느리이지만 시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고부갈등도 없었고 신문문에 당선 작가로, 그리고 지금은 대학교수로 있는 남편은 그의 재능과 글쓰기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동생들과도 별탈 없고 여동생들도 순탄하게 살고 있다. 잠깐 직장생활을 하긴 했지만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서만 살았고 드라마작가라는 직업은 철저한 능력평가제라 차별임금도 없다.

이러한 성장배경과 생활환경이 그로 하여금, 남성에 비해 차별받고 억압당하는 여성에 대한 인식보다는 더불어 사는 남녀의 모습에 자연히 더 끌리게 만든 것이리라.

김정수의 미숙이 기질

그렇다고 김정수가 여자로서 무풍지대에 살았던 것은 아니다. 신혼초 남편이 밥상을 얻은 적도 있었다. 남편이 힘들 때 부당하게 그에게 화를 많이 냈었다. 남편의 밥상 시집살이는 지금도 여전한 부담이다. 그는 어차피 살아야 할 결혼이라면 저항하느라 에너지를 쓰지 않기로 작정했다. 부유한 가정에서 옛날식으로 잘 차려먹던 게 몸에 밴 남편을 반찬 투정이 고질병이려니 이해하고 접어주었다. 전기밥솥도 최근에야 쓰기 시작했고 얼마 전까지 장을 집에서 담가 먹었다. 밥상에 단백질 식품이 없으면 괜히 죄책감이 느껴진다.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낼 때는 이 불길이 잦아들고 나면 까닭을 물으리라 하고 넘겼다. 남편에 대한 존중도 구식으로 한다. 남편 신발 똑바로 놓기, 남편이 보는 신문은 미리 안 펴보기, 맛있는 것 남겨줬다 주기,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최고라고 말해주기 등등. 드라마 작가가 된 이후에도 남편의 술손님 치다꺼리를 즐겁게 했다. 물론 마감 때는 속에서 깨우는 소리

가 났다. 저 사람들이 빨리 가야 내가 글을 쓰는데...

그러던 어느날 그가 폭발했다.

“남편 앞에서 울기는 제면 상하는 일이지만 나를 당신 여동생이나 딸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울면서 대들었어요. 처음이었지요. 너무 힘들다고 다리 뻗고 울었어요. 남편이 뭐 나가버려요. 울음이 한번 터지니까 마냥 나오는데 오랜시간 울고 나니 시원하더라구요. 다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나가서 술 한잔 하고 왔나봐요. 그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다고 하면서 이해하대요. 그게 나의 ‘인내주의’로 유지되어 오던 부부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깨진 시점일 거예요.”

그는 자신이 그 때까지 수퍼우먼 강박증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아버지를 짝듯이 모시는 어머니를 보고 자랐고 성격적으로 남에게 모진 소리 못 하고 남에게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는 그로서는 필연적인 증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힘에 부치는 순간 대들어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가능한 한 참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는 것이 또 김정수의 퍼스널리티이다. 될 수 있는 한 휘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되짚기는 대나무 같다고나 할까. 불에 구우면 제 형태를 고집하지 않고 돌돌 말리는 오징어가 질긴 것과 닮았다고나 할까.

신혼초 단칸 셋방에서 머리 굵은 시동생과 책상을 가운데 놓고 살았을 적이다. 가식없이 대했다. 시동생이 화내면 한술 더 화내기도 했다. 마찰은 있었으나 뒷끝은 없었다.

그리고 보면 <그대 그리고 나>에 나온 미숙이, 수더분하고, 순애보적인 기질이 있는 가운데 당찬 미숙이라는 캐릭터는 김정수 자신이 모델 아니었을까.

실제로 드라마에서 미숙의 상대 역인 영규의 대사는 그의 체험담이기도 하다.

“병원에서 내가 낳은 아이를 보는 순간 내가 느낀 건 패배감이었어.”

그 역시 첫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이 꼬리를 내리는 걸 확실히 느꼈다고 했다. 그는 생활 속에서 밀고 당기는 인간관계로서의 남녀관계, 부부관계를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는 듯했다.

“우리가 헤어지면 음식 때문인 줄이나 알라고 말해요. 다음 생애는 꼭 바뀌어서 살

드라마 <엄마의 바다>의 한 장면





자난 4월 중영한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

아보자는 말도 하구요. 주말부부인 덕분에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스럽지만 남편에게는 진짜 미안해요. 함께 내려가지 못해 미안하고, 부부동반 모임에 못 가서 미안하고, 서울에 올라와도 원고에 쫓겨 외롭게 하니 미안하고, 내가 똥똥해도 애교를 부려요. 앞으로 5년만 지나봐, 나 안 시켜줘서 글 못 쓸거야. 그때는 우리 여행도 다니고 매일같이 놀러 다닙시다. 이렇게 말해요. 저 여자가 바빠서 그렇지 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느낌을 주는 거지요. 가끔은 내 취향이 아닌 영화를 남편이 원해서 함께 볼 때가 있어요. 싫은 일도 상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부부 아니겠어요?

결혼생활을 현재까지는 성공이라고 자평하면서 단호하게 내가 희생한 덕이라고 말하는 김정수. 그전 인생에서 글쓰기라는 탈출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임을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또 한가지 그 글쓰기를 지키기 위해 그는 다른 모든 것을 결연히 접어두고 사는 것이다.

일하는 여자, 김정수

그는 자신이 좋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행복으로 꼽았다. 그러나 드라마작가라는 일이 결코 녹록한 일은 아니다. 글을 쓰다보면 그는 머리카락을 한올한올 뽑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머리카락으로 신을 삼는다는 말은 들어있어도 머리카락으로 글을 엮는 줄은 미처 몰랐다. 시간에 쫓기고 시청률에 쫓기니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행여 평범한 아줌마임을 자타가 공인하는 작가 김정수를 보고 나도 드라마작가나 한번 되어볼까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어려서부터 글재주를 인정받았다. 일찍부터 어른들의 신문, 소설을 많이 읽었다. 처녀시절 온갖 종류의 문학상을 휩쓸면서 글쓰는 일이 낯설지 않았던 사람이다. 게다가 그는 대단히 성실한 모범생이다. 처음 드라마작가가 될 때 PD가 고쳐오라는 대로 고쳐다주는 순발력과 성실성을 보여 공채 열 명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 당시 그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고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 모르게 밤새워 글을 써서 촉박한 일정에 반드시 맞춰줬다. 요즘 살이 쪼는 것도 직업병의 하나이다. 먹고 나서는 졸곤 앉지만 있기 때문이니. 드라마에는 시청률이 숙명이다. 그는 시청률 경쟁의 일선 소대장이다. 상대사와 비교해서 잘 안될 때는 방송국 고위층으로부터 밥 먹자는 연타이 온다. 비상대책회의인 셈이다. 동보가 되더라도 좋으니 시청률이 몸무게만큼 올라갔으면 싶은 순간이 정말 있다. 시청률 1% 높이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는 소설 지망생이었지만 돈을 벌기 위해 드라마를 택했다. 그런 만큼 프로의식은 철두철미하다.

요즘 살이 쪼는 것도
직업병의 하나이다. 먹고
나서는 졸곤 앉지만
있기 때문이니.
동보가 되더라도 좋으니
시청률이 몸무게만큼
올라갔으면 싶은 순간이
정말 있다.
시청률 1% 높이기
얼마나 어려운지.

"20년전 두 해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선배들에게 실망했었어요. 설거지하기 싫어 나왔다. 시어머니랑 있기 싫어 나왔다. 그래요. 오후에는 시계만 보고 도중에 시장 갔다고, 직업인의 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새 남편의 제자들을 봐도 그게 여전하더군요. 철저히 못하면서 여자라고 특혜를 부여받으려는 것이 싫어요."

그의 철저한 프로의식은 세상이 무섭다는 것을 안 데서 비롯되었다. 믿었던 아버지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쓰러지시자 퍼뜩 철이 들었다. 세상에 믿을 건 아무 것도 없다. 나 밖에 없다. 그러면 조심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중심을 잡게 된 것이다.

그는 돈을 벌어서 멋있다고 했다. 친정동생들 밥도 사주고 뭐든 사서 나눠 먹을 수 있고. 그러나 남편 모르는 돈은 없다. 당신이 밤잠 못자고 번 돈이니 당신 알아서 하라고 해도 심리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뭘 할 것인가 꼭 의논한다. 그래도 관리는 스스로 하고 명의 또한 내 이름을 지킨다.

"사람이 돈 가지고 백화점만 다니라고 해도 미칠 것이고 부업일만 하라고 해도 미칠 거예요. 부업일이 즐거운 건 신혼초 잠깐이고 의무로 하는 것이지요."

드라마 원고가 지겹고 쓰기 힘든 일이지만 그는 일하다 죽었으면 하는 게 소망이다. 글 쓰는 일이 그에게는 사는 것 자체이다.

일하는 여성으로서 김정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첫째가 설거지 스트레스.

"나는 말괄량이 폐백식 설거지가 제일 부러워요. 식탁보چه 들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끝이니깐. 지금은 식기세척기 발명자에게 감사드리요. 젊어서는 설거지 쌓아놓고는 못 배웠는데 지금은 점점 하기 싫어. 고 3파리 아들보고 설거지 시켰더니 애가 신문에 날 일이라고 하면서 설거지를 하더군요."

그렇다고 고 3아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건 아니었다. 입시에서 아들의 성적이 평소보다 못 나왔을 때 그는 자책했고 미안해서 혼자 울었다. 그러나 하향지원을 해서라도 그냥 둘 어가라고 했다. 왜? 재수생 엄마노릇을 할 수 없어서. 프로의 세계에서는 개인사정이 통하지 않으므로, 그는 프로작가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했으므로.

그는 제사 때 완제품을 사다가 한다. 음식도 다 된 것을 사다가 대접한다. 일을 하려면 돈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다 사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가 뭐라고 하면 웃으면서 맞아. 내가 한 거 아냐. 돈 주고 사왔어 하고 넘긴다. 시동생이 제사를 격식대로 밤 12시 넘어서 내자고 하면 평소에는 맘씨 좋은 형수지만 단호하게 싫어한다.

김정수는, 여성들의 삶에 소비나 반복적인 단순노동 이상의 일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인인 셈이다. 착한 여자와 착한 여자 콤플렉스의 차이를 보여주는 실존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그대 그리고 나>에서 현대여성 수경을 그리면서 페미니즘적 시각을 안 가지려

고 생각했다. 드라마는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믿어서였다. 항상 평범한 현실에서 소재를 찾고 현실에서 포착한 조각들로 드라마를 엮어내는 것도 자연스러움을 추구해서이다. 과장하지 않으면서 현실 속에 얹혀 있는, 정 각각 흥 각각의 질긴 끈들을 울음이 갈라 보여 주는, 김정수 드라마의 매력이 예서 나온다.

드라마 작가 김정수의 잠재력

그는 수경이를 일도 열심히 하고 남편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처한 역할들에도 몰라라 하지 않는 현대여성으로 그림으로써 노력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들에게 일침을 가하려고 했었던 것 같다.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수퍼우먼을 꿈꿨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숙의 편에 서서 자기 남편에게 대항하는 자기 주장은 주목할만하다.

당신 여동생이 그 입장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솔직히 아버님이 (다른 배에서) 민규도련님 낳은 것부터...

맹목적으로 가부장제에 순종하는 며느리는 아니다. 그 집에 시집간 이상 그 집의 며느리 역할을 하지만 울음에 대한 자기관철이 있는 것이다. 내가 김정수라는 작가와 그의 드라마에 관심을 갖는 지점이 여기이다.

〈그대 그리고 나〉를 쓰면서 아이엠에프 한파로 사내커풀인 수경이가 밀려나는 내용이 방영된 후, 몇몇 신문사 여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자신들도 그런 입장이라 하고 위협에 처해 있으니 제발 수경이가 복직되는 것으로 해달라고 했다. 원래 계획을 고쳐 그는 수경이를 복직시켰다. 여차피 전업주부로 만들 생각은 없었으니까.

지금은 그만두었지만 〈전원일기〉의 김희장 말머느리(고두심)에 대해서도 다시 쓴다면 워든 그 여자에게 일을 시켰을 것이다. 대졸 학력으로 시골의 전통적 가족의 순종적인 말머느리로 사는 구도는 그의 전임작가가 만든 몫이라 틀을 바꾸지 못했지만 가끔은 반란을 일으켜 유럽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전력도 있다.

그는 자신의 딸의 미래에 대해 직업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길 바란다. 엄마를 보면서 일하는 여성은 고달파서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못내 미안하고 걱정스럽다.

내가 김정수를 만나면서 애초에 여성학에 대해 어떤 혐의를 두었듯이 그 역시 if와 나를 만나면서 드라마를 이념의 도구화하려는 게 아닌가 혐의를 두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이미 드라마적인 페미니즘을 관철했다고 본다. 그 방법이 싱겁고 밋밋했는지라고 논박되지는 않은 덕에 속아지지 않고 대중들에게 전달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그가 인간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옳은 것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인물 하나하나를 따뜻한 시선으로 철저히 그의 입장이 되어 그려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이루어진 것이다.

그가 현실에 정직한 작가라는 것에 나는 믿음과 기대를 건다. 전원일기를 쓰면서 농촌

의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처럼 여성에 대해서도 현실의 폭을 넓힌다면 정말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그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흥미롭다.

“여자형제들끼리 모여서 어머니 웃는 얼굴 생각나고 했더니 다들 기억이 안 난대요. 남편에게 깍듯하고 자식들에게는 항상 검약정신을 강조하고 무섭기까지 했던 어머니. 이제 생각하면 아버지 대신 정신 차려서 기둥 역할을 하시느라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도 아버지보다 엄마가 뒷길igu나가 보였어요. 어머니 혼자 영화보러 자주 다니셨는데 그게 스트레스 해소법이었나 봐요. 국민학교 졸업이었지만 동네 아줌마들의 상담역 아니 조정역을 맡으셨었지요. 남편으로선 인색했던 철없는 아버지와 사느라 엄마가 진짜 고생했겠다 싶어요.”

아버지의 딸 김정수가 어머니의 딸 김정수로 어느 날 우리에게 뭔가 보여줄 것을 은근히 기대해 보는 것은 비단 나만의 욕심일까.

드라마작가 김정수를 통해 나는 확실하게 두 가지를 정립했다.

실리없는 명분(이론, 이념)에 집착하는 여성학이 되지 말자.

여성운동의 방향은 공동체적 정서에 입각한 인간해방이 되어야 한다.

휴머니스트 김정수, 그에게 나는 내연의 동업을 제의한다. ■

사진 조여권



주동상만화

新잡자는 숲속의 공주



나는 일본 문화가 재미있다



김지홍 지음 / 신국판 / 288쪽 / 값 8,000원

우리가 금지하고 있는 사이
전세계를 장악한
일본 문화의 파워와 현주소를 모르고
개방 여부를 논할 수 없다!

나는 일본 문화가 재미있다

김지홍(金智興)은 1964년에 태어났으며 1988년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게이오대학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같은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평소엔 만화,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등 대중 문화의 총체적 마니아였던 그는 일본의 대중 문화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은 덕분에 어느덧 비평가적 안목을 갖추었다.

1997년 7월부터 9월까지 <중앙일보>에 '김지홍의 일본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일본 대중 문화에 대한 종합 평론을 시작했으며 일본 문화 전반에 걸친 생생한 정보와 특색한 관찰이 드러난 그의 글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책은 기존의 일본 문화 소개 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히려 주체적, 공격적으로 일본 문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진취성을 독자에게 전달하려 한다.

일본대중문화비평가 김지홍의 일본 문화 제대로 읽기



명진출판 전화/ 021312-5364
팩스/ 021393-5214

● if의 창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사진모델 최형준

남자 대탐구

- 총론 남자를 알고 싶다
- 남자의 생각 남성다움의 신화는 깨졌다/ 홍진숙
"여자를 만나러 가십니까? 그러면 채찍을 잊지 마십시오."
남성철학자들의 여성혐오주의/ 류숙림
남성노동요에 드러난 성과 사랑/ 박미라
- 남자의 마음 남자들의 이야기, 사랑 그리고 여자에 대하여/ 김경훈 외
어떤 여자의 남성편력기, 무기여 잘 있거라!/ 이부아
- 남자의 성 야후씨의 섹스다이어리/ 배종훈
무기의 일생: 남자 또는 '개'라고 불리는 당신에게/ 이호인
- 남자의 네가지 유형 당신의 남자는 어떤 유형인가요?
- 남자 BEST WORST "아우, 아하면서 애매하면서도 자적이면서도 뭐 좀 그런 남자 없나?"

남자를 알고 싶다

남자이기 때문에 누렸던 권력과 또 남자이기 때문에 느껴야 했던 억압은 동전의 양면이다. 동전의 양면은 마치 만화영화에 나오는 '아수라백작'처럼 분열되어 있다. 남성들은 이 분열의 그림자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그 고통을 분노로, 자기비하로 혹은 멧없는 방향으로 드러낸다.



남성은 여성의 적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남편이며 아들이다. 그들은 여성이라는 존재의 본질과 꿈을래야 꿈을 수 없이 얹혀 있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과 연관지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 남자와 여자는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만남이 없이 억압적인 관계들이 우리를 이끌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남녀 모두 고통받고 있다. 여성들은 남성에게 대해 또 남성들은 여성에게 대해 너무도 무지하다.

우리는 새로운 남성을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의계에서 온 새로운 인종이 아니다. 지금도 우리 옆에서 함께 부딪치며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바로 그 남자들인 것이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들이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고통스럽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들도 여성을 제대로 사랑하고 싶은 것이다. 남녀의 사랑의 결합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서로를 제대로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남자를 알고 싶다. 그들의 정직한 얘기를 듣고 그들의 정직한 느낌을 알고 싶다. 그래서 이번호의 특집을 '남자 대탐구'로 잡았다. 이 특집은 남성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돕고, 또 여성들이 경험하는 남자들, 여성들이 알고 있는 남자들에 대해서도 말하려고 한다. 즉 「남자 대탐구」는 남자를 알고 싶어하는 여성들과 여자들은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하는 남자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번 특집은 크게 남자들의 생각/남자들의 마음/남자들의 성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부분에서 여성들에게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몇가지를 주제로 잡아 이야기를 전개시켰다. 이번 호의 주제로 말미암아 if 역사상 가장 많은 남성필자가 참여했다. 필자들 모두 2번 이상 글을 고쳐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점 또한 이 기회에 감사드린다.

이 특집을 진행하면서 if는 여자들 못지 않게 남자들 역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절감하게 됐다. IMF한파, 하락하는 가장(또는 남성)의 위치,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주 역사가 오래된 남자들만의, 남자이기 때문에 겪어왔던 뿌리깊은 억압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남자이기 때문에 누렸던 권력과 또 남자이기 때문에 느껴야 했던 억압은 동전의 양면이다. 동전의 양면은 마치 만화영화에 나오는 '아수라백작'처럼 분열되어 있다. 아수라백작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한 몸에 자연스럽게 동화시키지 못하고 뚜렷한 경계선을 중심으로 분리시켜 놓았다. 남자들은 이 분열의 그림자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그 고통을 분노로, 자기비하로 혹은 멧없는 방향으로 드러낸다. 그 분열의 종류도 여러 가지다.

그 중 하나는 이 세상의 절반, 여성에 대해 느끼는 분열된 감정이다. 남자들은 예상 외로 여자들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 그것은 여성에 대한 혐오감으로 또는 경외심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그

극단화된 어떤 감정도 여성대상화의 극치인 것은 분명하다. (「남랑특집」(222쪽~231쪽) 참고)

자기 안의 여성성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당혹감도 남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들은 그것을 수치스러워하고, 학습받은 남성성으로 자신의 본성을 위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양심적인(?) 남자들은 그 위장에 대해서도 참을 수 없어 한다. 남자들이 직접 쓴 사례글(「남자들의 이야기, 사랑 그리고 여자에 대하여」(78쪽~89쪽))에서 우리는 그런 남자들의 고통에 찬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기 자신은 자신의 여성성을 인정할지라도 사회가 이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점도 고통의 원인이다. 남성적인 문화가, 남자동료들이,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애인까지도 그가 남자답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을 때 비난하거나 조롱한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남자들은 또 다시 불안해진다. (「남성다움의 신화는 깨졌다」(62쪽~65쪽) 참고)

네 번째는 물고 물리는 권력의 메카니즘을 아는 자들의 분열증이다. 「야후씨의 섹스다이어리」(93쪽~100쪽)에서 알 수 있듯이 완전히 지배만 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배하는 자도 누군가에게 지배당한다. 새디스트는 또 누군가에게는 매저키스트가 된다. 그걸 확실하게 경험하는 곳이 바로 공적인 영역, 즉 사회이다.

마지막으로 '당당한 주인'이 느끼는 혼란스러움에 대해서도 말해보자. 으리으리한 집에서 명명거리며 살던 주인이 있었다. 주인은 결코 물릴 수 없었으며, 그 집안의 모든 체계, 생활방식, 가치관 등은 주인의 편의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그에게 아내, 아이들, 하인들은 그저 TV모니터 안에서 움직이는 배우와 다를 바 없는 대상화된 존재였다. 그런데 그 아내, 아이들, 하인들이 자기들끼리 떠들던 것을 멈추고 주인에게 종알거리기 시작했다. TV는 꺼지지 않았으며, 그들은 모니터 밖으로 걸어나와 그에게 주인의 자리를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생각해 본다. '내가 혼자 쓰던 넓직한 방, 나를 위해 마련된 여러 가지 시설, 그릇과 침구 등을 이 사람들과 같이 써야 하나? 내 사고방식과 라이

프스타일도 바뀌어야 하겠지? 생각만 해도 모멸스러운 일이었다.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주인은 요즘 고민이 많다.

특집 「남자들의 사례」에서 보면 알겠지만 많은 남성들이, 여자들도 복잡한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존재라는 것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느낀다. 그들이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남자들처럼 지적인 허세를 부릴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참을 수 없어한다. 남자들의 그런 생각이 「여성혐오주의의 역사」(66쪽~73쪽)에 나온 남성철학자들의 여성혐오와 별다른 없음을 느낄 수 있다.

요즘은 여자들이 남자들에 대해 이야기 하면 남성 당사자들은 상당히 긴장한다.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닌데..."라며 일반화의 오류를 강력하게 지적하고 나온다. 늘 누군가를 대상화시켜 왔던 남자들이야말로 대상화가 갖는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대상화란, 한 인간이 자기 생각과 존재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확신하고 있을 때, 즉 주체의 자아가 너무 커서 세상을 압도해버릴 때 가능해진다. 그런데 이제 막 자아라는 걸 키워가고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한 여자들도 누군가를 대상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는 필연적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나는 나고, 남은 남이니까. 그러나 여성들은 이미 대상화됐던 경험이 있고, 또 자아보다는 타자를 더 주체로 모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만큼 극단적으로 세상을 대상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여성들은 이번 호 특집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아버지와 아들과 남편과 애인에 대해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편집부



남성다움의 신화는 깨졌다!

"목걸이 예쁘죠? 원래는 반지도 끼고 다녀요. 요즘 귀걸이 하는 친구나 후배가 많은데 어울리면 나도 할 것 같아요. 어울리지 않아서 안 할 뿐이죠."

홍진숙

슬퍼하지 말고 차라리 화를 내자. 재발, 홍진숙! 최근 내가 나에게 가장 많이 되뇌는 말이다. 나이를 먹은 탓인지 지친 탓인지 언제부터인가 '물제' 앞에서 화를 내거나 싸우기보다 주저앉아 슬피하는 데 익숙해졌다. 한번 슬피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해 보고 나니 그것도 '문제' 푸는 방식의 하나로 내게 인지되고 곧 습관이 되었다. 인간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슬퍼하고, 아까운 힘들에 의해 사람들이 조롱당하는 걸 봐도 슬퍼하고... 슬픔은 무기력을 낳고 곧 여자가 아닌 자가 되려 연결되었다. 수렁이었다. 슬퍼하지 말고 화를 내세요! 모두들

"남"성은 강하고 절대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며 감정을 쉽게 드러내서 군림할 수 있는 자질도 갖춰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말은 바 의무와 책임을 철두철미하게..."

전통적 의미에서 본 '남성다움'의 규범들이다. 누구든 이런 강박관념에 눌려 사는 건 힘든 일일 것이다. 그래서 그 규범이 위태롭다고 느낄 때 인간은 과잉행동과 폭력, 무고한 자기학대, 연민, 파괴로 뒤틀릴 수밖에 없다.

1993년 여성모임 <사랑>의 한 사람으로 그 당시 남성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서 『남성연구-때론 밟지만 함께 가야 할 반쪽에 대한 보고서』라는 책을 낸 적이 있다. 그 당시 남성들의 사고와 행동을 연구, 분석하면서 대다수 남성들에게서 '남성다움'이라는 신화에 눌린 과잉행동과 자기마저 파괴하는 공격성을 많이 보았다.

그후 5년이 지나고 다시 그 주제로 우리시대 남성들을 보게 되었다. 정말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토록 강력하던 '남성다움'의 신화가 이 시대 남성들에게는 더 이상 위력이 없음에 먼저 놀랐고, 다음으로는 '남성'이라는 존재기반이 이제 드디어 남성에게도 피해의식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제 남성들도 더 이상 자신들이 성차별 구조의 수혜자가 아님을 깨닫는 것 같아 반가웠다. 성차별 구조에 의해 더 많이 억압받던 여성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다분히 엄살 같기는 하지만 말이다.

나는 이 글에서 어떤 주장이나 결론을 보여줄 생각은 없다. 그러기에는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남성들의 변화상이 너무도 크고 다양했다. 그것에 대한 정밀한 접근은 다음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내가 만난 남자, 여자와 '남성다움'의 신화에 대해 편안하게 나눈 이야기들을 스케치하겠다. '남성다움'에 대해 남자들은 무척 혼란스러워 했던 반면 여자들은 예리하게 문제들을 짚어냈다. 균열되는 당사자와 냉정하게 지켜보는 사람들 간의 차이인지.

'남성다움'이 현재 남성들에게 어떻게 존재하느냐는 물음에 많은 여자들은

대뜸 '신경질'이라고 대답했다. 용감하고 아량있고 능력있는 남자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데서 오는 신경질이 요즘 남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역설적인 대답이었다. 가사노동 중 남성들의 일이라는 통념이 강한 가구용기기와 가전제품 수리 문제를 둘러싸고 여자들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자.

"저는요, 장농을 옮기거나 간단한 가전제품 수리는 남편 없을 때 혼자해요. 말기면 망가뜨리거나 하지 시원한 물을 못 보거든요." (32세, 공무원)

"잘못하면서 괜히 신경질은 왜 내요? 난 그게 더 신경쓰이는데." (35세, 보험업)

"열에서 보조 잘하는 사람에게 생트집이나 잡구. 이불 저불 안 보려니 아예 내 손으로 하는 게 마음 편해요." (39세, 주부)

현실에서 물리고 속까지 드러내 보이는 우리시대 남자들의 모습을 불보듯 환히 보여준다.

그러나 40대 장년층 남자의 생각은 사뭇 다르다. 여전히 완고하다.

"남자다움요? 용기있고 경제력 있고 참을성 있고 활력있고 포용력 있는 거죠. 또 제재하면 안 돼요. 음식타박을 해서도 안 되고 술 잘 먹고 술값도 잘 내야 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큰 것은 어려운 시기에도 아내와 자식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보여주어 안심하고 살게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어렵고 가진 것이 없어도 말이죠." (43세, 영업)

전통적인 남성다움에 대한 모범답안에 가깝다. 또 아주 구체적이다. 준비된 듯 이야기가 쏟아져나오는 것을 보면 평소 그 그래야 한다는 자기견제가 강한 사람인 듯싶다. 그렇지 못한 남성들에 대한 불만이 많거나, 그래서 요즘 젊은 남성들에 대한 40대 남자의 생각이 궁금했다.

"조직이나 집단을 위해 희생하려는 사람들이 전혀 없어요. 가족주의나 개인주의로만 툭툭 뭉친 쪼다 같은 남자가 많이 생겨 기분 나쁘죠. 집에 빨리 가려고, 술값 안 내려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여자한테 꼭 쥐어사는 걸 한눈

에 알 수 있다니까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런 놈들을 보면 내가 모욕감을 느껴요."

40대가 남성다움에 대해 여전히 거품을 무는 것에 비해 20~30대 남성들은 남성다움에 대해 별 개념이 없었다. 평소 '남성'이라는 존재기반이 주는 갈등이나 자극이 크지 않은 이유인지, '남성다움'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거의가 뜨악한 표정으로 눈동자만 굴렀다.

"남성다움이라고요? 별로 생각해본 적이 있는데, 별 의미 없잖아요." (25세, 대학생)

그래서 질문을 돌려보았다. '남자답지 못하다. 남자라는 사실에 갈등을' 느낄 때가 언제냐고.

"남자는 아량있고 너그러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럴 때 기분이 나쁘죠. 예를 들면 여자친구와 길을 가다 여자친구가 아는 남자를 만났을 때 내 태도 같은 거요. 길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허허거리고 때로는 내가 자리를 피해주기도 하는데 속마음은 전혀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22세, 대학생)

"친구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술을 사달래요. 돈이 있기는 했지만 다른 데 쓰기 위해 모아둔 돈이었어요. 그러나 남자가 쏠까봐 뭐냐는 생각이 들어 술을 사줬죠. 며칠 동안



안 속이 쓰렸어요.”(25세, 대학생)

이제 학생들이어서 그런지 솔직한 대답이 차라리 웃음을 머금게 한다.

“남자면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의라 생각하면 뛰어들어 싸웠죠. 그런데 사람들은 ‘바보 아냐’라는 식으로 바라보았어요. 저만 손해보고 귀찮아지는 걸 철이 없어 저런다는 거였죠. 나중에는 나도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29세, 회사원)

“남자 다 필요 없어요. 하도 빌빌대는 남자들을 많이 본 탓인지... 모 아니면 도지. 체면 때문에 결단성 없이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사는 남자를 보면 내가 되려 화가 나요.”(30세, 회사원)

“가정경제의 중심이 되지 못했을 때 남자답지 못하다는 갈등이 심합니다. 아내가 교사이고 저는 자리잡지 못한 작가예요. 아내가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제 돈벌이가 시원찮을 때마다 괴롭습니다.”(39세, 작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책임질 일이 더 많아졌을 때 남자들의 갈등은 더 심각해졌다.

어쨌든 요즘 남자들은 남성다움을 더 이상, 남자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보편적인 미덕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 보다는 개개인이 선호하는 개성쯤으로 치부했다. 그래서 ‘남성다움’을 지성, 우수, 유머 등의 품목의 하나쯤으로 놓고 취사선택하는 분위기였다.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의 상품화 논리의 영향이 크다. 연예계가 ‘예쁜 남자’, ‘귀여운 남자’, ‘터프가이’ 이미지를 만들어 하나의 상품으로 내세우고 세일하듯 보통 남들도 자신의 특성에 맞는 이미지를 잡아 중점개발하는 양상을 보였다. 요즘 남자들 사이에서 헬스가 다른 어떤 스포츠보다 인기있는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보였다.

“헬스요? 배 집어넣고 몸 만들려 다녀요. 여자친구가 배 나온 걸 싫어하거든요. 기본운동을 많이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건강에는 별 도움이 안돼요. 그래도 집중적으로 살을 빼고 근육을 만드는 데는 최고거든요.”(30세, 회사원)

‘남성다움’ 근육을 만든 사람은 그 근육을 부각하는 옷차림을 즐긴다. 몸에 꼭 달라붙는 바지, 줄티를 입은 남자를 보는 것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근육도 하나의 치장으로 여기는 추세이니 목걸이, 반지, 귀걸이 등 장신구에 거리낌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남자답다’라는 체형을 갖춘 남자들이 장신구 사용에 더 적극적이었다. 이들이 왜소한 남자에 비해 자신의 몸을 이미지업할 수 있는 유리한 특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탓인 것 같았다.

“목걸이 예쁘죠? 원래는 반지도 끼고 다녀요. 요즘 귀걸이 하는 친구나 후배가 많은데 어울리면 나도 할 것 같아요. 어울리지 않아서 안 할 뿐이죠. 주변에서도 하든 말든 상관 안 하는 분위기예요.”(22세, 대학생)

더 이상 힘이나 몸 쓸 일 없는 현대 사회구조 속에서 힘과 용기라는 본래적 의미의 남성다움이 해체되어가는 것은 당연한 흐름일 것이다. 이는 예전에 남성다움을 보증받던 수표처럼 여겨졌던 군대를 회피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다. 남자들은 더 이상 ‘남성다움’에 대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데 오히려 여자들의 남자 바라보는 시각이 더 분명하고 보수적이다. 10대 여성은 남성다움을 힘 중심으로 바라보고 20대는 포용력과 야망, 가정을 책임지는 성실함으로, 30대 이상은 거의가 경제력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각 연령대별로 여성들이 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였다.

“나한테는 힘자랑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의 폭력이나 힘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남성다움 아니예요?”(13세, 초등학교생)

“근육, 거친 말투, 저돌적 행동은 이제 쇼일 뿐이죠. 액션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직도 어깨에 힘넣고 강한 남성을 내세우는 남자를 가끔 봐요. 그런 남자, 남자들 세계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는지 몰라도 여자들한테는 무시당해요. 후카시잡는 게 우습잖아요. 장가 가기도 힘들걸요. 그 보다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인간으로서의 덕성을 갖춘 남



자들이 인기있어요.”(25세, 회사원)

“돈 버는 게 그나마 남성다움의 척도죠. 무슨 짓을 하든 돈 많이 벌면 남성답다고 인정받잖아요.”(32세, 공무원)

여자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우리시대 남자들은 어떻게 느끼는가. 많은 남자들은 여자들이 되려 남자들에게 남성다움을 강요해 부담스럽다고 침을 뱉었다. 절대로 이 성토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듯이.

“있을 수 있는 실수에도 무슨 남자가 그러냐. 남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 아니냐며 따지고 나오면 아주 미치겠어요.”(25세, 대학생)

“부담스러워요. 남자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인데 너희는 특별도 많이 받았고 일하는 조건도 훨씬 좋지 않느냐며 힘든 일을 떠넘길 때는 억울하기까지 하죠.”(29세 회사원)

“말로는 평등이 어떻고 하지만 실제로는 남자들이 여자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태도를 하면 아무리 능력있는 남자라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30세, 회사원)

“남자들이 대범하다고들 하는데 사실 착각이죠. 아무래도 여자들이 자잘한 일을 많이 처리하다보니 큰 결정을 앞두고도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정을 잘 못 내리죠. 반면 남자들은 자잘한 일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 큰일에 대해 막연하죠. 그래서 대범할 수밖에요. 나중에는 스스로 대범한 줄 알아요. 그래서 책임지지 못할 말과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은 말거놓고 타박해요. 모순이죠.”(39세, 작가)

마지막 사람의 이야기는 특히 중요한 것 같다. 남자와 여

자가 모여사는 사회 속에서의 단순한 역할분담이 그 사람의 본성처럼 되어버리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짚고 있으므로. 그리고 그 함정에 다시 빠져버리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이제 이 글을 마칠 때가 되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반가워하다가 고개를 가우뚱 하는 마음의 널뛰기를 계속하였다. 한 순간 희망이다가 다음 순간 아니고 마는 것의 반복...

“남성다움요. 그것 사람들이 만든 댕 아니예요? 스스로를 압박하여 끌어버리게 하는... 괜한 자괴지심일 때가 많더라구요.”(25세, 대학생)

그러나 이 남자의 말은 결국 나에게 희망 쪽의 손을 들어 주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살아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다. 67년생으로 이제 서른두 살밖에 안 먹었지만 내가 여성이라는 것에 눈 뜨고 나서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받았던 질서와 두려움이 만만찮은 탓인지 변화를 낙관하지 못한다. 그러나 남자가 ‘남성다움’을 댕이라고 인식한다면 함께 힘을 모아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석연찮음이 있다. ‘남성다움’의 균열을 밀고오는 동력은 사회구조의 변화였지만 그 현상을 많은 남자들이 이기심에 영합하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많은 남자들이 분명 남자로서의 짐은 벗어던지고 싶어했지만 여성의 짐을 나누어질 생각은 별로 없어 보였다. 이 기회에 이전 시대 남자로서의 의무만 피하고 보자는 생각은 아닌지. 그래서 ‘남성다움’의 책임에서 해방된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책임에서도 해방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노파심.

작년 연말부터 불어닥치기 시작한 IMF의 회오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변화를 몰아오고 있다.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IMF는 우리사회 남성다움의 물적 토대를 해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 예감이다. 이제야말로 인간주의의 고삐를 더욱 확실하게 틀어쥐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



특집 | 남자의 생각

“여자를 만나러 가십니까? 그러면 채찍을 잊지 마십시오” — 니체

남성철학자들의 여성철학주의

류숙렬

문화일보 기자, 본지 편집위원
이번 글은 쓰는 데 특히 힘들었다. 여성철학주의는
흔히 철학자들만 아니라 우리 주변 남자들의
일상적인 발언에서도 늘 발견하는 것이지만
철학대사전에도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았고 심지어
페미니스트사전에도 항목이 없었다. 기부장제
역사만큼이나 긴 여성철학주의 역사는 history가
아니라 herstory였던 것이다. 또한 남자들의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방대한 저작활동을
통해 일정한 사상체계를 갖고 있는 철학자들에 대해
그의 철학을 논하지 않으면서 여성에 관한 발언만
고집내며 비판한다는 것도 부담이 되었다. 여쭙든
그런 이 짧은 글에서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번 글을
쓰면서 “누 살로써가 니체와 눈이 맞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본 것은
그나마 즐거운 일이었다.

남 너가 사랑에 빠지는 것을 흔히 ‘눈이 맞았다’고 표현한다. 반드시 사
랑이 아니더라도 두 사람이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을
동등하게 대접하고 소통을 해야 하며 그러려면 눈을 맞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눈을 맞추지 않고 하는 대화는 한쪽의 일방적인 명령과 지시 그리고 다른 한쪽
의 무조건적인 접수나 복종 아니면 거부와 관계만 있을 뿐이며 그것은 일방통행
에 불과하다.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해야 비로소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랑
은 모든 만남의 궁극적인 형태인 것이다.

인간이 부딪치는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한 사유를 계속해온 철학자들은 이상
하게도(세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모두 남자들이었다. 그러면 고매하신 서양
의 철학자들은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을
‘결핍된 남자’라고 표현했고 니체는 ‘여성해방을 꿈꾸는 여자는 아이를 못 낳는
불임여성’이라고 말했다. 칸트는 “(감히) 그리스어를 배우기 원하는 여성은 턱
수염이 자랄 것”이라고 말했고 키르케고르는 “사유능력을 배우고 싶어하는 여성
은 여자답지 못한 여자”라고 말했으며 프로이트는 “남성사회에서 성공하고자 하
는 여성들은 ‘남근선명’에 의해 스스로를 거세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
했다.

2천 년도 훨씬 전, 철학의 꽃을 피운 그리스의 도시들은 거의 절대적으로 남
자들의 동아리였다. 지적 능력이 모자라고, 아름다운 감정을 표현할 능력이 부
족하며, 인간이란 종의 생식을 책임지는 데에만 쓸모있던 여자들은 규방에 갇혀
있어야 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호모였다

피타고라스에서 플라톤을 거쳐 스토아 철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지성의
역사는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혐오를 표현했다. 그들은 육체를 이성

의 단련에 방해되는 영원한 장애물이라 생각했다. 육체란 길으로 보는 것처럼
항상 화려한 것도 아니고, 계몽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육체
의 욕망은 성가실 정도로 여성과 연결지어져 있었다.

남자들은 철학을 했지만 그들이 고민한 것은 결론적으로 여자에게서 벗어나
는 방법이었다. 여자와 육체와 성욕은 그들에게 가장 큰 두통거리였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성적 욕구를 가라앉힐 처방을 가르쳐주었다. 즉, 성욕을 느낄 때
마다 성기를 세게 문지르는 수법이 그것이다. 어느날, 시장 한가운데서 디오게
네스가 자위행위를 하면서 “아! 이렇게 위장을 문지르면 허기를 가라앉힐 수만
있다면” 하고 말했다.

아테네의 체육장에서는 남자들간의 섹스가 온밀히 행해졌다. 신체단련을 위
해서 잘 생긴 젊은이들이 모두 옷을 벗고 거의 나체로 체육장에 들어선다. 그러
면 사랑의 감정이 이 젊은 남성들 사이에 부드럽게 스쳐가며 휘감는다. 서로 감
싸안고 신체단련을 하는 중에 조금씩 사랑의 감정에 날개가 솟아나오고 그들은
더 이상 그 감정을 억제할 수 없게 된다. 소크라테스가 체험한 감정도 바로 그것
이며 스승과 제자 사이의 거의 순수한 애정이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교육의 한
방편이 되었다. 그들이 경험하고 이상화한 사랑은 남녀간의 이성애적인 사랑이
아니라 남자들 사이의 동성애적인 사랑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남성은 신에 가깝고 여성은 동물에 가깝다고 생각했고 정신이 육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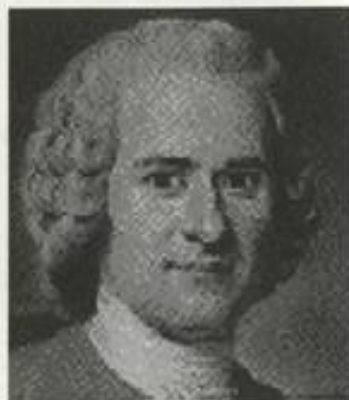


플라톤

2천 년도 훨씬 전, 철학의 꽃을 피운
그리스의 도시들은 절대적으로
남자들의 동아리였다. 지적 능력이
모자라고, 아름다운 감정을 표현할
능력이 부족하며, 종의 생식을
책임지는 데에만 쓸모있던 여자들은
규방에 갇혀 있어야 했다.



Man Maun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루소

“만약 내가 왕이라면 나는 재단일과 재봉일을 여자들에게만, 그리고 여자들처럼 달리 할 일이 없는 불구자들에게만 허용할 것이다.”
—루소

다. 이성이 감정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했으며 모든 열등한 것은 여성과 관련지었다. 그러나 부담스럽고 귀찮은 그들의 육체는 여자를 욕망했고 고매한 정신적 존재이고자 하는 자신들을 타락시키는 여성들을 경멸하고 혐오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단 한번도 여자와 눈을 맞추고 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여자가 빠진 애꾸눈의 철학을 꽃피웠고 모든 것을 사유했다고 오만에 빠졌다.

루소의 '시민'은 남자다

술한 남성철학자들 중에서 여성에 대해 특히 악명을 떨치는 사람으로는 쇼펜하우어와 니체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와 니체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루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인 장 자크 루소(1712~1778)는 불평등이 관치던 18세기 유럽사회에서 '남성들 사이의 불평등'에 대해 처음으로 비판의 메스를 가한 사상가이다. 불평등한 인간사회를 관찰한 그는 “불행한 인간들을 억압하는 압박과 억압자들에 대한 증오를 키워나갔다”고 고백하며 만민이 평등한 시민권의 개념을 세웠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시민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다.

루소는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게 태어났으며 수동적이고 소심하기 때문에 남성적 특성이 중요한 시민사회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히려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여성의 특성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여성의 천성적인 역할에 부합한다고 말하며 여성에게는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위한 교육만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을 위한 모든 교육은 남성과 연관시켜 이루어져야만 한다. 여성들은 남성들을 기쁘게 만들고 그들에게 살모있게 되기 위하여 또 자신들을 남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남자가 어릴 때는 그들을 교육시켜야 하며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돌봐줘야 하며 그들과 상의하고 그들을 위로해주어 그들의 삶을 달콤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전 생애에 걸친 여성의 의무이므로 유년시절부터 여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덕목들이다.

계몽주의자답게 루소는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그의 교육론은 육아박사 벤자민 스포크와 별 차이가 없다. 문제는 스포크 박사가 영유아 육아법, 즉 어린 시절의 아이키우기만 가르친 데 비해 루소는 여자들에게 마치 아이를 키우듯이 남자의 일생을 돌보라고 한 것이다. 그의 주장을 달리 하면, '남자는 여자들이 일생동안 돌봐야 하는 아기다. 그러나 여자의 지배자는 남자다.'

오늘 아이에게 젖을 먹이던 엄마가 내일 군인이 될 수 있는가? 여자가 카멜레온이 색깔을 바



쇼펜하우어

꾸듯 취향과 기분을 바꿀 수 있는가? 집안에 틀어박혀 집안일을 하던 여자가 갑자기 전쟁터의 위험에 노출되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가?

루소가 아마조네스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거나 남녀가 똑같이 병역의무를 지는 현대 이스라엘의 여군이나 혹은 걸프전에 참전한 미국의 여군들에 대해서 알았다면 견해가 달라졌을까? 루소의 여성차별은 남녀 성역할의 극단적인 구분으로 귀결된다. 남녀의 본성이 서로 다르며 그에 따라 남녀의 사회적 역할이 달라야 한다는 루소의 논리는 일명 여성차별이라고 몰아붙이기 힘든 측면이 있다. 더구나 인간사회 평등에 대한 열렬한 주장자로서의 그의 명성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루소는 남자에게 똑같은 교육을 시킨다는 생각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감을 표현하며 여성에 대한 교육은 남자와 아이를 돌보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여성에게 주어진 임신과 출산, 양육기능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지만 그가 시민권자로서의 남성에게 부여한 역할에 견주어보면 여성을 사회적 능력이 결핍된 불구자로 파악한 것 이상이 아니다. 성별에 따른 남녀의 기능과 역할에도 이미 위계질서가 잡혀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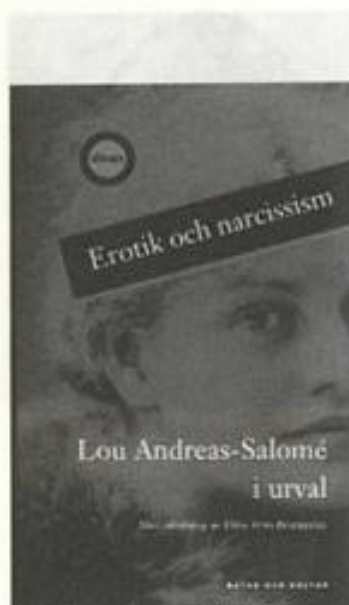
만약 내가 왕이라면 나는 재단일과 재봉일을 여자들에게만, 그리고 여자들처럼 달리 할 일이 없는 불구자들에게만 허용할 것이다.

루소의 성역할 구분론은 사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서구 철학의 아버지들이 세운 남성우월주의 전통을 이어받은 데 불과했다. 인민주권의 개념을 세운 계몽주의 철학자로서 인간사회의 평등을 역설했던 루소의 이론도 결과적으로는 남녀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작용만을 한 셈이다. 평등에 대한 개념도 사고 주체의 성별에 따라 이토록 다른 그림이 나온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쇼펜하우어에게 여자는 오징어다

쇼펜하우어(1788~1860)의 여성혐오증은 독설가로서의 그의 명성만큼이나 휘황찬란하다. 그의 여성혐오는 부연설명이 필요없다. 그러나 그는 성적 욕망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성적인 욕망이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정의내리고 짚기기에 ‘모든 실존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집요하게 끓어오르는 성적 욕구가 그에게 가져다준 고통을 통렬하게 비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고통을 선사하는 성욕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을 혐오했다.

세상의 본질은 고통을 지으려는 의지적 행위이다.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핵심



문학비평가로, 철학자로, 심리분석적인 전기작가로 이름을 날렸던 루살로메가 쓴 '에로틱과 나르시시즘'. 표지의 얼굴이 루살로메의 모습이다.

이며 진정한 본질이다. 바로 그것에 모든 실존의 목적이 있다.

진지하게 말하건대, 진실로 오염과 성교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 둘에는 덧없는 생각과 정지의 방울이 있다.

인간과 인간사회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견해는 철저하게 엄세적이다. 쇼펜하우어의 엄세주의적인 철학은, 부르조아혁명이 좌절된 이후에 등장한 왕정복고의 시대에 정치적으로 패배한 부르조아지의 엄세주의적 분위기와 아합하게 되어 유행을 타는 인기 품목이 되었다.

쇼펜하우어는 금욕과 단식 및 자유의지에 따라 빈곤한 생활을 하고 정절을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을 고통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내세웠지만 자신은 결코 그런 도덕론에 따라 살지 않았다. 그는 도덕론의 토대를 동정에서 구하고 있지만 바로 이웃에 사는 여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현관문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오래 서 있었다 하여 화창한 아침에 그 여자를 사정없이 지팡이로 때리기도 했다.

여성에 대한 그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그는 여성을 '종의 번식을 위한 존재'로, '거짓에 휘감긴 동물'로, '창조적 사고능력이 결여된 존재'로, '성숙하지 못한 유치한 존재'로, 파악했으며 '오만한 여자'는 멸종되어야 하며 '근면하고 순종적인 여자'만 남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여자는 오로지 종의 번식을 위해서만 창조되었다. 따라서 여자의 자질은 이런 역할에 모아져 있다.

오징어는 책을 물리치거나 적에게서 달아나기 위해 검은 먹물을 뿌려, 물을 어둡게 만든다. 여자는 이 동물과 너무도 비슷하다. 오징어처럼 여자도 거짓으로 온몸을 감싸며, 거짓말 속에서 편안히 해업한다.

유럽의 여자는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존재이다. 세상에는 집안일에 전념하는 가정적인 여자와 그런 여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어린 여자들만이 있어야 했다. 오만한 여자가 아니라 근면하고 순종하는 여자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그는 남자들에게 고언한다. 여자란 사랑할 가치도 없는 남자의 적이 다.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바보다. "사랑의 육화에 신음하는 남자들여, 꿈을 깨라!"(이 말은 마광수가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에서 한 말이다.) 자연히 그는 여자를 혐오하며(사실은 두려워하며), 독신으로 산 남자들을 칭송한다.

남자에게 삶의 절반은 매춘부의 애인 신세이며, 나머지 절반은 거세된 수탉 신세이다.

결혼한 남자는 삶의 짐을 몽땅 짊어진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그 절반만을 짊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철학자들은 거의 모두가 독신으로 살았다. 데카르트, 라



니체

이프니츠, 말브랑슈, 스피노자, 칸트가 그랬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지독한 여성혐오증에 대해 우리는 별로 놀라지 말아야 한다. 그는 여성혐오자일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주의자이며 편견에 가득찬 덜덜어진 철학자일 뿐이니까. 유태인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독설을 들어보자.

라이프치히의 장날이 끝나는 날이 바로 오늘날이다.

이제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기름찌꺼기의 악취와 유태인들이 물러드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명하게도 당산에서 선택하신 국민들이 전세계로 흩어질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신 하나 남에서는 그의 선민들 모두에게 특별한 냄새를 주셨다. 그 냄새 덕분에 그들은 어디에서나 서로를 확인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유태인의 냄새다.

쇼펜하우어는 인민대중이 미성숙하고 무능력하다고 생각해 세습왕정 즉 '신의 은총을 받은 지배자'의 통치를 가장 훌륭한 통치형태로 간주했다. 쇼펜하우어의 이런 생각은 니체의 초인사상과도 일맥상통한다. 쇼펜하우어가 위대한 철학자 반열에 든 이유를 지금 시대에 구태여 찾아본다면 '고추 하나 달고 나왔다'는 이유밖에 없는 것 같다. 사상가들을 점수 매기고 등급을 나눠 거기에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학과를 구성한 것은 남자들이니까.

루 살로메에게 차인 니체의 복수, '여자는 죽었다!'

쇼펜하우어로부터 많은 사상적 영향을 받았던 니체(1844~1900)는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를 드러냈다.

여성해방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이 그렇지 않은 여자들에 대해서 갖는 본능적인 증오감이다. 즉 해방을 선택하는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다.

여자가 학문적인 재능을 보인다면 심중할구 그녀의 여성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여자들이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때 그것도 질병의 징후이다. 그것을 모르는 의사는 아무도 없다. 오히려 진정 여자다운 여자는 손과 발을 동원하며, 그런 온갖 '권리'를 거부한다. 자연의 법칙, 그리고 끝없는 성의 전쟁은 진정 여자다운 여자에게 최고의 승리를 안겨다줄 것이다.

교육받은 여성에 대한 니체의 혐오는 그의 사생활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가 평생동안 가장 사랑하고 좋아한 여성은 프란츠 리스트의 딸이고, 뒤에 리하르트 바그너의 아내가 된 코지마 바그너와 루 살로메 두 여성뿐이다. 19세

라 브뤼에르 - 사람들은 학식있는 여자를 마치 예쁘게 만든 용기처럼 바라본다. 여자란 장식장 속의 장식품으로 호사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고 전쟁이나 사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올라타는 회전목마에 다름아니다.

해결 - 여자가 정부의 우두머리가 된다면 국가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여자는 보편적 요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일시적 기분과 우발적 의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키에르케고르 - 나는 심마몬자이고 색정몬자이다. 그런 까닭에 나는 사랑의 성격과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으며, 사랑의 존재를 믿고 사랑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알고 있다. 그런 까닭에 지금 나에게겐 정사는 길어야 6개월을 지속되지 않으며 최종 단계인 성관계를 즐기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개인적 의견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사르트르 - 여성의 음란함은 '벌려진 것'의 음란함이다. 다른 모든 구멍들이 그렇듯이 그것은 '유혹하는 존재'이다. 본래 여성은 삽입과 확대로 자신을 충만한 존재로 바꾸어줄 외부의 살덩어리를 유혹한다. 그리고 거꾸로 여자는 자신의 그런 조건을 하나의 유혹거리로 생각한다. 바로 여자는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다.

- 여자의 성기는 입이다. 페니스를 집어삼키는 탐욕스런 입이다... 그런 모습은 거세라는 생각을 떠오르게 만들 수 있다. 결국 성행위는 남성의 거세이다.

칸트 - 결혼으로 여자는 자유로워지고, 결혼으로 남자는 자유를 잃는다.

- 교육을 받았다는 여자도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를 활용하듯 책을 접한다. 그런 여자는 단지 자신도 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계를 차고 다닌다. 시계가 멈추어 있는지 정확히 따위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

- 격렬하게 사랑에 빠진 남자는 사랑하는 상대의 결점을 보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맹인이 되어버린다. 일반적으로 그런 중세는 결혼후 1주일간 계속된다.

니체 - 병자는 이 사회의 기생충이다.

- 비렁뱅이들을 없애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에도 화가 치밀고, 무언가를 주지 않는 것에도 화가 치밀기 때문이다.

- 생각이 깊은 남자는 여자인. 땅덩어리, 폭풍 감추어 두어야 할 재산, 즉 예측할 수도 없는 운명지워진 존재일 뿐 아니라 예측을 통해서 완성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우리의 육체에서 가장 천한 부분은 성기이다. 또한 인간이 스스로를 신이라 생각하는 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도 바로 이 성기이다.

- '육체'라는 현상 전체는 지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의식, 우리의 '정신', 생각하고 느끼며 욕구하는 우리의 의식 방법보다 상위에 있다. 이는 대수학이 구구단보다 상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 남자의 문제인 동시에 여자의 문제인 근본적인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주는 본질적인 대립성과 평행한 긴장의 필연성을 부인하면서 평등한 권리와 동등한 교육, 그리고 평등한 특권 및 의무를 꿈꾸는 행위... 이런 행위야말로 여자의 지적인 단순함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증거이다.

기 유럽의 기준에서 보면 코지마 바그너와 루 샬로메는 모두 독립적이고 해방된 여성이었다. 청년시절 니체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코지마 바그너는 매우 지적인 여성이었다. 연상의 여성으로서 코지마에 대한 그의 헌신은 나중에 바그너와 관계를 끊은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니체는 38세 때인 1882년 젊은 루 샬로메를 만난다. 니체는 그녀를 만나자마자 자신의 철학을 계승할 제자를 찾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그녀에게 쓴 편지를 통해 "나는 당신이 내 철학을 승계하는 데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당신에게 단계적으로 그 임무를 이행하게 할 계획을 세웠소"라고 썼다. 그는 자신의 승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루 샬로메가 처음이라고 말하며 여러 사람에게 그녀에 대한 생각을 반복해서 편지로 써보냈다.

그러나 루 샬로메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니체의 계획이라는 것이 그의 비서일과 성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루 샬로메가 니체를 만났을 때 그녀는 너무 젊었고 청교도적이었다. 그녀는 니체에게 자신에 대한 생각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고 니체는 그녀에게 쓴 편지에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이 나를 위해서 잃어주고 써주는 비서일을 해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소. 그러나 나는 당신의 선생이 되고 싶기는 했소.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내 사상의 승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소"라고 썼다.

그러나 루 샬로메를 좋아하던 니체의 연적들은 그를 매도한 것 같다. 즉 루 샬로메 주변의 남자들은 그녀를 니체에게 빼앗길 것이 두려워 "니체가 당신을 비서로, 정부로 착취하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한 것이다. 또한 니체의 어머니나 누이들도(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루 샬로메의 자유스러운 생활과 남자관계 때문에 니체에게 그녀와의 관계를 끊기를 종용했다.

니체가 루 샬로메를 만났던 해인 1882년 쓴 그의 글에서는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발견된다. 그는 가끔 오페라극장에서 여성의 강력한 콘트라alto 음성을 듣고 깨닫듯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혀 믿을 수 없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문이 갑자기 열리는 것을 경험한다. 뜻밖에 이 세상 어딘가에 고결하고 영웅적이며 충실한 영혼을 지닌 남자보다 더 능력있고 우월한 여성이 있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고 썼다. 그러나 루 샬로메의 거절로 인해 니체가 발견한 가능성의 문은 영원히 닫히고 만다.

루 샬로메는 첫 번째 결혼 이후 성적으로 개방적으로 되었으며 이후 독립적이고 분방한 생활을 영위했다. 그녀는 여성에 관한 많은 글을 썼으며 문학비평가로, 철학자로, 심리분석적인 전기작가로 이름을 날렸다. 그녀가 독일의 시인 라

이너 마리아 릴케, 노르웨이의 극작가 헨릭 입센, 지그문트 프로이트 등 당대 유럽 최고의 지식인들과 교류를 가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니체는 루 샬로메를 만난 지 10개월만에 관계를 끊어버렸다. 직선적인 성격이었던 루 샬로메의 냉정한 거절에 의해 끊긴 이들의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했다면 니체는 여성혐오주의자가 아니라 어쩌면 페미니스트 철학자가 되었을 지도 모른다.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사촌 누이이며 연인이었던 해리에트 테일러의 도움으로 '여성의 예속'을 썼으며 카를 야스퍼스도 그의 저작에 아내에게서 많은 사상적 도움을 받았다고 썼다.

니체는 루 샬로메에게 거절당한 직후인 1882년 12월 '영원과 결혼' 하고 '인생을 여자로', '고요한 사색의 순간을 정부로' 삼고 '은둔자'처럼 혼자 살기로 결심했다. 다음 해 1월부터 니체는 '파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집필을 시작했고 니체의 혐오증세는 이 책에서부터 극단을 달리기 시작한다.

여자는 깊이있는 책하는 꾀대기이다.

여자를 만나러 가십니까? 그러면 재빨리 잊지 마십시오.

여자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은 자식을 세상에 낳는 것이다.

여성에 관한 모든 문제는 하나의 수수께끼이며 여성에 관한 모든 문제는 하나의 해결책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임신이다.

니체는 1889년 정신병 발병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위협에 처하고 처음에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다가 나중에는 누이의 병간호를 받으며 살았다. 니체의 반민주적이고 반진보적인 사상은 극우적인 정치적 이데올로기들의 산파역할을 했다. 그는 파시즘의 정신적 선구자 중 하나가 되었으며 파시즘의 지도자들은 니체의 사상을 인용하여 파시스트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다. 그는 휴머니즘의 인간상에 대립되는 '초인' 상을 통하여 '군주적 인간'을 위한 세계관을 만들어냈다. **■**

루소 - 일반적으로 여자는 어떤 형태의 예술도 좋아하지 않는다. 게다가 어떤 예술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으며 예술에 대한 재능은 더더욱 없다.

쇼펜하우어 - 성적인 욕망은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결국 우리 인간이 지닌 욕망 중의 욕망인 것이다.

- 성행위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인간이 마음 속으로 수치스러워하고 그런 까닭에 감추려 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행위하는 모습을 남에게 들키기보다는 오히려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현장에서 붙들리는 것이 더 낫다고까지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그런 행위를 오로지 혐오스러운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 전 세계에서 여자란 존재가 무엇이든 진정으로 위대한 창조적 사고를 단 한번이라도 제시한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본다면 여자라는 존재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 유치하고, 경박하며, 편협한 여자. 따라서 여자는 일생을 몸집 큰 어린이, 즉 어린이와 남자의 중간적인 존재로 살아간다.

- 남자의 총기는 사랑에 의해서 흐려지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남자는 좁은 어깨와 커다란 엉덩이 그리고 짧은 다리를 가진 땅딸막한 여자를 아름답다고 말한다.

- 삶의 영역이 제한되어 있을수록, 삶은 행복하다. 따라서 병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불행하지 않다. 그들의 얼굴에서 만나게 되는 무늬무상의 평온한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남성 민요에 드러난 성과 사랑

“여게 곱고 저게 곱고 주인네마누라 거기 곱고
곱기야 곱지만은 궁텡이라 뿔뿔 말똥”

박미라(편집장)

우리나라 민요 중에서도 노동요(일할 때 부른 노래)는, 우리의 전통사회가 성별분업을 명확히 했던 만큼 여성요와 남성요로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 노동요에 나타난 남녀간의 차이를 보면 요즘의 남녀와 별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에 놀란다. 남자와 여자의 노래,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오늘날의 남성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 노동요의 세계로 들어가 본다.

유월이라 돌아와서 침을 끌어 부채를 샀네
구시월이 돌아오니 침의 생각이 절로 난다(모내기 노래)
파랑부채 청하도포 꽃을 보고도 지나치노
꽃이사 종건만은 남의 꽃에다 손을 댈까(모내기 노래)

음력으로 유월이면 한창 더워지는 때다. 더위에 못 이겨 침을 끌어서 부채를 샀는데 날씨가 쌀쌀해지는 9, 10월이 되니 따뜻하게 옆에 끼고 있을 침 생각이 다시 난다는 노래가 있다. 두 번째는 파랑부채를 들고 청하도포를 입은 선비가 예쁜 꽃(여자)을 봤다.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남의 남자의 것에 손을 댈 수는 없다며 '가부장제'의 성실한 수호자'로서의 태도를 드러낸다. 나의 것인 '부채'는 마음대로 팔아치울 수 있지만 같은 여자도 '남(그것도 남자의 것)'일 때는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가부장제의 물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남자들의 노래에서 여자들은 '부채'나 '남의 꽃'처럼 물건이 된다. 아니면 신체의 일부만 극대화되어 등장한다. 여자들은 때로 '구멍'이 되고, '궁둥이'가 되고 '젖통'이 된다.

여게 곱고 저게 곱고 주인네마누라 거기 곱고
곱기야 곱지만은 궁텡이라 뿔뿔 말똥(김매기 노래)
잠못잘새 잠못잘새 궁디(궁둥이) 시러 잠못잘새

뒹어주소 뒹어주소 한산소매로 뒹어주소(모내기 노래)
모시아적삼 반적삼에 분통같은 저 젖 보소
많이 보면은 뺨이 되고 아니나보면 상사(병)되네
(모내기 노래)

모심기를 하면 성관계가 연상되나 보다. 그래서 '곱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곱기야 곱는데 엉덩이라서 모가 자랄까 하는 우스개소리는 흡사 요즘 남자들이 즐겨하는 유머를 연상시킨다. 혹자는 이것을 가지고 양반(주인네)에 대한 풍자라고 흥분하는데 양반을 비난하면 할 것이지 그 마누라는 무슨 죄람.
노동이 가진 생산성과 성관계를 통한 인간 생산을 비유한 노래도 있다.

각각 집에 돌아가서 이팝브리밥을 많이 먹고
선짜같은 허를 물고 쇠불알같은 컷통을 쥐고
복통같은 배를 대고 마누라 궁둥이를 베비삭거리면
새끼 농부가 쑥 불거지니 이런 경사가 또 있느냐
(모내기 노래)

남성민요학자들은 이 노래를 곧잘 '노동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섹스에 대한 건강한 의식의 표현'이라고 평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어쩐지 불쾌한 느낌이 드는 게 솔직한 기분이다. 이 노래에서 여자는 그저 남성의 성적인 욕망을 해소해주고 자식을 낳아주는 대상,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마치 남자들이 여자를 커피자판기(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온다나 어떤다나)로 인식하는 요즘의 세태와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여자를 인간으로 대우해주는 노래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남은 어디가고 얼릴릴 상사디야
저녁할줄 모르시나 얼릴릴 상사디야(김매기 노래)

배가 고파 지은 밥은 어려구 저러구한다
돌도 많고 뉘도 많네 어려구 저러구한다
돌 많고 뉘 많은 것은 어려구 저러구한다
임이 없는 탓이로구나 어려구 저러구한다(김매기 노래)
오늘이 해가 어찌 됐노 골골마다 연기나네
우리 임은 어디 가고 연기날줄 모르시나(모내기 노래)

여기서 '님'은 밥하는 여자다. 농사일을 끝내고 석양이 질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집집마다 밥짓는 일로 분주하건만, 사고무친 노총각이나 홀아비는 썰렁한 빈집으로 찾아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다. 또 그런 이들은 여자가 살뜰하게 지어낸 깨끗한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돌 많고 뉘 많은 밥'을 서럽게 먹는다. 밥은 동물이나 물건이 절대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밥하는 존재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 여자가 '인간'으로 격상(?)됐으니 고마운 일이라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모르겠지만.

이처럼 남성노동요에서 여자는 성적인 대상, 가사노동을 해주는 수단, 물건 이상이 아니다. 물론 남자들이 여자들을 진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표현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여럿이 함께 부



일러스트/김난희



일러스트\김난희

“삼사월 긴긴해 점심
못먹고 베는 짜도
동지설달 긴긴 밤에
임없이 내 못사네”

르는 노래에서 쑥스러운 나머지 자신이 '신주처럼 모시고 사는 부인'을 그렇게 하찮게 표현하며 객기를 부렸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의식을 규정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 그리고 지금도 컴퓨터통신에 올라오는 남자들의 응답패설이 여성을 쾌락의 대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안한다면 남성노동요가 그리 그들의 의식과 먼 거리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재미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남성노동요가 결코 남자들의 솔직한 심경을 드러내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의 표현은 더욱 그렇다. 그래서 남성요의 대부분이 아주 낙천적이고, 여성의 몸을 희화화하는 것이다. 우울하거나 슬픈 감정, 울고 싶은 심정을 부끄러워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정서장애, 표현장애에 다름아니다.

사실 노동하는 남자들의 처지란 사실 전통사회에서 그렇게 자부심을 느낄 만 큼이 아니다. 지주와 관리들의 가렴주구, 흑세무민과 전쟁, 민란 등으로 농민은 이중삼중의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었던 계급이다. 우리의 노동요가 민중의 저항정신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엔 우리 노동요(특히 남성노동요)만큼 분노가 없을 수 있을까 싶다. 그렇다면 그들의 굶주림, 고통, 분노는 다 어디에 담겨 있을까. 바로 '어사용(나무하기노래)'에 있다. 어사용은 남자들이 산에 올라가 장작거리를 패오는 일을 할 때 부르는 노래이다. 주로 혼자하는 일이라서 누구의 구애도 받지 않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할 수 있었다. 보통 다른 노동요가 집단적으로 왁자하게 웃으며 함께 부르는 노래라면 어사용은 주로 구구절절한 뉘즈리로 되어 있다. 이 노래는 혼자만 부를 뿐 절대로 남에게 들려주지 않는 노래이기도 하다.

남 날 적에 나도 나고 내 날 적에 남도 났건만
어떤 놈은 팔자 좋아 책상 앞에 앉아서
호의호식하고 팔자 좋게 지내건만은
나는 어이하여 팔자가 기박하여
석사치미 감발에다 육날이 미물이에다
(중략)
산천을 후어보니 눈은 설상가상인데
쳐다보니 절벽이요 내려보니 절벽이라...

그렇다면 여자들은 어떤가. 여자들의 노래에도 가지총각이나 고추총각이 등장할까. 착하도록 교육받은 여자들이 분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여성요

에 등장하는 '님'은 어떤 모습일까.

삼사월 긴긴해 점심 못먹고 베는 짜도
동지설달 긴긴 밤에 임없이 내 못사네(베짜는노래)
남아남아 남군남아 나 오는줄 모르는가
나 자는줄 모르는가 어둠컴컴 빈 방에
불끈듯이 보고싶데 임아임아 우리임아
우리어머니 날 보낼제 임을 보고 보냈는데
나를 이렇게 박대하니 누구를 믿고 산단말가
(시집살이노래)
서처자 밥은 남도령 먹고 남도령 밥은 서처자 먹고
물도 좋고 반식 좋다 우리도아 이리다가
치마 벗어 무자이불 단속곳 벗어 요로 깔고
저고리 벗어 두통베개... (나물캐는노래)

동지설달 긴긴 밤을 함께 보내기 위한 님, 외로움을 나눌 님, 나물 캐러 가서는 옷을 이불 삼아 같이 덮고 성관계를 나눌 님 등이 여성요에 나타난 님의 대부분이다. 그리고 님은 시집살이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해줄 의지처이기도 하다.

잠아잠아 오지마라 니가 너무 잠이 오면
시어머니 눈에 난다 시어머니 눈에 나면
임의 눈에 절로 난다 시어머니 눈에 나면
엄병엄병 살만해도 임의 눈애가 절로 나면
망단이네 망단이네 내 살기가 망단이네(시집살이노래)
시어머니의 미움을 받는 것은 이리저리 견딜만 해도 님의 미움을 사면 살 수가 없다는 뜻이다. 현실의 님은 '부처님 뒷 모습' 같이 무뎡뎡할지라도 노래 속의 님은 '해가죽을 꿈꾸며 아내를 도닥이는 따뜻한 남편'이다. 시집살이를 못 이겨 중이 되어 길을 떠난다는 길디 긴 서사민요가 있다. 그 민요 안에서 남편은 떠나가는 아내를 붙잡고 애절한 설득을 한다.

가지 말게 가지 말게 자네 부모 천년 살며
우리 부모 만년 사나 우리 둘이 매양 살지(시집살이노래)

여성노동요에서 님은 일종의 바람이고 그리움이고 꿈이다. 뒤집어 이야기하자면 그런 님은 현실 속에선 좀처럼 없었다는 말이다.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남자들의 민요에 나오는 '님' 보다 훨씬 전인적이고, 인격적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여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움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여러 명의(규모가 큰 마을에서는 같은 향리의 여자들끼리) 여자들이 모여 일하는 밭일이나 길쌈일에서 불리워졌던 노래에도 그런 중모가 드러난다.

논으로 가면 거머리 원수
집으로 들면 시어머니 원수
정지(부엌)로 가면 시누이 원수
새 원수를 잡아가다 당사실로 칭칭 잡아
범의 굴로나 보내세 어아디아가 산아지로그나
(시집살이 노래)

그외에도 시부모의 죽음을 바라는 노래, 시어머니의 못된 성격을 풍자한 노래, 친정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 등이 골잘 등장한다. 누가 여자들에게 '민중의 미'가 있다고 선언했을까.

그리고 보면 전통사회에서 남자들은 노래를 통해 현실을 잊어버리고 여흥을 즐기려 했고, 여자들은 삶의 고통을 드러냄으로써 스트레스(한)를 풀고자 했던 것 같다. 지금도 현실에서 만나는 남자들은 현실의 문제를 일일이 꼬집어내어 거론하기보다는 묻어두고 잊어버리고자 하는 태도를 끝 잘 보인다.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묻어두면 잊어버리게 될까. 그렇게 묻어두었던 것들이 무의식 저편에 웅크리고 있다가 폭력적으로 터져나오는 건 아닐까 의심해본다. □

남자들의 이야기, 사랑 그리고 여자에 대하여

원고를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남성필자들은 일단 여성지에 실릴 거라는 말에 긴장하고

자신들이 하나의 짧은 '사례'로 대상화되는 것에 긴장했다.

그래서 혹자는 사례를 있는 그대로 쓰지 않고 자꾸만 분석하고, 이론적인 근거를 대려고

노력한다. 또 어떤 필자는 냉소적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필자는 부끄러운 마음을 무릅쓰고

아주 성실하게 이의 요구에 응해주었다.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다.

1960년대와 70년대 남자아이 정체성은 무엇일까.

김경훈(가명, 39세, 요식업 종사)

일제시대 태어나 황군과 천황만세의 노래를 들으며 자란 아버지. 아니면 한국전란의 와중에 총을 들고 전장을 누빈 아버지. 아니면 새마을운동에 장화를 신고 무릎을 갈아엎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사고는 어떤 것일까.

아이는 이렇게 컸다. 논밭에 상을 맞추고 방으로 들어오는 아내의 모습이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남편의 옷을 벗기며 하루의 안부를 묻는 게 당연한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교과서에서 읽으며 자란 아이. 심지어 아이는 어머니에게조차도 부엌출입을 금지당했다. 남녀칠세부동석이란 명목 아래 여자 아이들과 어렸을 때부터 떨어져 자리하면서 민화 속에 등장하는 여자에 대한 정보와 비하된 어머니에 대한 편협한 사고 속에서 비틀린 남자는 정상적인 사랑에, 완전한 사랑에 접근할 수 없었다.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남자는 항상 여자를 보호해야 된다. 남자는 여자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릇된 관념으로 자란 남자도 올바른 사랑을 해낼 수 없다.

한국의 남자는 그래서 불행하다. 그 시대에 자란 한국의 남자아이는 그래서 여자 앞에서 힘들다. 모든 관념에서 자유로운 남자는, 아니 인간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커버린 남자는 상처를 받는다. 여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며.

나는 처음 여자 앞에 섰을 때 혼란을 겪었다. 여자는 사춘기 때부터 그려왔던 천사 같은 마음과 깨끗함으로 분석된 별개의 종처럼 다가왔음에도 실상 여자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은연중 아버지의 버릇이 배어 나왔다. 그것은 남태였다. 무수한 시행착오를 통해 그리고 상대 여자를 통해 유치원에 다니는 기분으로 하나씩 굳은 콘크리트를 깨나가는 것.

첫 번째 여자는 나보다 더 어렸다. 겨우 한 살이. 그러나 그 여자를 통해 나는 갑자기 열 살이나 더

나이가 먹은 남자로 변했다. 처음 찻집에 앉아 커피에 프림을 타며 여자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고민해야 했다.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준 적이 없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어쨌든 여자와 이야기를 끝내고 나는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본 장면처럼 익숙하게 여자 앞에 놓인 계산서를 들었다. 남자가 계산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것은 오랫동안 남자의 기본예의로 생각되던 것이었다. 전당포에 시계를 잡혀가며 여자의 택시비를 챙겨주면서도 피곤한 발길을 두발로 터벅터벅 걸어야 했고, 비가 오면 하나뿐인 우산을 여자의 머리에 받쳐주면서도 어깨를 적셔야만 하는 남자. 그러나 그런 것쯤은 나의 허구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시작에 불과했다.

입술이 덜덜 떨리는 겨울의 아스팔트길에서 짐바를 벗어 여자의 어깨를 감싸주는 것, 택시가 서면 접착제 문을 열어 여자를 먼저 태워주는 것, 근사한 레스토랑에 앉아 여자에게 먼저 음식을 주문하도록 권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저 깊고 깊은 암연의 그늘로, 여자와 동행하기 전 활짝 핀 꽃밭에서 피크닉을 즐길 때 빵에 얹어 먹는 치즈조각같이 고소할 뿐이었다. 여자에게 던져준 달콤한 아이스크림, 아니 낚시밥처럼... 그러나 여자의 이름이 익숙하게 입에 익을 때 뱃속 깊이 숨어 있던 뭉툭 버릇은 습기찬 날 소금가마에서 흘러나오는 수분같이 진득진득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바른 남자 기다리게 해도 되는 거야?"

"재벌이 좀 갖다줄래?"

비가 오면 음지에서 솟아나는 독버섯처럼 불쑥불쑥 뻗어지는 말들. 그것은 곧 지워지는 흙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북극 빙하의 갈라짐처럼 평평거리며 두 사람 사이를 벌려갔다.

오, 내 사랑. 입으로는 사람을 외치면서도 내심 속으로 바랐던 것은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 암전하녀였던가.

지금 나는 딸을 키운다. 그 딸 아이의 앞에 어떤 남자가 설 것인가... 그 남자가 아버지의 부화를 물궁, 딸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할 남자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

첫 키스의 충격

이상환(28세, 회사원)

사실 나는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았다. 여자와의 사랑 경험도 그리 많지 않았고, 내 성격상 추상적인 관념에 대해 고민하느라 시간 낭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다. 대신 좋아하는 여인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여러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즐겼다. 나는 순간 순간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 사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그저 나에게 그런 감정이 일순간 생겨나서 얼마간 지속되었구나라고 생각할 따름이다.



남자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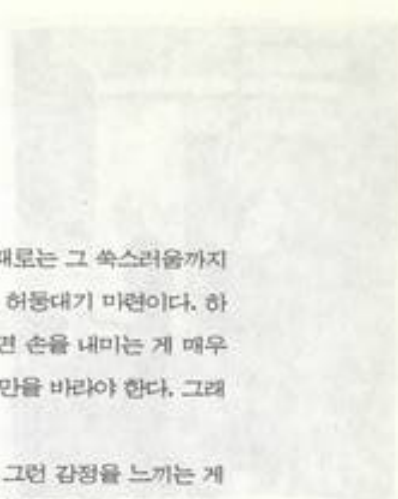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건 한 여자를 만나고 난 뒤부터였다. 그녀를 만난 건 대학원 마지막 학기 때였다. 나는 그 때까지 키스 한번 해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속으로 무척이나 창피해하고 있어서, 적어도 졸업하기 전에는 키스도 해보고 여자와 자보기도 해야 할 텐데라며 조바심을 내고 있었다. 그렇다고 사창가를 방문하는 것은 싫었는데 그 이유는 대한민국 남자의 절반 이상이 거리의 여자들에게 동정을 바치는데 나까지 그 행렬에 동참해야 할 것인가라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이었다. 좀 우습기도 하다. 하하.

대학원 마지막 학기는 논문을 쓰느라 학교 앞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도 근처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나서 자정을 넘겨가며 같이 있기 일수였다. 그녀를 만나던 그 당시 학교 주변에는 비디오방이 하나 들쭉 들어서기 시작했었는데 나의 첫 키스가 그 어둡침침한 비디오방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약간은 서운했지만 크게 실망스럽지는 않았다. 사실 첫 키스하는데 장소 살피고 분위기 살필 만큼 노련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키스를 하고 난 다음, 나는 그 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 교육(?)받은 대로 그녀에게 여러 가지 위로의 말을 해주었지만 정작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였다. 입술을 갖다대던 그 순간 아무 생각도 없었고 몸조차 움직일 수 없었을 정도로 당황했던 것이다. 오랫동안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에 대한 충격이었으리라 생각한다. 거기에는 남녀의 구별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키스 때보다도 더 허둥졌던 하룻밤을 보냈다.

나는 그 날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어도 내 몸과 내 마음에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다. 하지만 약간은 숨가쁘게 지나왔던 그녀와의 만남은 그 날 이후 별로 오래가지 못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그녀와 나는 결혼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녀와 나 모두 결혼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되어 갔고, 결국 선을 넘었다. 내가 결혼하지도 않을 여자와 만나왔다는 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겠지만 아무래도 섹스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상황이 그렇게 되고 보니 결혼할 사이도 아니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그녀는 물론 나도 부담을 느꼈다. 그녀는 그만 만나자고 했고 나는 동의했다. 언젠가는 헤어져야 할 상황이었는데 그게 앞당겨졌던 것일 뿐이었다. 그녀와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는 약 한 달 정도 걸렸다.

어쨌든 그녀와 만난 이후로 나는 손을 잡거나 키스하는 등의 스킨십이 매우 쉽게 일어날 수 있고 또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느꼈다. 나의 행동에 대해 여자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고민은 사라졌고, 여자와 만남을 지속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에 대해 굳이 애태우고 안달해야 할 필요도 없어졌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좀 해본 여자를 만나서 하룻밤 자을까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느낌이 좋고, 내 감정을 풍부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여성을 기다릴 여유를 갖게 된 것이다. 또한 여자에게 내 감정을 전함에 있어서도 더 자연스러워졌다. 이런 변화로 인해 그 후에 만난 여자친구와는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다음 여자친구 때는 손잡으려다 뿌리침을 당했



는데도 별로 당황하지 않고 웃어넘길 수도 있었다. 좀 우스운 소리지만 나는 때로는 그 속스러움까지도 즐기는 편이다. 사실 여자에게 너무 바라는 게 많으면 남자는 주눅이 들고 허둥대기 마련이다. 하하. 손 한번 잡으려 하면서 그녀가 내 사람을 받아주어야 할 텐데라고 바란다면 손을 내미는 게 매우 조심스러워질 것이다. 손 잡고 싶을 때는 그냥 그녀가 내 손을 뿌리치지 말 것만을 바라야 한다. 그래야 좀 더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 수 있을 것이다.

여자와의 만남에서 남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여자를 만나는 즐거움이기도 하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이러한 감정의 변화와 흐름에 대한 추적만으로는 평가 모자란 듯한 느낌을 가진다. 감정이란 정말 변화무쌍해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이렇듯 불안정한 감정의 흐름에 두 사람의 관계를 말긴다는 건 매우 위험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나 할까. 이런 감정의 나열을 질적인 변화를 통해 좀더 공고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를 느낀다. 이러한 질적인 변화를 사랑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다.

이 글을 쓰는 동안 즐거웠다. 몇 명 안 되지만 그 동안 만났던 여자들이 대해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았다. 그리고 내게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던 시간을 생각하고 글을 정리했다. 사실 남들도 다 겪었을 만한 일이지만 나는 내 느낌을 이야기하고자 했을 뿐이다. 다만 참고 끝에 약수가 아니었나 걱정된다. 하하. 요즘 어느덧 훌쩍 막아버린 나이와 부모님의 성화 때문에 결혼해야겠다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던 나에게 이런 의미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준 편집부에 감사드린다.

여자, 그 두려움의 흔적들

박천홍(32세, 잡지사 기자)

내 기억이 맞다면 아마 중학교 때 일일 것이다. 세상의 온갖 잡스런 비밀을 의문스러운 육체로 훑아 거리던 어느 날, 국어교과서에서 황순원의 「소나기」를 만났다. 어른들의 눈에는 잔망스러운 아이로만 기억되던 한 소녀와 죄 없는 송아지 불가박을 때리는 것으로밖에는 아련한 감정을 표현할 줄 몰랐던





존이기가 그들만의 관능성(!)—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다—을 죽음이라는 제의적 질차를 거쳐 깨우쳐가는 이야기였다.

그 때부터였을 것이다. 뼈와 살을 지닌 일상의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남모르는 불편함과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왜냐하면 순결한 영혼이 맞부딪쳐 울리는 유토피아적 관계는 냉혹한 현실의 공간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소나기>의 그 소녀는 살아가는 일의 고단함과 비굴함, 천박함과 다른 차원에서 숨쉬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 소녀는 시시때

때로 내면의 심문관으로서 앙증맞은 눈을 부릅뜨고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가령, 이런 일이 있었다. 유치한 미숙이었던 내게도 결국 짝사랑의 계절이 찾아왔다. 한 하늘 아래서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가슴 벅찰 정도로 한 여자에 대한 열정으로 들떴던 때였다. 어느 여름, 단체로 떠난 기차여행에서 우연히 그녀와 나만 다른 일행과 떨어져 지게 되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그녀와 나 사이의 공기는 희박했고, 시간이 휘어지는 착각에 빠져들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얼마 뒤 일행과 다시 뒤섞이면서 간신히 내가 살아 있음에 안도했고 두 다리가 휘청거리고 있음을 알았다.

그 후는 변한 일이었다. 부끄러움에 차를 덮었고 다가설 수 없는 먼 거리에서만 그녀를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 때 그녀는 '소나기 소녀'의 변주였을 뿐이었다. 몇 번의 그런 일이 쌓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여자와의 관계는 항상 나를 불편하게 했고 여자 없는 세상을 꿈꾸기도 했다. 간교한 도피심이었다. 가질 수 없는 것은 빨리 포기할 것. 몸으로 깨우친 교훈이었다.

적지 않은 세월의 감이 내 일상의 가파른 굴곡을 감아먹었고 이제는 무심한 표정과 공중이속을 감춘 능란한 언어기교를 배우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소나기 소녀'의 사주에 농락당해 그어놓은 일정한 선을 넘어서지 못했다. 조금이라도 욕심을 품고 여자를 마주하면 어김없이 관계가 형틀어져버리고 자학을 불러오는 치명적 상처를 입게 된다. 유토피아를 탐한 자의 숙명적 업보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야기가 부끄러운 고백을 넘어 여자에게 고백을 마신 수기증으로 흘러버리고 말았지만, 뱃살을 의식하기 시작한 나이에 이른 사람의 내면풍경치고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여자들과의 관계는 두려움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이다. 그 두려움은 동등한 인격의 대상으로서 여자를 수락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과장과 꺾이는 진실과 멀리 있기 때문이다. 여자들로부터 주눅들어 살아온 나 같은 경우도 있음을 핑계삼아 이 글을 읽는 이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내 두려움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내 이야기의 화두로 삼은 '소나기 소녀'에게 부탁하고 싶다. 제발 나를 그냥 좀 내버려 두시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며, 실연은 당하는 것이 아니다

채남오(가명, 32세, 큐레이터)

흔하들 연애라고 부르는 이성교제를 나는 좀 늦게 시작했다. 서른 살이 될 때까지 너무 각박하게 살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성교제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까닭이다. 그렇다고 성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대학 1학년 때 친구 몇명과 어울려 미아리에 간 적이 있다. 태어나서 처음 경험한 여성의 몸은 남성과 무척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 뿐이었고 현실에서 여성을 사귀어 볼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한 7년간 그것이 유희이라 하더라도 이성교제와 접촉은 거의 없었고 나 자신의 사고만을 고집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다 30대에 접어들면서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있어 그 구성원의 절반인 여성에 대한 이해 없이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나는 여성에게 지극히 폐쇄적이었던 남성 또래집단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으므로 보기에 따라 '남성우월주의' 또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처럼 비춰질 수 있는 사고들이 마음 한편에 자리잡고 있었다. 현지 날이 갈수록 나의 이런 성격이 당당하게 느껴지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점점 커져만가는 몸과 마음의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배우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어 처음 경험하게 된 이성교제의 교제는 너무 더디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서로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 매우 조심스러워 했다. 상대는 몇 년째 약히 알고 지내던 같은 직종의 여성으로 아주 강한 생활력을 지니고 있었다. 마치 삼류 소설 또는 유행가 가사처럼 몇 개월 동안의 구애기간을 거쳐 어렵게 연애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주변사람들의 관심 속에 한 2개월 동안의 연애기간을 가질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나는 너무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빠져 있었다. 물론 상대방도 나를 싫어하지는 않았겠지만 처음 이성교제를 하게 되어서 그런지 둘의 관계를 여유를 갖고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무조건 상대에게 매달리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설불리 인생의 배우자로 단정지으며 나의 삶을 이해시키기에 바빴다.

결국 상대는 자신이 살아온 삶과 나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추스리기 위해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일단 마음을 풀린 상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로 나를 따돌리려 하였다. 결국 만날 때마다 말다툼이 잦아지고, 매우 좋지 않은 사건을 계기로 서로가 서로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고받으며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첫 이성교제에서 좋았던 시간들보다 오히려 가슴 아파해야 했던 시간들이 더 많았던 까닭에 현실 속 여성에 대한 실망감은 더 커져만 갔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할 경우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제 약간의 시간이 흘렀고 여성에 대해 점점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의 문제이지 굳이 상대를 핑계삼아 이야기할 성격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성간의 만남은 일단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이라는 생각에서 가장 작은 사회관계로 설명될 수 있

다. 그러나 그 만남은 한편으로 지극히 은밀한 사생활이기 때문에 각자의 경험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나는 나이 서른이 넘어 처음 연애를 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많은 충고를 받았다. 그리고 내 주변에는 유난히도 실연의 아픔으로부터 헤어지지 못하는 남성들이 많이 있었다. 다행히도 나는 이들의 도움으로 실연당했다는 비굴함에 빠지기보다는 실연했다는 당당함을 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여성 혹은 연애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 행복할 수 있다는 삶에 대한 생각처럼 말이다.

나에겐 너무 싫은 '파란 스타킹'

박정민 (29세, 그룹 모나드멤버)

bluestocking: (18세기 런던에서 문예애호가들이 청색 양말을 신은 데서) n. (경멸) 여류 문학자, 화식을 뽐내는 여자, 학자인 채하는 여자, 문학병에 걸린 여자

'여성관'이라는 것은 도대체가 허망한 주제다. 그건 인생관이나 세계관만큼이나 거창하게 보편적이며, 따라서 '소시적'에나 두어 번 매달리면 충분할 것이다. 씨먹을 데가 있으려면 "나 박정민이는 어 떤어떠한 여자가 좋고 싫다"는 식으로 생생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런 여자가 싫다. 파란 스타킹(bluestocking)족. 말뜻은 영어사전에서 옮긴 그대로다.

아무래도 직업 돌아가는 꼴과 사람 생겨먹은 꼴은 달게 마련인 것 같다. 예를 들어 음악인들, 아, 이 렇게 말하면 클래식 전공자인 줄 알지, 탄파라들은 대체로 직선적이고, 종종 단순하다. 음악이라는 것 이 아무리 논리적이려 애써봤자 가슴에서 가슴으로 내다박히는 친성을 어찌지 못하는 것이라, 음악 하는 사람들도 음악을 달게 마련이다. 빙빙 돌리고, 겹겹이 둘러치고, 앞뒤 색깔 다른 것엔 딱 질색이 다. 파란 스타킹족이야말로 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찌다 내 주위엔 그런 여자들이 비교적 많았다. 대학 때부터 동신동호회에까지, 글쓰는 여 자, 글쓰다 만 여자, 글쓰고 싶어하는 여자, 글 좋아하는 여자(순서는 악질순). 감히 말하거니와 직접 데어본 경험에 비추어보건대, 위의 영어사전은 좀 엉터리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사전에 올라갈 만 큼 '뽐' 내거나 '채' 하지 않는다. 왜? 이미지 관리를 잘해야 어딘가 문학적으로 보이니까.

나라면 단어 설명을 이렇게 하겠다: 최승자를 좋아하는 여자, 동승시네마텍에 자주 가는 여자, 인도 와 유럽을 마음에 품고 사는 여자, 일부러 화려하지 않게 '꾸미는' 여자, 웃가지는 사방에 던져놓아도 책과 CD는 가지런히 정돈해둔 여자.

그리고 대형사전이라 지면이 더 허용된다면 이렇게 덧붙이겠다: 첫인상이 멋들어진 여자, 알아갈수 록 인상 구기게 만드는 여자, (한 명만 뵈) 만인에게 인문학적 기품을 풍기려 애쓰는 여자, 애스 스트 레스를 (만인 중에 제일 운 없는)한 명에게 죄 쏟아붓는 여자, 좋아해주면 싫어하는 여자, 싫어하면 좋 아해주는 여자, 얌매이기 싫어하는 여자, 제 손으로 물어뜯는 여자, 진정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여자.

그게 나쁜 줄(따라서 자기가 나쁜 줄)은 뻔히 알되 고칠 줄은 모 르는 여자, 요컨대 문학 때문에 배린 여자, 문학을 배리는 여자.

화실히 문학은, 더하여 인문학은 성한 사람 심지어 꼬는 성분 을 함유하고 있는 것 같다. 꼬인 심자들이 이 분야를 선호하는 것 이기도 하겠고, 하지만 직업병이려니 하는 관용은 피해를 입어보 지 않은 경우거나 가능할 호사할이다. 무척 감정적인 연사가 아 나? 그들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내 감정에서 나온 것이 이 정도라면 오히려 양호한 축일 것이다. (오죽하면 질리다 못해 같은 제목의 노래까지 만들었을까—그들은 이 노래를 영 불려 해하더라.)

그들, 어려서 한 총명 했을 것이고, 자신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 을 것이다. 제법 심오한 고민거리로 준비운동도 마쳤을 테고, 중학교 때까지는 등수를 전교 단위로 세 기도 했겠다. 그리고 이런 병원균들이 문학이라는 악천후에 노출될 때, 자의식은 잘못 발효된 요구르 트가 되고 몸에는 가시가 돋기 십상이다. 장미가 아니라 선인장처럼.

그들, 이런 제 모습을 아주 잘 안다. 때문에 이해 못 해줄 듯싶은 사람은 범집을 금해버린다. 사람들이 어떻게 질려나갔든, 관심은 부러진 제 가시에 있다. "그것 봐, 가까이 오지 말랬지?" 그러던 어느 날, 임자를 만나버린다. 이놈의 임자, 자기 속을 뻔히 들여다본다, 이해해줄 듯싶다. 그러면 파란 스타 킹은 도망가게 되어 있다. 왜? 온갖 비리가 드러나는 사태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니까. 이진 일종의 당 황이다.

당황이 몇 차례 반복되었을 경우의 줄거리는 아직 모른다. 나이 많은 파란 스타킹을 사귀어본 적이 없다. 혹 반복된 당황 끝에 이해받는 데 익숙해진 사례가 있다면—추측컨대 이런 꾀 꾀한 사례일 것 같지만—희망은 남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무망하다면 내가 아는 처방은 하나, 안전거리 확보뿐이다.

그러니 이런 여자를 만나거든 부디 유념하시기 바란다. 그들은 몇 걸음 밖에서 구경하기에만 알맞은 부류다. 너무 다가가면 반드시 질리고, 질리면 반드시 아프다(톡이 있어서 후유증도 꽤 간다). 안그래 도 험한 세상, 연애까지 가시나무길을 고르기엔 저런 데가 너무 많지 않은가.

이미지 사랑하기

김정명(가명, 34세, 대학 조교)

사랑,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내게도 남아 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애써야 비로소 희미하게 떠오르 는 유년의 기억으로부터,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다면 차라리 나를 것만 같은 여자로 하여 심장에 남겨 진, 칼자국 같은 기억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부터, 누구를 향해서부터 사랑인가, 사랑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감정이었다.

옛날 시골에서 비록 변두리일망정 큰 도시의 '초등학교'로 옮겼을 때, 그때 나는 1학년이었다. 어찌 다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 검고 긴 머리를 흔들리며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여자아이를 보게 됐는데 그 아이 슈퍼마켓집 큰딸이었고 도시 아이답게 얼굴이 하얗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와 같은 반이었다. 그애를 좋아하게 된 시골아이는 바보 같은 짓을 참 많이도 했다. 2학년 때도 그애와 나는 같은 반이 되었는데, 어느 날 그애가 몸이 아파 조퇴를 하게 되자 나도 멧달아 아프다는 핑계로 조퇴를 했던 적도 있다.

그러나 그 아이에 대한 감정은 6학년이 되면서 매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전학을 온, 앞서의 아이보다 훨씬 더 세련된 외모에다 아이답지 않은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졌고, 이름마저 애살스러운, 똑똑한 반면 지독히도 낮은 산수점수를 받는 아이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마르고 키 큰, 학교 대표로 달리기 선수를 하는, 역시 허스키 보이시와 아이와도 관계가 심상치 않아졌다.

내게 사람이라는 것은, 거의 언제나, 실체를 향해서가 아니라 이미지를 향한 것이었다. 도시적이라는, 그 먼 세계의 신비를 품은 것만 같은 낯선 이미지가 나를 언제나 사로잡아 왔다. 허스키하고, 경마르고, 가냘픈 혼자 몸으로 언제까지나 세상을 홀려다닐 것만 같은...

고등학교 때도 대학에 와서도, 그 이후로도, 나는 이른바 그 '모던' 한, 인공의 이미지로부터 헤어날 적이 없다. 그리하여 내게 사람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시골아이에다 삼형제 중의 장남이고, 지독히 모성적인 어머니를 둔 나는, 내게 걸립된 모든 것을 그 이미지에 투사시킨다.

그러나 이 이미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전혀 잊지를 못하는 집착이고 또 전혀 만족을 모르는 몰두라서 끝없이 더 세련되고 낯선 이미지의 소유자를 찾는다. 이 이미지의 욕망 앞에서 진실함이라는 사람에 관한 인간적 미덕은 무력하다. 제도나 관습과 같은 것들은 현실적인 구속력은 갖지만 위선적인 마음은 허위적인 것은 무가치한 것이라는 냉소가 자리잡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나는 행벌을 감당한다.

내가 사랑했던, 세상에 무서운 여자가 둘이 있다. 한 여자는 지금 나의 아내가 되어 있고, 다른 한 여자는 어떤 연하의 남자의 아내로 살아간다. 냉정히 생각해 보면 나는 이미지에 대한 갈망으로 말미암아 연하의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는 여자와 헤어졌고, 그 이미지에 대한 갈망이 응분의 보상을 받지 못한 가운데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아내를 만나서 내가 행한 가장 큰 일 중의 하나는 아마도 아내를 내 이미지의 여자로 만들려는 노력이었다. 타인들은 허영의 소산으로 착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내의 얼굴을, 체형을, 옷차림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의 내면을 내 이미지의 여자로 바꾸려고 했다. 그러나 아내는 나와는 본질이 다른 사람, 이미지가 아닌 실체를 사랑하는 여자였고, 내가 헤어져야 했던 여자 역시 아내와 같은 본질을 가진 여자였다. 이 무서운 유형, 지독히 성실한 여자들, 이 여자들이야말로 세상의 단단한 기초이며, 중심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지로 하여 인간적 미덕을 바로 대우하지 못한다. 이것이 나의, 사람의 파멸적인 요소임을 나는 알지만 사람이라는 감정은 이성이나 의지 같은 것이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성(聖)처녀, 성(性)처녀

박찬경(33세, 미술가)

순결에 대한 한국여성들의 집착은 남다르다. 내게는 수 년간 만난 애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성애의 거의 모든 행위를 허락했지만 삽입성교만은 끝까지 거부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는 주변에서, 결혼하는 상대 여성이 처녀이기를 바라는 남성이 상당히 많으며, 또 그렇지 않을 경우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다는 얘기도 흔히 듣는다. 그리고 남성들의 그러한 요구가 여성들의 혼전 성행위를 위축시킨다는 것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남성들의 이러한 답답한 사고방식은 여성들에게 전가되고, 그것은 또다시 남성들로 하여금 성의 이중장부를 쓰게 한다. 한편으로는 순결한 처녀를, 다른 한편으로는 성적 야수를 그들은 원한다.

나는 이러한 남성 성욕망의 '경제'가 단순히 위선적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은 위선적이며, 성적인 '죄의식'을 생산하는 오래된 공장이다. 그러나 나는 웬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선'이라는 것에 대해 스스로 너그러워진 것 같고, 또 생각해 보면 그러한 위선이 아주 심각한 도덕적 문제로 단죄되어야 한다고 굳게 결심해 본 적도 없는 것 같다. 그보다는 인간 생활의 매우 기본적인 형식으로 보아야 하고, 단죄보다는 객관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잡은 것 같다.

사실 '성적인 야수'나 '순결성'은 매우 종교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이며, 성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기독교적인 혹은 유교적인 윤리에 삼시간에 사로잡힌다. 내 과거 애인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은 그녀가 관계의 마지막에 보였던 매우 불안하고 회한한 행동과 그에 대한 나의 역시 회한한 대응에 의해 도발적으로 드러났다.

다른 남성과 결혼을 결정하고 난 직후,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이제 순결을 잃어도 좋으며 나를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나는 그 순간 그녀에 대한 애정이 모두 달아나버렸다. 나는 그녀를 안기를 거부하고 그럴수록 그녀는 내게 매달리는, 이상한 욕망게임 같은 것을 우리 둘은 밤새 벌였던 것이다. 악몽 같은 그날 밤이 지나고, 그녀는 내게 웃으며 말했다. 놀랍게도 "네가 그럴 줄 알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마치 무슨 승자라도 되는 것처럼 매우 여유있어 보였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그녀 자신이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난해한 심리를 표현하고, 나의 대응 또한 그런 것이었다고 지금은 생각하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모든 것이 싱숭생숭할 뿐이었다. 내가 그녀를 원했을 때, 나는 동시에 그녀의 순결성을 원하며, 순결성의 훼손이 곧 성적인 욕망의 근저에서 작용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날 밤 벌인 게임의 모든 진실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금기와 죄의식의 문화에 나 역시 매우 잘 적응하고 있었다는 말이고, 그녀는 알뜰게도 바로 그 점을 이용했다.

그녀는 자신이 깨지 못했던 것을 내게 되물려줌으로써 나도 그것을 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것은 참으로 초라하고 한심한 고백이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금기가 욕망을 생산한다"는 명제로부터 도대체 언제나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말해 나는 자신이 없다. 금기를 깨

는 황홀감을 넘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에 도달한다는 것이 내게는 매우 먼 것처럼 느껴진다. 내게 진정한 사람은 그러한 황홀감의 순간에, 매우 상징적으로 주어지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금기를 깨는 성교의 다양한 의식(儀式)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반대로 그러한 구체적인 행위가 없는 사람은 게으른 관념일 뿐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내 심리생활의 깊숙한 곳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에 대한 이중장부를 버릴 수 있는 날이 된다면 나는 내가 이미 노인이 되었다고 판단할 것 같다. 창녀를 안으며 숙녀를 생각하고 숙녀를 안으면서 창부를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인 것 같지만 그다지 기분 나쁜 일은 아닐 것 같다. 냉정하게 보면 그것은 바보스러운 일이고 남성중심적인 관습이고 순전히 픽션이지만, 그러한 이중성의 다이내믹은 언제나 매력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단계에 이르면 거의 이중성의 심각성을 상실한 놀이 같은 것이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중요하다.

성교에 대해 지나치게 심각해서는 안 된다. 순결과 그것의 훼손, 금기와 사랑의 이중적인 유희는 심각해져서도 안 되고 그렇게 취급되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진짜 죄의식과 진짜 사랑이라는 신화 속에 우리를 가둬둔다.

그녀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과거의 애인은 내 남성성의 보수성을 일깨워 주었다. 숙녀와 창녀는 종교적이고 관념적인 구분이며, 그것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사회를 안정' 시키려는 가부장 사회의 못난 집서를 여성이 따르거나 내면화할 필요는 전혀 없다. 내게 그것은 단지 흥미로운 유희이며 게임일 뿐이지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물론 그것은 게임일 때조차도 보수적이긴 하다.

그런데 구체적인 개인들의 성적 교류에서 보수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내게 있어 여자인 무엇인가.

정호영(31세, 인터넷플래너)

1. 내게 있어 여자인,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건 정말 막연한 질문이고 나를 황당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은 그 분위기 자체가 뭔가 고고한 실존적 답을 요하는 폭력이 은근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

2. 이런 질문을 받게 되거나 혼자서 "궁"하면서 내가 바라는 게 뭔지 생각해 본다면 항상 그래왔다. 사실 내가 바라는 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성생식이길 바라는 것이다.

3.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욕망은 남들과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남들'처럼 살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다만 내게 위안(?)이 있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면 밥 먹고, 자고, 싸고, 생식행위를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인프라(?)

가 제대로 될 때 건전한(?)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나는 이 인프라가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매일 매순간 물어본다. 아마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기에 오늘은 좀 나아졌는가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 같다.

4. 아마도 가장 행복한 삶은 인프라 문제에 집착하지 않을 만큼의 여유를 가지고 운동이나 진보나 예술이나 하는 일들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가 쉽다. 내게 있어 이런 삶은 항상 부러운 동시에 가끔 이들로 인해 자증이 나곤 한다. 인프라에 집착하는 삶들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진보나 예술이나 하는 것을 삶의 가치로 주장할 때 나는 증오를 느낀다.

5. 나를 한순간도 쉬지않고 압박하는, 주변 분위기 전혀 고려없이 지하철 안, 카페 안, 길거리에서 가끔은 혼자 자는 밤의 새벽시간에 느닷없이 생식행위를 명령하는 마치 해골의 질대이념 같은 유전자. 이런 기본적으로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인지라 갑갑하기만 하다.

다시 돌아가자

질문: 여자인 무엇인가?

답: 내 속에 들어있고 내가 나기 이전부터 있던 유전자. 그 유전자의 자기번식욕구를 만족시켜 줄 유일한 대상으로 내게 존재한다.

물론 여자가 생식행위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처음부터 내가 그냥 '사람'으로 인식하는 여자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까지 포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 같고 당신이 생식행위를 나누는 대상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풀나게 문학적/문화적으로 답해주길 바란다는 느낌이 들었다. 기실 내가 인프라 문제로 시달리는 한 이런 질문은 내게 있어서는 무슨 열병할 질문이다. ■



무기여 잘있거라!

나이 서른 즈음의 그 여자, 사는 게 팍팍하고 어떤 것에도 별다른 열정이 없다. 주위에서는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남자 안 사면 지 꽤 됐지?'라지만, 남자가 더 이상 그 여자를 불타게 할 수는 없다. 자, 그렇다면 감성적이고 사랑 많은 그 여자가 왜 마른등걸처럼 헛헛해졌는지 내력을 한번 들어보자.

나의 첫 번째 남자는...

나? 나야 대학 때는 숫기도 없고 '사랑과 우정 사이'를 가능질하며 매번 짝사랑만 해댔었지. 단순히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시시덕거리는 관계가 아니라 미래의 꿈과 인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지면서 연인인, 그런 완벽한 연애를 하고 싶었어. 그렇지 않은 관계는 단순한 케로몬의 이글릴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면서도 난 대학 내내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졸업하는 게 아닌가 은근히 걱정이 되었지.

그 때 한 남자를 만났어. 통신에서 만나 얼굴 한번 안 보고 몇번의 채팅을 했었지. 우와, 근데 남자 인데도 이 사람, 얘기가 너무 잘 통하는 거야. 내 영혼의 반쪽이란 건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겠어? 직접 만나본 그 남자는 신체조건이 한국남성표준 이하였어. 한마디로 왜소하고 못 생겼단 말이지. 하지만, 무슨 상관이야? 외적인 조건을 따지며 인간관계를 한다는 건 자존심 상하는 거라고 그 때 난 생각했어. 주변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뜯어말릴수록 나는 겉모습에 좌우되지 않는 내 심미안에 감격했지. 게다가 인물이 떨어지는 남자는 최소한 비람은 파우지 않을 거야. 이 세상에 나뉘엔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을 테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나? 그랬으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겠어? 그 남자가 있지. 알고보니 신체조건에 엄청난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 남자로서 상품가치(?)가 별로 없는 이 남자는 끝없이 자신의 남성성을 확인받고자 했지. 나만으론 부족해서 끊임없이 여자들한테 걸 띄우려는 문어발다리 남자였던거야. 결국 굿바이했지.

두 번째 남자, 일 때문에 만나던 거래처 사람이었어. 실연의 상처를 받고 해매는 내 곁에서 말없이 술잔을 나누었지. 이 사람은 뭔가 달랐어. 어설피고 촌스럽고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 총각들보다 세련된 매너와 삶의 여유를 가진 것 같았지. 그리고 절대 서두르지 않았어. 근데 뭐가 문제냐? 이 사람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를 가진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유부남이었거든. 다들 익히 들어본 '유부남 각본'이지? 처음에야 그의 깔끔한 자기관리에 반했지만, 그것도 하루이틀이지. 그가 도망가듯이 달아나버린 새벽에 나 혼자 남아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 말이야. 결국 이 남자는 나를 위해 가정을 정리할 의지도, 아내를 위해 자신의 노력을 보여줄 마음도 없는 사람인거야. 결국 난 그

에게 말했어. "그동안 즐거웠어, 나중에 나도 결혼해서 유부녀가 되면 그때 다시 만나자. 페어플레이로 다시 한번 사귀자"구 말이야.

세 번째 남자, 송년모임에서 알게 된 연하의 남자였어. 미소년처럼 예쁜 외모에 젊음으로 터질 것 같은 불을 지녔지. 모임에서 계속 내 근처를 맴돌더니만 어느새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 같이 있으면 귀신같이 내 심정을 헤아려주고, 알아서 애고도 떨고, 화가 나면 입이 뽀로롱하게 나오곤 했지. 아, 이래서 남자들이 나이 어린 여자하고 사귀려드는가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처럼 주인의 눈치를 맞추며 꼬리를 흔드는데 어느 누가 귀여워하지 않을 수가 있담. 걔가 쏟아지는 날들이었지, 이 남자를 사랑하는 대가로 그에게 누나이고, 엄마이고, 선배이고, 여자여야 하는 부담감만 빼면 말이야. 술을 어른노릇, 아이노릇하기에 지칠 무렵 그 남자에게 영장이 나왔고 군대에 가버렸어.

네 번째 남자, 시를 쓰는 문학청년이었어. 나와 함께 했던 시간들은 그의 시가 되어 내 앞에 펼쳐졌고, 호숫가에 앉아 지는 놀을 바라보며 달콤한 키스를 나누기도 했지. 나를 둘러싼 세계가 이전과는 달라보이고, 모든 것이 생생히 일어나 말을 건네는 시간들이었어. 하지만, 과거에도 또 지금에도 소위 '예술' 하는 남자의 연인이 된 여자의 입장 같은 건 알려져 있지 않아. 처음의 황홀했던 날들이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도대체 이 남자는 나라는 인간 자체를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자신의 영감을 불러일으켜줄 뮤즈를 찾는 건가 하는 착각이 들지. 이럴 때 예술가의 연인은 선택을 해야 하는 거야. 영원히 그의 뮤즈가 되어 반쪽짜리 연애를 지속하든지, 아니면 영감을 주는 다른 여자를 위해 그를 놓아주든지 말야. 그래서 또 굿바이.

다섯 번째 남자는 언제부터인가 내 곁에 머물기 시작한 한 남자였어. 하나의 사람이 끝나고 힘들어할 때쯤이면 어느새 곁에 와 있는 그 남자를 발견하게 된달까. 동갑내기였는데 편하게 만나 술이나 한 잔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동성의 친구처럼 나눌 수 있는 그런 남자였어. 강렬하게 사랑을 끌어당길 만한 매력은 없지만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었지. 나의 방랑(?)을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제발 남자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그 남자는 나에게 늘 그림자로 남으려나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번번히 도망을 치곤 했거든. 내가 힘들어지지 않으면 다가오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와는 그렇게 시작도 없이 끝도 없이 늘 평행선이야.

또다른 남자를 만나면 내인생이 달라질까

아, 맞다. 빼먹고 넘어간 남자가 있는데 말야. 그 남자는 나보다 한 살 위의 남자로 어찌어찌 만나게 됐어. 대강 대화도 통하고 나름대로 사귀어 만하다고 생각했었지, 처음엔.

근데 말야, 연애가 결혼도 아닌데 대충 맞다고 사귀어 건 아니더라구. 자넬수록 답답해지고, 함께 있으면 딴 생각나고, 술로일 때보다 나은 점이 없는거야. 그래서 내가 헤어지자고 했지. 근데 이 남자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집에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고 히스테리를 부리는거야. 내가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건 말이 안된다 어쩔수 하면서 발광을 하는데 미친개가 꼭 저렇지 싶어라니까, 그래도 안되니까 내 친구, 사무실, 모든 모임 등에 전화를 해서 자기 사랑을 내가 몰라준다면 하소연을 해대는거야. 집에 가면 매일 문 앞에 지키고 있지, 스톱킵이 이런 거더라구. 남자의 사랑은 집착이 깊어지면 폭력적이 된다는 걸 그 때 알았지. 평소엔 멀쩡하던 인간이 어떻게 저리 뿔까 싶을 정도였어. 좋아하는 감정이 사라지면 헤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냐? 그걸 인정 못 하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남자들의 심정은 도대체 뭘까? 절대로 사랑 때문은 아니라고 봐. 금이 간 자신의 자존심을 채워 줄 뭔가가 필요했던 거겠지.

그 외에도 연애라고 하긴 뭐하지만 만났던 남자들은 동지라고 느끼기에는 거리가 멀었어. 겉으로는 여성에 대해 우호적이면서, 실상 자신이 이해하는 여성상에 벗어나는 존재를 보면 참을 수 없어하는 남자, 여자를 자신의 성공을 비취주는 거울로만 여기는 남자(이런 남자들은 자기를 추켜세우는 여성 신봉자들을 거느리는 게 특징이야), 자신의 사람과 욕망에 충실한 여자를 무조건 화대 없는 참녀 취급하는 남자 등등.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에게 무조건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좋은 친구로서, 연인으로서의 만남을 갖고 싶다는 내 꿈은 너무나 비현실적인가? 나는 이제 사람을 믿지 않아. 아니, 남자란 종족에 대해 더 이상 애쓰고 싶지 않아. 남자는 나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무기일 따름이라는 게 지금 내 실정인데, 더 살아보면 달라질까?

여러분,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까요? **II**

글 이부아(자유기고가)

특집 | 남자의 성

야후(Yahoo)씨의 섹스다이어리

“...남성 특유의 적의는 육체적 힘이나 정치적, 경제적 권력에 의해 여성을 정복하려는 데 있다. 그 반대로, 여성의 적의는 조소와 경멸로써 남성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데에 있다.” 에리히 프롬(E. Fromm)

야후(Yahoo)와 그의 아내 알타(Alta)

I. 야후씨는 서울에 있는 Y대학병원의 정신과 전공 레지던트다. 그의 아내는 야후씨가 다니던 대학에 이웃한 여대 출신으로, 둘은 동아리에서 만나 눈이 맞았다. 이년 전에 결혼해서 이제 둘 사이에는 든든한 아들도 있다. 그는 얼마 전 젊은 정신과 의사들 모임에서 디스나 팔팔 담배는 이상한 냄새가 나서 할 수 없이 말보로를 권다는 선배에게 ‘보반빠’라는 별명을 붙여 준 적이 있다. 그는 이 별명을 ‘보수 반동에 빠다 냄새’를 곁들였다는 의미라고 풀이한다. 그런 장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야후씨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 합리 추구형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다. 어쨌든 그는 프로이트 이론을 공부하기에 여념이 없는 실력 있는 진보적 애송이 정신과 의사인 것이다.

II. 야후씨에게는 은밀한 고민이 하나 있다.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면 딱 부러지게 ‘이게 문제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내와의 사이에 흐르는 묘한 소위 ‘밀고 당기고’가 감지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인 것이다.



그들 부부는 ‘나는 오늘 섹스를 하고 싶다’는 말을 직접 하기가 쑥스럽다는 데에 모두 동의한 바 있다. 그래서 그들은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잘 생긴 신랑 신부 인형을 샀다.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두 개의 남녀 인형이 마주 보고 있으면 그런 모두 다 의사가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한 달 이상 신부인형이 등을 돌리고 있는

배종훈

연대 의대를 졸업하고 정신과 전문의로 있다. 천리안 <여성정신의학상담실(go wps)> 대표이고, 『내 눈앞의 섹스 그리고 영화』를 출간한 바 있다. 우리사회의 진정한 페미니즘이란? 진보와 페미니즘의 관계는? 이런 의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다. 이 글에 나오는 야후씨는 우리사대를 사는 평균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이고 더 페미니스트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가진 그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작업이 우리를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서슴부레하기만한 그 곳으로...



다이아그노시스

것이다. 같이 거실에서 TV도 보고 밥도 먹고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왜 인형이 마주 봐 주질 않는 것일까? 그러다 보니 야후씨의 인형만 하염없이 아내 인형의 돌린 등판을 쳐다보고 있는 꼴이 되고 말았다.

III. 야후씨의 아내는 토요일 밤에도 일찍 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저녁식사를 마치자마자 가벼운 두통을 느꼈다. 아스피린을 두 알 삼키고 등돌리고 누운 아내의 곁에서 야후씨는 오래도록 뒤척였다. 불을 끈 뒤에도 한참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린 결론은 아내가 야후씨의 섹스에 대해 편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신혼초에는 소리를 지를 정도로 오르가즘을 느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가 비명의 빈도가 잦아들기 시작했던 것도 기억해냈다. 야후씨는 화장대 위의 저 인형이 면벽중인 것은 그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이 내린 결론에 대한 자조적 만족감에 빠져 잠이 들었다.

IV. 야후씨의 꿈: 커다란 침대였다. 침대라기보다는 오히려 침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특신한 이불도 요도 없는

맨 침상이다. 그 위에 눕혀져 있는 어떤 금발여자의 벗은 뒷모습이 보인다. 호텔 방의 어두운 조명 밑에서 푸르스름하게 빛나는 종아리가 보인다. 흰 가운을 걸치고 노트와 펜을 든 남자. 여자들이 야후를 둘러싸고 어서 옷을 벗으라고 재촉한다. 야후는 침상에 올라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야후의 몸의 치수를 하나하나 재고 신중하게 기록한다. 흉위, 둔부의 크기 등등. 그 중에서도 한 안경 쓴 여의사가 적극적이다. 아직 성이 덜 찬다는 표정. 측정과 기록의 최종 목표는 이제 하나 남은 속옷 안에 있다는 것을 말은 안 해도 모두 알고 있다. 야후는 끝내 다 벗기를 거부한다. 그래도 침상에 올라야 한다는 것을 야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의과대학에서 시험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낙제고, 낙제는 일생일대의 수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못해 그는 침상에 오른다. 맨살에 닿는 침상이 차갑다. 야후는 등 돌린 금발 여인의 어깨를 잡아끈다. 돌아눕는 여인.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다. 끌어당겨 안고 가슴을 어루만져 보지만 발기가 되지 않는다. 초조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는 것



흰 가운을 걸치고 노트와 펜을 든 남자. 여자들이 야후를 둘러싸고 어서 옷을 벗으라고 재촉한다. 야후는 침상에 올라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야후의 몸의 치수를 하나하나 재고 신중하게 기록한다.

여자와 헤어진 알타는 다소 피곤한 눈을 빛내며 '진입 사실'을 제일 친한 친구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알리는 기분이 잠깐 되는 듯 했으나 곧 발설을 후회하는 마음이 되었다.

을 안다. 실패다. 그래도 행여나 하고 여인의 위에 오른다. 갑자기 여인이 까르르 자지러지게 웃는다. 도발적인 웃음 소리가 한참 이어진다. 아니다. 이런 웃음이 아니라 오르가즘을 느낄 때 지르는 여인의 비명인 것도 같다. 아무 행위도 없었는데 왜 비명이란 말인가? 그래도 어쨌든 낙제는 면한 셈인가? 야후는 의아해 하며 침상을 내려온다. 여전히 희미하게 비명소리를 입가에 흘리고 있는 여인의 벗은 몸에서 진땀을 흘리며 떨어져나오는 것이다.

V. 야후씨는 일요일 아침 어제 밤의 꿈을 생각한다. 그리고 곧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여인의 얼굴이 바로 화장대 위의 인형의 얼굴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잠시 의아해 한다. 그는 정신분석적으로 사고를 하는 병아리 정신과 의사인 동시에 진보적 페미니스트이다. 진보적인 남성은 아내의 성적 만족도에 대해 아내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어디서 읽은 말을 생각해 낸다. 진정한 진보는 남녀의 섹스의 진보에 기초한다는 성정치학의 선언적 문구도 야후씨의 머리를 스쳐간다. 그래서 오늘 그는 며칠간 벌리왔던 말을 아내에게 던지는 데까지 성공했다.

야후: 당신 요즘 섹스가 불만인가 보지? 어떤 게 그래?

아내: 아니. 난 그냥 요즘 별로 생각이 없어서 그래.

야후: 그게 말이 돼? 당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해주는 섹스가 엄청나게 좋다고 말했잖아?

아내: 그건 그래. 그런데 요즘은 웬지 그냥 그래.

야후: 당신 권태가 아냐?

야후씨는 오늘 아침 배달된 조간신문에 난 1998년 어느 따뜻한 봄날의 남북대화 관련 기사와, 따스한 봄비를 받으며 방금 자신이 아내와 나눈 대화를 비교해 본다. 야후씨에게는 짙이 비로니 이산가족 상봉이니 등등의 주제는 고리타분하게만 느껴진다. 그들이 나눈 대화보다는 자신이

나눈 대화가 훨씬 더 만족스럽다. 적어도 야후씨는 일요일 아침, 햇살 따듯한 탁자에 마주 앉아, 섹스라는, 모던하지만 어색할 수도 있는 주제를 가지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아내와 토의하고 있지 않은가? 야후씨의 시선은 남북대화 관련 기사의 바로 밑에 실린 행한 눈을 한 굵주려 뼈마른 아이들의 사진은 그냥 스쳐 지나간다. 그 아이들을 눈 앞에 두고도, 발을 준다 안 준다, 비료를 준다 안 준다, 어떻게 저렇다 아옹다옹하다 말았다는 사실은 야후씨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에게는 자신이 얼마나 모던하고 진보적인 남성인가가 켜이나 중요하다.

VI. 야후씨가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도중 야후의 머리를 번개처럼 스치는 하나의 추억이 있다. 그 추억은 4년 전 어느 겨울밤 신촌의 여관방 벽걸대는 침대 위에서 만들어진 야후의 첫경험과 연관된 것이다. 그 첫경험의 상대는 물론 현재의 아내다.

야후: 오늘은 정말 들어가지 마. 나만 여기 두고 간단 말 이야? 집에는 전화하면 되잖아. 그냥 안고 자고 싶어. 나를 위해 그 정도도 해줄 수 없어? 정말 우리가 이런 문제 가지고 실랑이할 줄 몰랐어. 우리 더 이상 이러지 말자. 오늘 들어가지 마! 제발. 절대 오늘 들어가면 안돼. 그럼 우리 관계도 끝장이야.

여자: 안돼. 집에다 뭐라고 그런단 말 이야. 안돼. 술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 나는 지금 들어가야 한단 말 이야.

결국 그 눈 내린 하얀 겨울 밤 야후와 장래 야후의 아내가 될 여자는 꽃무늬 커튼이 드리워진 작은 방에서 몸을 비비고 잠이 들었다. 그리고 새벽녘에 야후는 여자 안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여자와 헤어진 그는 다소 피곤한 눈을 빛내며 진입 사실을 자신의 제일 친한 친구에게

야후씨의 무의식에서는 여성과의 성교가 하나의 테스트다. 자신의 남성성이 합격하느냐, 떨어지느냐를 판가름 당하는 테스트. 합격의 조건은 첫째 충분한 발기를 이뤄야 하고, 둘째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알리는 기분이 잠깐 되는 듯 했으나 곧 발설을 후회하는 마음이 되었다. 그것은 헤어질 때 본 여자의 묘한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 야후씨는 아내와 진보적 대화를 나누는 도중, 자신이 총각 딱지를 댄 날의 기억이 왜 떠오르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두 경험들 사이에는 뭔가 연관이 있으리라고 어렵게 느끼고 있을 뿐이다.

Ⅶ. 야후가 뼈적거리리는 침대의 기억을 곰곰이 되새김질하고 있을 때, 야후씨의 아내는 일년 전 어느 12월 밤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요사이 그녀는 남편의 입냄새가 역겹다. 전에는 몰랐었는데 일년 전 그 밤에 남편의 입냄새를 정통으로 맡고 구역질을 할 뻔한 이후부터 그렇다. 인터콘(Intercon.)에서 열린 정신과 과장과 정신과 레지던트들의 부부동반 송년 모임에서였다. 아내는 자신이 다른 남자와 춤을 추는 것을 남편이 싫어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것이 남편의 아내에 대한 애정의 증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내심 호뭇해했었다. 그런데 그 인터콘의 연말 분위기 때문이었던가. 야후는 아내의 컵에 대고 과장님과 한번 춤을 취보지 그러니까 속삭였다. 과장이 보통이 아닌 눈으로 쳐다본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흘리려고 했으나 여러 번 그러자 그녀는 불쾌한 기분이 되었다. 그래서 맥주 한 잔을 벌컥대고 마신 후 과장에게 춤을 청했다. 그날 밤 인터콘의 한 객실에서 취한 남편의 몸을 받아들이면서 웬지 소리를 지를 기분이 아니었던 기억을 지금 그녀는 잠시 떠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때 그녀는 남편의 입냄새를 정통으로 맡았던 것이다.

야후의 아내 알타(Alta)는 이제는 입냄새 때문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인형을 면벽시킨다. 그

리고 요즈음 알타는 무기 하나를 손에 쥔 기분이다. 그 무기는 인형이 면벽하면서부터, 침대에서 등을 돌릴 수 있으면서부터 생겼다. 아니 정확히는 야후의 행위의 강박에 맞춰 소리지르기를 그만두겠다는 결정을 하면서부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Ⅷ. 야후와 알타는 일요일 아침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막 진보적 대화를 마쳤다. 야후는 알타와의 섹스 문제가 그들 부부가 권태기에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자위적 단정을 지었다. 그리고 알타는 오늘 아침 웬지 자신도 진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면 이런 것이 페미니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다. 둘은 비교적 만족스런 얼굴로 백화점 쇼핑을 위한 차림을 서두른다.

야후와 알타, 그 숨겨진 이야기

1. 디스나 팔팔 담배에서 냄새가 난다는 사람을 또 한 사람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이태리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다 온 남자였다. 그리고 보니 이 디자이너와 야후가 놀린 선배 정신과 의사에게서는 또 하

나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두 사람 다 집에서 설거지를 자주 한다는 점이다.



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우선 이태리 빠다는 다소 계면적어 하며 말보로 담뱃갑을 꺼내 놓았다는 점이며, 미국(그 선배는 미국에서 좀 살다 왔다) 빠다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보로 연기를 툭툭 피워올리면서 디스와 팔팔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이태리 빠다의 경우는 내가 우연히 집에 갔다가 설거지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고, 미국 빠다는 사람들을 여럿 초대한 자리에서 보란 듯이 설거지를 하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아는 한 이태리 유학과 디자이너는 온몸을 던져가며 자신의 급진적 이태로기를 실천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진보주의자이고(그는 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다), 미국 빠다는 야후씨가 간과한 대로 골수 보수주의자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진보적 남성을 판가름할 때, 예를 들어 아내의 설거지를 도와주는 남자나 아니나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혹시 설거지를 하는 자신의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진보적임을 사람들 앞에서 입증하는 기회로 삼는지의 여부까지도 꿰뚫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아내의 성적 욕구를 존중해 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두 사람 사이에 인형을 도입한 것은 야후씨가 진정한 진보를 지향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야후씨는 2000년을 코앞에 둔 이 마당에 진정한 진보는 반드시 페미니즘을 내포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평소 야후씨는 자신이 존경하는 진보적 인사인 고온(高溫) 시인이 나 이영희(李泳姬) 교수님은 사모님들과의 섹스를 어떤 식으로 할까 하는 궁금증을 가질 때가 많다. 이런 심오한 뜻을 가지고 사들인 인형이 면벽만 하고 있는지 한 달이 넘었으니, 야후씨가 당황하는 것은 당연하다.

3.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야후씨의 부부에게 토요일은 사

랑의 밤이었다. 그러나 요사이의 토요일 밤은 야후씨에게나 아내에게나 다소의 어색함을 안겨주지 않을 수 없다. 야후씨의 아내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평평한 긴장감이 싫다. 그러니 빨리 잠을 자는 것이 최선이다. 뭐 좋은 핑계거리 없을까? 식사를 마치고 예상했던 어색한 시간이 다가오려 하자 때맞춰 두통이 찾아와 주었다. 야후씨의 아내는 내심(무의식에서) 패재를 부른다. 바로 이런 식이다. 여성들은 불감증, 질경련, 성적으로 흥분되지 않는 것 등을 통해 암암리에 상대 남성에게 대한 무의식적 적개심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야후씨의 아내가 야후에게 요즈음 느끼는 감정이 증오, 적개심일까? 그렇지 않다. 다만 뭔가 두 사람 사이에 해소되어야 할 문제가 있음을 막연히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야후씨는 이 문제의 본질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는 내 섹스 방식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식의 추측을 하고 있다.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 야후씨의 문제다. 아내의 섹스를 존중해 준다는 점에서 야후씨는 페미니스트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섹스를 자신이 아내에게 베푸는 무엇으로만 암암리에 생각하는 것, 섹스를 자신의 남성적 능력을 과시하는 장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설익은 페미니스트로서 야후씨의 한계다.

4. 꿈의 해석(야후씨의 꿈은 야후씨의 무의식적 진실을 알아볼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다): 차라리 침상이라고 해야 할 침대는 야후씨가 다녔던 해부학 실습실의 커다란(해부용 시체)가 누워 있던 침상을 상징한다. 우등생 속에 속했던 야후씨는 '병시현(의대생들은 해부실습시험을 병시현이라고 한다. '병' 하면 다음 실습 문제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서 낙제를 할 뻔했던 아찔한 기억을 가지고 있

다. 그래서 해부학 실습실은 야후씨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다.

그러므로 야후씨가 꿈속에서 실습대에 오른다는 것은 자신이 테스트의 대상이 된다는 것, 발가벗겨져 모든 게, 특히 자신의 위축된 왜소한 성기가 만방에 보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후씨의 무의식에서는 여성과의 성교가 하나의 테스트다. 자신의 남성성이 합격하느냐, 떨어지느냐를 판가를 당하는 테스트. 합격의 조건은 첫째 충분한 발기를 이뤄야 하고, 둘째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꿈 속에서 야후씨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시험대 위에서 야후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차가운 금발미녀는 아내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얼마 전에 본 야한 영화 <O양의 이야기(The Story of O)>의 O양을 상징할 수도 있다.

야후씨는 무의식적으로 이미 아내가 오르가즘을 가장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증거가 성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 것에 대해 야후씨가 어느 정도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쨌든 합격은 합격인데 석연치가 없다는 것을 느끼는 꿈 속의 야후씨.

5. 진보적 남성이 되기를 갈망하는 야후씨의 욕망은 그 나름대로 유래가 있다. 지독한 보수주의자인 야후씨의 부친에 대한 반발로 그는 일찌감치 진보를 지향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다. 그리고 히틀러 치하에서 벌벌 떨며 살아온 그의 어머니를 보며 그는 '진보 = 페미니즘'이라는 공식의 마음 속 깊이 각인해 둔 바 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 아내와의 현재 줄다리기를 진보적으로 해결해 보려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진정한 자신의 속마음은 감추어두고 겉도는 대화만

을 주고받고 있다. 이것은 뒤틀린 진보이고 왜곡된 페미니즘이다. 그리고 권태기라는 모호한 단어로 현상황을 규정해 버림으로써 그는 작금의 문제와의 정면대결을 피하려 하고 있다. 그럼 이들 부부의 진짜 감추어 둔 대화는 무엇일까? 생각컨대 그들은 마음 속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었으리라.

야후: 아니, 이 여자가 내 섹스에 대해 뭐가 불만이야?

아내: 뭐가 불만이긴 뭐가 불만이야. 이제까지 내가 좋아서 소리지르고 그런 줄 아는 모양이지? 소리를 안 지르면 실망할 게 뻔해 역지로 그런 척 한 것을 모르다니. 남자들이란 참.

야후: 너는 내가 해주는 것이 만족스럽다고 했잖아! 제끼랄 도대체 내가 그런 어떻게 해줘야 해! 몇달 전 포르노 비디오를 보여준 것이 문제가 된 것일까?

아내: 이제는 오르가즘을 가장해서 소리지르고 몸을 뒤틀고 그러긴 싫어. 더 이상, 그런데 왜 나는 오르가즘이란 걸 못 느끼는 것일까?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야후: 내가 이상한 건 아닐 거야. 갑자기 이 여자가 용녀가 되었거나 다른 남자가 생겨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 그래, 이런 걸 권태기라고 하는 건가 보지. 좀 지나면 좋아지겠지. 지도 계속 섹스를 참지는 못할 걸? 못 해도 일주일 에 두세 번은 오르가즘 맛을 본 여자인 걸.

여기서 야후씨가 생각하는 포르노 비디오는 얼마 전 야후씨가 아내의 면벽중인 인형을 돌려놓기 위해 비디오대여점에 가서 사람들 눈을 피해 야한 영화들만 훑쳐 있는 코너에서 얼른 뽑아온 <O양의 이야기(The Story of O)>다. 야후씨는 이 영화를 포르노물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사실은 세도매저키즘(sadomasochism)을 정면으로 다뤄 당시에는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던 영화일 뿐이다.

여성에 대한 야후의 새디스트적 사고방식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놀랍게도 그것은 어린 야후를 키운 어머니라는 이름의 여성에게 그 뿌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야후의 어머니 위에는 채찍을 손에 쥐고 멋진 콧수염을 기른 준엄한 모습의 히틀러가 군림하고 있다.

6. 야후씨와 아내의 첫경험을 분석해 보자. 야후씨는 아무래도 여자를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의지대로 붙들고두고 섹스(정복)할 수 있었다는 데에 그 의미를 두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야후는 어느 불특정 '암컷'과 섹스를 행한 것이지, 하나의 인격체와 섹스를 한 것이 아니다. 진입했다고 느끼고, 인천상륙작전으로 느끼며, 마치 큰일이나 해낸 듯이 친구에게 고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이 남자의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세상의 많은 남성들이, 한 여성과 첫 섹스를 하는 데 일단 성공하고 나면 그 여성에 대한 흥미가 반감되고 마는 것을 종종 경험하는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번 올라선 히말라야 정상에 대해 그토록 전전긍긍하며 다시 오르겠다고 전의를 불태울 이유가 반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상대 여자는 어떻게 된 일인가? 야후가 가진 정복욕의 대상이 될 뿐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저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의 여주인공이 되기로 작정을 한 것일까? 그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영민한 여성인 그녀는 자신의 남성성을 인정받고 확인하고자, 아버지 히틀러의 폭압에서 벗어나고자, 진정한 진보주의자가 되고자, 진정한 페미니스트가 되고자 강박적으로 발버둥치는 영원한 미소녀의 모습을 야후에게서 본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이 똑똑하지만 영원히 아이에 머무를 수도 있는 야후의 엄마가 되어주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래서 '그래, 넌 진짜 남자야. 그래, 넌 진정한 진보주의자이고 페미니스트야'라고 그의 꾀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여주는 역할을 떠맡고자 결심한 것이다.

어쨌든 많은 여성들은 이런 식으로 그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간직해 왔던 것을, 마치 이 세상에 대해 두 손 들고 항복하듯이, 뼈저거리는 침대 위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

과는 무관하게 내주고 만다.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7. 뼈저거리는 침대의 추억은 상대를 자신의 발 아래 놓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자의 추억이다. 그리고 그 남자는 자신의 행위 여하에 따라 상대가 오르가즘(비명소리)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남성이다. 그 생각을 극단으로 몰고가면 특정 자극에 대해 충실하고도 정확하게 정해진 반응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계적 생명체로 상대 여성을 간주하는 한 새디스트(sadist)의 모습이 보인다.

일찍이 야후의 남성으로서의 체면을 세워주기로 결심한 아내는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의 매저키스트(masochist)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야후가 '해주는' 섹스가 즐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지 그녀는 신음소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야후, 당신이 최고의 남자야!'라고 만방에 소리지르는 역할을 비교적 충실하게 수행해 왔을 따름이다. 덕분에 야후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세상이 살만하다고 느꼈었다. 약간은 거드름을 피우는 자세로.

야후의 여성에 대한 이런 새디스트적 사고방식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놀랍게도 그것은 어린 야후를 키운 어머니라는 이름의 여성에게 그 뿌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야후의 어머니 위에는 채찍을 손에 쥐고 멋진 콧수염을 기른 준엄한 모습의 히틀러가 군림하고 있다. 야후의 어머니는 고추가 달렸다는 해부학적 사실을 매우 중시한다. 그래서 히틀러와 아들의 해부학적 공통점으로 인해서 두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동일 선상에 놓고 본다. 더구나 자신의 좌절과 분노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존재로서, 또 자신이 이루지 못한 독립과 힘에의 열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대리인으로서, 그녀는 야후를 또 한 사람의 새디스트로 확대재생산해 내는 역사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왔

무기의 일생

남자, 또는 개라고 불리는 당신에게



이호인

편집위원. 법대 나오고 대학원에서 음악이론을 전공하다 중퇴. 기자생활 8년남짓 하다가 '한파'를 틔워, 퇴직. 국악이론 대학원에 입학했다. 서툰한 삶에 세 살 위 여자와 결혼. 취미 말 남겼다 '원조' 한 글에 마침내 어머니/장모 아내에서 이어지는 '취미 말' 3대를 완성시킨 걸 스스로 대단스러워하고 있다. 불행과 실거지, 애초기를 잘 하고 형소여 비스잘도 제법 하지만 먹는 거라곤 맵고 라면밖에 못 만들면서 '젊은 학생남'은 듣게 어다. '며' 달달하게 아내 집에 얹혀사는 간 큰 남자.

창녀를 없애면 여러 여자 다친다?

세종조에 지방관청의 관(官)을 폐지하려는 의논이 있었는데, 의정부 대신들에게 물으니 모두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다. 오직 허조(許租)에게만은 의논하지 못하였으니, 그는 색(色)에 담당한 사람이므로 극렬하게 폐지를 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허조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남녀관계는 인간의 큰 욕망이니 금할 수 없는 것이다. 고을의 창고는 관청의 물건이니 취하여도 무방하다. 만일 이것을 엄히 금한다면 나이 젊어 지방으로 부임한 중앙 관리들이 모두 불의하게 사가짐 여자를 탈취함으로써 영웅, 준절이 여럿 죄에 빠지게 될 것이니, 폐지는 마땅치 않다.' (『연려실기술』에서)

어디에 있을까, 나의 칼집은

스물일곱, 사회 초년생인 당신에게 어머니 이외의 여자란 당신에게 '탈것', '구멍',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가진 건 돈과 시간뿐이라 대학, 군대, 백수 시절 그토록 목말라하던 주색에 실컷 빠져도 보고, 그러면서 사회를 조금씩 알게 되고, 어느덧 현실적이 되어버린 당신은, 내키면 아무 때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칼집'이 없다는 사실이 슬슬 아쉬워지기 시작했고, 얼마 전 장가든 동기놈이 계승처럼 얼굴로 출근해 오전부터 꾸벅꾸벅 조는 걸 보면 괜히 부아가 치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시절 동아리에서 소 닭 보듯 매일 만나던 두 살 아래 여자후배를 우연히 회사 앞에서 오랜만에 만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후배를 '다시 보게' 된 당신은 한 달 보름만에 그녀를 정복했고, 반년만에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사이판에서 보낸 결혼 '첫날밤' 아닌 '결혼' 첫날밤. 당신은 모처럼, 아니 처음으로, 제한시간 없이 (이제는 아내가 된) 그녀의 몸을 마음껏 탐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이따금 그랬듯이 그 밤 그 자리에서 두 차례 일을 치르고 끝 아떨어진 당신, 이튿날 대낮이 다 되어 눈을 뜬 당신은 처음으로 간밤 그 복장(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대로 당신 곁에 남아 있는 아내를 보았고, 본 김

던 것이다. 그래서 야후는 여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새디스트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져 왔으며,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지배자(새디스트)인 아버지, 히틀러 앞에서는 메저키스트적인 인간으로 길들여지고 성장해 왔다.

그래서 야후는 어른이 된 지금도 아버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과장을 히틀러로 기꺼이 경외하고 모시며, 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다(비록 그 자신은 이 사실을 부인할지라도). 그래서 그는 작년 12월 어느 밤 사랑하는 아내를 존경하는 과장님께 진상(?)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이것은 영화 <O양의 이야기(The Story of O)>에서 O양에게는 새디스트로 행세하는 르네가 자신에게 지배적 힘을 행사하는 스테판 경에게 O양을 헌납하는 과정과 너무나 흡사하다.

이런 식의 새도메저키즘적 연쇄사슬 구조는 우리의 일상 어느 곳에서도 발견된다. 밖에서는 품앗이 못 하면서 집에 들어오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군으로 군림하며 심지어 폭력까지 휘두르는 가정의 모습에서부터, '이 일이 싫으면 언제든지 떠나라, 그리고 다른 일을 찾아라'라는 고용주의 말을 듣고 아무런 대응책 없이 무기력한 자신을 돌아보며, 거꾸로 이제는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환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정신병원의 보호사에 이르기까지.

야후의 아내는 자신을 지배하는 야후가 병원에서는 거꾸로 상관의 권력에 의해 지배당하는 자의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의 연회장에서 알아차린다. 유일한 지배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한 지배자인 듯 보이는 자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 그 역시 누구에 의해, 또는 무엇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그러니 유일한 지배자를 추구한다는 것, 유일한 지배자를 끝없이 섬기려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알타(Alta)의 탄생: 수천 년 동안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연쇄구조적 권력사슬의 썩은 냄새를 야후의 입에서 맡고야만 알타는 더 이상 야후의 지배욕에 부응하는 것이 의미없는 행동이라고 느낀다. 그래서 그녀는 비명소리 생산을 중단한다. 바로 이 순간이다. 이제껏 익명의 한 암컷으로만 존재해 왔던 여인이 알타(Alta)라는 하나의 이름을 온전히 움켜쥐고 책임지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8.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할 것도 같은 설익은 두 패미니스트, 알타와 야후의 삶을 계속 지켜보자.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주)

Yahoo: ① 대표적 인터넷 검색 도구의 하나. ② 야후(절리버 여행기 중 사람의 모양을 한 짐승). ③ [y~] 짐승 같은 사람. 무뚝뚝한(무례한) 사람.

Alta: 대표적 인터넷 검색 도구의 하나인 Alta Vista에서.

Intercon: 인터컨티넨탈(Inter-continental)호텔에서.

그들만의 이디픽에스

(내 친구가 여자친구에게 한 말)

내 친구가요, 자기 여자친구랑 비도방에 갔었대요~.

그 녀석이 거기서 그냥 비도만 볼 인간이 아니죠.

한참 몸이 달아서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그 여자친구보고 이랬대요~.

"XX야 내가 니 유방 보고 싶 하나 지않다~."

"응? 뭔데?"

친구가 이랬대요~.

"그대의 유방은 겨울 날의 따뜻한 호빵처럼 단팥이 빠져나와 있다..."

그들만의 이디피에스

(여자가 가장 예뻐할 때)

처음 볼 때: 웃을 때 긴머리를 풀고 나비처럼 사뿐사뿐 걸을 때 이때 상당히 예뻐 보이죠. 그리고 다리를 8자로 해서 미소를 띠며 아랑아랑 걸어갈 때.

얼마 전: 뽕가에 열중하고 있을 때. 버스 안에서 나에게 기대어 다소곳이 잘 때.

요즘: 나한테 애교 떨 때. IMF시대를 맞이해서 레스토랑에 가서 가장 싼 돈가스만 먹을 때.

값싼 몸매까지 사귀도 평안거리지 않을 때. 얼마 후: 내가 꼭 안아도 핑기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몸 좀 건드릴 때 가만히 눈 감고 있을 때.

군대갑: 기다리고 있을 때라고 말할 때.

군대 있을 때: 권지 계속 날라오고 면회 올 때. 면회 와서 날 위해 외박 신청할 때.

아침에: 깨워서 밥 차려줄 때.

아침에 깨워도 깨워도 안 일어나면 달콤한 키스로 날 깨울 때.

저녁에: 샤워한 후 같이 자자고 하면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그리고 충직한 맘 풀릴 때.

막놀다가 잠에 안들어가도 된다고 말할 때.

20대: 날 위해(?) 예쁜 아가 날아올 때.

친구들이 잠들이 놀러와 그녀에게 예쁘다고 말할 때.

30대: 집 편수 작다고 징징대지 않을 때.

돈 조금 갖다줘도 알뜰하게 살 때.

40대: 날 위해 해장국 끓여줄 때.

날 위해 정력제 사다줄 때.

50대: 뜨겁게하며 "당신 살 때"라고 할 때.

자식들 바라보면서 눈을 흘릴 때.

60대: 당신 젊었을 때 멋있었어요 할 때.

에 한 차례 더 나만의 칼집에 칼을 꽂았습니다. 불과 나흘 전까지 매년 느끼던 신선감. 아뭏든 정복의 쾌감이 이제오늘은 왠지 덜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잘 키운 애인 하나, 열 아내 안 부럽다

서른하나, 직장생활도 결혼생활도 이제 못내기 티를 뱉었습니다. 첫아이를 낳으면서 당신의 집요한 중용으로 직장을 그만둔 아내는 갈수록 바가지가 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엔 댄스 헤어지기 싫다면서 열두 시 넘기기 일쑤더니... 요즘은 열두 시 전에 들어오는 일이 없네."

"당연하지. 그때 니가 애인이었지만 지금은 마누라 아니냐."

"옛날엔 일주일이 멀다하고 꽃이며 선물이며 갖다바치고 노는 날이면 같이 놀러가지 못해 안달하더니. 지금은 뭐야? 내가 과부냐?"

"음... 잠은 고기한테 미끼를 안 주는 법이지."

거의 하루 걸러 아이가 잠든 한밤에 벌어지는 이런 말싸움은 그러나 본게임에 들어가면 언제나 당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당신의 '매직 핸드'가 무릎과 무릎 사이를 스치기만 하면 종알대던 입술이 어느새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당신의 입술을 덮어오는 아내. 거친 숨소리는 이윽고 발은 신음으로 바뀌고, 그렇게 아내는 한판패를 당합니다. '여자들이란 단순하다니까.'

마누라가 아래를 쓰다듬으면

서른다섯. 그 동안 딸 하나 아들 하나를 아랫배에 칼 한번 대지 않고 '뽕으로 뽕아낸' 아내의 밤의 몸짓에 변화가 온 지도 꽤 되었습니다. 사나흘 간격으로 밤이면 낙지처럼 감겨오는 아내. 언제나 그랬듯이 대개 당신이 한판승을 거두지만, 예전처럼 완승은 거두지 못하고 유효나 효과. 심지어 반절을 뺏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혼 전부터 늘 이 일은 당신의 권리였고 당연히 당신이 위에서 아내를 제압했지만, 이제는 의무가 되었고 패시브를 먹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당신은 슬슬 밤이 귀찮아집니다. '애인이 머리를 쓰다듬으면 아래가 일어서고, 마누라가 아래를 쓰다듬으면 머리칼이 곤두선다더니...'

그래도 아직 회사에선 잘 나가는 당신은 자주 나가는 외국 출장에서 뭔가 화끈한 재미를 찾아봅니다. 아내는 방에 꼭 처박아두고 당신은 방콕으로. 하루종일 와이프는 이불 위에서 예들과 씨름하는데 당신은 하와이로... 멀리 모스크바, 벨기에까지 가서 '금잔디에 태극기 꽂고' 대한남아의 기개를 세계에 떨쳐보였죠. 아직은 물건 하나는 쓸만하다고 자부하면서.

고개숙인 남자는 밤이 두려워

서른아홉, 여러 사람 잘려나가는 모친 품과 속에서 당신은 잘도 버텼습니다. 월급 좀 깎이고, 대휴도 못 가면서 수당도 못 받고, 남보다 일찍 달아 올봄잠 뽕 거라고 기대하던 부장 '대우' 꼬리표를 당분간 더 달고 다녀야 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살아남은 게 어딘가요. '상사한테 야양 떨고 거래처에 웃음 파는' 창녀 같은 봉급쟁이 신세가 지겨워, 한때는 약사 마누라 셔터맨 하면서 구멍가게만한 회사 '운동 삼아' 다닌다는 동창놈을 부러워도 했지요.

가슴살이 다 배로 내려오고 주변머리, 속알머리가 눈에 띄게 없어진 당신은 퇴근하면 별달리 오라는 데도 없어 웬만하면 일찍 집으로 들어갑니다. 저녁상 물리고 아홉시 뉴스, 스포츠 뉴스... 연속극은 그게 그것같이 애꿎은 리모콘만 꺾꺾 눌러대는 사이 아내는 안방에서 등 돌리고 코골기 시작하고, 마감뉴스 할 때쯤이면 당신도 고목나무 쓰러지듯 그 옆에 무너져 반대로 등 돌리고, 문득 눈 떠보면 벌써 아침! 똑같은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밤은 이게 웬일입니까. 심야다큐 막 시작하려고 01x00텔 광고가 한창인데, '봐!' 물줄기 소리! 가슴이 철렁, 머리칼이 쭈뼛, 잠시후 샤워컵을 벗으며 욕실에서 나온 아내는 안방 화장대 앞에 앉아 얼굴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안 자요?"

"어디 나갈 땐 화장도 두세 시간은 하는 것 같더니 왜 밤화장은 대충이나? 아, 밤이 정말 무서비!"

지팡이 없이 곳곳이 건강하게 걸을 때.
70대: 우리, 죽거든 같이 묻히시다 하며 나지막하게 말할 때.
여보: 우리 잘 행복했어 할 때.

(정비부인)

아내가 부인병으로 입원중인 산부인과에 전화를 건 남편 "선생님! 제 검사할 결과는 어떨습니까?" 그런데 이 전화가 어쩌다가 그랬는지 자동차 정비공장의 전화와 혼선이 되어버렸다.

정비공장: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남편: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정비공장: 그러나 저러나 너무 험하게 쓰셨더군요.

남편: 아이구, 이거 부끄럽습니다.

정비공장: 선생의 피스톤이 말이지, 너무 험은 것 같아요. 신폴과 바퀴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좀 굵은 걸 가져왔어 봤더니 상태가 나아지더군요. 오늘 밤 제가 한 두번 더 타보고 수리를 잘 해드릴 테니 걱정 말고 기다리십시오.

남편: ...

(이 여자는 어떤 속옷을...?)

한 패션 감각 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속옷 색깔과 신발 색깔을 같은 색으로 입었는데,

예로...

빨간 속옷을 입으면 빨간 신발을 신고
파란 속옷을 입으면 파란 신발을 신었다.
그런데 만약 그 여자가 속옷을 안 입었다면...

죽 노랜터었다면...

어떤 신발을 신었을까?

털신...

당신의 남자는 어떤 유형인가요?

남자에도 유형이 있다. 당신의 남자는 어떤 유형일까? 다음은 미국의 래디컬 페미니스트 그룹 '레드스타킹'에서 개발한 네 가지 유형의 남성상이다. 인간의 유형을 스톤(돌), 크롬(도금), 실버(은), 클레이(찰흙) 등 네가지 광물로 분류한 이 남자분류법은 남자와 관계를 맺고 또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여성들에게 유용한 기준을 제시한다.



1. 스톤(stone)형 — 돌 같은 남자

스톤형은 남편상의 원형적인 남자다. 그는 상식적인 외형을 유지하는 데 가장 관심이 많으며 기분이나 느낌 같은 정서적 문제에는 민감하지 못하다. 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여자 또는 아내에게 화를 내기 때문에 여자는 즉각적으로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을 탓하게 되고 남자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아내가 자책하지 않고 남자에게 화살을 돌릴지라도 그는 아내의 태도에 대해 마음 속으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반면 그는 사회의 제반 요구에 적응을 잘하며 기득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체로 성공적이다. 그는 일을 가장 중시하며 모든 것이 정확한 편이고 언행이 일치하며, 한다고 말한 것은 반드시 해내는 스타일이다. 잘된 경우 스톤형의 남자는 역사 교수이거나 정부 관료, 엘리트 학자 심지어 상업미술가 등이 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정치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서 그의 무감각성이 발휘된다면 폭탄투하 같은 위험한 일도 할 수 있다.

성행동: 근육이 경직돼 있거나 임포 경향이 있다. 일에 대한 관심이 성적 관심보다 우위에 있으며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편이다.

정치성: 무의식적으로 제도권적 사고를 하며 과학기술과 테크놀러지를 숭배한다.

정서: 자기만족적이며 정서적으로 둔감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편안하거나 느긋한 것은 아니다.

행동유발 동기: 혼란을 참지 못하고 정리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영역과 범위 안에서 활동한다.

예술성: 상업적인 아방가르드(전위주의)를 좋아하며 단순하고 대중적인 것, 추리물, 조형예술을 좋아한다.

여성모독: "우린 그냥 안 맞아." (심드렁하게 말한다)

직업, 제도: 경력이나 학력을 가장 중시한다.



2. 크롬(chrome)형 — 도금 같은 남자

크롬형의 남자는 사기꾼 기질이 농후하며 남에게 얹혀살려는 기생충 근성까지 있다. 그는 정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질투를 느낀다. 그러나 그는 사실상 감정의 표현을 약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상처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는 교묘한 술책으로 위장하고 자신의 사적인 도락을 위해 다른 사람의 진짜 감정을 이용하고 거

기에 보조를 맞추며 즐긴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언제나 의식하고 있으며(그에게는 인간관계도 게임과 같다) 남에게 보이는 스타일이나 행동, 매력 등을 연기하는 데 탁월하기 때문에 첫눈에 사람을 사로잡고 매혹하는 타입이다. 이상하게도 그는 특정 상황에서는 자신의 나쁜 점이나 죄악도 자유롭게 고백한다. 때문에 크롬형 남자의 완벽한 상대(호구)인 순진한 자유주의자는 그가 자인한 잘못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며, 오히려 친구로서의 그의 매력과 좋은 점만을 철석같이 믿는다. 그는 또 자신의 미덕을 과장되게 과시하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교활한 기회주의자이다.

성행동: 새도매저키즘적이며 펠라치오(fellatio, 남성 성기에의 구강성교)를 좋아한다.

정치성: 도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의식적으로는 보수적이다.

정서: 두려움, 증오심, 공허감, 원망 등의 감정에 자주 휩싸이며 자포자기적이다.

행동유발 동기: 권력과 명성을 좇고 각종 빚독촉으로부터 도망갈 구실을 찾으며 누군가 자기를 구제해 주기를 바란다.

예술성: 동양풍, 비잔틴, 고딕스타일을 좋아한다.

여성모독: 폭력적으로 성적인 욕설과 '멍텅구리 같은', '돼지 같은', '예뻐한' 등의 표현을 자주 한다.

직업, 제도: 술, 마약, 도박, 범죄조직 등 각종 사회악과 친숙하기 쉽다.



3. 실버(silver)형 — 은 같은 남자

실버형은 충실한 자유주의자이다. 그는 교활한 사기꾼 크롬형 남자와 친한 친구일 수 있으나 순진한 자유주의자처럼 그에게 속아넘어가지는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인지는 의식하지 않고 순수하게 좋은 학교를 가거나 모범생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내면욕구에 충실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기를 원하며 거기에 많은 가치를 둔다. 그러나 종종 자기 자신에게 미덕이 하나도 없다고 걱정할 때도 있다.

그는 타인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데, 자신의 내면적인 공허감을 피하기 위해 자신 안에 있는 크롬형적인 요소(술책)에 탐닉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방법론을 사용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선을 믿는 사람이며, 자신의 논쟁 능력과 이성적 논리성에 긍지를 느끼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가 자신의 모순적인 입장에 대해 과도하게 인식할 경우 그는 자신의 이중성에 좌절하여 선을 믿는 자신의 신념을 부정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다.

그는 클레이형(혁명가 스타일)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못하며 그것은 그에게 도달할 수 없는 장애요소이다. 클레이형 남자에게 실버형 남자는 잘해야 감상적인 온정주의자로 비친다. 실버형 남자는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말에 웃음을 터뜨리고 크롬형 남자는 웃음을 빌미로 그의 목을 조인다.

성행동: 여성이 클리토리스오르가즘을 느끼도록 도와주며 쿠닐링구스(cunnilingus, 여성 성기에의 구강성교)를 좋아한다. 부부간의 정절을 지키는 데 관심이 많다.

정치성: 의식적으로 리버럴한 입장이다.

정서: 상냥하고 참을성이 많으며 보편적이다. 흥분하지 않는다.

행동유발 동기: 주로 친해지기 위해 행동하고 좋은 느낌을 추구하며 남에게 잘 하려고 한다.

예술성: 전원풍, 낭만주의, 향수어린 스타일을 좋아한다.

“아우, 야하면서도 매력적이면서도 지적이면서도 뭐 좀 그런 남자 없나?”

if 수다방이 뽑은 최고의 남자, 최악의 남자

이상적인 남성상이 바뀌고 있다. 요즘 여성들은 더 이상 남자를 여자 부양능력과 출세능력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if는 여성들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남성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다방을 마련했다. 까페나 찜질방에 앉아 수다를 떨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일시: 1998년 5월 어느 날 12시 중국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하면서
참여자: 미혼여성 2명, 기혼여성 6명, 미혼 남자 1명 등 총 9명

김나: 녹음도 해요?

박선: 예, 수다방이거든요.

김나: 굉장한 거구나. 난 이 메카니즘을 모르고...

선명: 정말? 그럼 이름도 들어가요?

박선: 그래서 이름을 빼면 어떻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야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들을 하실 테니까.

김나: 그래, 가명을 넣자.

선명: 그래, 그래, 그럼 가명을 넣어. 그러니까 유숙희... 이런 식으로. (모두 웃음)

김나: 김심미자(웃음) 이렇게? 누군가 같으면서 아닌 거 같은...

박선: 아닌 거 같지 않아. 그 이름 들어보면 딱 누군 거 같애.

김나: 여기 모인 사람들 이름을 해체 구성을 해서 복합조합으로 막 만들면 한 6~7개는 만들 수 있어. 이중인격

자로 말하면 되는 거야. 다중 퍼스낼리티를 가지고 말하면 되겠다.

결라: 이제 얘기 시작하죠. 연예인에 대해서 말을 해봐요.

김나: 난 영화배우 얘기할 때나 재밌지 다른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

영이: 그런 영화배우로 하세요.

김나: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대상화하면서 쾌락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지요? 페미니스트가 뽑은 남자. 이런 건 별로 없잖아. 페미니스트들이 원하는 남성애 대한 바람. 이런 거 우리 많이 해야 돼요. 아무리 해도 미스코리아 대회만큼의 과급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게릴라처럼 막 해대야 되는데. 이런 걸 제대로 하는 단체가 사실 소수라고. 그리고 사실 여자가 남자 뽑는 거는 드물거든.

선명: 근데 뭐뭐 뽑자는 거죠?

최악의 남자 (무순)



위부터
(이문열) '선배'의 이미지가 없다.
(김우식) 세상에 세심함과 미혼남성에 없다고 생각하는 남자
(김보성) 미혼의 전형.

여성모욕: '불쾌한 여자', '아심있는 여자' 등을 묘는 듯한 비난의 문으로 한다.

직업, 제도: 자기 자신 또는 가정을 중시하고 일반적으로 좋은 것을 대변한다.



4. 클레이(clay)형—찰흙 같은 남자

열정적이고 분명하며 다른 사람들의 모든 부분과 요소까지 파악한다. 그는 언제나 깨어 있고 새로운 사실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까다롭지 않고 포용성이 있기 위해 애쓴다. 진실을 추구하려는 본성 때문에 그는 자연적으로 열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유주의적인 감성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도 자유주의적인 감각을 용인하고 수용하고자 한다.

이 남자는 인간성의 파괴나 인간에 의한 인간의 종속 같은 것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고통으로 작용한다. 미학적으로 영혼의 본질적 정신작용을 중시하는 그는 다른 사람의 심리상태나 정신세계에 끼어들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는 공식적이고 기계적인 것을 혐오하며 관대함을 추구하는데, 어쩌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놀라운 정도로 극단적인 미덕을 추구할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궁극적으로는 같이 지내기도 좋고 함께 무얼 하기에 좋은 사람이다.

그는 가짜(크롬형)를 첫눈에 알아보고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교류하지 않는다. 무언가에 대해 나쁘다고 말하거나 남을 비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는 스톤형 남자의 죽은 영혼 같은 완고함에 대항해 싸우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수행한다. 그는 가벼운 마음의 자유주의자(실버형)와 인생 동지가 되지는 못하지만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낼 수는 있다.

성행동: 모든 '터치'가 고유의 독자적인 행위이며 동시적 오르가즘을 선호하고 순결성에 관심이 많다.

정치성: 존재론적이고 독창적이며 혁명가 스타일이다.

정서: 정직하고 열정적이며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분노에 충실하다.

행동유발 동기: 배우기 위한 것이 가장 주요한 동기다.

예술성: 고전적 자연주의, 사회주의적 현실주의, 진정한 아방가르드 등.

여성모욕: '인간도 아니'가 최대의 모욕이나, 거의 삼가는 편이다.

직업, 제도: 사회 전체를 중시하며 사랑하는 여자의 발언에도 중요한 비중을 둔다.

당신이 꿈꾸는 남자는 위의 각 유형을 초월하는 남자일지도 모른다. 연인으로서의 클레이형을, 친구로서는 실버형을, 또 직장동료로서는 스톤형을, 적과 싸울 때는 크롬형을 원할 수도 있다. 물론 한 남성 안에 바람직한 유형이 경우에 따라 나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교육하기 나름 아닐까? Good Luck! 11



박선: if가 뽑은 남자 베스트, 위스트 10명 이렇게 갈 거예요. 아까 어떤 선배가 전화로 말했는데 (선배 말투 흉내 내며) 베스트는 강준만, 위스트는 당연히 이문열이지.

선명: 이문열은 만장일치로 최악이지 만 강준만은 페미니스트 의식 있어요? 김나: 강준만 '인물과 사상' 보셨어요? 예를 들면 페미니즘에 대해 평소에는 뭐도 하나 안 하면서 가끔 설거지해준다고 자기가 대단한 페미니스트인 척하면 이게 맞는 말이나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 이문열도 잘 썼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준만은 괜찮은 거 같아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 언론을 믿지 않잖아.

선명: 그래서 게릴라저널리즘을 지향하잖아요. 대단한 저항이야, 사실. 김나: 강준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문열이랑 조선일보 김대중 아니야. 선명: 이문열, 김대중 이런 사람들 사실 우리는 싫어하지만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지지하는 거 아니?

김나: 나는 한국 국민과 나를 아이덴티파이 죽어도 못 시켜. 나는 정신적으로 한국 내에서 무정부주의자야. 한국 국민이 남성국민인데 남성들의 감정 얘기에 동화될 필요 없지.

박선: 아, 그리고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신정후 교수 넣어야지.

선명: 그 사람은 '남자에게' 복지에서 썼으니까 빼버려.

박선: 아, 위스트 유동근.



위부터
(이시형) IMF사태를 맞아 남편
가실라기에 일창했다
(유동근) '영'과 '나'를 혼동하는
다중인격자
(이환경) '용의 눈물' 작가 500년 전에
태어나지 그랬수?

김나: 아, 유동근 너무 재수없어. 유동근 위스트에 넣어야 돼. 유동근 요새 인기가 너무 좋거든. 정치인들이 서로 모셔가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들은 유동근 안 좋아한다는 걸 알려줘야 해.

경라: 그럼 위스트에 유동근!

선명: 근데 유동근이 왜 싫어요?

영이: 이미지가 싫은 거예요. 유동근

이 <용의 눈물> 아닌 데 나와서도 왕처럼 애길 하는데 그 왕이라는 게 너무나 권위적이잖아요.

김나: 아니, 난 못 생겨서 싫어. 일단, 지속: 거기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들이 자기보다 잘나도 싫고 너무 못나도 싫고. 딱 그거잖아.

박선: 그러니까 방원이 싫은 건지, 유동근이 싫은 건지.

영이: 둘다, 둘다 싫어요.

김나: 그 개인의 퍼스널리티를 모르니까 공인된 이미지가 싫은 거니까 결국 그 역이 싫은 거지.

경라: <애인>에서 유동근은 틀리잖아.

김나: <애인> 몰라. 어쨌든 그러니까 역할 잘하라고 일침을 놓는 거야.

선명: <애인>의 유동근은 좋았잖아.

영이: 그건 이미지는 좋았지만 그 이미지 가지고 정치적으로 떠벌이고 다니지는 않았잖아요.

경라: 저번에 김대중 당선자가 국민과의 토론회할 때 나와가지고 "용입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예요.

영이: 어유, 밈맛.

선명: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정말로 공격해야 할 사람은 작가거든. 이환경이라는 남자. 인터뷰한 걸 보면은 완전히 요즘 드라마를 여자들이 거의 쓰고 있는 거에 대한 반감. 그래서 자진 남성드라마를 쓰겠다고 말했거든.

김나: 그럼 유동근하고 이환경을 같이 넣어. 팔호하고.

박선: <용의 눈물>은 부권의 파행성을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예요. 비판적으로?

선명: 아니야. 이환경은 여자작가가 드라마를 쓰는 것에 대해 무지한 반감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남성드라마를 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온 사람이라고.

김나: 근데 이환경 하면 모르니까 유동근하고 이환경하고 팔호하고. 세트 로 하면 되겠네. 사실 연예인들은 만들어진 이미지를 연기하면서 미움을 받는 건데 만든 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쌍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묶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도 감독 잘 만나야지. 그리고 나는 김보성하고 그 뒤에 있는 강우석도 싫어요. 강우석과 김보성도 세트 로 하면 좋겠다.

선명: 왜?

김나: <투깝스3> 봐요.

선명: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국영화는 말이야. 괜찮다는 것을 봐도 너무나 실망스러워.

김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요?(웃음) 열받아 갖고 산 거 아니예요? 나는 강우석과 김보성 추천했어요.

박선: 그래, 위스트 명단에 넣어요.

이화: 근데 나는 김보성 좋은데.

박선: 아오, 자기 나쁜 사람이야.

김나: 강우석이 요번엔 남자 영화를 찍겠다는 거야. <생과부위자료청구소송> 이거를 여성시각이 아니라 남자의 시

각에서 말하겠다고. 남자들이 치이는 것에 대해서.

박선: 그 동안도 남자영화 찍었잖아요.

김나: 그래도 더. 그래도 세상이 지 맘대로 안 되니까. 요번에 <투깝스3>가 저렇게 잘 안되거든요.

선명: <투깝스3>를 강우석이 만들었어요?

김나: 감독은 딴 사람인데 제작이 강우석 사단이지.

이화: 강우석은 저번에 어느 잡지에 인터뷰한 거 읽어보니까 정말 나쁜 X



위부터
(하일지) 소설로 자신을 매혹하는 남자.
(김홍국) 박치주(白痴)를

더라.(웃음)

영아: 아줌마로서의 품위를 지켜.

김나: 한국영화가 오락영화를 제일 추구하잖아. 그래서 강우석이 한국의 스티븐 킹이라는 말까지 들었잖아. 거기다 남성평론가 파시스트들이 한국영화 사랑해야 한다고 그런 감독들한테... 나는 장선우도 싫어. 장선우도 넣어요.

영이: if에서 '남자에게'에 나온 인물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선명: 그 사람이 뭐 만들었죠?

김나: <꽃잎>, <너에게 나를 보낸다>... 왜 여자들 자궁 속에서 도를 닦는단 말이야. 오입하는 건 좋은데, 그걸 한국사회의 운동권 시각으로 풀어내는 것처럼 품잡고, 한국의 남성파시스트들이 그렇게 미화시키고 있는 핵심이 되니까.

지속: 아, 그 사람이 <나쁜 영화> 만든 사람인가?

이화: 근데 왜 우리나라 연예인들은요. 외국연예인만 봐도 자기의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면서 당활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공공연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그 연예인들을 좋다 나쁘다를 얘기해야 할지. 막연히 드라마에서 나온 이미지만 갖고 좋다 나쁘다 할래니까 되게 어려운 거 같아요.

김나: 그게 우리 상황이에요. 조금 나아진 게 있다면 요즘은 정치인 지지연

살에 조금 많이 동원이 되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YS가 정권을 잡으면 DJ 미는 연예인들이 밀려나는. 연예계 생계에 대단한 피해를 본다는 상황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지.

박선: (이화에게) 김보성에 대해 더 얘기해 봐. 왜 좋은데?

김나: 그 남잔 마초야. 극단적인 마초요. 최근에 <파트너>하고 <무감스3> 봤어요? 그리고 나는 김보성이 싫은 이유가 손이 짧아서 싫어요. (웃음) 난 손 짧은 남자가 싫어요. 허리 아래로는 내려와야지.

박선: 허리 밑으로 안 내려와요?

김나: 응. 그런 거 같애. 대보진 않았지만.

경라: 허긴 맨날 어깨에 힘주고 팔 들고 다니니까 짧아보이겠다.

영이: 나는 뭉클해가지고 털이 난 그런 손이 싫은데...

선명: 이시형도 알리지 않아? 이시형?

김나: 근데 이거 정해. 우리, 좋은 남자. 나쁜 남자를 지식인이나 연예인처럼 종류별로 구분해서 뿔을 건지.

모두: 그냥 한꺼번에 다 하지요. 뭐.

김나: 다 떠올려 봐? 대중한테 노출된?

박선: 이시형 왜 싫으세요?

선명: 대표적인 이문열류잖아요. 가장의 권위를 너무나 목청높여 주장하는 사람이잖아.

경라: 하긴 그렇더라. 아침 주부대상 토크쇼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김나: 근데 왜 우리 자꾸 싫은 사람만



위부터
(장선우) 자궁 속에서 도망친 남자
(최민수) 후카시의 남자

얘기하지?

경라: 그래. 우리가 싫은 사람이 많은 가봐. 좋은 사람, 좋은 남자 얘기 좀 합시다.

영이: 연예인, 가수 중에 누구 없나?

박선: 박진영!

영이: 나, 너무 좋아.

박선: 너무 섹시해. 그리고 너의 노예가 되어도 좋아. 그러잖아요. 남자가 그러기가 쉽나.

영이: 그래서 남자들은 박진영 되게 싫어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남자들은 남자들이끼리의 평가를 되게 무시워 하잖아.

김나: 응. 괜찮다. 박진영은 여자의 즐거움을 위해 노력하는 애야. 여자의 즐거움을 알아. 그런 가수 살려줘야 해. 꼭 그렇게 써. 이유를 달아줘야

돼. 박진영은 여자의 즐거움을 알고 노력하려는 태도가 됐다. 이렇게.

이화: 또 좋은 사람 없나?

박선: 아. 그 사람 누구지? 신애라랑 차인표랑 나왔던 드라마. 손 이렇게 흔드는 거.

영이: <사랑을 그대 품 안에>?

박선: 응. 거기 그 여자처럼 말하는 남자.

경라: 아. 이정섭.

박선: 맞아. 맞아. 맞아. 이정섭 난 너무 좋아.

김나: 왜 좋은데?

박선: 응. 완전 여자야. 음식 이야기 하는데, 저번에 라디오 <2시의 데이트>에 나와서 음식 만드는 얘길 하는데 너무 잘 알더라. 계란 후라이를 할 때는요, 예들은 달착지근한 걸 좋아하니까, 설탕을 약간 넣어서... 둘둘 말으세요. 지속: 이정섭은 호모라는 소리 있던 대?

김나: 난 호모스러운 남자가 좋아. 여자들한테 딴 생각이 없잖아.

박선: 그리고 밥 한번 안 해본 어떤 남자가 그 프로에 전화를 했는데, 막 아 단치는 거야. 왜 그렇게 사냐고.

선명: 근데 드러내놓고 여자처럼 구는 사람은 오히려 호모 아닐 거 같애.

경라: 호모스러운 남자가 좋으면 앙드레킴은 어때?(모두 웃음)

영이: 아유. 그로테스크해라.

이화: 장정일은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마광수하고 달라서 새디스트 같지 않고, 성적인 이야기할 때도 알파하지 않고,

여자를 대상화시키지 않는 것 같애.

박선: 그래. 그래. 장정일 괜찮겠다.

영이: 난 김홍국 너무 싫어.

경라: 왜?

영이: 백치미 같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애요.

박선: 아니. 김홍국이 예쁘기는 하다는 거야? 백치(白痴)겠지. 백치같은 추남. (웃음)

김나: 저번에 어느 음료 회사에서 행관을 쳐서 소문 났잖아. 자기를 붙은 악마에 안 끼워줬다고. 치어리더한테 무를 꿰고 사과하라고. 그래 갖고 난리났어. 술 먹고 난장판 치고.

박선: 평소에도 술 먹고 실수 잘 하잖아요.

영이: 우리가 남자들 중에 싫어하는 나쁜 점들. 저질스럽고,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모든 걸 뭉뚱그려놓은 것 같은 사람이야. 나는 위스트 1위를 쟁야 한다고 봐요. 너무 싫어.

선명: 남성악을 결집시켜 놓은 듯한 사람이 누가 있나?

박선: 예기용품 선전에서 최민수가 "애나 카울까봐요." 어깨에 힘주던 남자가 내숭떠는 거 너무 괴로워.

선명: 최민수도 사실 웃기지 않아? 완전히 마초의 전형을 보이는 사람 아니야.

영이: 그래도 가끔 웃기는 역도 하잖아요. <사랑이 뭐길래>의 대발이 같은 역.

선명: 그것도 가부장적인 역이잖아.

박선: 그럼 온세통신 "떠리리 딘디디"

이건 어때!

이화: 머리통 때리고 이러는 것도 너무 폭력적이야.

박선: 개는 어때? 너 핫브레이크냐. 나 배고픈 사람이야. 송강호!

영이: 난 송강호 좋아. 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김나: 송강호는 아직 아니야. 개는 아주 가부장적이야.

영이: 그럴 것도 같애. 나온 게 댄깡 패역이잖아.

박선: 왜 강패 이미지를 해체시켰잖아.

영이: 배. 배. 배반이야.

선명: 최민수가 안 좋은 이미지인 건 맞죠?

김나: 그렇죠.

모두: 난 김승우도 안 좋은데.

김나: 김승우도 애보는 선전으로 이미지가 좋아졌잖아.

박선: 차인표하고 김승우하고 아무 것

최의남자(무슨)

(박진영) 여자를 즐겁게 해줄
아는 남자



도 안 하는 인간이잖아. 집에서...

영이: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남자들이야?

경라: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기는 절대로 일 안 한다고, 못 한다고 말했대잖아요. 김승우가.

모두: 그래도 나는 차인표는 좋은데. <그대 그리고 나>에서 알고 보면 세계관이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말마다 명언이잖아. 현실주의자.

박선: 유효정 남편은 어때? 이재룡. 귀엽잖아.

모두: 별루야. 관심 밖이야.

박선: 하희라 남편. 최수종은 어때요?

선명: 최수종은 좋은 쪽으로 놓아야 돼. 좋은 나라야. 언젠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말하는데 하희라가 어질러놓으면 자기가 다 치운대. 꽃아다니면서.

경라: 어. 그럼 최수종 베스트에 넣자.

박선: 베스트 좀 더 얘기해 봐요.

선명: 교육부장관 이해찬 괜찮아. 그런 사람 넣어줘야 해. 말 하나 있잖아. 박선: 딸 하나만 낳은 거. 더 이상 못 낳아서 그런 거 아니야?

선명: 아니야. 자기 부인하고 관계도 아주 동지적이고. 또 자기는 일등주의를 지양한다는 말도 했고. 아주 괜찮은 생각을 가졌어.

박선: 그럼. 정치인 중에서 뽑아보자. 베스트로.

경라: 난. 한승헌 감사원장 좋더라.

이화: 어머. 너무 노인네잖아요.

경라: 눈빛 봤어? 눈빛이 너무 좋아. 그 나이에 그런 눈빛 가진 남자 대한

만국에 없어.

선명: 김한길은 어때?

모두: 아이, 싫어.

선명: 『여자의 남자』인지 『남자의 여자』인지 그 소설 내용은 어떤 건가. 그것도 가부장적인 그런 건가?

김나: 아니에요. 그런 줄 가부장적이지는 않은 거 같애. 난 그거 샀었어. 책. (웃음)

박선: 정말 그 책 샀어요? 왜요?

김나: 사서 읽을 책 없냐고. 소설을 읽고 싶어서 구내서점에 갔더니 그게 팔린대. 그 때 거기에 우리 대학 선배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온대. 그 말이 생각나서 샀지. 근데 세 권이라 세 권을 사야 된대.

선명: 그래서 세 권 다 샀어요?

김나: 응. 근데 다 안 읽었어. 나쁜 거는 아니고 그냥 재미가 없어서... 사실은 하일지가 나쁜 나라야. 『경마장 가는 길』 작가.

박선: 맞아요. 하일지 정말 싫어요.. 어떻게 소문을 내고 다닐 수 있어요? 자기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떠돌고 다닌단데?

선명: 누구라고?

박선: 모르지. 그런.

김나: 그 소설 보면 여자가 완전히 박사논문도 그 여자가 안 쓰고 문학평론 등단한 것도 이 남자가 써준 거고. 과거의 이 남자와 별짓을 다 하면서 살았고. 그런 이야기.

박선: 정말 나쁜 X네.

오윤: 그걸 이유를 어떻게 쓰지?

선명: 작품 자체가 말해주잖아. 웃겨. 김나: 하일지는 자기 자전적인 이야기와 허구를 교묘하게 교차시키면서 실제로 자기의 성관계 경험을 아주 이기적으로 해석해서 여성한테 화살을 돌린 거야.

영이: 와. 이걸 적어야 돼. 적어야 돼. 오윤: 운동 선수 중에는 누구 없나? 박찬호는 어때요?

박선: 아. 그 허 꼬부라진 남자? "이여 후에는 더 좋아집니다..." 이거?

경라: 섹시한 남자 얘기 더 해봐요. 박진영 말고...

김나: 섹시가이?

영이: 근데 우리나라 남자는 섹시하지가 않아.

김나: 맞아. 그게 문제야.

이화: 나는 발 킬미 좋은데...

영이: 그 입술 뚜꺼운 남자?

이화: 입술이 왜 뚜꺼워? 어잉...

박선: 정말 그거 그렇다. 우리나라 남자는 같이 자고 싶은 남자가 없어.

영이: 근까 이런 얘기도 넣어줘야 해. 자고 싶은 남자는 없더라.

선명: 근데 또 서양남자 얘기했다가 한국의 민족주의 남자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떡해?

박선: 괜찮아요. 어때요? 비교만 했다 뿐이지 누가 뭐래? 느낌의 선악이 어딴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왜 섹시하지 않을까. 의식적으로 그런 걸까.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섹시하

게 보일 필요 없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엄숙하려고 그런 걸까?

영이: 하— 몸매관리를 안 하니까 그렇지요.

박선: 송승헌 어때?

경라: 좋아. 그 친군 백치미가 있어.

박선: 숯덩이 눈썹?

영이: 연기를 되게 못 해서 그렇지.

이화: 어. 연기 많이 늘었어. <세 남자 세 여자>에서는 무지 못 하는데 <그대 그리고 나>에서 잘하잖아.

영이: 거기선 연기할 게 없잖아. 인상만 쓰고 있으면 되니까.

조여: 거기서도 못하더라.

박선: 거기서도 땀날 인상 찌푸리고 '어호...' 이거밖에 못 하잖아. 근데 사실 그런 남자들이 많아. 자기 표현력이 모자라 가지고 인상 쓰는 것밖에 못하는 남자들 현실에서도 많아요.

영이: 송승헌도 박진영과 비슷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박진영처럼 적극적으로 어필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지.

너무 어중간해. 그렇다고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박선: 근데 송승헌 안 자고 싶어?

경라: 안 자고 싶어. 애 같잖아.

오윤: 안 자고 싶지만 그냥 좋아.

김나: ...근데 자는 게 진짜 자는 거야? 뭘 말하는 거야... (모두 웃음)

김나: 나보다 야한 생각을 여자들이 하는 건지. 여자들이 속으로 강간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랐네.

영이: 5분에 한번씩 해요. (웃음)

박선: 섹시한 매력이 있나 없나 보자는 거지요. 뭐. 참. 이문세는 어때요? 솔로예찬 너무 골때리더라. 솔로예찬이 아니라...

영이: 솔로비판 내지는 솔로자괴감. 솔로자책이던데. 솔로죄의식이랄지.

박선: 조영남?

오윤: 오. 싫어.

선명: 그 남자 좋은 나라 아니야?

박선: 아니. 이성적으로는 좋은 남잔데. 감성적으로 싫어. 아주 대표적인 남자다. 이성적으로는 좋은데 감성적으로 싫은...

김나: 그거 너무 재밌다.

선명: 감성적으로 왜 싫어?

김나: 너무 못 생기고 주절.

영이: 매력이 없어요.

김나: 근데 옛날에 『샘이 깊은 물』에 윤여정 글을 봤는데 그거 보면 조영남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경라: 그럼 이 사람 어디다 넣어? 베스트 위스트 중에.

김나: 어디가 모자라? 좋은 남자 많이 뽑아서 남자 자꾸 칭찬해 주는 건 좋아.

지숙: 김홍수 화백은 어때요?

모두: 응. 너무 싫다.

김나: 둘이 아직 살긴 사나?

박선: 아직 이혼했다는 소린 없어요.

김나: 여자는 똑똑해. 전략적으로. 성공하려고 머리를 잘 쓴 거야.

박선: 또 잘 관리를 하겠지. 김홍수 화백이.

김나: 달고 달아 도가 튼 거지. 인간관

위부터
(김준만) 그나마 페미니즘에 대해
뭔 줄 아는 남성 지식인.
(이해찬) 생각이 좋은 것 같아서.
(이정삼) 살가운 큰언니형.
요리도 잘하잖아!



위부터
(한승헌) 관대한 선배정신. 그
눈빛이 좋다.
(최수종) 형소를 잘할 것 같아서.





위부터
(차인표) 잘 생겨서, 단지 게으른
게 흠.
(박신양) 연애를 잘할 것 같아서.
(최정현) 아기 키우는 남자의
신기함을 아꼈다.

계에, 기브애틀테이크(give & take)법칙을 정확히 지키는 거지. 뭐, 너는 나한테 젊음을 줘라. 나는 너한테 그 대신 돈과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여자 유학 보냈잖아. 그럼 페어플레이다.
지숙: 기브애틀테이크다. 페어플레이!
김나: 김홍수 화백은 약간의 경계선 지점에 있는데 결론은 페어플레이이다. 일단은.
박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어떡해?
김나: 제발 해달라고 해.
박선: 기브애틀테이크가 뭔지 알고 괜히 그러냐. 기브, 사랑, 테이크, 우정 이거다.
영이: 히히, 나 테이크야.
지숙: 그런 게 재밌는 거 같애. 지금 했던 말, 조영남 이야기도 그렇고.
박선: 그럼 애매모호했을 뽐아요. 김홍수 화백이나 조영남 같은 사람들로. 좋은 남자와 나쁜 남자의 경계선에 있는 남자,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에서 남녀의 성구분을 흐리게 하는 남자들로. 누구 또 더 없나?
경라: 가수 이광조.
모두: 아우—.
오윤: 앙드레 김.
모두: 와하—.
김나: 좋다. 경계선에 선 사람들, 좋은 나란지, 나쁜 나란지 애매모호한...
영이: 그럼 굿맨(good man), 배드맨(bad man), 애매모호맨?
김나: 재밌다.

영이: 배드맨이 배드맨인지 알고 좋아하면 어떻게 해.
지숙: 배드맨을 배드신 잘하는 사람으로 알아.
박선: 이경규는?
이화: 너무 싫어.
박선: 이경규 요즘 오바하고 있지. 오버맨(over man).
이화: 아, 김국진은 너무 좋아.
선명: 근데 너무 연예인으로 하지 맙시다. 완전히 연예판이잖아.
박선: 나는 우리 if에서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연예인 다루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다른 잡지에서 연예인 다루는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거지.
김나: 난 먼저 가야 되는데. 꼭 오바이트해놓고 가는 거 같은 기분이다.
모두: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김나 간다)
선명: 지식인 남자 중에서도 좀 뽑아 봅시다.
오윤: 생각이 잘 안난다. 지식인 남자들은 잘난 척은 하는데 도대체 재미도 없고 매력도 없어.
박선: 문화평론가 이재현 어때?
오윤: 이재현 괜찮아.
박선: 좋은 오빠야? 근데 이재현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아부리로 잔다니까.
선명: 참, 반쪽이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집에서 아기 키우는 남자로 신기원을 아꼈잖아. 아빠가 쓴 육아일기의 원조니까.

경라: 반쪽이 하면 평등부부상 생각나.
지숙: 그래 넣자.
박선: 아우, 아하면서 매력적이면 서도 지적이면서도 뭐 좀 그런 남자 없나?
이화: 박신양?
영이: 박신양 괜찮은 편이야.
경라: 그렇지만 자고 싶은 남자는 아니야. 근데 박신양 바람둥이래.
박선: 그럼 좋은 남자네? 난 바람둥이 좋아.
영이: 나는 홍콩영화배우는 다 자고 싶은데.
선명: 왜 우리나라 배우는 자고 싶은 사람이 없어?
경라: 우리나라 남자는 뻔히 보이는 거야. 집구석에서 남자들 어떻게 하고 사는지.
박선: 이민우 좋으면서? 이방원 아들.
선명: 아예 자고 싶은 남자. 자기 싫은 남자 다섯씩 넣어버리고 끝내.
박선: 안돼요. 자는 걸로 끝낼 수는 없어.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오윤: 이대근.
모두: 으악, 안돼.
지숙: 이대근의 후예가 김희라야. 나 너무 싫더라.
영이: 난 관심도 없어.
선명: 유호프러덕션 한지일 나쁜 X야.
지숙: <젓소부인> 시리즈 만든 사람.
앞으로 if에서 <가지총각> 시리즈만 듣자.

박선: 남자 애길 하나까 끝나질 않네.
영이: 아우, 이 녹음한 거 풀면 어떻게 될까. 한차원 뚝 떨어지는 수다글이 나오겠다.
박선: 그러면서 상당히 아줌마틱하고 어, 그리고 보니까 여기 아줌마 아닌 여자 한 사람밖에 없네.
영이: 진짜네.
이화: 아니다. 아니야 한 명 더 있어.
영이: 아이고, (지숙에게) 선배 미안해요. 선배를 무시했어.
경라: 아니야. (영이를 보며) 너를 아줌마라고 생각한 거야.(모두 웃음)
박선: 여기는 아줌마라야 사람대접해요.
영이: 그러면 나는 아가씨 대우 아줌마 할까요. 아줌마 대우 아가씨 할까요?
지숙: 나는 아가씨. 처녀 그런 말 너무 싫어. 차라리 아줌마가 나아.
박선: 이상하게 아줌머니라는 말이 없 어지면서 다 아줌마가 되어버렸어요.
이화: 아가씨의 어원이 아가의 씨를 갖고 있어서 그런 거라는데.
박선: 아줌마는 아가의 씨 안 갖고 있 나? 아줌마 차별하고 있어.
이화: 나도 아줌마데 나보고 아가씨라고 그러냐.
박선: 나도 결혼 전에는 아줌마 소리 듣다가 결혼하고 5년은 아가씨 소리 들었다.
영이: 에이, 난 어떡해. 난 계속 아줌마 소리 들겠네.
박선: 신해철은 어때요?

영이: 에이—.
박선: 이승철 어때?
모두: 에이—.
박선: 신승훈은?
모두: 에이—.
박선: 신승훈은 좀 머리가 크지?
영이: 심하게 커요.
박선: 그러면 대중 다 뽐았지요? if가 뽐은 남성베스트 10인, 위스트 10인. 이제까지 나온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웠지요? 자, 수다 방에 참여해서 즐거웠던 값 10,000원씩 내고 가세요.
모두: (아유)우우—.

애매모호맨

(이광조) 남녀의 경계선을 흐리는 애매모호함이 좋다.
(영도려진) 개성있지만, 좀 뒤흔다.



IF 창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한물을 축하하며,
여성과 함께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박인재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리며,
한국의 여성들을 대변하는
글자의 여상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검찰사무총장 조순형

대안의 여성문화,
'내일은 밝음'
IF가 있으니,
IF가 있으니.

한국여성인구학 공동대표
이경숙 · 정경자 · 김성희

하나보다 열,
열보다 백, 백보다
더 큰 IF여!

IF가 문예남



뒤집어 보고 웃어 본 IF의
통쾌한 1년을 축하드리며
여성인권 잡지로
우뚝서기 바랍니다.

여성인권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

21C 정보사회에
정도·정론을 대변하는
IF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회의원 김호선

새로운 감성, 새로운 여성,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

(사)사민사회네트 이사장 유재현

여성들의 목소리가
우렁찬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사)한국여성학연구소

피임교육 확실히 해서
영아때때 · 고아수출
막읍시다.

남강한의원 이규영호



IF는 漂亮다, 푸하하하!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성들의 고통을 함께
해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류종수국회의원 비서관 류시군

여성해방 IF
장하다 IF!

IF가 김민준

전국의 여성노동자와
함께 웃고, 뒤집고, 놀 수
있는 IF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임원회 대표 이철순

여성들이여,
IF여!
날개를 달자.

인천시의원 홍미영

마주잡은 손이 있어 갈
길이 밝습니다.

도서출판 모하네리 문화

이제까지 참 잘해왔어요.
더욱더 씩씩하고
영향력있는 잡지로
성공하시길~!

여성문화예술가회 대표 이혜진

일하는 여성의 해방을
추구하는 현술교육의
여성들이
IF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술교육 사무이사 최정순

지루하다. IF
기다리는 것이
넌 반갑다.
도착한 IF 보는
것이

충청한의원 고은광순

IF!! 여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물이
되십시오.

국립신원 여성위원회 정순희



여름 나무의
그늘처럼
IF의 넉넉함에서
쉬고 싶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원장 이상화

IF가 있어 '여성신문'은
더욱 힘이 납니다.
첫들을 축하하며 함께
갑시다.

여성신문사 대표 이계진

뛰는 여성의 파트너 IF!
IF가 현실이 되도록 함께
뛰십시오.

행정자치부 여성담당관실

살맛나는 세상, IF와 함께
열어갑시다.

금융노련 부위원장 김영주

페미니스트저널 IF의 창간
1주년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여성문화연구원 총재 김연자

여성 · 'IF' · 힘
더 웃자! 더 뒤집자! 더
놀자!

크리스찬 이카루이 문호은 · 장우주

고맙도 5월에 첫생일을
가졌습니다.
동갑내기 IF가 무리무리
크기를 바랍니다.

해마노스트 카페 고미

날카롭지만 생명수를
간직한
사막의 선인장같이
꽃피하십시오.

국회의정실 국제비서관 김경화

IF 만만 해볼만 하죠?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조은

IMF시대, 해결의 해법은
사회보장의 확충입니다.
IF의 건강한 여성주의
실현이 큰 역할 하리라
기대합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여성들의 삶만큼이나
위태하고 고단한 IF
가족들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신동식



여성의 자유로운 목소리
IF 첫생일을 축하합니다.

한국여성당

그간 너무 많은
남성일변도 시각에서
IF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에너지.

한국행정서비스 연구소장 최대성

타성에 젖지 않고
언제나 신선하기를.

광고주협회 이사 박호선

젊은 여성들만 보면
아프던 가슴
IF가 나오면서부터
완치!!

여성개발원 연구원 김홍숙

페미니스트저널 IF의
돌잔치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숙명여대 이세아여성문화연구소

소장 노혜숙

모든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고
여성들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기를.

고려서물사랑우보 인계대변부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경일

진흙 속에 방치된
여성성의 실체를
발견해 나가는
'언어의 밭'이 되기를...

작가 이화진

이런 잡지 또
안생기나요?

김세웅 김진영 김수미

여성의 힘, 유권자의 힘,
if의 힘,
세상을 즐겁게
뒤집어보자!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이은호

여성직업의
전문화·다양화·
장보화를 위하여

(사)여성자립고교 이사장
김근혁

할말을 다하는 당당한
if로 이땅의 모든
여성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노총 위원장 박인실

if를 만나게 된 후 다시
만나게 된 사람들, 그리고
처음 알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만큼 if를 사랑합니다.

희화미술 이은주

여성의 눈으로 보되
휴머니즘으로 포용하는
if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정책연구소 소장 유진희

if의 맘과 노력이 바로
개혁입니다.

국회위원 김영진

3세 또는 6세이전
부모사랑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어머니의 손인명선

여성들의 수다방, 상처
치유방. 모든 여성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명시의회 의원 유승희

21C 여성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뒤흔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남미·김아주

창간1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주)서울자유방송 대표이사
문태희

자유롭고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
if에게 뜨거운
신뢰를
보냅니다.

문화를 나누는 사람들

여성의 인간다움을 찾아
떠나는 미로여행의
안내서, 페미니스트 저널
if의 한줄을 축하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은희·한영희

감각적인 if, 삶의
지혜가 있는 if,
월간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키배 논저널 문선경

축배! 자신있는 여성을
만드는 잡지
if를 위하여.

한양대 영문과 교수 홍연숙

if는 할 수 있다! 화이팅!

투리기획정보통신 김영민

축! 생동하는 여성문화 if,
도약하는 여성문화 if.

꽃마을 한방병원 김희경(사)
(대한어머니사회 회장)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화끈하게 밀어붙입니다.

티비팀 대표 임정희

축하합니다. 힘찬
진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여성문화이론 연구소
연구원 임동

이제 첫걸음입니다.
마라톤 선수처럼 오래
뛰는 if 되십시오.

고려서적 대표 최학술

사막엔 오아시스가 있을건데
if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물가 낮은 오아시스가 되어
데마론 곳을 적셔야 하리라!

대창문화원 김경선

작고 소중한 것들을
캐내어주는 if의 1주년을
축하하며 변창을
기원합니다.

한국출판유망(주)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언어들처럼!

한양에서 독지 이인희

늠름하고 아름다운
상록수처럼 늘 푸른 if
되십시오.

서울시의회 의원 이경순

창간 1주년 축하메세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밀히 연대하고 과감히 뒤집자!”

게릴라 (소규모의 전쟁이라는 뜻) 정규군이 아닌, 기습작전을 감행하는 무장집단. 흔히 적군의 세력권 안에서 적은 인원으로 기습·소전투·후방교란 등을 되풀이하여 사기나 전력을 저하시킬 것을 노리는 전법.

그렇다면 게릴라 '겉'은? 근엄한 여성단체 소속이 아닌, 차고 빠지는 작전을 감행하는 무대포 정신의 집단. 흔히 남성의 세력권 안에서 적은 인원으로 성추행범 린치, 강간범과 맞장뜨기, 길거리에서 담배피우기 등을 되풀이하여 남성의 사기나 전력을 저하시킬 것을 노리는 전법. 위에 풀이된 말 그대로 국어사전에 올라도 이의를 제기할 여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만약 있다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게릴라걸들을 유심히 보아두시길...

그 첫 번째로 독자 여러분은 혹시 if 거울호 벼룩시장코너에 실렸던 우안영이란 이름을 기억하는지? 양성평등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면 그는 결국 if를 통해 앞에 있는 친구들을 만났고 '살상'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모임 이름이 너무 심해하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너무 겁내지 말라나? 단지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편견을 죽이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라고. 지희(지희라는 발음엔 꿈틀하지만 지희는 발음엔 땀 터진다), 콩알(변개불에 휘기는 콩알,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철수(철을 수 없는 수다)란 닉네임을 가진 대학생과 직장인으로 구성된 그들은 틈만 나면 일(?)을 저지른다. 얼마 전엔 경주 동국대 여학생휴게실에 가서 평판을 봤다.

"동국대 여학생휴게실에 한번 가봤죠 근데 남자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드나들고 심지어 자기 남자친구 데리고 들어오는 여학생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희가 날렵한 가위 두 개와 '여학생휴게실'이라는 문구를 내붙였죠 그나마 있으니까 효과가 좋더라구요. 근데 잠깐 쉬고 있는데 또 여자가 자기 애인이랑 태연히 들어오는거야. 지희하고 콩알은 주로 큰 소리로 무안을 주는 스타일인데, 민주적인 거 좋아하는 철수가 정중하게 이 곳은 여학생휴게실이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 남학생이 여기에 남학생이 못 들어오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덤벼데요. 더 가관인



자신들이 작업한 화장실 게시판 앞에 앉아 있는 <살상> 멤버

건 그 애인인 여자가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지 완전히 의존적인 자세로 남자에게 둘러붙어서 하는 말. 4년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지, 오빠. 머리가 확 돌더군요. 그래서 한아디 했죠. 또 달콤한 설탕물에 빠져죽는 파리 하나 있구나."

이들의 게릴라식 운동은 여학생회장실로도 이어진다. 누구나 한번쯤은 들르게 마련인 화장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메모란을 만들어 부착했다. 일명 화장실 통신이라나. 은밀함과 솔직함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더니 처음엔 살상 멤버들이 적어놓은 글에 "맞아요!", "쿨소!" 하고 장단만 맞추더니 이제는 자신이 여자라는 이유로 당한 억울한 경우나 말 못할 얘기들까지도 적어놓는다고 한다.

게릴라걸 두 번째는 돌꽃모임. 이들은 95년 아화여대 대동제 때 벌어졌던 고대생 난동사건 당시 모인 각 대학 여성대표들이 사회에 나와 만든 모임이다. 멤버들에 대해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단호하게 거절당했다. 일 벌일 때 괴롭고 귀찮다는 게 그들의 이유였다. 역시 게릴라걸답군. 실제로 예전에 여성민주회와 함께 벌인 지하철상추행방지 퍼포먼스가 너무 떠벌어져 여기저기 취재요청도 많았단다. 어차피 해야 할 사안이었기에 인터뷰에 응하긴 했지만 자신들은 사회에서 공론화된 것보다는 살면서 피부로 느끼는 일상적인 여성억압을 얘기하고 싶다고, 말하자면 여성운동의 틈새를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여성운동은 제 나름대로의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운동단체는 단체대로, 또 이론을 연구하는 이들은 그룹대로요. 우리는 그들이 미처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이나 사소한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성억압을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식대로요. 게다가 여성단체들이 갖는 정치적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좀더 직선적이고 과격(웃음)하게 일을



경주의 <살상>팀, 왼쪽부터 밭, 지희, 철수, 콩알, 칼



〈마녀〉 멤버들 앞줄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변라나, 현진, 지우 씨
변라나 씨 뒤에 모그리고 앉은 사람은 그날 무언의 마녀를 찾았다고 자칭한(?) 사람

권협현'을 표방한 집지(집지의 고정된 이름은 없다)는 이들의 성격을 더욱 잘 드러낸다. "본에는 눈, 아에는 이"의 정신이다. 흔히 남성들은 그런 정신에 반발하여 온갖 욕을 갖다붙인다. '저열한 페미니스트들이 권협현'이란 그런 의미에서 반어적이다. 그들은 이어 힘디 맞붙인다. 자신이 약자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 정신을 자멸하고 권협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다. 돌김이다.

실상과 동꽃모임이 일상생활에서 활동하는 게릴라들이라면 마지막으로 소개할 〈마녀〉는 월간잡지 발행과 퍼포먼스, 연극을 통해 대중성을 지향한 게릴라들이다.

이들의 결성은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97년 〈코인락커〉(편집자주: 지하철등에서 볼 수 있는 통전을 넣어 사용하는 사물함)라는 연극을 함께 하면서였다. 낙태를 경험하게 되는 여성이 자기 신체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과정을 그린 이 연극에서 여성매춘운동가 변라나와 재이교로 말릴당이 그레이스, 뿌리, 현진 씨가 만난 것이다. 이들은 〈코인 락커〉 이후로 피기투함, 신촌의 카페 〈라브리스〉 등에서 〈나는 여성이다〉라는 '세종날을 잊기 퍼포먼스' 등 많은 공연과 연극을 공연하기도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진, 레즈비언 변라나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다는 변라나씨, 오래 전부터

저지를 수 있기도 하구요."

한번은 농담이었지만 미스코리아 반대투쟁을 벌이자 의견이 나왔었다. 우리도 후보를 출전시켜서 쟁판을 놓는 거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스코리아 본선에 오른만한 몸매를 가진 이가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들의 운동방식은 대체로 이런 식이다. 혹시 주위에서 거부감을 나타내는 이들이 없는지를 물었다니 이렇게 말한다. "많은 여성들이 우리를 보면서, 혹은 함께 하면서 즐거워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하철성후행 퍼포먼스를 할 때 주위를 어둡게한 여고생들이 '저런 놀들은 꼭 날라버려야 해'라고 말하더군요. 평소엔 엄한 분위기였던 그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여성들 마음 속에 있는 분노를 폭발시키고 기분을 같이 느끼는 것 그런 것들이 저희의 지향점입니다. 주위의 시선은 아무런 문제도 아니죠."

이들이 발행하는 '저열한 페미니스트들의

연극사 동행상 도조우 12월 12일

12월 12일 화요일

여성매춘운동을 해왔다. 강연과 매춘운동도 간간히 하고 있지만 자신은 '역시 이벤트제일'이라며 연극과 퍼포먼스의 연출에 열중한다.

뿌리씨, 서울여대 '날개달기'라는 여성학회 활동을 했고 그의 가방엔 늘 귀직한 액자가 들어 있다. 시시때때로 낙서를 하기 위해서라나.

마지막으로 〈코인락커〉의 극본을 썼고 월간 '마녀'를 가장 많이 고민하는 현진씨가 현재 같이 하는 연이다. 그들은 '마녀'라는 월간지도 발행하고 있는데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총 5권을 낸 상태다. 마녀에 대한 현진씨의 설명을 들어보자.

"우리 책이요? 한마디로 악기파 잡지죠(웃음). 가령 이런 식이에요. '여학사코너'라는 게 있는데, 'Q. 남편이 자꾸 때려요. 어떻게 하죠?'라고 물어보면 A. 아침에 밥 지을 때 청산가리를 좀 넣어보지 그래요? 라는 식이요. 웃기죠? 우리가 지향하는 '마녀'를 통해 유치, 저열, 적나라, 분노, 짜증, 해소, 실망, 독소 같은 것을 모든 여성과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기집팔자 개팔자'라는 제목의 2월호에서는 현재의 여성이 제대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풍자, 여자말자는 곧 개말자다라는 얘기를 적나라하게 풀어 놓았다. 3호의 제목은 생리에 관한 '피를 나는 자애들'인데 이것은 연극으로 만들어져 현재 대학 순회공연중이며 5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연극, 퍼포먼스, 이벤트 등을 올리는 마녀 '만따라잡단'을 만들고 싶단다.

지금까지 소개한 '살상', '동꽃모임', '마녀' 활동은 각각 다르지만 그들에게서는 달은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젊고, 패기만만하고, 두려운 것이 없다는 것. 자신의 생각한 바를 그대로 밀고 나가는 용기있는 페미니스트 게릴라들이라는 것이다. 여성억압적인 세상에 대한 이들의 싸움걸기에 건투를 빈다. □ 글 이진화



올해초 여성민주회와 동꽃모임이 함께 발간 지하철성추행방지 퍼포먼스 등의 한 장면

남자에게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신정후 교수에게

우조교는 가증스런 악녀인가?

‘나’는 성희롱 교수인가?
지난 4월 교수님께서 출간하신 책의 제목입니다. 이른바 우조교 사건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성희롱 재판으로 비화돼 세간의 큰 관심을 끌었고 법정에서의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가해자로 알려진 교수님의 책 출간은 비상한 주목을 모았습니다. 당연히 언론의 관심도 컸지요.

나 역시 이 땅의 여성문제에 몸 바치기로 작정한 사람의 하나로서 교수님의 책 출간 뉴스에 귀가 쫓긋해졌습니다. 그간 언론에 ‘신모 교수’로만 알려졌던 교수님이 스스로 본명을 밝히고 사진까지 공개했다니, 그리고 ‘변명’이 아니라 ‘사건의 전모와 진실’을 밝히겠다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나는 교수님의 기자회견이 있고 난 며칠 후 그 책을 손에 쥌 수 있었습니다. 책의 표지를 살펴보면 나는 순간적으로 몹시 긴장되는 느낌을 가졌었는데 그건 아마도 표지 맨 위에 쓰여 있던 이 한 문장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오직 신만이 알고 있는가.”

한 인간의 진실이 이 세상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 무고하게 온갖 오물을 뒤집어 써야만 할 때, 그리하여 마침내는 더러운 세상에 대한 실낱 같은 희망마저 끊어져 무기력증에 걸린 신에게나마 의탁하지 않고서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게 될 때 그에게 부하된 절망의 무게란 과연 얼마만한 것이겠습니까? 그런 절망에 보다 더 공감할 수 있는 측은 아마 남자보다는 여자들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더러운 풍문’ 하나로도 수절을 위해 목숨을 끊어야 했던 참혹한 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남자인 교수님도 스스로를 중세 마녀재판에 회부된 마녀로 비유하셨더군요. 그것이 바로 우리 여자들의 역사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억울한 마녀는 없어야지요. 성

을 불문하고 말입니다.

표지에 있는 교수님의 그 ‘절규’는 책장을 넘기기 전 내 자세를 다시 한번 다잡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지 말자.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다. 최대한 냉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자...’

교수님은 책머리에서 프랑스의 유명한 드레퓀스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독일군 스파이로 몰린 드레퓀스 대위와 자신을 동일시한 것이지요. 왠지 어색하고 과장됐다는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사건 당사자로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서울대 교수라는 만만치 않은 명예에 먹칠을 당하고 제자들의 수업거부라는 참을 수 없는 모멸을 겪었을 뿐 아니라 5년간의 긴 재판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손실도 상당했을 교수님의 처지는 사실 보기에 민망하고 안쓰러운 것이지요. 만에 하나 교수님이 억울하게 당했다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최대한 교수님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책장을 넘겨갔습니다.

책 내용에 의하면 교수님은 완전히 우조교라는 ‘가증스런 악녀’에게 당했던군요. 서울대 학생회와 여성단체, 변론을 맡은 인권변호사들은 조직의 이기적 목적, 운동의 대의를 위해 교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구요. 교수님은 우조교와 전임 안조교가 제기한 성희롱 행위들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셨습니다. 아예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거지요. 교수님은 우조교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으며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면서 각종 재판관계 문건들과 증인들의 진술 등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가능한 한 교수님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한 탓이었는지 책에 실린 내용으로만 판단하자면 교수님의 주장이 어느 정도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 때문에 책장을 넘겨가면서 나는 조금씩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이 분이 정말로 억울하게 당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큰 일이 아닐까?’ 어떤 종류의 성범죄를 가리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확실한 물증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개 은밀한 곳에서 당사자간에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도 어렵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더라도 간단히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그간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의미심장한 사실은
파기결정을 내린
대법관들이 모두
남자들이라는 점이지요.
게다가 그들은 죄송한
애기인지는 몰라도 남자들
중에서도 보수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이 우조교의 손을
들어줬으니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피상적으로 사건을 접해온 나는 자꾸만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 늦게서야 이 사건이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1심에서 교수님이 지켰다는 것두요. 그렇다면 확실한 물증도 없이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상반되는 이 골치 아픈 사건을 놓고 1심 재판부는 어떤 근거에서 '신교수가 성희롱을 했으니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을까. 나는 1심 판결문을 찾아보기 위해 목차를 뒤졌습니다. 교수님이 이 책을 통해 재판의 실상을 밝혀줬다고 언명하셨으므로 당연히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의 손을 들어준 고등 법원의 판결문과 그것을 파기한 대법원의 판결문만이 실려 있을 뿐이었지요.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재판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밝혀줬다고 했으면 1심 판결문은 당연히 수록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보니 또 하나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점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승소한 항소심 재판을 중심으로 책 내용을 엮었다는 것이지요. 그제서야 신이니 진실이니 하는 말의 권위를 믿고 사건 당사자인 교수님께 공정성을 기대했던 나의 어리 석음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명청해서야...

교수님의 책을 통해서 진실 찾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에 나는 이 사건에 깊이 간여해 온 성폭력상담소의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책을 본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지요. 그녀는 웃기부터 하더군요.

"지난 5년 동안 그 술하게 열렸던 재판에 양측에서 제기한 각종 관계서류와 증거들, 재판기록들이 얼마나 방대한지 아십니까? 쌓아놓으면 아마 몇 미터는 족히 될 거예요. 그 분은 그 중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 책에 실었다고 하면 아마 정확할 겁니다."

나는 우조교의 변론을 맡고 있는 최은순 변호사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웃음을 당할 각오를 하고 물었습니다. 정말로 신교수가 우조교를 성희롱했다고 확신하느냐구요. 그랬더니 그녀는 자신의 판단이 왜 필요하냐고 되물더군요. 이미 대법원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항소심의 결정을 파기해 버린 마당에 말이지요.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나는 정신이 반짝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법정만큼 분명한 곳이 어디있겠습니까? 쌍방의 주장과 증인 진술, 제출된 증거 등을 충분히 듣고 심사한 후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 법리에 맞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곳이 곧 법정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때로 법정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때도 있지요. 지난 시절 우리가 신물나게 보아왔듯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을 때같이. 그러나 우조교나 여성단체들이 사법부를 손아귀에 쥐고 흔들만한 권력과는 꿈속에서도 관련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호주제 하나 폐지 못하고 이렇게 당하고 있겠습니까?

더 의미심장한 사실은 파기결정을 내린 대법관들이 모두 남자들이라는 점이지요. 게

다가 그들은 죄송한 애기인지는 몰라도 남자들 중에서도 보수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이 우조교의 손을 들어줬으니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최소한 내 생각에는 교수님이 대법원 판결의 공정성을 트집잡을 객관적 빌미는 없어보이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마지막 책장을 덮고 난 후 나는 비로소 왜 교수님이 드레퓔스 사건을 거론한 것이 어색하고 과장되게 느껴졌는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교수님은 이 나라의 드레퓔스가 아니기 때문이었지요. 차별받는 유대인으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드레퓔스는 오히려 성희롱 사실을 교내에 알렸다가 명예훼손죄로 먼저 고소당한 우조교측이 아닐까요? 서울대 교수이자 남자인 교수님과 사무직 조교에 불과한 여성이었던 우조교 중 과연 누가 드레퓔스 같은 약자인가요? 교수님은 우조교의 재임용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강자였습니다. 또 드레퓔스는 에밀 졸라 같은 양심적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옹호를 받았는데 교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보기엔 여성단체나 인권변호사 학생회 등 사회적 양심세력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우조교가 더 드레퓔스에 가까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참, 그 문제는 이미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조직의 활동을 위한 이기적 목적 혹은 운동의 대의를 위해 교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라구요. 그런데 갑자기 음울했던 80년대가 생각나네요. 혹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기억하세요? 그때 독재정권이 한 주장이 있었죠? 거칠게 요약하자면 "성고문은 절대 없었으며 운동권이 정부를 공격하고 세력을 확산시키려는 불순한 동기에서 조작한 일"이라는 것이었는데 왜 느닷없이



우조교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여성단체들이 성희롱방지법 관련 사위를 하고 있다.

우리 여성들의 눈에는
교수님이 그저 한 개인으로
보이지 않는답니다.
교수님의 등 뒤에는
이 나라의 무수한 남자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자기의 권력 아래 있는
여성들에게
마음대로 군림하고
그들을 성적 노리개로밖에
보지 않는 남자들이
때거리지어 숨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 사건이 떠올리는 걸까요?

무력한 개인에 불과한 자신을 막강한 독재정권에 연관시키다니 해도 해도 너무 한다구요? 교수님의 입장에선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 여성들의 눈에는 교수님이 그저 한 개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답니다. 교수님의 등 뒤에는 이 나라의 무수한 남자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자기의 권력 아래 있는 여성들에게 마음대로 군림하고 그들을 성적 노리개로밖에 보지 않는 잘못된 의식을 가진 남자들이 때거리지어 숨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남성 소비니즘은 어느 독재자보다도 완강하고 여성차별과 비하는 어느 독재자의 탄압보다 철저하고 야만적이라고 합니다. 1심 재판이 끝나자 그들은 끼리끼리 모여 이렇게 불평했다고요? '여자 몸에 접촉 좀 했다고 3천만원이라니, 세상에 말세야', '그래서 여자는 쓰면 안돼, 여자가 있을 자리란 그저 부엌과 술집이면 족하다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여자들은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도대체 저 시멘트같이 굳어진 머리를 어떻게 깨야 하나 하구요. 나는 그들을 '시멘트족'이라고 부르는데 교수님 책에도 그런 시멘트족이 등장하더군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신교수가 성희롱을 했다면 우조교가 왜 그렇게 재임용을 원했겠느냐'구요. 다니기 싫어서 그만두려 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지요. 나는 그 분에게 한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한 젊은 직장여성이 부서원들의 회식자리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리가 거나래 지자 부서장이 유독 그녀에게 술따르기를 명했죠. "술은 역시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라면서요. 그 말에 불쾌해진 그녀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자 부서장은 화난 목소리로 말했죠. "이런 일 하기 싫으면 직장 나올 생각 말고 집에 박혀 있어야지."

만약 그분의 딸이 직장에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무슨 얘기를 해줄까요? 초치일판해서 그런 상사 밑에서는 일하지 말고 그만두라고 할까요? 아니면 내가 아는 한 시멘트족의 얘기처럼 '여자가 술자리에 따라간 것 자체가 잘못'이니 딸의 정숙치 못한 행실을 야단 칠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교수님은 책에서 지난 5년간 그야말로 외롭고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했습니다. 나는 교수님의 이 말을 믿습니다. 전체 책 내용 중 가장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부분을 대라면 나는 자신있게 이 부분을 지목할 것입니다. 성에 대한 위선적 태도가 철벽 같은 우리사회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수직을 가진 분이, 그것도 나이마져 지긋한 처지에 딸뻔되는 여성을 성희롱했다고 온 나라에 알려지고 말았으니 그 곤혹스러움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교수님의 한탄이 결코 과장으로 들리지 않는 소치일 겁니다.

나는 교수님이 느끼시는 억울함도 이해합니다. 사실 서울대 교수라는 직함만 없었다면, 또는 요즘같이 여자들이 성희롱이다, 일할 권리다 들고 나서는 시절만 아니었다라도 교수님이 그렇게 '당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솔직히 말해 교수님보다 훨씬 더 심

한 성희롱을 하고도 멀쩡한 남자들이 이 세상에 어디 하나 돌입니까? 클린턴 대통령도 끔찍없이 건재하잖아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교수님의 행위는 교수직에 걸맞게 꽤 '점잖은 편'에 속한다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 우조교를 가증스런 악녀라고 비난하시는 교수님의 심정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바도 아니랍니다.

그러나, 그러나 교수님. 교수님의 상대적 억울함을 아무리 받아들이다 해도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 잘잘못은 분명히 가리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한보청문회를 보셨는지요. 모두가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는데 왜 나만 지목해 난리냐며 억울한 표정을 짓는 정치인과 기업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민나 도로보테스(모두가 도둑놈)'의 세상일수록 양심과 원칙은 더 없이 귀중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책을 내며 구차스럽게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조용히 내면의 양심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자숙하는 편이 나았을 듯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교수님의 고통만이 아니라 우조교가 당했을 고통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이 사건은 양 당사자와 우리사회 모두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풀려나갈 것 같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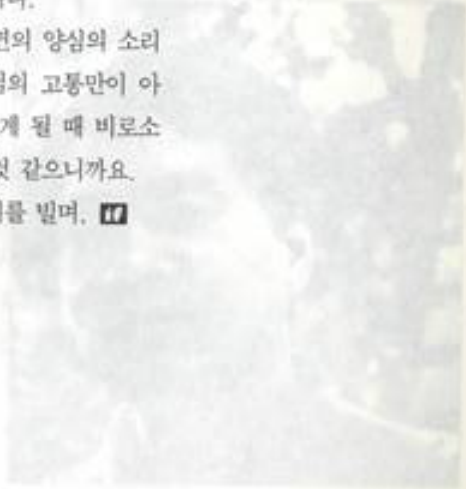
나는 성희롱 교수인가 라는 물음이 양심에 기초한 자문(自問)이 되기를 빌며, [1]

1998년 5월 20일

김신명숙

if 편집위원. 어느 날 남편이 웃으며 들려준 Y담 하나. "한 중년남자가 있었다. 다른 여자 앞에서는 그게 틀림없이 서는데 마누라 앞에서는 절대로 안 섰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 남자의 그게 마누라 앞에서도 벌떡 서더라. 왜 그랬는지 알아? ...차에 걸렸다는 거야" 후후후, 일단은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터지는 질문. "그런데 그 아내는? 그 어지도 똑같이 차에 걸렸어야 말이 이해됐을 텐데?" 네,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하는 남편의 얼굴표정.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반응해야 되겠어? 남편도 피곤하겠지. 그러나 누구에게서건 남성중심적인 얘기가 나오면 그대로 되쳐지는 '조건반사'를 남편이 아파하라.

사실 더 끔찍한 것은 여성을 차별하는 법률 조항보다도 이런 농담들이다. 이런 종류의 농담들과 성희롱은 형제간이기도 하다. 페미니스트와 매일의 사비갈기가 자연인인 것처럼.



마음이 '통'하면 몸이 '동'한다



변정수

나는 남성을 혐오한다. 심지어 내 안에 있는 남성까지도 죽도록 혐오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전히 나는 남성이다. 그리고 오로지 여성만을 사랑하지만, 이 사회에서는 여자와 남자는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사회'를 꿈꾼다.

이런 생각들을 모아 에세이집 『나는 남자의 몸에 갇힌 레즈비언』(살인)을 낸 적이 있다. 미디어평론가. 현재 월간 『인물과 사상』 편집인. 『상식으로 상식에 도전하기』(보머로), 『주철환론』(형상).

솔 직하다는 것이 항상 최선의 정책은 아닌 것 같다. 지나친 솔직함은 때로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한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솔직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솔직함을 빙자한 뻔뻔함을 무릅써야 하는 사람에게나 혹은 그 철면피를 마주하며 불편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나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나'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항상 '나와 관계된 누군가'에 관한 이야기를 수반하게 마련이다. '나'는 결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맥락 속에서만 온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누군가가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낼 의사가 추호도 없다면, 나는 설령 아무리 솔직해지고 싶다 해도 함부로 솔직해져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나는 이제 아주 솔직한 내 이야기를 써야만 한다.

하물며 성경험을 이야기하라고 한다. 성적 판타지나 마스터베이션에 관해서 이야기하라는 지면이 아닌 다음에야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해야만 이야기가 가능하다. 그런데 '그'는 과연 익명으로나마, 자신의(그러니까 나와 공동의) 성경험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것을 기꺼워할까. 나는 솔직함을 방패삼아 어느 누구도 '모욕'하고 싶지 않다. (적어도 특히나 성적인 문제에 관한 한, 내게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다 해도 그가 '모욕'을 느낀다면 나는 그를 모욕한 셈이 된다는 상식쯤은 새삼 부언할 필요가 없겠다.) 자, 그런데 나는 이제 아주 솔직하게 나의 성경험을 털어놓아야 하는 것이다.

엄살은 이쯤으로 해두자. 다만 구체적인 사례를 훑쳐보고(?) 싶은 독자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아주 재미없는 글이 될 것임을 미리 밝히고 넘어가자. 나는 솔직하지 않을 도리도 없지만, 그렇다고 누군가를 내 이야기 속에 슬그머니 끌어들이는 생각은 꿈에도 없으니까.

쌍방의 소통이 사소하든 심각하든 장애에 직면하거나 심지어 아예 사라져 없어져버린다면 단지 성기만을 접촉시키는 행위에 무슨 쾌락이 있을까. 오히려 쾌락은 커녕 돈 한푼 안 생기는 '노동'일 뿐이다.

연전에 '똑똑한 여자가 외모도 아름다다'는 제목의 글을 어느 월간지에 기고한 적이 있는데(이 글은 내 책 『나는 남자의 몸에 갇힌 레즈비언』에도 실려 있다), 이런 내용을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를테면 내게 있어 '말이 통한다'는 것은 '섹시하다'와 동의어이다." 바람둥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주변에서 만나는 수많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늘 강렬한 성적 열망을 느끼곤 했다. 그러나 그뿐이다. 뒤집어놓고 보면 나는 일 번을 죽었다 깨나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은 못 한다는 얘기도 된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거리한다면, 아니 심지어 진실로 아무런 거리낌없이 원한다 할지라도 단지 미숙한 나머지 내게 모든 것을 말긴 채 그저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린다면, 그 순간에 나는 무기력해지고 만다. 심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이미 신체적으로도.

요컨대 (다른 사람도 그런지는 나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내게 '성'이란 마주앉아 신나게 수다를 떠는 것과 똑같은 '소통'이고, '성욕'이란 그저 소통하고자 하는 욕망일 뿐이다. 쌍방의 소통이 사소하든 심

각하든 장애에 직면하거나 심지어 아예 사라져 없어져버린다면 단지 성기만을 접촉시키는 행위에 무슨 쾌락이 있을까. 오히려 쾌락은 커녕 돈 한푼 안 생기는 '노동'일 뿐이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로는 무슨 말인들 못 하며 머리로야 무슨 생각인들 못 할까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두뇌회전보다 훨씬 빠른 반사신경의 작용으로 성기가 먼저 위축되면서 '파업'하는 것을 난들 어쩔 수 있겠는가. 어차피 '그놈'은 일어설 때도 내 사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불쑥 불쑥 솟아올라서 기절할 만큼 나를 당황시키기 일쑤인데 말이다.

소년기의 나는 '따돌림'였고, '혼자 노는 아이'였다. 그래서 또래 애들과 어울려 자연스럽게 마스터베이션으로 이끌릴 기회가 없었다. 주위들은 풍월로 혼자 골방에서 수없이 시도하기도 했지만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물론 아침에 속옷이 더럽혀져 있는 민망한 상황이 반복되었으므로 볼구가 아닐까 따위의 어리석은 의심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열등감 비슷한 것을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어김없는 사실이다. 내가 마스터베이션을 경험한 것은 불완전하나마 성교를 경험

한 한참 뒤의 일이다.

불완전했다? 고백하자면 내게는 '첫경험'이라고 말할 만한 게 없다. 서두에 밝힌 대로 시시콜콜한 앞뒤 정황은 잘라먹고 핵심만 말하자면, 나는 한동안 내가 '불능'이 아닐까를 심각하게 고민했었다. 처음은 고사하고 다음도 또 그 다음도 그리고 몇 번인가를 더. 발기부전으로 삼입에 실패했던 것이다. 좀체로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땀 뻘뻘 흘리며 기운만 실컷 빼고는 어이없이 사정해버리거나 아예 지레 지쳐 풀썩 풀러버리곤 했다. 그러니 내게는 진짜배기 '첫경험' (그게 언제 누구와였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 어쨌든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다고 표현해야 옳을 것이다)은 이미 처음이 아니었던 게다.

그런저런 속사정 때문인지 나는, 정말로 '성욕'이 충만할 때(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오히려 성교 그 자체에 그다지 집착하지 않았다. 언젠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이라는 질문을 받고 서슴없이 "뽀뽀!"라고 대답했듯이, 나는 굳이 만지작거릴 것도 없이 그저 체온이 느껴지도록 안고만 있는 것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발기' 따위를 거추장스럽게 전제하지 않아도 속살이 맞닿을 수 있는 뽀뽀를 제일 좋아한다.

그렇다고 내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닌데 아예 '성기'에 대해 초연했다는 뜻은 아니다. 거꾸로 혼자 있을 때, 못 견디게 외로울 때, 아무리 둘러봐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어서 감감할 때, 간절하게 '소통'을 갈망할 때, 거의 병적이라고 할 만큼 집착했다. 이러다

가 큰일나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하루밤에도 몇 차례씩이나 마스터베이션에 매달리기도 했고, 말이 통하거는커녕 그저 거리에서 마주치는 알지도 못하는 낯선 여자들의 몸에 나도 모르게 시선이 쏠리기도 해서 죽고 싶을 만큼 자신이 미워진 적도 있다. 그런 시선만으로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폭력이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도 참 나쁜 놈이다. 그게 무슨 자량이라고 뻔뻔스럽게 늘어놓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더더욱.

내 이야기는 이쯤이다. 내가 봐도 이건 너무 심겁다.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끌어들이지 않고 솔직해진다든가 게 이만큼 힘든 일이다. 이왕 뻔뻔해지기로 작심한 마당이니 민망함을 무릅쓰고 '비밀'을 한 가지쯤 털어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성싶다. 뭐 그런 얘기까지 떠들어대느냐고 흥보지 마시기를, 말했듯이 나는 뽀뽀를 좋아한다. 그러나 뽀뽀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어차피 실속(?)도 없을 '발기'를 거추장스러워하기 때문에 켈라치오는 아주 질색이다. 물론 그 반대(쿠닐링구스라고 하던가?)는 아주 좋아한다.

혹시 "이 친구 변태 아니야?"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 글을 청탁 받고 난감해 하면서 변태라고 눈총받으면 어쩌나 걱정하자. 한 후배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사람들이 자기 성경험을 정말로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그걸들은 사람의 95%는 그 사람을 변태라고 생각할 걸? 그게 정상(!)이야. 어차피 그런거야." □

· 저자 사면적: 4월 12일(토) 오후 3시 (교보문고 매장)

세우고 고래가 함께 숨어는 바다 창해
전매 02125-3256 / 팩스 02125-3254

일본여성은 자궁으로, 한국여성은 정신으로 승부한다!



왜
남성들에게
더 인기인가?

일본여자를 말한다

일본(日本)의 힘, 일본여성들의 자궁으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여자를 통해 두 얼굴의 일본, 그 실체를 벗긴다.
르포작가 유재순이 8여 년간 일본에 살면서
그들과 호흡하며 소중하게 전파올린
일본·일본인·일본여성에 대한 그 충격적 현장보고서!

■ 주요 내용

- | | |
|-----------------------|-------------------------|
| 일본의 힘은 여성으로부터 나온다 | 실력만 중추군 |
| 일본여자에게 대하기 조심! | 나로터 이혼과 젊은 이혼 |
| 기모노는 원래 노련미? | 일본여성은 한국여성을 싫어한다? |
| 자극이 동물적인, 그래서 섹스 한국으로 | 일본여성은 한국남성을 좋아한다? |
| 신체론 원조교제 | 아이를 낳고 33만 엔을 받는 일본 양미들 |
| 혹언이러면 민사 오케이 | 이제는 한국여성이 승부할 때다! |

· 유재순 지음 / 신국판 / 344쪽 / 값 7,500원 · 편의점에도 있습니다.

▶ 작가 유재순(柳在純)은 1981년 (신동아) 논픽션 당선으로 르포라이터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1986년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했으며, 1987년 잡지 특파원 겸 일본 유학생활동했다. 그동안 일본의 나라소세 수상, 다케사다 노보루 수상, 두노 수상을 여러차례 수상했다. 특히 일본의 도이 다케코 일본 사회의 위안강자의 안락(일본 한국 기자로서는 최초였다). 저서로는 르포집 (서울서 팔리는 여자들) (발간첫은 여자들) (하루(T.H.)의 일본인), 장편소설 (여왕님) (난지도 사람들) 등이 있다.

색녀열전傳

남자의 정조

숙부숙리 고령





여성의 쾌락을 위한 남자 벗기기

〈풀 몬티〉가 보여주는 뒤집기 전략



"만약 우리가 성(의 고정관념)을 해방시킨다면, 만약 우리가 성을 둘러싼 공포(sexophobia)를 사라지게 한다면, 만약 우리가 에로스를 단죄하는 것을 멈춘다면, 자본주의의 기본 세포라 할 수 있는 가부장적 가족의 해체는 임박하게 될 것이다."

『성의 해방』 프랜시스 마르텔

국 제구제금음을 불러들인 경제상황으로 갑자기 줄부에서 걸인이 된듯 한 착급의 상황에 너무나 혼동스럽고 우울한 것은 다 아는 이야기니 접어들기로 하자. 내가 더욱 우울한 것은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는 영국인적 운동으로 '남편 기살리기 운동' 십계명 따위를 방송이나 신문에서 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방송에서 경제파탄의 원인으로, (가부장적) 혈연상속으로 유지되는, 비토세력 없는 재벌의 전횡은 고발하면서 정작 그런 악의 핵심을 이루는 가부장제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는 모순된 상황은 더욱 혼동스럽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있노라면 국제구제금음 사태를 벗어나는 그럴싸한 미래 청사진에 더욱 안개가 낀다.

그런 우울한 와중에 본 〈풀 몬티〉는 오랜만에 웃음을 준 영화다. 거의 울다가 웃을 정도로 자지러지는 관객의 반응도 대단했다. 이 영화는 실직한 가장들을 등장시켜 그들에게 여성고객을 위한 남성스트립쇼를 시키는 것을 정점으로 해서 드라마를 풀어간다.

감동과 웃음의 여성고객 상대 남성 스트립쇼

영국영화 흥행사상 최고의 기록을 달성했다고 홍보되는 이 영화는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미국에서도 인기가 있는데, 아마 한국의 여성고객이 움직인다면 한국 영화시장에서도 꽤 많은 성적을 올릴 요소를 갖추고 있다.

아무래도 그 대표적인 요소는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 감동과 웃음과 긴장감을 함께 주는 막판의 여성고객 상대 남성 스트립쇼다. 그것도 완전히 벗는... 물론 영화에선 그 절정부를 뒷모습으로 잡아 기대와 민망함을 동시에 해결하는 재치있는 전략을 구사한다.

역할 바꾸기 내지 뒤집기 전략으로 기존의 통념을 깨는 이런 신선한 발상

은 이 영화의 강점이다. 남성클럽 영화에서 그럴싸한 외모적 조건을 갖춘 여배우를 섹시여신 스타로 만들고 남성고객에게 쾌락을 주게끔 여성의 몸을 찍어 전시하는 것은 이제 달고 달은 메뉴여서 남성고객마저도 웬만해선 진부하게 느끼는 게 현실 아닌가.

짜증나는 여자 벗기기의 〈스트립티즈〉

반면 최근 〈타이타닉〉의 성공을 진단하는 시장 분석이 보여주듯이 여성고객이 뜨면 영화가 성공한다는 법칙은 〈풀 몬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큰 돈을 들인 것도 아니고, 기발한 이미지 미학이나 영상언어를 구사하는 것도 아닌, 오히려 그런 점에선 평범하기 짝이 없는 〈풀 몬티〉는 여성고객의 쾌락을 기발하게 그러나 음습하거나 모욕적인 느낌없이 건강한 웃음으로 발산시키게 만드는 대단한 전략적 내러티브를 구사한다.

그리고 보면, 짜증나는 영화(실제로 미국에서 그해 최악의 영화상과 최악의 여배우상을 수상한) 〈스트립티즈〉의 역할을 거꾸로 설정해 풀어난 것이 〈풀 몬티〉다. 사실 이 두 영화는 공통점이 많지만 전자는 관객의 시각적 쾌락을 건드리지 못한 반면, 후자는 그 점에서 대단한 성공작이다.

〈스트립티즈〉에서 데이 무어는 무책임한 남편과 이혼한 후 어린 딸과 먹고 살기 위해 스트리퍼가 된다. 모정의 스트리퍼 데이 무어는 딸을 맡길 데가 없어 직장에 데려오지만 자신의 쇼만은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다. 스트립쇼가 뭔지 모르는 딸은 엄마를 기다리며 무대 뒤에서 엄마 친구(역시 스트리퍼)와 카드게임을 하며 놀다가 엄마의 쇼를 본다. 그러나 당황한 엄마와 달리 딸은 스트립쇼가 재미있는 유희라고 자신의 눈높이에서 순박하게 받아들이는.

위낙 영화의 전체 내러티브가 억지 코미디로 풀리면서 데이 무어나 그밖의 스트리퍼들 물골을 끼워넣기에 그친 이 영화는 남성고객에게조차도 보이콧당하는 수모를 겪는다. 심지어 딸을 동원한 흥취보기는 변태도 아니고 아슬아슬하지도 않은 데다, 해도 너무했다는 윤리적 질책을 받기도 했다.



〈풀 몬티〉

반면 <폴 몬티>도 여자스트리퍼가 남자스트리퍼로 바뀌었을 뿐 유사한 근거로 아버지를 스트리퍼로 몰아간다. 이혼에다 실직까지 한 아버지 가즈(로



스트리퍼를 하기로 망각한 가즈 일행이 으스스한 차고에서 처음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춘다.

버트 칼라일)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양육비를 벌기 위해 실직한 동료들과 스트리퍼쇼를 기획한다. 전자가 모성애를 빙자한 스트리퍼쇼라면, 후자는 부성애를 빙자한 스트리퍼쇼로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를 설정한다.

가즈가 주도하는 스트리퍼쇼에 가담하는 다른 남자들은 모두 실직자라는 절망적 상황의 공통점에서 출발한다. 광고 카피대로 말하면 그들은 "돈도, 직업도 없다". 그래서 남자가 사회에 나가 돈을 벌어 가부장 행세를 해야 남자답다는 가부장적 사회의 틀에선 모두 거세된 이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상징적 거세에도 불구하고 모두 육체적으로 거세되지 않은 남근을 갖고 있고, 그걸 이용해 여자들로부터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들은, 남자란 이유로 일평생 사회에 나가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살려야 하는 가부장제의 남성억압 기제를 거꾸로 풀기라도 하듯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예 펜티까지 벗어던지는 결론에 도달한다.

사실 아버지로서 가즈는 문제가 많다. 아들을 데리고 왕년의 직장인 폐쇄된 제철소에 들어가 철근 도둑질을 하려다 망신을 당하는가 하면, 아들에게

<스트립티즈>의 역할을 거꾸로 설정해 풀어간 것이 <폴 몬티>다. 사실 이 두 영화는 공통점이 많지만 전자는 관객의 시각적 쾌락을 건드리지 못한 반면, 후자는 그 점에서 대단한 성공작이다.

데미무어 주연의 <스트립티즈> 포스터

Demi Moore



배경음악 연출을 맡기고 그 앞에서 스트리퍼쇼 출연자 오디션을 비밀리에 수행한다. 그러나 이 영화에선 그가 비정한 아버지나 무책임한 아버지로 보이지 않는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스트리퍼쇼 계획을 부끄럽게 생각한 아들도 아버지가 자기를 계속 만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옷까지 벗는다는 사실에 감동한다. 아들의 비난과 수치심은 사실 남자가 여자 앞에서 옷을 벗는 것에 대한 일반의 통념을 보여주면서 그와 동시에 세상의 비난을 해소하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하는 셈이다.

옷을 벗듯 '남자의 위세'를 벗는다

그래서 이제 아들은 아버지 스트리퍼쇼 준비자금을 대려고 은행 예금을 투자하는 자발적인 지원을 하게 되고, 그걸 지켜보는 관객은 아버지의 사방을 깨닫은 철든 아들의 기특한 행동으로 (아버지 가즈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런 식의 내려티브 전략은, 통념에 젖은 관객들의 우려와 비난을 주변인 물들의 반응과 생각을 통해 갈등의 형식으로 제기한 뒤 그 저변에 깔린 옷벗는 남자들의 인간적 고뇌와 나름대로의 가족사랑을 확인시켜 갈등을 해소하는 유연성을 보인다. 그건 관객의 눈높이를 정확하게 읽어내 그걸 드라마에 개입시켜 해결하는 피바른 전략이다. 바로 그런 전략적 장치 때문에 9시 뉴스에 나와 요란을 떨다 꼬리를 감춘 스타들이 뿔뿔히 뿔뿔한 남자 스트리퍼쇼는, 이 영화에서 사회통자 코미디라는 흥미로운 볼거리로 상큼하게 전개된다.

심지어 여기서 구사하는 유머는 건강함과 눈물겨움이 공존하는 세폴린식 영국 코미디의 전통을 계승하기도 한다. 경찰에 발각돼 망신을 당하는 문제의 현장, 스트리퍼쇼 출연자 오디션에서는 테이프를 작동하는 아들의 시선에서 카메라가 작동하기 때문에 음습한 쾌락을 부추기는 이미지는 하나도 없다. 꽤나 온 중년 사내, 큰 남자, 작은 남자, 몸놀림이 유연한 남자 등으로 인물을 유형화하면서, 저런 남자들이 돈 좀 만지겠다고 여자손님 앞에서 벗으며 춤추겠다는 생각이 어이없기도 하고 가련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오디션 심사위원이나 그걸 구경하는 관객 모두 찡하면서 코믹한 정서상태를 경험한다.

그 가운데 이따금 포복절도할 상황도 삽입된다. 실직자 구직센터에서 줄을 서 있던 스트리퍼쇼 멤버들이 신나는 음악에 발장단을 맞춘다든가, 어설픈 기적이 없는 스트리퍼쇼를 추면서 목표를 <플레이스 댄스>로 잡는 것은 장대를 웃음 바다로 만든다.

가즈 외에 다른 남자들도 가부장제 사회에서 실직한 남자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다양하게 경험한다. 그리고 남성 스트리퍼쇼를 통해 남성으로서의 위세를 벗어던지게 된다.



《풀 몬티》, 가부장적 위세와 함께 웃을 과감히 벗어버리는 남성.

이들테면 제철소 간부였다 실직한 제랄드(탐 윌슨)는 가즈 일당을 경멸하다가 결국 스트립쇼에 합류한다. 이들 중 가장 부르주아적 생활을 한 제랄드는 실직한 사실을 아내에게 여러 달 감춘 채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 마침내 모든 게 발각나 위기에 처한다. 체면의식이 강한 제랄드는 스트립쇼를 계기로 위선과 허세의 부담을 벗는 셈이다.

가즈의 절친한 동료 데이브(마크 에디)는 뚱뚱한 몸에 대한 콤플렉스가 커서 스트립쇼 무대에 서는 걸 막판에 거부하는 문제 인물이다. 아내에게 야한 팬티를 돌려 바람피운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 그는 스트립쇼를 안 하기로 했다가 오히려 아내로부터 남편의 스트립쇼가 재미있다는 의외의 반응을 끌어내기도 한다.

스트립쇼로 거듭나는 남자들

이들 세 명의 중심인물은 모두 실직으로 인해 가부장제 속에서 가장/ 남편/ 아버지로서의 기능과 위치를 거세당했기에 남떨러지에 물린 심정으로 여자고객의 쾌락을 위해 옷을 벗는다. 그런 가부장적 통념에서는 거세당할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가부장제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세시킨 남자들이 이번에는 가부장제의 통념을 거세하는 한편의 쇼를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막판의 스트립쇼는 이들이 사랑받는 아버지, 남편으로 거듭나는 계기처럼 연출된다. 완전히 벗는 남자 스트립쇼에 온 여자고객들의 환호성을 배경으로 카메라는 유독 세 여자에게 초점을 맞춘다.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가즈를 썰매하게 대했던 전처의 냉랭했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장면은, 그녀가 다시 가즈를 사랑하게 될 것 같다는 암시를 보여준다. 실직 사실을 숨겨온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껴 그를 원망하던 제랄드의 아내도 남편의 나신에 매혹되고, 데이브의 실직과 몸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부부관계도 원만치 못했던 데이브의 아내 역시 남편의 벗은 몸을 다른 여성들과 같이 보면서 환희를 느끼는 표정이 역력하다.

이렇게 완전히 벗어도 '결코 부끄럽지 않은' 남자 스트립쇼를 영화 속에서 우리는 떳떳하게 구경한다. 현실에선 9시 뉴스 카메라에 잡혀 말세를 불러오는 세기말적 음란행위로 규정될 일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다. 그간 우리가 술하게 영화에서 보아온 여성 스트립쇼는 남성 시선의 쾌락의 법칙으로 구성되어 음습하고 음란한 물신화의 표상적 기호가 되건만, 왜 남자들을 벗기는 건 부끄럽지도 않고 심지어 건강하게 보이는 걸까. 물론 그런 장면을 구성하는 주체는 남성 시선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남성 스트리퍼들은 대상화되지 않고 거꾸로 담당하기까지

왜 남자들을 벗기는 건 부끄럽지도 않고 심지어 건강하게 보이는 걸까. 물론 그런 장면을 구성하는 주체는 남성 시선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남성 스트리퍼들은 대상화되지 않고 거꾸로 담당하기까지 감동적 주체들이다.

한 감동적 주체들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성 관객의 쾌락은 머뭇거리린다.

제다가 아슬아슬하게 앞모습을 잡는 것 대신 화끈하게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열광하는 여자 관객들을 화면 속에서 보는 것으로 극장의 여성 관객은 대리 만족을 해야 할 뿐이다. 나는 남성 스트리퍼의 앞모습을 노골적으로 잡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선이 용납되지 못하는 이 영화의 한계에 대해 말하고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남성 시선이 만들어낸 영화치고 드물게 여성 시선의 쾌락을 건드려 준다는 점에서 여성 관객의 카타르시스 효과를 자극한다. 그래서 여성 관객이 《풀 몬티》를 보는 건 흥미로운 경험이다.

사회에서 일거리를 잃었다고 가부장들이 고수부지나 공원에서 방황하는가 하면, 심지어 가족을 소유물로 여겨 동반자살도 감행하는 작금의 우리 현실에서 《풀 몬티》는 한국의 저널리즘이 외면한 가부장제의 남성 억압 장치에 대해 암시한다. 그런 암시 속에는, 가부장제 사회가 만들어내는 사회 문제를 가부장적인 가족 구조의 문제와 연결시켜 해결하려는 생각이 남편 기살리기 운동보다 더 필요하고 근본적이라는 깨우침이 담겨 있다. 사실 가부장적 사회의 기본은 가부장적 가족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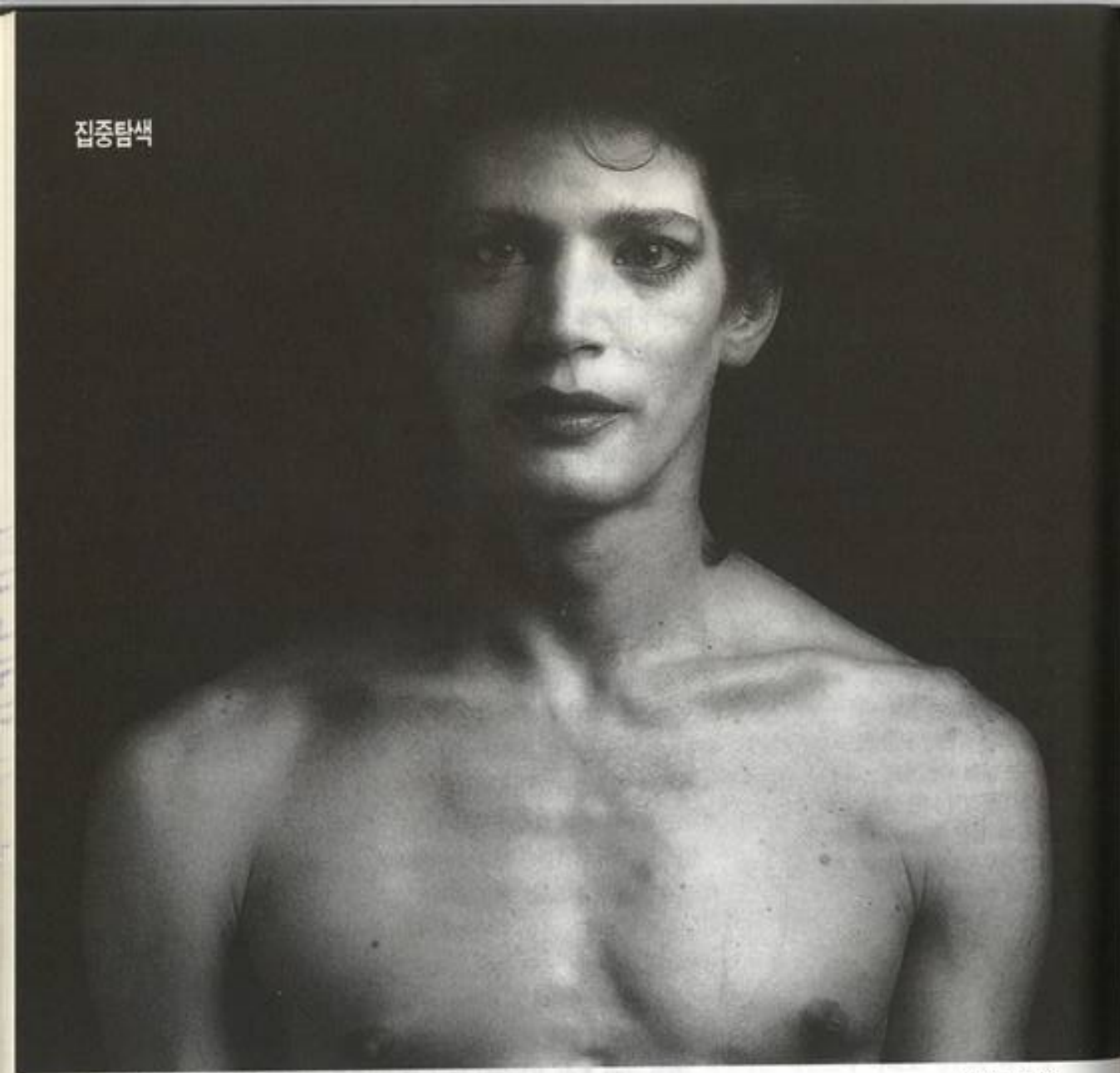
《풀 몬티》와 경쟁 중인 한국 오락영화의 대표 《투 캅스3》는 시대를 반영이라도 하듯 여형사를 파트너로 내세운다. 그러면서 몸매 좋은 미스XX 출신 여배우의 출렁거리는 가슴과 허벅지, 나신의 샤워 장면, 정력센 남자 파트너와의 성행위와 가부장적 표상 같은 기센 아버지의 과장된 모습으로 볼거리와 유머 거리를 구사한다. 관객은 전편에 비해 냉담하다. "대체 이게 무슨 재미있는 오락거리인가"라고 질문하듯이.

그래서 우리 문화 정체성이 담긴 한국 영화를 살려야 한다는 운동 같은 것은 공감대를 또 다시 형성하지 못한다. 외국 영화에서는 카타르시스와 위안을 얻고 한국 영화는 일회용으로 즐긴다는 세간의 영화 팬들의 이야기를 문화식민주의와 시대주의적 고정관념이라고 단순히 매도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7]



유채지나

본지 편집위원,
영화평론가, 동국대 영화과 교수.



(자화상), 1978

성의 이분법, 그 경계선을 허물다

육체의 고정관념과 싸우다 전사한 남성사진작가 메이플소프



<연습>, 1977.

80년대 이래 신체는 문화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잡지와 신문, TV와 광고 등에서 눈에 띄게 누드의 게재가 늘었고, 또 신체를 통한 언어적 표현이 훨씬 극대화되고 강조되었으며, 많은 이론가들 역시 신체를 주요 논쟁의 고리로 설정하면서 다양한 해석과 관점을 보이기도 했다. 이른바 포스트모던의 시대에 신체는 언뜻 하나의 '유행'처럼 여겨지게 하는 구석도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신체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각과 접근방법을 가지고 한 사회를 드러내는 매개물로서 그 의미를 얻어냈다는 점이 특별하다고 할 것이다.

육체는 사회이고 역사다

어떻게 보면 신체는 유행이 아니라, '절박함'이라 할 수 있다. 에이즈의 시대에, 실제의 개념을 뒤집어놓는 시뮬레이션의 시대에, 인간복제의 가능성을 말하는 시대에, 인터넷을 통한 전지구적 통신체계의 시대에, 문화의 이동과 교차로 인해 새로운 정체성을 말하는 혼성의 시대에, 신체는 해체되고 재구축되어야 할 대상이자 실재인 것이다.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 설정의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신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한편으로 이같은 문화적 변화에 따른 '위기'의 소산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육체는 더 이상 자연이 아니라 사회이고 역사인 것이다. 그리고 사진과 예술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신체를 다루고 그에 대한 개념적, 미적 접근을 달리한다고 할 경우의 문화적 배경이 사실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사진은 지난 150년간 가장 활발한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그 어떤 예술 장르보다도 신체를 더 많이 다루어왔고, 또 그 개념을 풍부하게 일구어왔다. 어떤 의미에서 신체는 사진에서 중심이 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사진에서 신체는 매우 극단적이며 다양한 스펙트럼을 구사해 왔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신체가 재현되었느냐를 아는 문제는 단순히 양식적인 분석 이상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을 담는 것이다.

시각적인 쾌락을 위한 순수 대상으로서의 신체, 혹은 무구한 성애적인 즐거움으로서의 신체에 대한 이해는 더 이상 큰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신체 이미지는 1839년 사진 발명 이후 즉시 권력과 사회적 관리 및 감시의 문제와 결부된 셈이



〈자화상〉, 1981.

다. 그것은 범죄자나 정신병자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나 경찰에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서, 그리고 인류학 및 민속학의 연구자료로서 보여졌다. 또 여성의 누드는 가부장제 사회의 정서적 효과 속에서, 또 '오리엔탈리즘' (주)에의 동조 속에서 비쳐지기도 했다. 사진은 따라서, '순결' 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가 구조화되는 논리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수단일 수도 있는 것이다.

사진과 신체

사진을 통한 신체의 재현은 다양한 이미지의 양식과 더불어 개인의 아이덴티티, 섹슈얼리티, 사회, 권력, 이데올로기, 정치 등의 개념과 결합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신체의 재현은 맑시즘과 심리학, 문학, 인류학, 사회학, 역사, 미술사

등 여러 인문과학의 영역에서 방법론과 개념을 빌어오거나 또 깊은 연관성을 갖기도 한다. 특별히 80년대에 와서 그같은 연관성은 훨씬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는데, 일례로 미디어에 의해 제조되는 여성의 상투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신디 셔먼이나, 늙은이의 신체 한 부분을 극대화시켜 '살'의 물질적 감각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존 코플란, 공격적인 신체 묘사를 통해 미국의 청교도주의적 가치관 혹은 검열의 정서를 흔들어놓는 앤드루 세라노, 신체에 대한 어떠한 연출도, 어떠한 기술적 완벽성도 없이 그 자체로 드러내면서 신체를 통한 계급적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말하는 낸 굴딘 등 사회적 문맥을 여러 방식으로 읽게 만드는 신체에 대한 작품들이 있다.

1946년에 태어나 1989년 에이즈로 사망한 로버트 메이플소프(Robert Mapplethorpe)는 바로 그 80년대에 신체에 대한 전복적인 시선을 던지고 담론을 만들었던 대표적인 작가 가운데



〈패티 스미스〉, 1978.

대 하나다. 1963년에서 1969년까지 그는 뉴욕의 프랫인스티튜트에서 회화, 드로잉, 조각을 공부했으나 1971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사진 아카이브를 방문한 후 사진에 매료되어 사진을 수집하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하였다. 그의 첫 번째 사진은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은 자화상이었는데, 처음에는 기존의 잡지 등에서 이미지를 차용하는 방식이었다가 점차로 가학·피학성의 변태성욕의 주제와 분위기로 몰고가는 형태를 보였다.

그의 성 이슈에 대한 깊은 인식은 동성애에 대한 것으로, 동성애는 자신의 삶의 방식이기도 했다. 이 주제를 전면화함으로써 그의 예술과 생애가 본격적으로 펼쳐졌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1970년대 중반 이후 집중적으로 이 주제를 다룸으로써 대중의 갈채와 비난을 동시에 받기도 했으며, 그의 예술적 명성은 이 시기 이후 주어졌다고 할 수 있다.

메이플소프의 자화상

그의 사진 예술의 시작이라 할 자화상은 그런 점에서 독특한 의미를 갖는다. 80년대 이후 그는 많은 자화상을 제작하였는데, 자신을 변장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때혹적인 여성으로 변장하거나 머리에 뿔이 달린 악마의 모습으로,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는 섬뜩한 살인자의 모습이거나 변태성욕자의 모습 등으로 분하면서 언제나 위기와 불안의 정서를 잔뜩 실은 분위기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으로 기존의 성적 변별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성의 아이덴티티를 모호하고도 가변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혹은 성의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측면을 극대화하면서, 그리고 그 자체로 권력체계를 드러내면서 한 시대의 우울을 그려낸다. 메이플소프에게 있어 자화상은 이 시대의 성문화와 그것의 사회적 질서에 물음표를 찍는 계기가, 혹은 한 사회의 그늘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울이 된다.

메이플소프의 작업은 크게 세 개의 장르로 나뉜다. 꽃과, 그의 생애 말기에 손을 대기 시작한 골동품 조각 등을 소재로 하는 정물이 그 하나이고, 자화상을 포함하여 유명, 무명인들의 초상을 담은 초상사진이 그 둘이며, 누드사진이 그 셋이다. 대개의 사진은 흑백이며, 또 대부분 아주 중성적인 배경을 한 스튜디오에서 찍었다. 메이플소프는 어떠한 감정도 또 판단도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취하면서 이미지를 포착한다. 작품은 부동성과 대비, 그리고 기법의 완벽성 등을 목표하는 고전주의적 어법에 가깝다. 그러나 아카데미즘의 닫힌 시선과 폐쇄적인 감성대에 결코 근접해 있지 않다. 오히려 미와 완벽성을 추구하는 점에서 어떤 '힘'을 감지하게 한다. 어쩌면 그것은 예술의 마



〈무남자〉, 1979.

메이플소프 자화상을 포함한 초상 사진에는 많은 경우 여가수 패티 스미스(Patti Smith)가 등장한다. 그녀는 특별히 예술적인 포즈를 취하는 것도, 그렇다고 기이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닌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 자체로 예술적이고, 또 기이하다.

술, 성의 미술일지도 모른다. 대개의 이미지들은 특히 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뒤엎고, 혼돈시키며, 심지어는 거부감을 유발한다. 그러나 그 혼돈과 거부감은 앞서 말한 미적 완결성과 결합하면서 묘하게 사그러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메이플소프 자화상을 포함한 초상 사진에는 많은 경우 여가수 패티 스미스(Patti Smith)가 등장한다. 그녀는 특별히 예술적인 포즈를 취하는 것도, 그렇다고 기이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닌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 자체로 예술적이고, 또 기이하다. 때로는 아주 중성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어 성의 식별이 모호하고, 때로는 지극히 여성적인 면모를 드러내기도 한다. 또 라이자 리온(Lisa Lyon)의 누드를 마치 육체미를 과시하는 남성의 포즈로 연출함으로써 남성다움의 정체성으로 유도한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 있는 작품이다.

동성애에 대한 탈성애적 시선

성의 이분법적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은 메이플소프의 주요 연술이다. 그에게 여성다움, 남성다움의 정체성을 서로 겹쳐지게 하는 것은 미학적 선택이기보다 그의 생 자체에 대한 선택이다. 그것은 에이즈에 대한 공포, 동성애에 대한 금기, 신체에 대한 두려움을 정면으로 받아쳐낸 그의 생애가 주는 충격이자 감동이다. 실제로 문제는 흔히 말하듯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공포일 것이다. 그리고 거부되고 금기시되는 것에 대한 무지나 회피, 그리고 이에 따른 심리적 기제가 공포의 중심에 있다.

어떤 의미에서 동성애 공포증은 우리들 자신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동성애 공포증은 동성애자에 대한 단순한 혐오나 적대가 아니다. 오히려 두려운 것은 동성애적인 사회적 관계나 심리적 유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인 것이다. 게다가 아직도 동성애자에 대한 이해를 특정한 성행위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 엉덩이와 항문에 집중하는 육체적인 상상에 기반하여 오로지 동성애를 성애화하며, 이에 따라 결국 동성애를 삶의 제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동성애자를 파악할 때 항문이 눈이며 입이고, 엉덩이는 머리인 것으로 추측한다. 이들이 신체의 금기된 기관, 다시 말해 구토와 불결함을 의미하는 배설기관을 성관계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못 사람들이 자신의 내부에 있는, 그리고 자신이 연루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의 성분별에 대한 복종과 예측을 벗어날 수 없다는 데 있다.

동성애 공포증을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 메이플소프는 자신을 가장 충격적이고도 전형적인 동성애자의 모습으로 변신시킨다. 엉덩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가죽 바지를 입고 항문으로부터 긴 가죽꼬리를 빼내는 자세를 하며 낮게 몸을 기울여 뒤를 돌아보는 모습은 거의 도발적이다. 언뜻 보아 동물적인 정서와 반휴머니즘적 공격성 등이 앞서지만, 조금 더 보면 그 도발성은 점차로 잃어지고, 오히려

자신의 저항을 가능하게 하는 정체성으로 읽히는 것을 보게 된다. 동성애가 치료하고 교정하며 처치해야 할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에게 고유한 유기체적, 심리적 조건이 되는 순간인 것이다.

공격적이고 가학적이며 변태적인 이미지로 자신과 동료들을 변장시켜내는 메이플소프의 과감함은, 그래서 단순히 놀라다기보다는 숙연해지는 마음을 갖게 한다. 규정된 성별 정체성을 벗어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시대적인 어려움인가. 그러나 동성을 사랑한다는 것, 그 투명한 성적 지향을 제거한다는 것은 또 얼마나 역사적인 현실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따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신체는, 그리고 성은 타고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자연이 아니라, 길들여지고 조정되는 사회적 기제로서의 맥락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동성애는 이성애주의의 한 위기로서 드러나는 한, 그 자체는 이미 정치적이다. □

주) 오리엔탈리즘

19세기 서구에서 유행하던 예술 종류의 이름으로, 동양을 처음으로 접하면서 그에 대한 문화적 지식을 토대로 예술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으려는 움직임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낭만파 화가 드라코르와는 일제, 모로코 등 중동을 여행하면서 동양을 주제로 많은 그림을 그려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용어는 1980년대 들어 서구중심의 시각으로 동양을 바라본, 혹은 미국 취향의 식민지적 시각으로 동양을 왜곡하는 사선이라는 점으로 재검토 되었으며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그조티즘의 의미와 동일시되기도 했다. 실제로 오리엔탈리즘은 서구의 식민지 개척의 역사와 맞물려 있다. 사진에서는 바로 이 같은 식민지적 사선으로 바라본 여성누드가 한 장르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조류로 남아 있다.

박신의

1988년 이후 민중미술, 페미니즘 관련 글과 전시회 조직을 하였으며, 시각문화와 미술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 비디오 및 영상문화와 미술의 관련성에 집중하면서 동시대적인 미술개념을 알아두려는 입장에서 글과 전시회를 조직해 왔다. 93년 가을에서 99년 2월까지 파리에 머무르면서 프랑스와 유럽의 주요 전시회 및 미술기관을 소개하는 글을 써왔고, 최근 귀국하여 한국에서의 활동을 재개했다. 현재 파리대학(소르본)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중에 있다.



(라이자 리온), 1981.



(조), 1978

if 추천 상품

여성의 가사노동을 줄여주고 불필요한 소비를 막아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상품을 추천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if 독자 여러분, 참고하세요.

햇반

주부의 정성이 깃든 밥을 먹어야 삶이 된다는 생각 때문일까. 우리사회에서 사다 먹는 밥이 아직은 생소하다. 그래도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아파트 주부들에게 인기가 많은 '햇반' (제일제당). 바쁜 아침 시간이나 밥을 또 하기에는 시간이 없을 때도 가끔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전자렌지에 2분만 데우면 밥맛 한 바퀴 그대로 맛볼 수 있다.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게 흠이랄까?



에브리인 생리대

생리 때마다 많은 여성들이 생리통으로 고통받고, 혹 시자는 많을까. 냄새가 나지는 않을까, 고민하는데... 예로부터 여성질환의 특효약인 쑥의 효능을 첨가한 생리대가 있다. 생리통을 완화하고, 생리혈이 주는 불쾌한 냄새를 제거해주는 쑥의 함유량을 높였다. 참깨와 '여성의 건강'을 생각하는 상품이라고나 할까.



크라넥스 키친타일 두배로

필요한 만큼 조금씩 잘라 쓸 수 있어 절약도 두배, 쓰임새도 두배.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행캠페인에서 내놓은 신제품 '크라넥스 키친타일 두배로'는 필요없이 버려지는 부분을 최소화한 절약형 상품이다.



반만 쓸 수 있는 식기세척기

설거지는 평소 다음으로 하기 싫은 가사노동. 설거지 횟수만 1년에 1,095번 · 1,000시간 소요. 이 설거지의 부담을 덜어주는 식기세척기. 그런데 기존의 식기세척기는 용량이 커서 큰 행사 후나 그릇들이 어느정도 모이재야 쓰곤 했는데, 반만 쓸 수 있는 식기세척기가 동양매직에서 나왔다. 물론 전액, 물사용 모두 절약이 되겠지요. (모델명: DWA-8124)

▶ 이 · 제 · 아 · 네 · 살 · 의 · 진 · 실 · 과 · 내 · 사 · 랑 · 의 · 비 · 밀 · 을 · 공 · 개 · 할 · 나 · 다 ◀

세무회 고령자 함께 승리는 바다 창해
전화 (02) 313-3000 / 팩스 (02) 313-3004



신의 징벌에 외로도전하는 여자!

승려적 내분의
비밀일까? 절대 공개!
발행 즉시
폭발적 화제!!

박정원(朴正苑) 정현실화소실

당신의 사랑을 값있게 하소서

살며 상처받으며, 사랑하며 찢겨졌지만
날개가 부러진다고 해도 다시 살며 사랑하리.

누구도 나의 삶을 훑을 수 없었다. 이 소설은 내 생활의 고발장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이다.
엄청난 절망과 좌절을 딛고 홀로서기에 성공한 여자.
항상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달려야 했던 여자.
사랑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여자.
누군가가 필요할 때 늘 혼자일 수밖에 없던 여자.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구에 솔직한 여자.
그러나 그 누구라도 그녀를 만나면 사랑하게 만드는 요한 매력을 가진 여자!
그녀의 파격적 사랑과 충격적 인생 고백!!

■ 박정원 지음 / 신국판 / 368쪽 / 값 7,500원

▶ 이 책은 국내 최초의 웹마스터를 운영하면서 만난 정계 · 관계 · 경제계 등 우리 사회 권력 최상부 사람들의 삶을 엿보고, 그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녀가 이룬 일에서의 성공담, 그리고 사랑과 상처 등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을 일깨워 대필과 가감 없이 정솔하게 그린 자전 실화소설이다.

S'PORE

광고 패러디

SWISS

GERMANY

MALAYSIA

AUSTRIA

RUSSIA

if가 만들고 세계가 본다.

세·계·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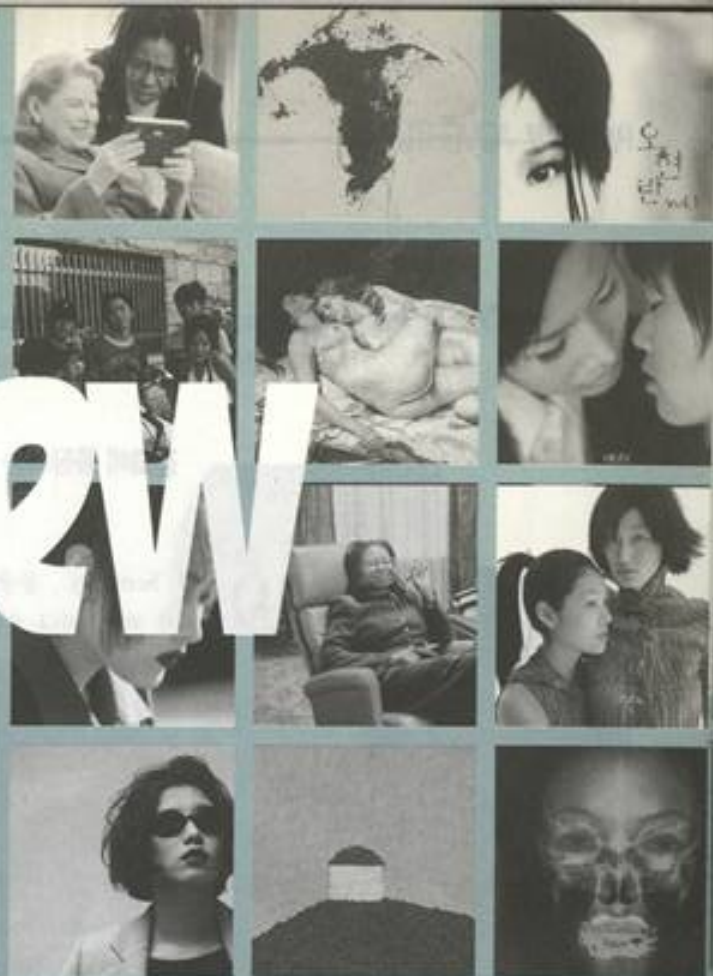


창간 1년만에 화제 1위

페미니스트 저널 if가 여성지의 혁명을 이룩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세계 1위가 되겠습니다. 

Review



ADVERTIZING

남성을 위한 또 하나의 볼거리

EXHIBITION

가을과 씨앗에 관한 대화

MOVIE

능력있는 여성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미스터 커티)와 (투캅스3)

MUSIC

얼어붙은 가요계 녹일 여성신인들
오영란, 서영은, 이아미

BOOK

if가 읽은 여름의 책

남성시선을 의식하는 또 하나의 볼거리

광고에 등장하는 레즈비언 이미지



지혜

한국여성동성애자운동 모임 <아리비리>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공부했고 레즈비언이론으로 석사논문을 썼다. 레즈비언 싸움꾼(activist), 글쟁이(secretist), 공연대(performer)이고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 중이다. 레즈비언을 '이성 무존재'로 만들려는 그 모든 활동에 대해 '살아 있음'을 증명하려고 일하고 글 쓴다. 하지만 세상이 조금 좋아진다면(그날 리) 잊고자 한다. 레즈비언에게 기획, 공연, 비평에 전념하고 싶다.

1998년 'Someday', 공중파 TV 모니터를 켜다. 지나 거슨과 제니퍼 킬리의 한국판 섹시걸들—나른하고 유혹적인 시선으로 낮게 울조린다.

"우리는 밤에 안 해요, 아침에 같이 해요..."

Doing what?/...doing it?!!...

이렇듯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들간의 모호한, 혹은 동성애적(homo-erotic)인 시선의 범람을 레즈비언 '이미지'의 출현이라고 해두자.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러한 시선들은 시각이미지의 맥글 속에 골절, 그리고 공공연히 등장했다.

영화 <바운드>가 개봉되었고 긴 팔을 호느적거리며 뇌쇄적 눈빛을 도발하던 그들. Sue가 결성되었으며, 신은경의 뒤를 잇는 중성적인 몸보이 스타일은 김지호를 거쳐

사실주의 화가 루브레의 <수면>



모델 변정수로 인해 좀 더 선명한 레즈비언 이미지로 차용되었다.

그 사이 세상에서는 동성애영화가 잇따라 수입되었고, 돌출하는 동성애자 담론에 대응해 동성애에 대한 유행, 거품, 선정적 호기심이 무성하더니 그것은 곧장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이미지 '상품'으로 포장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바로 지금'의 트렌드를 재빠르게 포착해야 하는 광고에서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으리라.

실제 이 땅에 존재하는 레즈비언은 변태거나 남성 혐오주의자거나 아니면 서구문화의 세기말적 병폐라는 이유로 땅 속으로 묻혀버렸고 대신 가상의 레즈비언이미지만이 자유롭게 이곳 저곳을 부유한다.

물론 아무리 실제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레즈비언이미지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고

실제 이 땅에 존재하는 레즈비언은 변태거나 남성 혐오주의자거나 아니면 서구문화의 세기말적 병폐라는 이유로 땅 속으로 묻혀버렸고 대신 가상의 레즈비언이미지만이 자유롭게 이곳 저곳을 부유한다.

개를 내민 것은 아니다. 몇 년간 밀리터리룩, 젠더리스(genderless)룩 등 기존의 성별체계를 혼란시키는 패션 스타일이 각광받기 시작했고 동성애자 담론과 커뮤니티의 사회적 존재 그리고 동성애 영화에 대한 수요는 레즈비언 코드를 해독할 수 있는 수용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수긍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의 숨겨지는 함으로 기묘하고 유연해서 뻔뻔해서는 당황하는 법이 없다. '사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판다'는 자본주의의 원칙은 돈을 만들 수 있는 일이라면 대범하고 과감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과 '물론'의 세계를 교란시키는 저항의 몸짓들을 자신의 질서로 손쉽게 길들인다.

따라서 페미니즘은 "그녀는 프로다"라는 광고 카피와 함께 커리어우먼의 패션과 성공신화로 뒤바뀌었고 이

성애중심주의와 레즈보포비아(레즈비언에 대한 비합리적 혐오, 경멸, 공포)에 도전하는 레즈비언운동은 엉겨있는 늘씬 뚱뚱 뺨뺨한 두 여자의 끈적임으로 둔갑한 것 아닌가?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성애자 남성들'이며 새로운 사회적 변화는 그들의 잣대로 검열되기 마련이다. 이제, 페미니스트와 레즈비



(Ab f. 2) 와류광고의 동성애이미지

언은 그들의 관측사원으로 고용되었고(자! 이 옷을 입으세요, 이 립스틱을 쓰세요), 이성애중심/남성중심 주식회사는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여기에서 상품화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과연 누구의 시각에서, 누구를 위해서 레즈비언이미지가 재현되는가의 문제를 꼬집지 않을 수 없다. 변정

수의 지오칼라 캡슐 메이크업베이스, 상큼한 향기에 저도 모르게 키스하게 되는 가그린, 얼굴을 더듬는 라네즈 소프트터치 루웨이크림 등의 광고는 남성이 정의하는 전형적 여성성, 섹시한 여성을 그대로 표상한다. 따라서 레즈비언적 이미지는 남성에게 거부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훑쳐보는 기

남성시선을 의심하는 또 한 명의 여성

화면 속의 한 여자는 다른
여자의 얼굴을 만지고
여성시청자는 두 여자를
바라본다. 이제 세 여자의
게임이 된다. 누가 누가 더
섹시한가? 그래서 누가 누가
더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밤에 안 해요. 아침에 같이 해요.”
동성애적 취향의 리파레 화장품 광고

재현은 사실주의 화가 쿠르베의 〈수면〉
으로부터 이성애자 남성을 위한 하드
코어 포르노그래피 속의 레즈비언 섹
스신, 밤업소의 레즈비언쇼까지 번번
이 남자의 눈요기로 애용되어졌으니
까 말이다. 이들 광고에 등장하는 어
떠한 광고모델도 뚱뚱하거나 쏸다리
거나 ‘얼굴 그 자체가 호신술’인 사람
은 없다. 요즘 사회가 요구하는 미인
의 기준과 자력에 전원 합격하는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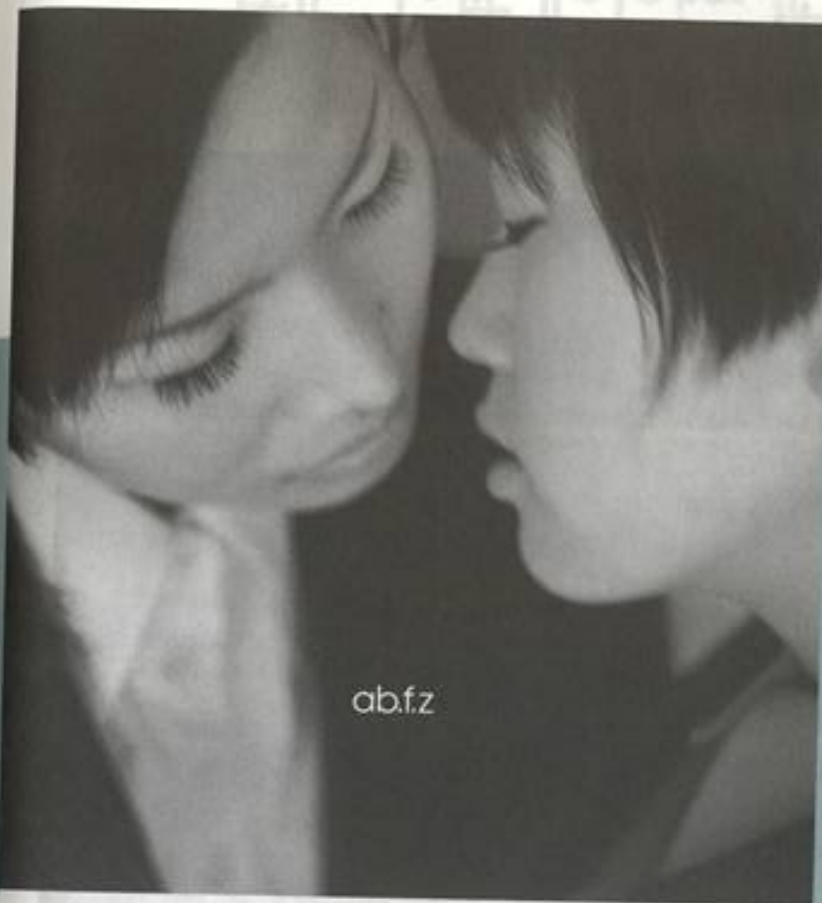
들이며 지켜야 할 여성성과 미모를 저
버리지 않는 섹시한 ‘여자’들이다. 남
성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준비된’
미인들! 사실, ‘일탈적인’ 레즈비언이
미지가 위협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그들이 ‘정상적인’ 여성다움을 유지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광고를 접하는 여
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레즈비언이미지를 차용하는 제품이
여성전용이라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동성애적 광고는 한층 복잡해진다. 화
장품, 여성의류 등 주로 20대 미혼여
성을 주 소구층으로 잡고 있는 제품들
은 그들의 욕구와 감성을 정확하게 반
영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그것을 자극

해야만 한다. 그런 측면에서 레즈비언
이미지 광고는 20대 미혼여성의 잠재
된 동성애적 욕망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고 반대로 그들이 레즈비언 감수성
에 개방되어 있음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미지’는 현실의 벽을 넘
지 못하고 레즈비언 관계를 명백하게
설정하지 않는 안전지대에 남게 된다.
‘나는 섹시하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하에 이성애자 여성 두 명을 감각
적으로 배치해 놓고 그 위에 모사된



ab.f.z

레즈비언이미지를 채색한 것에 불과
하기 때문이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
면, 두 여자는 서로를 욕망하지 않는
다. 그들은 더 나은 아름다움과 섹시
함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다. 가그린은
누가 더 진짜 미인인가를 구강청정제
의 사용여부로 가려내며 라네즈 트윈
케익의 광고는 “부드러운 건 내 거
야!”를 통해 이성애자 여성간의 묘한
경쟁을 성애적 이미지 위에 겹쳐놓았
다. 여성전용 제품의 품질과 매력을

두 여자의 비교/심사를 통해 효과적
으로 부각시키는 것—이것이 레즈비
언이미지 광고의 주요 컨셉인 것이다.

화면 속의 한 여자는 다른 여자의
얼굴을 만지고 여성시청자는 두 여자
를 바라본다. 이제 세 여자의 게임이
된다. 누가 누가 더 섹시한가? 그래서
누가 누가 더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이와는 다르게, 레즈비언이미지 광
고는 레즈비언 당사들에게 전혀 다른

의미를 불러일으킨다. 그들은 레즈비
언에 대한 왜곡과 상품화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갖기도 하고 동일시와 얼마
간의 시각적 쾌락에 유혹되기도 한다.
하지만 23시간 59분을, 조금도 호전
되지 않는 레즈비언 혐오에 시달리는
그들에게 1분여의 짧은 비현실적 몽
상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한다. 고
로 이성애중심/남성중심 주식회사의
레즈비언이미지 상품은 레즈비언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불량품일 수밖에 없
다. ■

거울과 씨앗에 관한 대화

김지현, 정정엽 개인전



오혜주

미술이 내게 주는 괴로운 소통의 성격과 내용의 그 '변질'과 '추위'이다. 그것은 나를 그저 바라보고 스쳐 지나가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잘 만났다는 듯이 날 붙여잡고 한꺼번에 자신의 인생과 혼을 죄다 쏟아붓는다. 미술에서는 거짓말이나 일면적인 발언이 통하지 않는다. 위장하거나 가려도 다 드러난다. 발가벗겨진 고해성사를 듣게 된 나는 할 수 없이 같이 고만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것의 영혼을 담배기 쓴 허공에 나는 내내 고통에 시달리게 한다. 특히 여성작가들의 전시는 대부분 나를 괴롭힌다. 잘 안 되면서 사회적으로 교활해지려고 애쓰는 경우나, 자신의 운명에 대해 좀 무덤덤한 경우를 다 포함해서 말이다. 허다못해 '일모듬' 같은 경우의 듯그림이나 전원풍경조차도 그렇다. 여성이 주체가 된 모든 것은 내게 어떤 식으로든, '편하고 추위'인 '교감'에서 오는 흥분과 고통을 준다.

김 지현(30)의 전시(5.6~5.30/성곡미술관) 제목은 〈미완의 자화상〉이다. 예술이, 인생이 영원히 '미완'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자화상'이다. 그냥 보아도 괴로운데, '자화상'이라니!

자기를 향한 어두운 응시

그의 자화상을 이루는 축은 대개 세 갈래이다. 기억과 관계와 육체. 물론 이것들은 각 작품 안에 서로 혼재되어 있다. 〈관계-K양의 기억〉을 보자. 검은 상자 안에 넣어진 일련의 사진은, 그가 생각하는 성장기의 핵심적인 지점(친구와 맞잡은 손, 어떤 친구의 얼굴, 학교의 어떤 교실, 그가 빼앗긴 강아지 등)에 부분적이고 집중적인 조명이 가해진다. 그 지점들의 연결이 그가 생각하는 성장기의 기억이다. 즉, 그의 기억은 특별한 맥락에 의해 선택된 것이다. 그 맥락은 상실과 결핍이다. 그에게 있어 성장기의 관계맺기는 줄곧 상실과 결핍으로 기억된다.

〈관계-6개의 상자〉는 큰 상자 안에 각기 어머니와 나, 할머니와 어머니,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버지의 두개골 엑스레이 사진을 붙이고 가운데를 거울로 막은 작품이다. 그러니까 정 가운데에서 보면 두 개의 얼굴이지만 살짝 비껴서 보면 완전 대칭을 이룬 하나의 얼굴이 되는 것이

다. 그에게 '가족'이란,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닌, 어쩔 수 없이 닮았으나 완전 별개인,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애증의 관계이다. 재미있는 것은 남성 작가들은 가족을 이렇게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성작가들에게 가족이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실체라면 남성작가들에게 가족은 관념적이고 단순한 이데올로기임이 작품에서 드러난다.

신체의 한 부분을 클로즈업한 〈Eyes〉와 〈붉은 피라미드〉는 나와 육체와의 관계를



〈K양의 초상〉, 사진, X-ray필름, 빛,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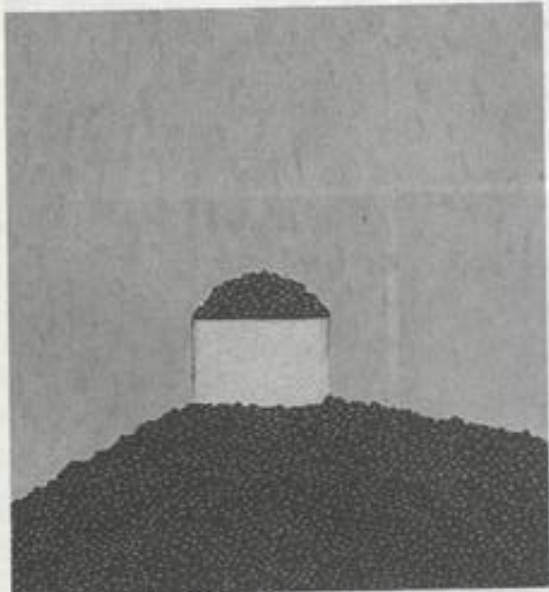
〈Eyes〉, 사진, 1998

다른 것이다. 인위적인 연출로 찍힌 여러 가지 눈(한쪽 눈 주변)은 아름답기는커녕 피그스럽고 끔찍한 모습이 다. 한편 붉은 빛의 상자에 담긴 눌러진 입술, 젖가슴, 발바닥, 성기 등은 그의 작품들 중 예외적으로 약간 냉소적이고 익살맞은 것인데, 나만의 육체, 내 것인 육체, 내 식으로 보는 나의 '살들'에 대한 경외이고 남들의 시

선에 대한 비꼬기이다.

또한 엑스레이를 투과시킨 작업들, 자신의 얼굴(자화상)과 결혼(새래나데), 의자의 밑부분(들춰보기) 등은 존재의 내부에 대한 진지하고 잔인한 바라보기이다. 나 같으면 엑스레이까지 비춰가며 나 자신을 보고 싶지는 않을 텐데 말이다.

대체적으로 그의 작업은, 일반적인



〈쌓여진 알갱이〉, 캔버스에 유채, 1998.

정정엽의 곡식이 추상적인 구성에도 불구하고 한알 한알이 살아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유는 바로 여성들만의 경험과 세계에서 비롯된 고유의 시선에 있다.

차오르고 쌓이는 지상의 양식

정정엽(37)의 전시장(6.4~6.14/금호미술관)에는 온통 곡식이 가득하다. 팔과 콩, 녹두, 붉은 고추 등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쌓였다가 흐르고 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세밀한 묘사이지만 멀리서 보면 추상화 같다. 지속적으로 여성문제를 고민하고 비교적 직설적으로 그것을 표현해 온 그의 전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의 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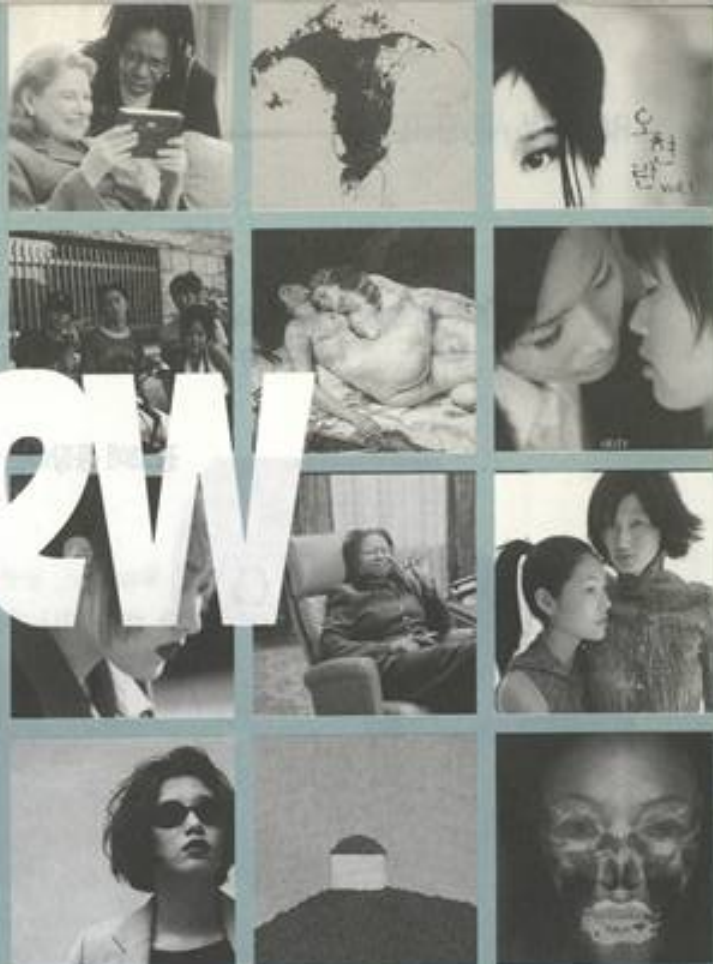
한 변신(?)이 약간은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남성화가들이 곡식을 그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데 생각이 미치면 정정엽의 시선이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내 생각엔 그의 어떤 생각의 줄기가 끝까지 가본 것이 이번 전시가 아닐까 한다.

그는 왜 곡식을 한알 한알 그리고 있을까? 그에게 곡식이란 일단 '먹는 것'이다. 아니, 여성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직접 밥을 지어 본 사람이라면 말이다. 밥을 지어보고 남(?)에게 먹여본 사람이라면 무언가 '먹을 것'이 되는 것에 대한 애착이 있다. 나도 길을 걸다 보면 무언가 '해먹을 것'이 자꾸 눈에 띄곤 한다. 그러한 생각에는 '나' 보다는 '타인' (가족일 수도 있고 아이, 이웃일 수도 있고)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는 배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바로 그것이 여성적 시선의 긍정적 측면이다.

그래서 그의 곡식은 일단 먹는 것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것은 재미있게도 형식적인 특징으로서 드러난다 (이 지점에서 미술은 거짓말이 통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느낀다). 즉 그의 팔알갱이는 남성작가들이 그린 곡식 알갱이와 그 느낌이 너무 다르다는 것인

Review



ADVERTIZING

남성을 위한 또 하나의 불거리.

EXHIBITION

광고에 등장하는 레즈비언 이미지

거울과 씨앗에 관한 대화

MOVIE

김지현, 정정엽 개인전

능력있는 여성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마스터 커터〉와 〈투캅스3〉

MUSIC

얼어붙은 가요계 녹음 여성신인들

오영란, 서영은, 이아미

BOOK

〈가 봄은 여름의 색

남성시선을 의식하는 또 하나의 볼거리

광고에 등장하는 레즈비언 이미지



지혜

한국여성성소수자운동 모임 (가려리리)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공부했고 레즈비언이론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레즈비언 싸움꾼(activist), 글쟁이(theorist), 공연가(performer)이고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 중이다. 레즈비언을 '비소' 무존재'로 만들려는 그 모든 힘에 대해 '살아 있음'을 증명하려고 말하고 글 쓴다. 하지만 세상이 조금 좋아진다면(그럴 리가 없겠지만) 레즈비언과 기적, 공연, 비평에 전념하고 싶다.

1998년 'Someday', 공중파 TV 모니터를 켜다. 지나 거슨과 제니퍼 킬리의 한국판 섹시걸들—나른하고 유혹적인 시선으로 낮게 읊조린다.

"우리는 밤에 안 해요, 아침에 같이 해요..."

Doing what? / ... doing it? / ...

이렇듯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들간의 모호한, 혹은 동성애적(homo-erotic)인 시선의 범람을 레즈비언 '이미지'의 출현이라고 해두자.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러한 시선들은 시각이미지의 앵글 속에 끝날, 그리고 공공연히 등장했다.

영화 <바운드>가 개봉되었고 긴 팔을 호느적거리며 뇌쇄적 눈빛을 도발하던 그들 Sue가 절성되었으며, 신은경의 뒤를 잇는 중성적인 톱보이 스타일은 김지호를 거쳐

사실주의 화가 루브케의 (수면).



모델 변정수로 인해 좀 더 선명한 레즈비언 이미지로 차용되었다.

그 사이 세상에서는 동성애영화가 잇따라 수입되었고, 돌출하는 동성애자 담론에 대응해 동성애에 대한 유행, 거품, 선정적 호기심이 무성하더니 그것은 곧장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이미지 '상품'으로 포장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바로 지금'의 트렌드를 세박르게 포착해야 하는 광고에서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으리라.

실제 이 땅에 존재하는 레즈비언은 변태거나 남성 혐오주의자거나 아니면 서구문화의 세기말적 병폐라는 이유로 땅 속으로 묻혀버렸고 대신 가상의 레즈비언이미지만이 자유롭게 이곳 저곳을 부유한다.

물론 아무리 실제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레즈비언이미지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고

실제 이 땅에 존재하는 레즈비언은 변태거나 남성 혐오주의자거나 아니면 서구문화의 세기말적 병폐라는 이유로 땅 속으로 묻혀버렸고 대신 가상의 레즈비언이미지만이 자유롭게 이곳 저곳을 부유한다.

개를 내민 것은 아니다. 몇 년간 밀리터리룩, 젠더리스(genderless)룩 등 기존의 성별체제를 혼란시키는 패션 스타일이 각광받기 시작했고 동성애자 담론과 커뮤니티의 사회적 존재 그리고 동성애 영화에 대한 수요는 레즈비언 코드를 해독할 수 있는 수용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수긍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의 숨씨는 참으로 기묘하고 유연해서 뻔뻔해서는 당황하는 법이 없다. '사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판다'는 자본주의의 원칙은 돈을 만들 수 있는 일이라면 대법하고 과감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과 '물론'의 세계를 교란시키는 저항의 몸짓들을 자신와 질서로 손쉽게 길들인다.

따라서 페미니즘은 "그녀는 프로다"라는 광고 카피와 함께 커리어우먼의 패션과 성공신화로 뒤바뀌었고 이

성애중심주의와 레즈보포비아(레즈비언에 대한 비합리적 혐오, 경멸, 공포)에 도전하는 레즈비언운동은 엉겨있는 늘씬 뚱뚱 뺨뺨한 두 여자의 끈적임으로 문갑한 것 아닌가?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성애자 남성들'이며 새로운 사회적 변화는 그들의 잣대로 점열되기 마련이다. 이제, 페미니스트와 레즈비



(ab. 1, 2) 의류광고의 동성애이미지

언은 그들의 관측사원으로 고용되었고(자! 이 옷을 입으세요, 이 립스틱을 쓰세요), 이성애중심/남성중심 주식회사는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여기에서 상품화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과연 누구의 시각에서, 누구를 위해서 레즈비언이미지가 재현되는가의 문제를 꼬집지 않을 수 없다. 변정

수의 지오칼라 캡슐 메이크업베이스, 상큼한 향기에 저도 모르게 키스하게 되는 가그린, 얼굴을 더듬는 라네즈 소프트터치 투웨이케어 등의 광고는 남성이 정의하는 전형적 여성성, 섹시한 여성을 그대로 표상한다. 따라서 레즈비언적 이미지는 남성에게 거부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훑쳐보는 기

뽀뽀와 색다른 성적 흥분을 두배로 고조시켜주는 '불거리'가 된다. 레즈비언



“우리는 밤에 안 해요. 아침에 같이 해요.”
동성애적 워킹홀리데이 리파리니 화장품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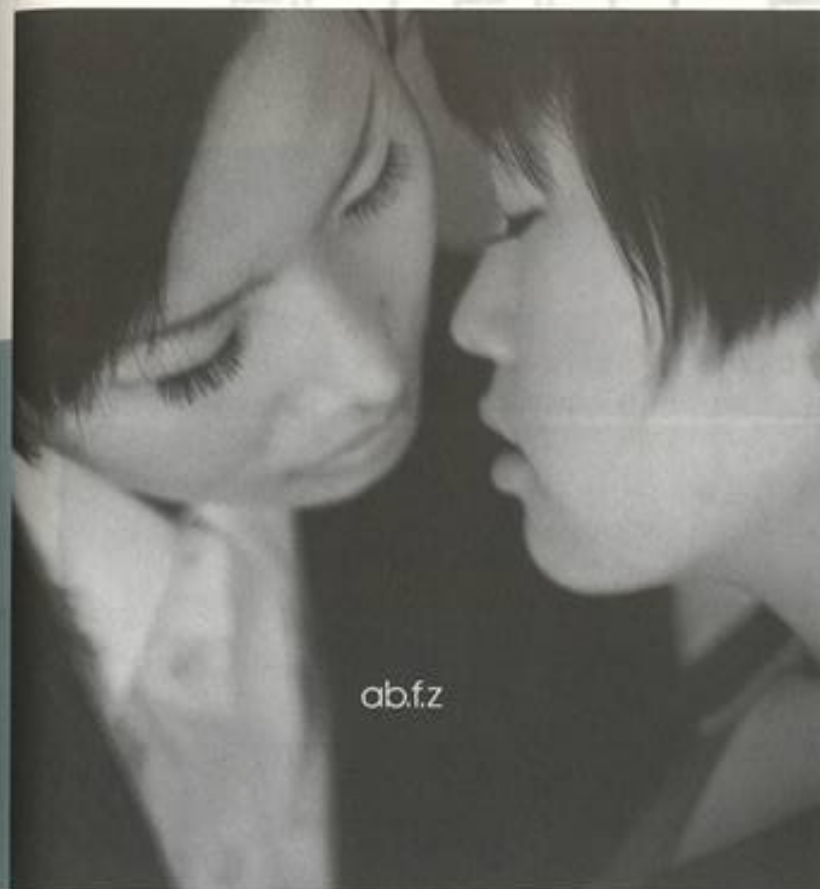
재현은 사실주의 화가 쿠르베의 〈수면〉으로부터 이성애자 남성을 위한 하드 코어 포르노그래피 속의 레즈비언 섹스신, 밤업소의 레즈비언쇼까지 변변히 남자의 눈요기로 애용되어졌으니까 말이다. 이들 광고에 등장하는 어떠한 광고모델도 뚱뚱하거나 쏸다리거나 ‘얼굴 그 자체가 호신술’인 사람은 없다. 요즘 사회가 요구하는 미인의 기준과 자격에 전원 합격하는 여성

들이며 지켜야 할 여성성과 미모를 저버리지 않는 섹시한 ‘여자’들이다. 남성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준비된’ 미인들! 사실, ‘일탈적인’ 레즈비언 이미지가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그들이 ‘정상적인’ 여성다움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광고를 접하는 여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레즈비언이미지를 차용하는 제품이 여성전용이라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동성애적 광고는 한층 복잡해진다. 화장품, 여성의류 등 주로 20대 미혼여성을 주 소구층으로 잡고 있는 제품들은 그들의 욕구와 감성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그것을 자극해야만 한다. 그런 측면에서 레즈비언 이미지 광고는 20대 미혼여성의 잠재된 동성애적 욕망을 거냥한 것이기도 하고 반대로 그들이 레즈비언 감수성에 개방되어 있음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미지’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레즈비언 관계를 명백하게 설정하지 않는 안전지대에 남게 된다. ‘나는 섹시하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하에 이성애자 여성 두 명을 감각적으로 배치해 놓고 그 위에 모사된



의미를 불러일으킨다. 그들은 레즈비언에 대한 왜곡과 상품화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갖기도 하고 동일시와 얼마간의 시각적 쾌락에 유혹되기도 한다. 하지만 23시간 59분을, 조금도 호전되지 않는 레즈비언 혐오에 시달리는 그들에게 1분여의 짧은 비현실적 동상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한다. 고로 이성애중심/ 남성중심 주식회사의 레즈비언이미지 상품은 레즈비언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불량품일 수밖에 없다. 11

레즈비언이미지를 채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두 여자는 서로를 욕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더 나은 아름다움과 섹시함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다. 가그린은 누가 더 진짜 미인인가를 구강청정제의 사용여부로 가려내며 라네즈 트윈 케익의 광고는 “부드러운 건 내 거야!”를 통해 이성애자 여성간의 묘한 경쟁을 성애적 이미지 위에 겹쳐놓았다. 여성전용 제품의 품질과 매력을

두 여자의 비교/ 심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것이 레즈비언이미지 광고의 주요 컨셉인 것이다.

화면 속의 한 여자는 다른 여자의 얼굴을 만지고 여성시청자는 두 여자를 바라본다. 이제 세 여자의 게임이 된다. 누가 누가 더 섹시한가? 그래서 누가 누가 더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이와는 다르게, 레즈비언이미지 광고는 레즈비언 당사들에게 전혀 다른

거울과 씨앗에 관한 대화

김지현, 정정엽 개인전



오해주

미술이 내게 주는 괴로움은 소통의 성격과 내용의 그 '현실'과 '작나리함'이다. 그것은 나를 그저 바라보고 스쳐지나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잘 만났다는 뜻이 날 부여하고 한꺼번에 자신의 인생과 혼을 죄다 쏟아붓는다. 미술에서는 거짓말이나 일면적인 발언이 통하지 않는다. 위장하거나 가려도 다 드러난다. 발가벗겨진 고해성사를 듣게 된 나는 할 수 없이 같이 고만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것의 영혼을 담백히 쓴 덕분에 나는 나쁜 고통에 시달리게 한다. 특히 여성작가들의 전시는 대부분 나를 괴롭힌다. 잘 안 되면서 사회적으로 교활해지려고 애쓰는 경우나, 자신의 운명에 대해 좀 무덤덤한 경우 등을 다 포함해서 말이다. 하다못해 '일요일이끼' 같은 경우의 꽃그림이나 전원풍경조차도 그렇다. 여성이 주체가 된 모든 것은 내게 어떤 식으로든, '변화'와 '작나리함'의 교감에서 오는 흥분과 고통을 준다.

김지현(30)의 전시(5.6~5.30/성곡미술관) 제목은 <미완의 자화상>이다. 예술이, 인생이 영원히 '미완'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자화상'이다. 그냥 보아도 괴로운데, '자화상'이라니!

자기를 향한 어두운 응시

그의 자화상을 이루는 축은 대개 세 갈래이다. 기억과 관계와 육체. 물론 이것들은 각 작품 안에 서로 혼재되어 있다. <관계-K양의 기억>을 보자. 검은 상자 안에 넣어진 일련의 사진은, 그가 생각하는 성장기의 핵심적인 지점(친구와 맞잡은 손, 어떤 친구의 얼굴, 학교의 어떤 교실, 그가 빼앗긴 강아지 등)에 부분적이고 집중적인 조명이 가해진다. 그 지점들의 연결이 그가 생각하는 성장기의 기억이다. 즉, 그의 기억은 특별한 맥락에 의해 선택된 것이다. 그 맥락은 상실과 결핍이다. 그에게 있어 성장기의 관계맺기는 줄곧 상실과 결핍으로 기억된다.

<관계-6개의 상자>는 큰 상자 안에 각기 어머니와 나, 할머니와 어머니,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버지의 두개골 엑스레이 사진을 붙이고 가운데를 거울로 막은 작품이다. 그러니까 정 가운데에서 보면 두 개의 얼굴이지만 살짝 비껴서 보면 완전 대칭을 이룬 하나의 얼굴이 되는 것이

다. 그에게 '가족'이란,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닌, 어쩔 수 없이 닮았으나 완전 별개인,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애증의 관계이다. 재미있는 것은 남성 작가들은 가족을 이렇게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성작가들에게 가족이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실체라면 남성작가들에게 가족은 관념적이고 단순한 이데올로기임이 작품에서 드러난다.

신체의 한 부분을 클로즈업한 <Eyes>와 <붉은 피라미드>는 나와 육체와의 관계를



<K양의 초상>, 사진, X-ray 필름, 빛,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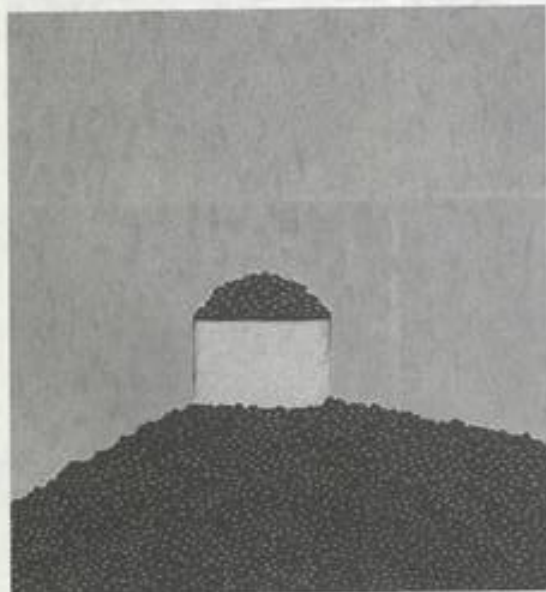
<Eyes>, 사진, 1998.

다른 것이다. 인위적인 연출로 찍힌 여러 가지 눈(한쪽 눈 주변)은 아름답기는커녕 괴기스럽고 끔찍한 모습이 다. 한편 붉은 빛의 상자에 담긴 눌러진 입술, 젖가슴, 발바닥, 성기 등은 그의 작품들 중 예외적으로 약간 냉소적이고 익살맞은 것인데, 나만의 육체, 내 것인 육체, 내 식으로 보는 나의 '살들'에 대한 경외이고 남들의 시

선에 대한 비꼬기이다.

또한 엑스레이를 투과시킨 작업들, 자신의 얼굴 <자화상>과 결혼 <세레나데>, 의자의 밑부분 <돌취보기> 등은 존재의 내부에 대한 진지하고 잔인한 바라보기이다. 나 같으면 엑스레이까지 비취가며 나 자신을 보고 싶지는 않을 텐데 말이다.

대체적으로 그의 작업은, 일반적으



〈쌓여진 일상〉, 캔버스에 유채, 1998.

정정엽의 곡식이 추상적인 구성에도 불구하고 한알 한알이 살아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유는 바로 여성들만의 경험과 세계에서 비롯된 고유의 시선에 있다.

차오르고 쌓이는 지상의 양식

정정엽(37)의 전시장(6.4~6.14/금호미술관)에는 온통 곡식이 가득하다. 팔과 콩, 녹두, 붉은 고추 등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쌓였다가 흐르고 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세밀한 묘사이지만 멀리서 보면 추상화 같다. 지속적으로 여성문제를 고민하고 비교적 직설적으로 그것을 표현해 온 그의 전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의 이리

로 '생각되는' 것과 다르게 '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통렬한 통시이며, 인간의 기억, 관계, 육체 등이 매우 우울하고 자기파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한 통시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한편 말리고 싶은 것이지만, 고통을 통해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누

군가와 어쩔 수 없이 교감을 하게 되는 것은 확실히 흥분되는 일이다.

한 변신(?)이 약간은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남성화가들이 곡식을 그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데 생각이 미치면 정정엽의 시선이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내 생각엔 그의 어떤 생각의 즐거가 끝까지 가본 것이 이번 전시가 아닐까 한다.

그는 왜 곡식을 한알 한알 그리고 있을까? 그에게 곡식이란 일단 '먹는 것'이다. 아니, 여성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직접 밥을 지어 본 사람이라면 말이다. 밥을 지어보고 남(?)에게 먹여본 사람이라면 무언가 '먹을 것'이 되는 것에 대한 예감이 있다. 나도 길을 걷다 보면 무언가 '해먹을 것'이 자꾸 눈에 띄곤 한다. 그러한 생각에는 '나' 보다는 '타인' (가족일 수도 있고 아이, 이웃일 수도 있고)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는 배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바로 그것이 여성적 시선의 긍정적 측면이다.

그래서 그의 곡식은 일단 먹는 것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것은 재미있게도 형식적인 특징으로서 드러난다 (이 지점에서 미술은 거짓말이 통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느낀다). 즉 그의 팔알갱이는 남성작가들이 그린 곡식 알갱이와 그 느낌이 너무 다르다는 것인

데, 남성들의 곡식은 먹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인다. 그들의 시선과 경험은 곡식 자체가 갖고 있는 본질에 접근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관념과 형식에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정엽의 곡식이 추상적인 구성에도 불구하고 한알 한알이 살아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유는 바로 여성들만의 경험과 세계에서 비롯된 고유의 시선에 있다.

그의 곡식의 또다른 측면은 그것의 생식력 혹은 생명력이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댕게 되는 결과에 대한 상상과 그것이 의미하는 삶에 대한 펼쳐버릴 수 없는 희망 같은 것 말이다. 생명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는 사실 가장 변화가 많을 수 있는 지점이다. 경험에 따라,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미묘하고도 질적으로 다른 많은 차이들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그가 그려내는 생명은 일단 지금의 삶을 버티게 하는 의식적이고도 자발적인 태도에서 우리나라의 것인 듯하다.

그의 곡식이 의미하는 이러한 긍정적 성격은, 그러나 하루하루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삶의 환멸감을 감추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즉, 절망과 희망의 균형에 대해 그는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끝까지 밀어붙여 본다.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가. 화면

렇게 빨리 희망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종족이기 때문에.

21세기를 앞둔 대한민국에서 여성



〈생산〉, 캔버스에 유채, 1997.

의 여백이 그것의 해답을 줄 수 있는가. 현재 그는 여백에서 숨을 돌리고 있음이 느껴진다. 그리고 나도 거기에 서 일단 쉬고 싶기는 하다. 우리는 그

예술가로 살아갈 때, 내게 중요해 보이는 것은 작품 그 자체가 아니라 작가 개개인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11

능력있는 여성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미스터 커티〉와 〈투캅스3〉



정민아

동국대 영화학과에서 현재 석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다. 제목은 '페미니즘 이론에 관한 연구'. 작은 것을 크게 생각해도록 도와주는 영화를 사랑한다. 무수히 되풀이되는 시시한 일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어 돌아온다. 영화라는 무한한 해석의 바다에서 때로는 바다에 가라앉아 숨이 막히기도 하지만, 침몰 위험 조난에 물결을 헤치고 수면 위로 나올 때 세상과 나는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최근 몇 년간의 한국영화나 할리우드영화는 대개 남자주인공들이 이야기를 진행한다. 우리나라 영화는 과거 60년대 가족 멜로드라마, 70년대 호스티스드라마, 80년대 사회성 멜로드라마라는 주요 흐름 속에 항상 여자주인공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다. 10년 주기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여배우 트로이카체제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90년대의 유행장르를 갱스터, 액션 영화들이 차지하면서 이야기의 중심전달자의 위치는 남자들이 차지하게 되었고, 더군다나 멜로드라마가 강세라는 요즘의 영화 경향도 예전과 달리 남자주인공을 중심으로 몇 명의 여성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다.

성공한 여성 뒤에는 훌륭한 남성이 있다?

할리우드영화는 보다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할리우드 영화산업이 블록버스터를 생산해 내는 데 주요 역량을 쏟

아 부은 이래로 액션 혹은 SF영화가 주요 장르로 떠오르고, 이 장르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도 역시 남자들이었다.

이런 와중에 여자가 주인공인, 그것도 가정이 아닌 사회에서 남자들을 능가하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영화들이 새삼 반갑게 여겨졌는데, 할리우드영화인 〈미스터 커티〉와 한국영화 〈투캅스3〉가 바로 그것이다.

우피 골드버그가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미스터 커티(The Associate)〉는 제1회 서울여성영화제에서도 상영된 적이 있다. 우피는 미국 증권가에서 일하던 실력가 흑인여성이다. 흑인인 데다가 여성이라는 위치는, 알미온

탈출구는 그 비상한 머리로 증권가의 막강파워 백인남자를 창조해내는 것이었다. 가상의 백인남자를 만들어 낸 뒤 그녀는 연일 성공을 거두지만 결국에는 부재한 인물을 대행하는 괴

팍힐 도리밖에 없다. 〈미스터 커티〉는 TV시리즈인 〈레밍턴 스틸〉의 새로운 인물을 창조해내는 과정을 담아 있고, 결말부의 성이 뒤바뀌는 긴장감은 〈투씨〉를 닮아



우피 골드버그 주연의 〈미스터 커티〉.

후배인 백인남성이 간부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일자리를 벗어던지고 최악의 상황에서 비틀거리던 그녀에게 유일한

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유령인 '미스터 커티'를 죽이는 계획을 꾸민다. 하지만 업치락뒤치락 계획은 불발로 그치고, 어쩔 수 없이 공개석상에서

있다. 최충우들의 사건 속에서도 할리우드영화답게 우피는 능력을 인정받고 거대한 빌딩에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의 간판을 걸고, 증권가의 큰

여성경찰로 나온 인물(권민중)은 그녀의 가슴곡선이 완전히 보이도록 목이 흰히 파진 윗도리를 입고 있다. 현실의 두터운 벽을 뛰어넘으려는 그녀의 처절한 싸움은 여성의 육체라는 매력적인 볼거리 뒤로 차츰 차츰 숨어버리고...

손이 되는 해피엔딩으로 영화는 막을 내린다. 이 영화에 숨겨져 있는 부정적인 이데올로기를 밝히자면 한이 없겠지만(어떻게 일개 흑인여성 중개인이 거대한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일단 이 영화는 여성이 남성들의 담화 속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여성들 사이의 연대가 어떻게 실업 불안을 극복하는지 통제하게 표현하고 있다(영화의 원제는 <동업자>가 아닌가!).

남성사업가들은 "여자들은 원래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에는 맞지 않아"라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여성들과 함께 일한다. 매사에 그들은 여자를 믿지 않고, 항상 남자파트너를 찾는다. 영화는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남성사업가들과 성공한 남성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전형적인 모습의 여성들을 보여주는데, 주요 인물인 우피와 그녀의 비서 다이안 휘스트를 제외하면 인물군상들이 단순할 정도로 이분화되어 있다.

선정적인 기사를 특종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허위의식에 가득 찬 앵커우먼 하며, 재력가를 애인으로 삼아 출세해 보려는 욕망으로 가득한 또 다른 글래머 여성중개인 등 여성들간의

적들도 있지만, 우피가 남성전용클럽에서 통제한 한판 뒤집기를 하는

순간, 이들을 포함한 모든 여성들은 승리를 축하하는 동조의 박수를 보낸다.



다. 선악의 명확한 구분은 여성이라는 희생자의 이름 앞에 희미해져 버리는 미덕으로 발휘되고, 우피와 그녀에 의해 진가가 발휘된 비서의 즐거운 연대는 단순한 이야기구조 속에서도 빙긋이 웃음짓게 하는 요소로 남는다.

남성관객을 배려한 여주인공

스스로가 가진 여성성에 파워를 덧붙여 남성전용 구역에서 성과를 이루어간다는 영화 <투캅스3>.

구제금융시대를 맞아 구조조정 대상 1,2,3 순위는 모두 여성의 차지가 되도록 종용하는 지금, 여성이 제 역할을 확실히 발휘하는 모습을 스크린에서 만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투캅스3>는 영화 초반부터 우리의 신경을 거스를 것이라는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게 했다. 여성경찰로 나온 인물(권민중)은 그녀의 가슴곡선이 완전히 보이도록 목이 흰히 파진 윗도리를 입고 있다. 현실의 두터운 벽을 뛰어넘으려는 그녀의 처절한 싸움은 여성의 육체라는 매력적인 볼거리 뒤로 차츰 차츰 숨어버리고...

강력계 형사반에서는 경찰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녀를 여자라는 이유로 우습게 보고, 이런 와중에 그녀는 좌절을 거듭하다가 하나의 사건을 능숙하게 처리하면서 인정을 받게 된다.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되, 그녀는 기존의 되바라지게 보여지던 성공한 여성들과는 다르다. 커피 심부름도 제 역할로 여기고 부드럽게 하며 '비스켓'라는 명칭에도 꿀을 내지 않으며, 그저 단순한 타이피스트가 되기도 한다. 모든 어려움에도 그녀는 속으로 삭이는 '현명함'을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여성인 것이다.

고뇌하는 그녀를 보여주기 위해 카메라는 완전한 나신이 되어 사위하는 모습을 한참 동안 비춘다. 이 영화가 데미 무어가 출연했던 영화 <G.I. 제인>에 대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여러 차례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기도 하다. 그러나 맥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데미 무어의 자연스럽고 처절했던 모습이 권민중에게 와서는 하나의 자극적이고 예로틱한 장면이 되고 만다.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 함께 사우나를 해야 한다는 선택형사의 말대로 그녀는 마지막 장면에서 또 한번 나신이 되어 이제는 관객뿐만 아니라 상대 남자에게도 자신

의 완전한 속살을 보여준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의지인 것이다. 능력있고 힘있고 똑똑하고 섹시하고 순종적인 여성상.

역시 영화를 만드는 주체는 남자와 영화가 상영되게 하는 것도 남자와 영화를 보는 것도 남자인 세상에서 여성은 남성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어 있다. 그러한 사실을 완전하게 까발리는 영화 <투캅스3>는 여성이 주인공이되 남성관객을 철저히 배려한 영화이다. ■

얼어붙은 가요계 녹일 여성신인들

오영란, 서영은, 이아미



이아미

82년 1월간 동남아 배낭 여행, 지루한 일상생활에 못가다 94년 도이, 많은 문화적 체험을 하고 95년에 귀국(2주간 홀로 미국 서부 일주), 토익 점수 950으로 S그룹 S호텔 홍보부에 입사했으나 S그룹이라는 자부(7)심에 빠진 동료들에게 거부감을 느껴 자진 퇴사 후 패션지 [위즈] 입사 현재 비문음악잡지 SEE 편집장, 공연 브랜드 아우치 팀장으로 공연기획 및 진행, 울산 MBC '별이 빛나는 밤에', 부산 '정오의 희망곡', CBS '변진섭의 우리들'에 고정 출연중.

배리도.

우리 가요계의 대부. 형은 <창밖의 여자>, <돌아와요 부산항에>로부터 시작해 30년 동안 우리 가요계를 평정한 한국 최고의 가수지. 오랜만이야.

우리 가요계가 요즘 너무 답답해서 형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 또 이런 상황에서도 실력있는 여자가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얘기도 나누고 싶었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겨우내 준비하고 있던 새 앨범들이 나오는 시절이야. 하지만 올 98년은 음반시장 최대의 불황기라 할 만큼 신인가수의 등장이 현격히 줄어들었고 음반 발매율도 낮아지고 있어.

이런 음반시장의 불황은 누가 뭐라해도 경기침체의 영향이 가장 크잖아. 그중 첫째로 음반 도매상들의 부도를 그 이유로 들 수 있겠지. 올초 국토, 동양, 대일 등 내로라하던 우리나라 최대 도매상들이 부도가 나자 연쇄적으로 음반사에게 피해가 오고 따라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레코드사들이 제작을 꺼리게 된 것 아니겠어? 그러니 흥

행이 보장되지 않는 신인가수가 앨범을 제작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가 되는 셈이지. 자연히 기성가수들의 앨범 제작이 눈에 띄도록 많아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어덜트컨템포러리(Adult Contemporary)뮤직 — 굳이 번역하자면 성인가요쯤이 되겠지 — 붐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되었지. 작년에 이미 빠리형이 <바람의 노래>로 어덜트컨템포러리뮤직의 붐을 조성했잖아. 그 이후에 김진도, 신승훈, 변진섭, 이미태, 백영규 등의 가수들도 방송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고.

두번째로 제작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 수 있겠지. 이미 앨범을 제작했다 하더라도 시중에 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발매했다 치더라도 음반 홍보비가 줄어들면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앨범이 그대로 썩는 경우가 생기잖아. 형도 그런 가수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왔을 거야. 요새 앨범 하나 제작하는 데 돈이 좀 들어? 적어도 5천만원에서 1억원은 들잖아. 막말로 음반이 팔려야 번 돈을 가지고 다른 가수의 앨범을 제작할 게 아니야? 근데 돈

가요판을 보더라도 여자가수보다는 남자가수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지. 이유를 들자면 음반수요자의 대부분이 여자들이기 때문이야. 실질적으로 음반을 사는 구매자들이 초중고 여학생들이니 그들의 입맛에 맞는 남자가수의 제작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 돌지 않으니 어디서 '생돈'을 끌어다가 앨범 제작을 계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모두들 어려우니까 제작들을 꺼리게 되는 거지.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들자면, 그 많고 탈 많았던 TV 쇼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댄스그룹들의 등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겠지. 작년까지만 해도 댄스그룹의 사이클이 2주라고 할 정도로 댄스그룹들이 호황을 누렸었어. 근데 형도 알겠지만 댄스그룹을 유지하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 댄스그룹의 80~90% 이상이 4인조 이상이고 코디네이터, 메이크업, 백댄서들까지 합치면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 하루 밥값만 따져도 기실만원은 나간다고. IMF시대에 턱도 없는 얘기라고.

전반적인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제야 실력있는 인물이 아니면 가수가 되기 어려운 시절이 됐어. TV 방송활동보다는 라이브에 주력해 왔던 가수들의 추가가 높아지고, TV를 시청하던

수동적인 시청자들도 라이브무대로 직접 달려가는 능동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지.

이런 가운데 특이할 만한 사실이 바로 여성가수들의 등장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이야. 아주 좋은 현상이지. 내가 여자라서가 아니고, 그동안 사실 어디 이렇다할 여자가수가 있었어? '오빠부대'는 있어도 '언니부대'는 없잖아. 형도 '오빠부대'의 환호에 익숙했었겠지. 그러나 왜 남자가수들에게만 그런 환호가 있었는지 생각해본 적은 없었을 거야. 실력이 좋으니까? 물론 그것만은 아니란 건 형이 더 잘 알 거야. 가요판을 보더라도 여자가수보다는 남자가수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지. 이유를 들자면 음반수요자의 대부분이 여자들이기 때문이야. 실질적으로 음반을 사는 구매자들이 초중고 여학생들이니 그들의 입맛에 맞는 남자가수의 제작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하지만 이소라 이후 '여자가수는 판



여성가수 전성시대의 포문을 연 이소라(위). 그룹 <자우림>, 오른쪽 앞이 보컬 김윤아(아래).

이 팔리지 않는다'라는 속설이 깨졌지. 이소라는 20대 이상의 대중들을 음반 구매자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고 <난 행복해>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



24의 꿈을 풀어 제작한 오현란의 데뷔앨범

하면서 여성가수 전성시대의 포문을 열게 되었어. 그리고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이 바로 라이브의 여왕 리아야. 리아는 라이브 위주로 활동을 하면서 팬층을 넓혀나갔고, 이후에는 양파, 예코, 이뉴, 자우림(보컬 김윤아), SES, 박지윤, 진주, 박정현 등 나이 어린 여자가수들이 남자가수 일색이



허스키하고 육감적인 보이스의 서영은 앨범

있던 가요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면서 여성가수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야. 난, 이제는 가요판에 일대 혁명을

이제는 가요판에 일대 혁명을 일으킬 여자가수들이 대거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해. 전반적인 대중음악상황이 여자가수들을 원하고 있고 여자가수가 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보거든.



엘라니스 모리셋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아이미의 앨범

일으킬 여자가수들이 대거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해. 전반적인 대중음악상황이 여자가수들을 원하고 있고 여자가수가 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보거든. 그런 의미에서 올 한해를 이끌어 나갈 여자가수들 소개하려고 해. 요새 라디오를 틀면 꾸준히 들리는 노래의 주인공들이야. 비디오텍스가 판을 치는 요즘 음악성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가수들이지. 오현란, 서영은, 아이미라는 가수야.

서영은은 재즈스타일의 곡들을 무

난히 소화해 내는 재목인데 허스키하고 육감적인 보이스가 아주 매력적인 가수야. 재즈클럽의 대명사라 불리는 <올 댓 재즈>를 비롯해 <피플>, <몽크>에서 꾸준히 활동을 해왔는데 95년부터 97년까지 신관용 <Jazz Big Band>에서 보컬리스트로 활동하기도 했지. 한마디로 경력이 화려해. 경력이 화려하다는 건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게 아니겠어? 96년에는 음악잡지 'GMV'가 선정한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뮤지션'에 뽑히기도 했었어.

올초에 나온 데뷔앨범은 <아라비안 나이트>로 잘 알려진 김준선이 전체적인 디렉팅을 맡았어. 또 바이올리니스트 심상원, 트럼페터스트 이주한, <넥스트>의 전 멤버이자 기타리스트인 정기송 등의 연주를 통해 완벽한 앨범을 만들어냈지.

요즘 한창 라디오에서 많이 들리는 노래, <오해>라는 곡 기억나? 애절하면서도 파워풀한 보컬이 가슴을 울리

는 곡 말이야. 그 노래가 바로 오현란이란 가수의 곡이야. 오현란은 그룹 <페이지>에서 <마지막 너를 보내며>라는 곡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졌는데 '한국의 토니 브랙스톤'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가창력이 뛰어나지. 그녀의 R&B 소화능력은 정말 탁월해.

사실 R&B는 흑인 정서가 많이 개입된, 우리 정서와 많이 다른 장르인데다 느낌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음악이야. 그래서 말 그대로 '필'이 없으면 성공하기가 힘든 장르야. 끈적끈적하고 허스키한 보컬 컬러가 R&B에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가수라고 할 수 있어.

이번 솔로 데뷔앨범을 제작하는 데 2년 정도의 공을 들였다고 해. 앨범에 수록된 한국 한국에 제대로 쉽게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노력을 투자했어. 국내 최고의 세션들을 다 썼다고 생각하면 돼. 바이올리니스트 심상원, 기타리스트 샘리, 함춘호, 베이스스트 신현권, 조동익, 하몬드로스가

나스트 김효국 등 최정상급의 세션들의 이름을 재킷 뒷면을 펼치면 볼 수가 있지. 또 피아니스트 김광민이 직접 작·편곡을 해준 곡도 있다고 해. 여태껏 한번도 남에게 곡을 준 적이 없는 그가 그랬다는 건 그녀의 실력을 인정했다는 얘기겠지.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가수가 바로 아이미야. 지난 95년 대학가요제에서 쌍투스의 멤버로 나와 금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어. 엘라니스 모리셋, 파트리샤 카스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보이스 컬러나 창법이 그들과 거의 흡사해. 까다롭기로 유명한 김형석이 디렉팅을 맡았는데 그녀의 발라드적인 끼를 발굴해냈지. 여런 듯한 보컬이지만 여성스러움이라서 기대할 만한 가수인 것 같아.

요즘 라디오를 들으며, 선전(善戰)하고 있는 여자가수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움을 느껴.

백리형.

앞에 내가 말한 가수들은 장차 우리 가요계를 이끌어갈 재목감들이야. 좀 이따 외모가 중요시되는 기존의 가수들과는 게임이 안 되는 '물건'들이지. 물론 앨범의 히트라는 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잘 맞아떨어져야 하는 거지만 그들이 실력있는 뮤지션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명한 사실이야. 별 이상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혹은 세계로 뻗어나갈 것을 믿어. 한걸음 내디딘 그들에게 형도 화이팅 한번 해주지 그래. [1]

if 가 뵈은 여름의 책

조선사의 여인들 1, 2

한국사를 수놓은 여성들의 불꽃같은 삶
성윤자 지음·김승일, 심근순 옮김·넥서스 펴냄



유구한 우리 역사 오천년의 절반을 차지한 여성들은 모두 어디에 갔을까. 기껏해야 신라의 선덕여왕, 독립운동을 했던 유관순이나 옛이야기의 주인공인 심청이나 춘향이를 떠올리는 정도일 것이다.

이 책은 이런 의문에서 출발해 방대한 남성의 역사 속에 가려진 '여성의 역사'를 되짚어본다. 최초의 시인으로 공후인을 지었다고 기록된 여옥에서부터 신라의 여왕들을 거쳐 일제시대 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예술인, 정치가, 나라를 구한 여성 등 그동안 정사(正史)에서 소홀히 취급됐던 옛 여인들의 활약을 복원해냈다.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삶과 도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엮음·한울 펴냄

지방의회에 진출했던 여자들이 과

연 일은 잘하고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이 책에서 여성의원들은 여성들이



라면 피부로 와닿는 지방행정의 문제들을 간간하게 짚어낸다. 독자들은 권위주의적인 행정구조, 턱없이 부족한 교육시설과 시행의지도 보이지 않는 학교급식, 주부에게만 화살을 던지는 쓰레기정책 등의 개선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후련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수필형식으로 쓰여져 있고 현실적인 이야기라 잘 읽힌다.

091012 "공부 열심히"라구?

조은 지음·또 하나의 문화 펴냄



사회학자인 지은이가 두 아들과 대

화를 하면서 느꼈던 우리 교육현실에 대한 가슴앓이가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다. 지난 91, 97년에 『여성신문』에 실렸던 저자의 「교육일지」와 「어발이」와 「자비」라는 별명을 가진 지은이의 두 아들이 쓴 「반론」을 함께 묶었다. 제목이 된 '091012'는 10대들의 필수품이 된 삐삐의 '공부열심히'라는 암호이다.

자녀에게 '생각하라'고 하기보다는 공부나 하라고 말해야 하는 지은이의 안타까움이 묻어 있는 이 책은 '좋은 대학보내기'나 '좋은 엄마' 노릇의 노하우에 대한 것이 아니다.

성과 사회 — 담론과 문화

오성근, 윤세준 엮음·나남출판 펴냄



성 또는 색슈얼리티에 대한 이 책의 글들은 그간 『사회비평』지에 실렸던 원고들을 다듬어 펴낸 것으로 순수하게 국내 학자들의 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 책에는 몇년 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마광수와 장정일에 대한 법적 제재의 문제를 다룬 「포르노, 문학작품, 그리고 법」, 「포르노에도 텍스트가 있는가」와 「성의 시장, 매매춘」 등 우리 현실을 읽어보게 만드는 흥미로운 글도 실려 있다.

여성학의 이해

한국여성학연구회 엮음·경문사 펴냄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를 졸업한 '한국여성학연구회' 회원들이 최신 자료를 포함시켜 기존의 여성학 교재에서 미비했던 점들을 보완했다.

목차를 일별하면 현대 여성학의 성립과 전개, 성차별의 본질, 가부장제 결혼과 가족, 여성의 사회적 위치: 일·가족·국가와의 체계분석을 위한 예비적 고찰, 여성과 성, 호신의 이론과 실제, 여성과 문학, 여성과 생태주의, 여성과 법률, 여성과 사회복지, 근대한국여성운동소사, 서양여성운동사 등이 실려 있다.

딸 이렇게 키워라

유아기에서 청소년기까지, 딸 가진 부모들을 위한 교육 에세이

비비카 마코프 지음·오숙희 옮김·가야미디어 펴냄

딸만 둘을 키우는 여성학자 오숙희가 우리 현실을 고려해 딸 키우기 교육서를 번역했다. 사회심리학자인 이 책의 지은이는 자신의 딸을 키우면서, 또 딸을 키우는 부모들과 함께 한 '딸 키우기' 워크숍을 통해 얻은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이 책을 썼다.



지은이가 제시하는 딸키우기 전략은 다음과 같다. '딸이라서 그렇다'는 생각을 버려라. 딸이 하는 말을 진심으로 믿자. 독립적으로 키워라. 멋진 여자들을 보여주자. 여성차별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자. 외적인 아름다움은 두 번째라고 말하자. 딸과 함께 첨단 과학을 배우자. 얼핏 다 아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각 전략에 대한 실천방안은 구체적이고 재미있어서 '실용 지침서'로도 손색이 없다.

아들이 딸아, 들어 보아라

김남이 지음·한빛사 펴냄

'내 자식 칠 남매들아, 이 어미 지나온 인생역정 대강 추려보이니 들어보아라'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책은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지만 한글과 한자를 깨친 지은이(1909~1997)가,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가슴에 묻어두

책 권하는 여자

이숙경 페미니스트가게 (고마) 운영

창조적 삶을 위한 명상의 일기 언어

프리스틴 라이너 지음·고마미디어 펴냄
'일기작법연구가'인 저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일기를 연구해 일기쓰기의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의미를 통찰해낸 책. 저자는 서문에서 "광범위한 사람들의 일기들을 종합한다면 일종의 생생한 집단적 일기 심리학, 창조적인 일기쓰기에 대한 하나의 증언집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잘하면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재미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을 것.

어떤 나무들은 — 아이오와 일기

최승자 지음·세계사 펴냄

시인 최승자가 94년 8월 말경부터 95년 1월 중순경까지 미국에 머물며 썼던 일기모음. 그의 시를 읽으면 마치 한영애의 노래를 듣는 것 같다. 그의 시에서 나는 화창기 없는 먼 얼굴로 소주병을 돌이키는 산발한 30대 독신여성이 절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 일기모음집에는 시인이 평생에 처음 미국에 머물며 '변화'해 가는 모습이 진전하게 그려져 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지내며 다시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시인의 오랜만의 외출이 몹시 부럽다.

아주 특별한 즐거움

줄리아 키예프 지음·다빈치 펴냄

창조적이라는 건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과 동의어가 아닐까. 이 책은 비단 창조성이 요구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누구나 창조성이라는 '아주 특별한 즐거움'을 찾을 권리와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한때는 작가(혹은 화가, 영화감독...)가 되고 싶었지만 이젠 내가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사는 게 재미없어진 사람은 혹시 이 책에서 '아주 특별한 즐거움'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있던 이야기를 아들, 딸에게 절절하게 들려주는 일종의 민중자서전이다. 경북 안동의 선비고장에 태어나 동갑내기 신랑에게 시집가서 겪었던 시집살이, 생판 남같이 쑥스럽고 서먹서먹했던 남편과의 결혼생활이며, 생활의 여러 어려움 등이 빛바랜 흑백사진처럼 담담하게 담겨 있다.

어제

이코타 크리스토프 지음·송경식 옮김
문학동네 펴냄



200자 원고지 400매 분량의 가벼운 이 소설이 발표되었을 때 프랑스의 신문잡지들은 일제히 이 소설과 작가에 대해 주목했다. 이러한 열렬한 관심은 헝가리 출신이며 스위스로 망명하여 프랑스어로 글을 쓰는 여성작가라는 특이한 이력이나 그의 작품이 주는 놀라운 흡인력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자신이 쓰고 있는 언어가 외국어라

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듯, 그의 문장은 짧고 담백하다. 그 매마른 문체로 작가 자신의 삶의 궤적이 투영된 주인공 상도르를 통해 공장에서의 고달픈 노동, 스위스로 추방된 헝가리인의 고통, 자살, 그리고 불가능한 사랑 등을 그릴 때 독자들은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다. 이 소설을 읽고 나서 동유럽에서 망명해 프랑스어로 소설을 쓰는 또 한명의 작가 밀란 쿤데라를 떠올릴 독자들도 있겠다. 거장의 무게를 지탱하느라 힘겨워보이는 쿤데라의 작품에 실증을 내고 있는 독자라면 이 소설에서 과장이나 허식이 탈수된 듯한 가벼움을 느껴보기를 권한다.

주목받는 여성 신예작가 신작 9인선

하이델문학관 엮음·창아 펴냄



1990년대를 풀어내는 두드러진 키워드는 PC통신의 일반화와 여성작가 층의 대두일 것이다. 이제 여성작가들은 여성해방의 차원을 넘어 존재적 경험을 자유롭게 풀어놓기 시작했다. 이 책은 여성작가들이 기존의 인쇄매체를 통하지 않고 PC통신이라는 새로운 매체에 신작소설을 발표해 곧바로 독자와의 만남을 시도했던 작품집이다.

이혜경, 오수연, 함정임, 서하진, 강규, 한강, 박숙련, 김다은, 송경아 등 고전적인 소설문법에 익숙해 있는 작가로부터 PC통신의 매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작가까지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이 실려 있다.

흑실공주 이야기

여자와 남자가 광당한 페미니즘동화
비비라 G. 워커 지음·박해란 옮김·프린틀 펴냄



미국의 여성학자인 지온이의 동화 새로쓰기는 풍자보다는 대안제시에 가깝다. 그래서 동화 다시쓰기가 기존 동화의 아름다움을 훼손시킨다고 걱정했던 사람이라면 안심해도 좋다. 이 새로운 소설은 정치적으로도 올바르며 아름답기까지하다!

예를 들면 「알라딘과 신기한 램프」에서는 이기주의를 극복한 여성 알라딘이 등장하여 램프의 거인 지니에게 모든 부를 비슷하게 분배하도록 시킴으로써 계급도 없고 계층도 없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낸다.

피임의 역사

앨리스 맥태인 지음·장기도 옮김·책세상 펴냄

성에 대한 이중적 기준은 일상 생활

에서 순결, 임신, 출산, 양육, 피임, 낙태 등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한다. 역사학자인 지온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오늘날까지 피임 도구와 방법의 변천과정, 생식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등을 통해 (가부장제)



사회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여성의 생식력을 조정하려고 했던 방식을 폭로하고 있다. 자칫 선정적으로 다루어지기 쉬운 피임과 낙태에 대한 진지한 연구서이다.

동시에

임제보르크 비하만 지음·장경아 옮김·예문 펴냄



2차대전 직후 독특한 문체와 사고로 독일문단에 등장, 많은 논란과 화제를 모았던 작가의 마지막 소설집이다. 다섯 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이 책의 중심테마는 '사랑의 부재 위에서'의 사랑의 모색' 과정이다. 오스트리아, 특히 빈 주변 출신의 여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이 겪는 사랑, 그들

이 만나는 남자, 가족관계, 그들이 중사하는 일이 작품의 주조를 이룬다.

찰나적인 공유의 시간만을 허용하며, 엇갈리는 사랑이라는 부정적이고 암울한 분위기는 세기말을 사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주제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 소설들에서는 지적인 통찰을 그려내는 섬세하게 버려진 언어를 맛보는 즐거움이 있다.

여우가 늑대를 만났을 때

앙헬레스 마스트레마 지음·김정민 옮김
자카나무 펴냄



여성의 영혼을 탐색하는 가장 뛰어난 작가로 평가되는 앙헬레스 마스트레마는 이 책에서 여자들의 내면에 감추어진 사랑의 충동이나 호기심, 두려움 등을 솔직하고 대담하게 보여줌으로써, 라틴아메리카 최고의 베스트셀러라는 대중적인 성공을 얻고 있다.

열여덟 편의 일화로 구성된 이 책에는 갖가지 유형의 흥미로운 여자들의 일생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또 철저히 억압되어 온 여성의 욕망과 감정의 해방을 통해 아주 독특하고 유쾌한 방식으로 남성중심적 여성상의 모습을 부수어버린다.

풍부한 유머와 재치, 아이러니가

잠수복과 나비

장도미니크 보비 지음·홍문선 펴냄
프랑스의 유명 저널 「엘르」지의 편집장이었던 저자는 40대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왼쪽 눈꺼풀 하나만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리고 그는 이 상태로 15개월을 병상에서 보내다가 삶을 마감했는데 그 15개월 동안 왼쪽 눈꺼풀을 20만 번 이상 깜빡거리려 한 권의 책을 완성했다. 죽음을 코 앞에 둔 사람이 이토록 아름다운 사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토록 담담하게 자신의 효용효를 해진 육체를 말할 수 있다.

새벽의 집

문명이 지음·보리 펴냄
공동체를 이 땅에서 직접 실험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아주 먼 옛날의 얘기도 아니다. 1971부터 1980년까지 〈새벽의 집〉이라는 이름의 공동체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역시 그 집에서 성장한 문명 마씨가 썼다. 결혼이나 혈연가족중심이 아닌 다른 어떤 대안적인 삶, 남과 남이 만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어떻게 어렵고, 왜 해를 만한 일인지 8년간의 새벽의 집 체험을 통해 엿볼 수 있다.

타넷 死者의 삶

파도야일바 지음·유지화 옮김
정신세계사 펴냄

여성학을 하거나 여성운동을 하다보면 여성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별로 없는 책이나 영화를 볼 때조차 뇌에 이미 깊숙히 삼입되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검열회로가 작동하여 "흠... 역시 저자는 여성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 "완전히 가부장제 신봉자야" 하는 판단을 무수히 내린다. 후쿠 니의 경우가 그랬다. 사실 나만 이런 것 같지는 않지만, 죽음, 탄생, 생명 이런 문제들과 만나면 검열회로의 작동이 좀 문제자는 것 같아서 편하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상상아른 철학적 성찰이든 간에 인간의 무한한 상상과 통찰력이 그려낸 죽음의 모습에 신비한 매력까지도 느낄 수 있어서 좋다. 11

독한 책의 내용에 걸맞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본문 일러스트도 눈에 띄는 볼거리다.

엄마한테는 엄마인생이 있는거야

필드 바르보니 지음·이현희 옮김·작가정신 펴냄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온 서른다섯 살의 기혼여성 까트린이 늙기를 거부하는 어머니 때문에 권태로운 삶을 살지만, 80세 고령의 할머니를 입양(?)함으로써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자기성취를 이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모녀간의 충돌, 아픔, 고쳐와 희망이 모두 담겨 있는 이 소설에는 심리학을 전공한 작가의 이력을 말해주듯 각 개인들이 갖는 심리의 굴곡이 섬세하게 포착되어 있다.

아메리칸 윌트

피트니 오보 지음·홍현숙 옮김·김영사 펴냄



최근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윌트붐을 일으키게 했던 위노나 라이더 주연의 영화, <아메리칸 윌트>의 원작으로 작가의 데뷔작품이다.

주인공 핀 도드는 여름에 방문한 할머니댁에서 우연히 윌트를 만드는 여인들의 모임을 알게 된다. 이 모임의 구성원들은 모두 할머니뻘 되는 여인들이는데 이들은 핀에게 자신의 삶—꿈, 최초의 남자, 사랑, 좌절, 분노, 이별, 화해—등을 이야기해 준다. 핀은 이 여성들의 흘러간 인생이 그들이 만든 윌트를 통해 살아나는 것을 깨닫는다.

빛의 한가운데

애니타 다이아몬드 지음·이은진 옮김·홍익출판사 펴냄



성경의 창세기편 34장에는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겪은 끔찍한 사건이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다. 어릴 적에 강간을 당했고, 그후 그녀의 인격이 어떻게 깃잡혀갔는지를 설명하는 잔인한 이야기가 짧게 소개된 대목이 그것이다.

아버지 야곱의 널리 알려진 역사와 남동생 요셉의 축복받은 일대기 중간에 잠깐 언급된 보잘 것 없는 존재 디나. 그러나 작가는 성경마저도 남성중

심 역사의 하나라고 질타하면서, 홀로 시공간을 뛰어넘어 비극적 운명의 희생자인 디나를 화자로 하는 한 권의 소설을 탄생시켰다.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지는 이야기의 고리를 잃어버린 현대의 여성독자에게 화자인 디나가 말을 건네는 프롤로그가 특히 인상적이다.

그 집 앞

이해경 지음·민음사 펴냄



이 책은 장편 『길 위의 집』으로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작가가 등단 16년만에 처음으로 출간한 창작집이다. 등단작 『우리들의 뿔코』를 비롯해 표제작 『그 집 앞』 등 9편의 중단편이 실려 천천히 걸음을 떼어놓는 소설쓰기에 대한 작가의 진중함을 엿보게 한다.

이 작품집에서 일관되게 그리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파괴된 가족 안에서 상처받는 여성의 내면이다. 그러나 작가는 다른 여성작가들과 달리 이 여성인물들의 누추하고 고단한 삶이나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회나 가족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여성인물들이 자신의 상처를 고통스럽게 식여내

는 모습, 상처받은 사람들 사이의 교감 등에 방점을 둔다.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

강의실에서 읽는 페미니즘 문학
하종해 엮음·책실·이레 펴냄



이 책은 페미니즘문학에 속하는 문학적 완결성이 높은 소설들을 엮은 다음 주제별로 묶어 해설을 실은 평론집이다. 엮은이는 마치 강의록을 하는 것처럼 페미니즘문학에 대한 개념설명으로 시작해서, 실제로 작품을 읽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한 다음, 각 소설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해설한다.

박완서의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을 비롯해 왕성한 활동을 하는 여성작가들의 작품 11편이 수록되어 있다. 오정희의 「옛우물」, 은희경의 「빈처」, 전경린의 「새는 언제나 그곳에 있다」, 신경숙의 「감자 먹는 사람들」, 윤영수의 「콩게팔케」, 차현숙의 「나비학 개론」, 이해경의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 이정혜의 「러브 호텔」, 김형경의 「민동산에서의 하룻밤」, 조경란의 「사소한 날들의 기록」.

플라스틱 섹스

이남희 지음·창작과비평사 펴냄

폭넓은 주제의식과 사회의식으로 다양한 관심사를 다룬 작품을 발표해 왔던 작가는 2년 전에 펴낸 『사십세』라는 작품을 통해 그간의 소설 성향을



탈피하고 개인적, 사회적 상처들을 솔직하게 기록해냈다.

이번 작품집에 실린 「플라스틱 섹스」 연작은 이성애를 강요하는 사회질서에 대한 거부와 함께 우리시대의 새로운 성풍속도를 그리고 있고, 「하오의 햇빛」, 「전망중」 등은 이념의 시대를 힘겹게 헤쳐온 작가의 고통이 엿보인다.

그들의 오후

윤경모 지음·창작과비평사 펴냄

「에미이름은 조선편이었다」, 「고삐」 등의 작품으로 일본군위안부, 기지촌 여성 등 질곡의 역사의 희생자를 주로 다루었던 작가가 이번에는 연애소설, 그것도 한 남자의 한 여자에 대한 지고한 사랑을 그리고 있다. 첫사랑 연인의 고시공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갖은 고생을 했지만 연인의 출세에 걸림이 될까봐 도망치는 사람이야기. 이쯤

만 들어보면 70년대 멜로드라마의 하나 같다. 하지만 뒷바라지하는 사람이 남자이고,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여자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작가의 이런 통념뒤집기는 성역할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무늬

동아일보 신춘문예 중편소설 당선
아류작가 소설집
박자경 외 지음·문이당 펴냄



미발표작들만 모아 해마다 소설집을 출간하고 있는, 동아일보 신춘문예 중편소설 당선 여성작가들의 세 번째 동인 소설집이다. 무게있는 역사소설을 발표하는 송우혜에서, 여성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윤명혜, 각종 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작가적 위치를 확고히 다진 은희경과 전경린, 그리고 신에 박자경 등은 데뷔 연도나 작품 경향이 다르지만 같은 문을 통해 발을 들여놓았다는 점에서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 작품집의 작가들은 여성의 삶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성의 문제를 뛰어넘어 인간 본연의 존재 의미를 깊이 파고 든다.

사랑과 상처 1·2

이경자 지음 · 실원문학 펴냄

이문열과의 페미니즘 공방으로 '문단의 10대 뉴스'로 꼽히기도 했던 이경자의 화제작. 193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여성의 삶을 본격적으로 다룬 페미니즘소설이다. 주인공 준태는 화전민의 아들이지만 귀하게 길러졌고 정육은 딸이었으므로 그 출생부터 비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극단적인 원체험을 가진 두 주인공의 비극적인



혼인이 두 사람의 삶을 어떻게 황폐화시키는지, 그리고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두 사람을 엮어매는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 상처받고 훼손되어 가는 근원과 구조와 역사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여성적 삶의 허구와 환상을 벗겨내, 잘못된 제도와 의식이 남녀 모두에게 상처와 치욕이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전의 작품보다 방대한 스케일만큼은 아니겠지만 남성비평가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장엄호텔

마리 브도네 지음 · 이재동 옮김 · 열림원 펴냄

7년간의 정신과 치료의 경험이 있는 작가가 38세의 나이로 발표한 첫

소설이다. 호텔 '장엄'은 '혈관이 막히고 근육이 허물어져가는 부성, 혹은 남성의 상징이며, 네온사인만 남은 거대한 팔루스'이다. 작가의 부계 성(姓) '로스피탈리에' (L'Hospitalier)와 호텔(Hotel)은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로 부성의 이미지가 강하게 스며들어 있음을 암시한다. 또 호텔의 네온사인에도 '호텔'이라는 글자는 깨져버리고 '장엄'이라는 글자만 남아 있어 무너져가는 부성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만 유지가 될 수 있으나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어둡고도 숨막히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작가는 대화와 감정을 배제하고 일상적인 사건을 짧게 서술하고 있다.

일본여자를 말한다

유계순 지음 · 창해 펴냄



한국사람이 보는 일본은 세계경제대국의 모습과 퇴폐와 향락문화의 일

그러진 모습,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낯설기만 한 이 두가지 모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책이다.

르포작가인 지은이는 8년간의 유학기간을 포함해 18년간 각계각층의 수많은 일본인들과 같이 숨쉬고 교류하면서 일본의 모습을 현장취재한 끝에 한가지 결론을 내리게 됐다. 오늘날 일본의 힘은 일본여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천박함과 고상함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일본여성의 진짜모습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일본을 아는 것이며 일본여성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녀들의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아야한다는 것이 지은이의 주장이다. **II**

글 김영선

'탕평박사' 박광용 교수의 시대사 읽기

영조와 정조의 나라

무명옷을 입은 임금 영조,
학문정치의 주역 정조,
그리고 그 시대를 움직인 사람들의 역사

영조처럼 권력장악과 방어에 민감한 정치가는 사회변혁기에 큰일을 해내기도 한다. 하지만 권력이 안정되거나 판단력이 흐려지는 시기에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영조는 결국 말년에 자신의 정치스타일을 반성했다. 그 때문에 후계자인 정조를 학문정치를 지향하는 훌륭한 학자로 키워냈다. -본문 중에서

교보문고 영풍문고 인문분야 베스트셀러

● 신국판 / 340쪽 / 9,000원 ▶ 신간

100년 전과
100년 후를
나타내는
역사전문출판사
푸른역사

* 푸른역사는 도서출판 푸른숲의 자회사입니다. ☎ 364-7817

새로 쓰는 백제사

백제는 세계 경영의 주체였다

● 이도화 지음 · 신국판 변형 양장본 / 값 23,000원

정도전을 위한 변명

난세가 낳은 영웅, 난세를 극복한 영웅

● 조유식 지음 · 신국판 / 값 8,500원

금관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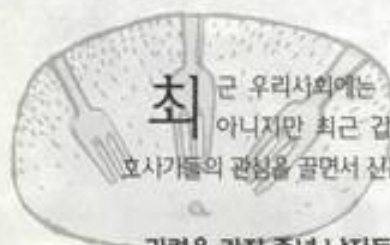
금관에 담긴 고대사의 암호를 해독한다

● 이도화 지음 · 신국판 변형 양장본 / 값 23,000원



황제처럼 먹어도 살이 빠진다?

다이어트 열풍의 문화적 의미



최 근 우리사회에는 '황제다이어트 열풍'이 거세다.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갑작스럽게 인기를 끌고 있는 황제다이어트는 그 이색적인 이름만큼이나 호사기들의 관심을 끌면서 신문잡지 등을 장식하고 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주요 화제로 오른다.

권력을 가진 중년 남자들의 다이어트

황제다이어트는 고기만 먹고 살을 뺀다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다. 기존의 저칼로리 다이어트와는 정반대다. 미국의 애트킨스 박사가 개발, 공복감 없이 체중절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지에서 크게 유행했고 국내에는 의사출신인 김영채 박사가 직접 실행한 후 효험을 보고 입소문이 퍼졌다. 이후 의사들 사이에 크게 유행을 했고 김박사는 지난해말 이 다이어트법을 소개한 책을 펴냈다. 책 이름이 '황제처럼 먹어도 살이 빠진다'여서 다이어트 이름이 '황제다이어트'다. 최근 신문잡지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건의 삼성그룹 회장이 이 다이어트로 5Kg을 감량했고 삼성그룹 임직원 사이에서 열풍이 불었다고 한다.

황제다이어트의 실효성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은 아직도 논란거리지만 그 문제는 이 글의 관심사가 아니다. 황제다이어트 열풍이 담고 있는 성과 육체에 대한 사회문화적 메시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황제다이어트는 다이어트도 계층화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다이어트를 하려면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든다. 고기나 회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저렴한 분식이나 한식과는 이별을 해야 한다. 유지비가 많이 들 뿐 아니라 이 다이어트를 실행하고 있는 계층도 한정되어 있다.

국내에 이 다이어트를 소개한 사람도 그렇고 다이어트의 성공사례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사람도 의사, 재벌 등 우리사회의 권력층이다. 그들은 모두 중년의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다.

물론 중년남성들이 이 다이어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 다이어트가 그들의 식습관에 잘 맞다는 이유도 있다. 황제다이어트는 맥주와 막걸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류를 허용하는데 회식이 많고 술과

기름진 고기를 먹을 기회가 많은 중년남성들에게 그것들을 다 먹고도 살을 뺄 수 있다는 것은 여간 반기운 뉴스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황제다이어트가 허용하는 음식과 허용하지 않는 음식 사이에는 분명한 계층의 골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맥주와 막걸리는 허용되지 않고 꼬막 같은 고급 양주는 허용한다. 또 라면이나 떡볶이, 김밥 같은 길거리 분식점 음식은 허용하지 않고 스테이크나 생선회 같은 고급식당의 음식은 허용한다.

다이어트로 신분 확인을

황제다이어트는 또 기존의 어떤 다이어트와 달리 집단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다이어트에 대한 정서는 다이어트가 필요한 상황 — 비만이라고 표현되는 — 을 부끄러워하고 다이어트 사실을 숨기는 '은밀하고 개인적인'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황제다이어트는 다이어트 사실을 공개하고 직장동료나 사교그룹 등이 집단적으로 한다는 차별성이 있다.

즉 황제다이어트에는 이 다이어트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특수집단에 속하고 그런 집단적 동질감을 확인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 다이어트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표현하고 (아마도 그것은 우리사회의 황제일 것이다) 거기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을 강력하게 갖게 하는 계층적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황제다이어트는 이름 그대로 사회적 권력의 상징어이다. 운동으로 치자면 보급 초기의 골프와도 같은 것이다.

거라에 실직자가 넘쳐나고 대부분의 서민가정이 식비를 줄여야 하는 이 처절한 '국제통화기금시대'에 황제다이어트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묘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최근 TV에서 방영중인 한 축협광고는 남편을 위로하기 위해 고기반찬으로 도시락을 짰 아내가 도시락 안에 '어보, 힘내세요, (비싼) 고기반찬 산 것 용서하세요'라는 편지를 적어넣는 내용을 내보내고 있다. 그만큼 IMF시대에 고기소비가 줄었다는 것이다. 참으로 씁쓸한 대비가 아닐 수 없다.

남자들도 다이어트교(敎)의 신자가 되어

황제다이어트 열풍의 간과할 수 없는 또다른 측면은 20세기 신종종교라고 일컬어지는 다이어트 강박에 남성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즉 다이어트 강박이 성과 계층을 초월하면서 포스트모던주의자들이 주창했던 몸의 해방이 역으로 몸의, 몸에 의한, 몸에 대한 억압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인류문명 이후 오랜동안 고결한 정신에게 눌러 의미없고 유한하며 사소한 지방영역의 취급을 받아왔던 몸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기 시작했다. 80년대말 인간의 이성, 창발성 등에 기초한 사회주의의 이념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거대담론이 사라진 자리에 개인과 욕망, 육체 등이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다. 90년대는 말하자면 몸의 시대였던 것. 금기시되고 억압된 성적 욕망의 해방이 인간존재의 해방을 가능케 하는 잣대가 되었고 이런 새로운 성의식은 기존의 성윤리와 충돌하면서 우리사회에 문화적·성적 아노미현상을 가져왔다.

그런데 이제는 이미 성적 대상화가 이루어진 여성뿐 아니라 성적 착취의 주체였던

TV는 몸의 이미지를 정형화하는 대표적인 매체다. SBS TV드라마 (오델)의 한 장면



남성들까지 성적 매력을 극대화하고 사회적으로 주어진 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는 다이어트열풍에 가까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다이어트는 왜 하는가. 왜 고기만을 먹고, 왜 칼로리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칼로리를 계산하며 음식을 먹는가. 황제다이어트처럼 저탄수화물식의 신봉자가 되든 혹은 저칼로리식의 신봉자가 되든 그동안 인류가 개발해온 수많은 종류의 맛, 미각과 결별해야 하는 일은 안쓰럽기만 하다. 식욕의 인위적인 조절은 또 하나의 강력한 억압이다.

인간의 식욕은 최악의 하나?

몸의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고, 억압되었던 성적 욕망이 해방되는 시점에서 인간의 식욕은 자기관리의 실패, 게으름, 세련되지 못함, 지성부족 등과 동일시되며 최악시되기 시작했다. 동등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생각해 보라. 과연 이것을 몸의 해방이라고 할 수 있는가. TV와 각종 영상매체가 제공하는 단 하나의 신체이미지만이 몸의 이상형으로 제공될 뿐. 각기 다르게 다른 조건으로 태어난 육체의 다양한 아름다움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걸단코 '해방'이 아니다.

한 에세이스트가 아름다운 여성과 아름답지 못한 여성을 예로 들면서 외적인 아름다움의 차이도 지성의 차이만큼 의미있다고 지적한 글을 본 적이 있다. 그의 말을 따르면 머리로 좋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이 많은 지적인 사람들처럼 타고난 미모를 가진 이들도 존경받고 숭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외모의 아름다움을 천시하고(실제로는 중시하면서) 각종 미인대회가 '외모보다 내면을 중시한다'는 '이중적이고 우스운' 슬로건을 내거는 것을 그는 년센스라고 적고

있다. 몸의 진정한 자리를 찾아준다는 점에서 그의 말은 무척 신선하고 타당하다.

그러나 그만큼 몸의 의미를 복원시키는 순간 우리는 몸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종속되고 억압된다. 인간사회에 진정한 평등의 가치는 찾기 어렵고 또 서로 다른, 각기 소중한 개인들의 차이가 인정되는 다원주의의 사회 역시 멀고도 멀었음을 황제다이어트 열풍을 보면서 느끼게 된다. **II**

양성희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나도 주변의 평가를 듣고 혹해서 황제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나 자신을 비롯해 이 신화를 사로잡고 있는 다이어트 강박의 비인간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어 이 글을 썼다.



나는 나를 배팅한다?

이력서와 명함에 대한 몇 가지 생각

“오늘 면접보러 두 곳을 다녀왔다. 한 곳은 을지로4가 덕수중학교 가는 쪽에 있는 OO기획이라는 곳이었는데... 다른 한 곳은 을지병원 뒤편 OO커뮤니케이션.

모두 남자들뿐인데, 적은 보수에 경리, 교정, 편집 업무를 같이 볼 다목적용 여사원을 한 명 뽑는 모양이었다. 역시 경력자를 원했다. 언제 일을 시켜서 써먹겠냐는 것이다.

오늘도 허탕을 친 것 같다. 막막한 심정으로 돌아오는 차 속에서 난 발악하듯 중얼거린다.

싸발, 시켜줘야 경험을 쌓지. 시켜주면 잘 할 거란 말이야.” 1993.12.2.

몇 년 전의 수첩을 뒤적이다 거거품을 물고 잔뜩 성이 난 얼굴로 길거리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세상에 대해 유난히 불만이 많았던 때의 순진한 분노일까? 스스로 자신을 지탱해야 하는 사람이 갖는 절박함이 자신의 열등감과 맞물려서 개새끼, 내 참 더러워서 밥 안먹는다는 성깔이 바삭바삭 부스러져 있다.

요즘이야 어디에 낯짝을 과감히 다밀어야 할 때는 상대가 원하는 양념소스를 적당히 뿌릴 줄도 알지만 그때는 툭툭, 실례합니다만...저를 한 번 써주세요, 하는 수준으로 말꼬리를 흐린 후, 숟불 위에서 오그라든 오징어마냥 피부려져 있기 일부였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절망감과 무력감이 자신을 할렐 때는 절망도 힘이 된다는 말이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로 고드기는 인간들을 죽도록 때버리고 싶은 심정이 되고 만다. 특히,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할 줄 알았나? 하는 인간들도.

세상과 교통하는 방식

우리는 매일 세상과 간통하며 자기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의 안택스인 명함을 마주치는 사람들과 제일 먼저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흔이들 우스개 소리로 명함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라서 굳이 명함이 따로 필요 없는 알만한 사람이거나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 명함에는 그 사람이 현재 머물고 있는 사회적 위치를 말해주는 직함이나 직업 등이 표시되어 있고 연락처가 적혀 있다. 따로 특별한 시간을 나누지 않는 한 상대방의 손에 넘어간 명함의 네 모서리에 한 사람의

인생전력이 짧은 순간 스냅사진 마냥 찰칵찰칵 현상되어 나온다.

당신 이런 사람이군. 알아두면 편함은 사람일지도 몰라... 헤어진 뒤 쓰레기통 속에 구겨지지 않으면 운 좋게도 한 세상을 새롭게 통과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듯,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사람의 가치기준이 사회적 효용이나 쓰임새, 즉, 능력으로 환산되면서 하나의 상품화가 되어버리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피해갈 사람은 드물 것이다.

세상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으면 얼마나 살아볼만 한가. 누구는 생업학졸업학졸업 입학졸업학졸업이라고 쓰고 나니 더 이상 빈칸을 채울 말이 없다고 한숨을 쉬더라도 여기 자신이 살아온 이력을 회화한 재밌는 이력서가 있다. 인쇄된 활자 옆에 빨간 볼펜으로 추서한 그의 낙서는 괄호로 표시했다.

이혁발(BAL LEE)

1962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답곡동 624번지 출생 (하어 전원생활을 즐기며 자람)

1975 매동국민학교 졸업

(...석보국민학교, 봉천국민학교 3개월 다님,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나머지 공부, 서울에서는 공부 잘 했음. 부모님의 은사로 국민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유학, 지금의 종합청사 뒤 하안집떡볶기, 사직공원, 덕수재과 등을 유학하며 수학함)

(중략)

1983 서울예술전문대학 응용미술과 2년 수료

(어떤 힘에 의해 그림을 택하고 1년 재수하여 서울예전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으나...)

1985 제5공수 특전여단 2대대 1지역대 1중대 제대

(군대가기 전 2년 동안 목에 비단목도리하고 봉어빛 차고 다니면서 디제이도 했음... 낙하를 14번 했음, 생명수당 적금한 돈 40만원을 받아서 제대할 때 부모님께 갖다드리고 감사합니다 했다가 나중에 다 빼다 씀)

1990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회화전공) 졸업

(군대 제대하고 대학 가겠다고 열심히 해서 합격, 사실 졸업하고 연출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뜻대로 안 된다고 느꼈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1987 뉴코아 장학 공모전

사람의 가치기준이 효용이나 쓰임새로 환산해 하나의 상품가치가 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피해갈 사람은 드물다.



(십만 원 받아서 통달 10마리, 굴 만 원어치로 회식했음)

1987 대학미전 '은상' (국립현대미술관)

(십만원 받아서 재료 사고 나머지는 어렸는지 기억 안 남)

1987 전통불교미술대상전 현대회화부문 '장려상' (동덕미술관)

(50만원 주최측에서 안 줬음, 87년에 열렬한 사랑을 했음)

1990 순간 '90(경인미술관)

(35만원씩 내고 전시회 했음)

1990 전국 신진작가전(청년미술관)

(졸업식날 주사파 여자와 만나서 3개월 사귀음, 지금도 미안함)

1991 회 개인전(경인미술관) '상상한 다리를 한입 깨물고' — 진지함과 우스움 —

(이런 것도 미술이예요, 하는 항의 전화받음, 여성을 상품화하지 말아요, 동의 전화 받음, 내 속으로 남성도 상품화 해줘요...)

1991~중간생략

(동안에 여러 유수 공모전에 떨어짐, 그 돈이면 오방석이 몇 개야? 난 언젠가 꼭 오펙소리 듣는 미술가가 될 것이다, 91년 봄에도 여자 사귀음, 지금은 시집갔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음, 90.6~92.12월까지 갤러리 도울의 큐레이터로 근무, 92년도에 미국에 3개월 갔다왔음, 아메리카 드림이 깨지고 왔음)

(이 인쇄미술 작업은 한국 미술사에 분기점이 되리라 봄, 만약 오늘의 삶이 말세라고 주장하고 불안의 시대라고 규정짓는다면 그것은 참 바보같은 생각이다, 이 시대는 다원적 공간개념을 요구함으로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며 능동적인 채집자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괄호부분을 뺀 나머지가 흔히 우리에게 노출되는 부분이지만(대부분 그러하다), 실제의 그 사람은 규격화된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 그 도정에 더 실감나게 드러난다. 이걸 보면 한 사람의 가치평가 기준이란 게 얼마나 허망하고 무모한가를 알 수 있다. 기존의 우리의 관습적인 이력서와 명함의 교통방식은 그 사람의 교환가치를 강조한 데이터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이다.

사소한 시소게임

내가 가장 최근에 받은(4월중) 명함 중 하나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합동청과 중개인 15번, 각종과일전문, 도·소매 ×××(푸쉬어노)

전북 ××군 ××면 ××리 전화 ×××× 사무실 ×××× 휴대폰 ××××

위의 명함만 놓고 보면 그는 직업이 과일도소매를 하는 상업에 종사하고 있고, 과일장사를 제법 규모있게 하는 천주교 신자이며, 현재 시골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무실 이외 핸드폰 전화가 있음에도 집 전화를 기재하고 있는 걸로 보아 아주 개인적인 성격이 아닌 것 같고 호출기 대신 휴대폰을 유지할만한 능력이 된다.

그는 내 절친한 친구의 애인이었고 내가 처음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자기 명함을 담당하고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같이 술을 마시기 전에 내가 파악한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정도였다. 술잔이 잦아지지 종중의 학력으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내 친구와 성당에서 만나 결혼을 약속할 만큼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지만, 내 친구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물이해에 절망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술김에 한 말이

가슴을 쳤다. '난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열심히 살았구요.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동생들 키웠구요. 가방끈이 짧은 것 외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네 주제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라는 말처럼 그는 정말 하자가 없어 보였다. 오히려 스스로 세상을 헤쳐온 남다른 이력이 내 친구의 가슴아픈 상처를 따뜻하게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단단하고 성숙한 성품을 갖게 한 것 같았다. 하지만, 따가운 시선을 건뎌가며 극복해야 할 그의 사랑은 너무나도 고단에 보였다.

타인과 타인들이 만나 서로를 교통할 때 그 사람에 대한 탐색과 이해, 혹은 오해의 코드는 너무나도 단순해서 마치 당신은 몇 그램짜리입니까?와 같다. 그 몇 그램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신선도나 숙성도는 아주 예민하고 섬세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그냥 저를 눈금대로 팔리는 돼지고기 한 근처럼.

당신은 몇 번째 불룩에서 예러가 발생했습니까?

자, 통신으로 전자메일을 보내듯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 원하는 곳에 자신을 전송해보라. 비디오용이든 오디오용이든 선택화일 이름을 작성한 후, 파일 프로토콜을 선택하시라. 각 모뎀 번호는 동등한 위치에 놓여 있다. 우리가 동등한 하나의 인간인 것처럼... 다만, 실행속도와 용량이 조금 다를 뿐이다.

- | | |
|-----------------|----------------------------------|
| 1. Kermit | 건설회사에 다닙니다. 기타도 다룰 줄 아는 낭만도 있고요. |
| 2. Zmodem | 대학원을 나왔구요. 외국어도 능통합니다. |
| 3. Super Kermit | 국제변호사구요. 한 미모, 한 몸매 합니다. |
| 4. Apro | 꽃발 날리는 집안 백이 있습니다. |
| 0. 취소 | 아, 되는 일이 없군요. |
| | 또 팔릴까봐 두려워요. |
| | 당신에게 나의 프로필을 보내도 될까요? |
| | 아, 취소...주눅들어서라... |

붉은 막대기 몇번때 불룩에서 예러가 발생했습니까?

아니면 원하던 곳에 100%수신이 되었나요? 

김정복

시르르르르 인간을 상상의 동물이라고 말한다. 지기의 지위와 봉급과 직업으로 결정된 상상의 동물이라고. 그 상황에서 나를 잃지 않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운다. 내가 살아온 동안 매순간 최선을 다했으므로, 단순히 코드화되어 쉽게 잊히고 싶지 않아서이다.



김정복

설립 2년만에 국내 최고 수준의 신흥명문 의과대학으로 부상한 포천중문 의과대학교

세계 속의 한국의학, 한국 속의 세계의학을 자랑하는
치병원의 업적과 명성으로 설립된 포천중문 의과대학교

국내 최초 나팔관 인공수정 아기 탄생,
세계 최초 미성숙난자 체외배양에 의한
임신과 출산 성공,
불임 생식의학 분야에 200여 편의 연구논문 발표 등
기초·생식·유전학 분야에서 그 독보적인 연구성과로
미국 TIME지에 세 차례나 소개된 바 있는
종합병원 그룹 '차병원'.
그 38년간의 명성을 바탕으로
포천중문 의과대학교가 탄생했습니다.
제2의 허준, 제2의 히포크라테스를 꿈꾸는
21세기 노벨의학상 후보들을 위한 포천중문 의과대학교.
국내 최고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의과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명문 의과대학이 되었습니다.

신입생 6년간 등록금 면제 (의예과),
기숙사 시설 제공 (의예과·간호학과)

신입생 6년간 등록금 면제 (의예과),
기숙사 시설 제공 (의예과·간호학과), 전원 컴퓨터 지급,
1인1석 창단 도서관, 2개 외국어 의무교육,
매년 1회 이상 해외 의료봉사 실시, 미국·호주 등
세계 유수의 의과대학과 교환학생 제도를 통한
세계 의학교육의 현장 체험 등
전세계 어떤 의과대학에서도 시도한 바 없는
최고의 엘리트들을 위한 최고의 특전.
연간 150여원에 이르는
차병원 재단의 과감한 투자와 과학적인 재정지원이
의과대학 역사상
최단기, 최고 성장이라는 명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최고의 의학을 배우는 가장 빠른 길!
포천중문 의과대학으로 오십시오.



의학교육의 새로운 명문

포천중문 의과대학교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동교리 산 16번지 우편번호 487-800
Tel: 03571543-2111 Fax: 03571543-2818

광고 패러디



if.식.스.턴.트.

if 옷이야기 | 젠더리스룩의 역사

여성과 남성은 서로 같아지고 싶다





1922년 장편소설 '가르손느'의 표지

백 화점에서 옷을 사입기 위해 이것저것 입어보며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여자들을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두 남자가 내뱉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대체 재들은 누구를 위해 옷을 사고 저러는 걸까?" 이 물음(?)을 내 자신에게 한번씩 해보곤 한다. 자신을 위해? 남자들을 위해? 누군가는 그랬다. 여자들은 이성인 남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성인 여자들을 의식해서 옷을 선택하고 입는다고. 어쩌면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같은 여자들 사이에서 옷 잘 입는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세련되고 감각이 있다는 애기와 같고 이 말은 남자들로부터 듣는 것 보다 더 신뢰감을 준다.

어쨌든 여자들은 동성의 반응을 신경쓰는 동시에 이성에게 성적으로 어필하고픈 의도로 자신의 옷차림을 선택해 왔다. 인간이 서로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옷을 입었다는 '이성 흡인설'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남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게 했던 전통 여성복식들은 지나치게 여성적이고 활동하기에도 불편했으며 속옷은 인위적으로 몸을 조여서 입어야만 했고 장식이 많았다.

사회적 충격, 짧은 머리 스타일

시대와 사회여건의 변화는 여성들이 더 이상 치렁치렁한 드레스와 같은 불편한 차림으로 남성들을 유혹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전쟁과 산업사회 부흥은 여성의 노동력을 가정에서 사회로 자리바꿈시켰다. 자연스레 여성복식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기능적이며 단순한 형태로 변모할 수밖에 없었다. 또 남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술과 담배를 여성들이 애용하게 되고 사랑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부르짖게 되자 이전에 여성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남성양복의 테일러드 자켓이 여성복식으로 등장하는 등 여성복식이 남성적 모드의 양상을 띄기 시작했다.

외복이 기능적이고 단순화되자 동시에 여성들의 머리카락도 짧아지기 시작했다. 그 당시 여성들의 단발머리는 사회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을 정도로 많았으며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전통복식에서 곡선의 아름다움을 위해 필수적이었던 코르셋으로부터 여성들을 해방시킨 이는 디자이너 '폴 브와레'였으며 20년대 가르손느룩을 발표



짧게 자른 단발머리에 즐겨썼던 '칼라세' 모자.



전시동안 여성들이 입었던 제복의 모습. 밀리터리룩으로 패션에 응용됨.

하여 가슴, 허리를 강조하지 않고도 여성들을 더 젊고 날씬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은 디자이너는 샤넬이다. 가르손느룩은 '소년과 같은 여성'이란 뜻으로 프랑스 작가 빅토르 마르그리트의 '가르손느'라는 장편소설 속에 등장한 여주인공 모니끄의 차림이다. 즉 무릎을 흰히 내놓은 짧은 스커트에 소년처럼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에서 힌트를 얻은 스타일인 것이다.

이 스타일은 장 뽀두, 비오네 등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한층 세련되어졌다. 허리선이 낮아진 단순한 디자인의 드레스와 소년과 같은 짧은 머리스타일에 약간의 변화를 위해 착용된 악세사리, 그리고 종모양의 칼로세 모자는 가르손느룩과 함께 자유로운 여성들 사이에서 대유행하게 됐다.

두 번에 걸친 전쟁기간 동안 여성들의 사회적인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여성들은 부족한 인원을 메꾸기 위해 육·해·공군의 군무에 징집되었고 또 군수물자를 만드는 공장에서도 일하게 됐다. 작업복 겸 군복의 자켓을 보면 각이 진 넓은 어깨에 금속단추가 달리고 단추로 여미는 포켓이 가슴과 허리에 부착된 것이었다. 또 여기에 베레모 모자를 씌우으로써 전체적으로 직선적인 실루엣이었다.

전쟁중에 등장한 제복 스타일은 30~40년대까지 꾸준히 입혀졌으며 오늘날에도 패션에 있어 밀리터리룩이란 용어로 종종 유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후에 나타난 밀리터리룩은 실루엣이 다소 타이트해지고 우아해졌다. 지루했던 전쟁 동안 억눌려왔던 패션에 대한 열망이 한꺼번에 밖으로 드러나기 시

작업복 겸 군복의 자켓을 보면 각이 진 넓은 어깨에 금속단추가 달리고 단추로 여미는 포켓이 가슴과 허리에 부착된 것이었다. 또 여기에 베레모 모자를 씌우으로써 전체적으로 직선적인 실루엣이었다.



50년대 젊은이들의 우상인 할리우드 스타 제임스 딘의 진자림. 진은 유나베스 스타일의 전형적인 아이템 중 하나다.



1960년, 남자가 같은 소재와 디자인의 바지를 착용했다. (위)
남성복식의 대대적이 종종 여성패션에 도입된다.
정 율로나 의 컬렉션에서 (아래)

캐리우먼의 수트는
남성정장 스타일과 거의
흡사하다. 딱딱한 장장이
오히려 여성에게선 색성하게
느껴진다



작했으며 여성들은 로맨틱한 복고풍 패션에 다시 한번 빠졌다. '핑크'와 '록 앤롤'의 시대인 50년대는 성적인 스타일의 패션이 유행했는데 '록 앤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성적이미지를 강조한 차림으로 유명하고 제임스 딘의 캐주얼한 진차림, 마릴린 먼로의 섹시한 성적 어필 패션이 모방되었다.

마르고 연약해 보이도록 입었던 <비틀즈>멤버들

의류의 대량생산과 함께 60년대는 남녀 모두 같은 소재와 디자인의 바지를 입었으며 셔츠와 스웨터류를 서로 바꾸어 입기도 하고 함께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짧게 자르는 등 유니섹스룩의 전성기였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비틀즈 멤버들의 말쑥한 차림이 남녀 모두의 공통 패션스타일로 등장하면서 '모즈룩'과 '보이쉬스타일'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 유니섹스룩은 앞서도 말했듯이 남녀가 같은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데 여자가 남자처럼, 또는 남자들이 여자처럼 마르고 연약해 보이도록 입는 것이었다.

70년대는 만연하는 물질주의 사회에 회의를 느낀 젊은이들이 마약과 종교 숭배 등에 빠지고, 새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히피족들의 패션이 유행했다. 많은 젊은 남녀들이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훌날리는 긴 머리, 혹은 퍼머를 하기도 했으며 느슨한 셔츠를 입고 많은 악세사리를 착용하는 히피패션을 따랐다.

80년대 들어와서 여성수트는 더욱 더 어깨를 강조하게 된다. 이는 테일러 드칼라의 자켓에 더블 여밈의 수트, 남성정장 이미지를 반영한 앤드로지너스 스타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복식에 있어서의 양성화(兩性化)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는 10대들의 힙합패션과 젠더리스룩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협렁한 바지와 T셔츠의 힙합패션은 남녀학생들이 공동으로 즐기는 신세대 패션이 되었다. 또 활동적이고 능력있는 캐리우먼의 라이프스타일이 90년대 많은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컨셉으로 등장하면서 일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이러한 컨셉의 젠더리스룩은 전체적으로 심플한 바지정장차림에 약간은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남겨놓고 있다. 흰색의 셔츠에 맞는 자켓, 스트레이트팬



10대 남녀 모두가 힙합패션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재진

한국패션이 발전하기 위해서 세계에 대응할 만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한국문화의 이미지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한국에서 의류학을 전공, 일본과 피라에서 패션을 공부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도 이 점이다. 이러한 취지로 현재 친구와 함께 (DOOL FASHION COMMUNICATIONS)을 운영 앞으로 국내 패션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재미 있는 마인드로 패션정보 전달에도 힘을 기울인다.

츠는 캐주얼하면서도 지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영원한 유니섹스룩이라면 편안하고 활동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패션마인드에 부응하는 스포츠, 캐주얼웨어로 이해되리라. 성적으로 섹시해지고자 하는 욕구와 양성화 현상은 끊임없는 패션 선택의 동기가 되어왔고 앞으로도 자신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젠더리스룩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여성과 남성의 외복은 얼마만큼 같아지고 또 얼마만큼의 차이를 유지할 것인가. 미래사회의 남녀 외복의 같음과 다름은 남녀의 지위를 가능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60년대 여성들의 '보이쉬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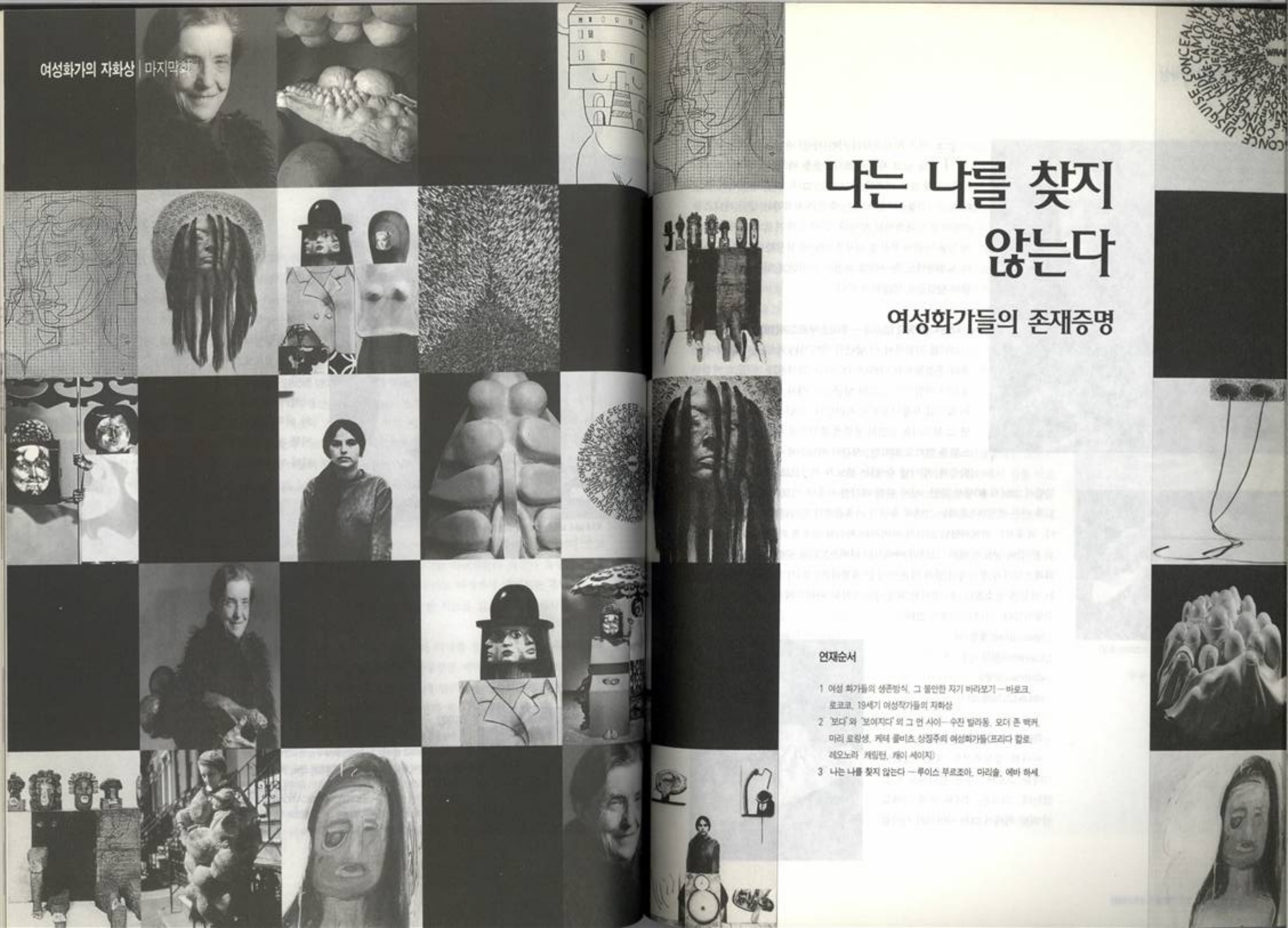


나는 나를 찾지 않는다

여성화가들의 존재증명

연재순서

- 1 여성 화가들의 생존방식, 그 불안한 자기 바라보기 — 바르코, 로코코, 19세기 여성작가들의 자화상
- 2 '보다'와 '보이지다'의 그 먼 사이 — 수잔 빌라동, 모더 존 맥커, 마리 로랑생, 케테 콜비츠, 상징주의 여성화가들(프리다 칼로, 레오노라 캐링턴, 케이 세이지)
- 3 나는 나를 찾지 않는다 — 루이스 부르조아, 마리숴, 에바 하세





루이즈 부르조아의 사진(사진1)이 있다. 검은 털코트를 입고 자신의 조각작품을 마치 우산처럼 거드랑이에 낀 채 잃은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 그런데 그녀가 들고 있는 조각작품은 〈소녀〉라는 수줍은 제목과는 달리 페니스를 리얼하게 극대화시킨 것이다. 라텍스 수지로 거칠게 마감된 이 작품은 귀두 부분을 거꾸로 매달아 전시하게 되는데, 소재의 도발성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품어안고 있는 육망의 비루함과 덧없음을 명상하게 한다.

나는 나를 찾지 않는다 — 루이즈 부르조아(1911~)

그녀의 작품에서 이 남근의 이미지는 때로 무리를 지어 한 폭의 풍경들처럼 나타나기도 하는데(사진2). 둥글고 뻗뻗한 질하며 마법적인 느낌의 남근들이 마치 태어나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부풀어오르며 자라난다. 이런 작품들을 보고 있자면 그 부드러운 표면의 몽환적 분위기로 하여, 일견 에로틱한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에 관한 우울한 감박증과, 벗어낼 수 없는 분노가 잔상으로 맺히는 건 왜일까?

무엇이 그녀의 80평생 동안, 성에 관한 비감한 사유에 이토록 집요하게 몰두하도록 만든 것일까? 흔히는 그녀의 유년기 가족관계가 실마리로서 설명되기도 한다. 독재적인 엄격하였던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의 정부를 가정교사라는 명목으로 한 집에 살도록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타피스트리를 수선하는 일을 했는데, 타피스트리가 장막처럼 널려 있는 어두운 재봉실은 그녀가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비밀의 장소였다. 이 집에서 재봉사와 정부는 아버지의 욕정을 위한 관능의 수행자였다. 그녀는 이렇게 쓴다.

seamstress(재봉사)
mistress(정부)
distress(고통)
stress(스트레스)

폭력은 자기실현의 한 형태

이러한 성장과정은 때로, 소녀인 그녀를 그로테스크한 판타지로 이끌었는데, 그것은 그녀와 형제 자매들이 식탁 위에서 그의 아버지의 사지를



3

절단하고 그의 시신을 삼키는 환상으로의 유혹이었다. 결혼으로 고향 프랑스로부터 멀리 떠나오게 된 것은 유년의 어두운 기억들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기회였으며,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그리움, 죄의식을 작품으로 담아낸다.

"나는 많은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따금 공격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로부터 풀려납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난폭해지고 내 주위의 모든 것을 때려부수는 일에서 엄청난 쾌감을 느낍니다. 나는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폭력은 자기실현의 한 형태지요. 그러나 다음 날 나는 무너지고 말지요." 그녀는 파괴적인 본능으로 목조나 대리석을 자른 뒤, 공격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쪼아내고, 다시 그것을 갈아 쥘내고 기름 먹이며, 마치 자식과도 같이 그것을 부양한다고 말한다. 그녀에게 창작이란 자신에게 붙어다니는 기억들을 쫓아내기 위한 주술행위이자 그것들을 안아가는 치유방식인 것이다. 그녀의 작품들은 인두처럼 달구어진 분노(사진3)와 금욕적인 평정 사이를 밀물과 썰물처럼 나뉜다.

집, 은둔, 동지

그녀의 작품 속에서 '집'이란 폭력적인 격리의 장소이자, 신경증적인 보호막이며, 갈등의 전원지로서 나타난다. 〈여성의 집〉 시리즈(그림4)에서 집을 이고 서 있는, 불박이처럼 집이 되어버린 여자들을 그려보았을 때, 당시 평론가들은 그것을 가정과 '자연스레' 동일시된 가정적인 여성으로 해석해 뉘으로써 그림이 주는 불편함을 벗어내고 싶어했다(『여권신장파』, 휘트너 채드윅).

그녀가 상치입은 별레처럼 들어가 쉬는 온전한 의미의 집이란, 은둔의 장소인 〈동지〉(사진5)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내향적인 포아리를 틀고 있는 이 동지는 "나를 숨기기 위한 공간인 동시에, 나의 껍질"이다. 안과 밖 양쪽으로 방어적 기운을 동시에 뿜어내고 있는 양가적 구조물인 것이다.

최근의 설치 작업에서 보여지는 〈작은 방〉이라는 공간은 마법적이고 상징적인 소도구들과 함께 마치 연극 무대세트처럼 꾸며지는데, 때론 나를 가두고 있는 감방인가 하면, 때론 두려움에 떠는 아이가 맞닥뜨리는 이 세계의 축소판으로 상징되기도 한다. 그녀는 마치 부화를 기다리는 거대한 알과 같은, 모호한 느낌의 목재 덩어리를 방 안에 채워넣고 〈두려움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이름붙인다. 그런데 그녀의 작업을 끌고 나가는 다스려지지 않는 원시적인 힘 역시 바로 두려움이다. 두려움이 그녀를 움직이는 것이다.

세상 모든 암컷들에 대하여

누구누구의 초상이란 이름을 달아 의인화된 미니멀한 작품들은 여럿이었지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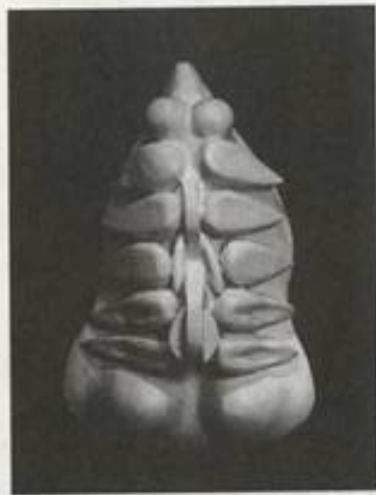
5

4. 루이즈 부르조아 〈여성의 집〉
5. 루이즈 부르조아 〈동지〉

1. 로버트 메이올스 〈루이즈부르조아의 초상〉
2. 루이즈 부르조아 〈병합〉
3. 루이즈 부르조아 〈아버지의 파괴〉



6



7



8

막상 그녀의 자화상을 만나기란 쉽지 않았는데, 꼭꼭 숨어 있던 자화상들을 찾아냈을 때의 기쁨이란! 우선 초기작으로 보이는 드로잉(그림6)에선 젊은 시절 그녀의 실루엣이 간결한 선으로 어렴풋이 드러나고 있다. 초현실주의나 모더니즘이니 하는 양식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미술은 미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것"이라며 자의적인 고립상태 속에서 자신의 예술을 버려온 그녀의 모습이 의연하다(그녀가 화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나이 70을 넘긴 이후였다). 자화상이라 이름붙인 토르소(사진7)에서는 젖가슴을 암시하거나 페나 척추, 늑골 또는 성기와 같은 이미지들이 완결되지 않은 채로 마감된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의 정체성을 찾지 않는다. 나는 너무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모습으로 결정되지 않은 채, 유기적으로 변화해가겠다는 자신에 대한 결의인 것일까?

전신에 유방을 주렁주렁 단 라텍스로 만든 옷을 입고 어느 슬럼가의 귀퉁이에서 있는 그녀가 있다(사진8). 풍요와 구원의 상징으로 젖가슴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그리스의 여신(아르테미스 에페소스)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이 조용한 의식 속에서 그녀는, 이 땅 가장 낮은 데에 있는 모든 암컷들에 대한 처연한 연대감을 침묵으로 시위한다.

스핑크스의 침묵 — 마리솔(1936~)

"마리솔은 결코 말하지 않는다."

60년대 팝아트가 대량생산의 소비사회를 찬미하며 함께 회회덕 거릴 때, 이단아처럼 사회비판적이고 정치적인 내용을 담은, 풍자적인 콜라주 조각들을 발표한 마리솔 에스코바. 그러나 미술계가 그녀를 수용한 방식은 미모와 신비로운 침묵으로 가려진 '아름다운 오브제'로서였다.

"저는 어느 날 그것이 저를 제거하는 방법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분명 뛰어난 예술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간이 아니라 유명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 60년대 남자들은 제게서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않았을 테지요. 그들에게 저는 귀여운 유령일 뿐. 제 예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베네주엘라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마리솔은 프랑스 파리에서 나고 자라지만 미국으로 이주한다. 62년 전시 이후 팝아트의 대부격인 앤디 워홀이 '매력있는 최초의 소녀 예술가'라고 떠들으려 미 미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무블럭으로 인체를 만들



고 비교적 리얼하게 조각된 두상을 얹은 뒤 여러 가지 소도구들을 재치있게 결합시켜 인물군상을 만들어낸다. 공예와 드로잉, 조각적인 요소들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녀의 작품들은 개를 끌고 산책을 하거나(사진9), 파티중이거나, 쇼핑중이거나 한, 60년대 중산층 여성들의 반복적인 일상들을 다루기도 하며, 할리우드 배우, 정객, 역사적 인물들의 초상들을 즉물적이고 시니컬한 태도로 담아 내기도 한다. 얼굴과 손발을 제외한 토르소 부분은, 거의 가공하지 않은 육면체 그대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치 육신을 가둔 관과도 같이 느껴진다. 중첩된 얼굴이 분주하게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만, 육신은 현실의 강고함 속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고, 무리져 있는 군상들간의 관계는 무감동하며, 이 그로테스크한 악몽은 끝도 없이 반복될 것만 같다.

(사실 그녀의 작품 속에 나오는 대부분의 얼굴이나 신체부분은 그녀 자신을 모델로 한 것인데 돈 안 들이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모델이란 바로 자신이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이 모두를 자화상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그것들이 자신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기보다는, 각양각색의 삶에 투영된 여러 유형의 인간사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존재증명

나 어린 마리솔을 묘사한 작품이 있다. 작품 '엄마와 나'(사진10)는 마치 빛바랜 기념사진처럼 유년의 서정을 환한 웃음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브론즈의 인공적인 광택과 차가운 살맛으로하여 보는 이의 감정이입은 차단되고, 기이한 아이러니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듯하다.

얼굴이나 되는 인물들을 하나의 블록 안에 두고 자화상이라 칭한 작품이 있다(사진11). 그녀의 뿌리, 남미 콜롬비아의 민속 목조각을 연상시키는 인물들이 한몸 안에 토렘처럼 늘어서 있는 이 군상은, 그녀의 리비도에서 슈퍼에고까지, '내 속의 많은 나'를 펼쳐보인 파노라마식 자화상이랄까?

그녀의 두 번째 자화상(사진12)은, 자신을 매두사로 묘사했던 카라밧치오의 그것(사진13)처럼 아마도 자화상 장르의 가장 독보적인 것으로 기억될 만한데, 자신의 얼굴을 데드마스크로 떠서 얼굴 전면에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것이다. 인디언들의 박제 두개골을 연상시키는 이 작품의 주변에 후광과도 같은 환을 두르고, "나의 이름 마리솔. 뉴욕 거주...나의 가족은 베네주엘라에서..."로 시작되는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자전적 기술을 묘비명처럼 새기고 있다. <베일>이란 제목을 달고 있는 이 작품은 강요된 침묵에 거역하는, 마리솔 자신의 절박한 존재증명처럼 보인다.



9



10

- 6. 루이즈 부르조아 (자화상)
- 7. 루이즈 부르조아 (자화상)
- 8. 루이즈 부르조아의 퍼포먼스
- 9. 마리솔 (산책)
- 10. 마리솔 (엄마와 나)

11. 마리솔 <자화상>
12. 마리솔 <예일>
13. 카라바지오 <여우사>



11

12

나는 그렇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없다 — 에바 하세(1936~70)

여성작가들은, 그녀의 재능과 작품보다 그 미모나 삶의 비극성으로 신화의 제물이 되곤 한다. 에바 하세, 위대한 예술가로 당당히 서고자 짧은 삶을 태웠던 이 여성미술가가 죽었을 때, 그녀의 작품에 대한 진지한 평가보다 그녀의 비운에 대한 전설이 더욱 무성했다. 이것은 한 여성미술가가 치뤄낸 고되고 험한, 자신과 세계와의 싸움을 번번히 무장해제시킨다.

그녀는 영화 <러브 스토리>의 제니퍼(로 분한 알리 맥그로우)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사진 14), 검은 생머리에 짙은 눈썹, 총기와 우수가 어린 눈과 요절한 운명이 그렇다.

그녀는 독일 함부르크 출생이지만 나치를 피해 온가족이 미국으로 날아왔다. 뉴욕에 자리잡았지만 부모는 곧 이혼했으며, 어머니는 그녀가 10살 때 자살한다. 그녀의 유년기는 외상(外傷) 투성이었으며, 이것이 그녀로 하여금 예술에 대한 격렬한 욕망을 쌓아가도록 만들었다. 예일대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작업을 해나가던 중 조각가 토마스 도일을 만나 결혼하지만 결국 이혼에 이르며, 아버지의 사망에 이어 그녀 역시 뇌종양으로 서른넷 나이에 생을 마감한다.

우리에게 힘이 된 결핍과 용기

추상작업으로 일관했던 그녀의 작품 속에서 페미니스트 미술가들의 그것처럼 여성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을 찾아내기는 힘들다. 그러나 그녀는 명실공히 마스터로서 여성의 지위를 찾아가기 위해 세상의 구슬과 편견에 맞서 싸운다.

집요한 자기분석론이라고 할 수 있을 그녀의 일기 속엔 여성의 역할과 예술가로 살기의 고뇌가 드러나 있다. "예술가이기보다 한번이 아내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내가 남자를 만나 결혼한 것을 뉘그러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남편의 작업은 더욱 성숙하고 발전해간 반면 나는 무의식중에 그의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남편은 나를 자신의 방향으로 밀어가고 있었다."

"예술을 통해 비약하려던" 그녀의 욕구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시몬 보부아르의 『제2의 성』에서 깊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녀의 일기는 이렇게 덧붙인다. "나는 그렇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없다. 아름다운 여성에다 예술가, 아내, 가정부, 요리사, 판매원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나 자신이기조차 어렵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

불안한 자신의 존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다르게 정신분석학에 몰두했던 그녀는, 자신에게 남성적인 힘과 여성적인 힘이 공존하고 있다고 믿었으며, 그것이 가장장적 질서 안에서 부당하게 폄하되는 것에 분노했다. "우리에게 힘이



13

란 바로 결핍상태와 용기다. 우리의 싸움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장애는 극복될 수 있다." 그녀는 바람에 서서, 한계를 건너려는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한다.

"예술계의 성차별을 부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술에 의해서다. 능력에 성별이란 없다."

중력에 순응하는 조각

조각가로서 그녀가 만들어낸 참다운 신화는 바로 재료와 형식의 혁명성에 있다. 그녀의 작품들은 고무, 직물, 전선, 밧줄, 수지 라텍스, 섬유유리 또는 공업용 폐기물과 같이 전혀 조각적일 수 없는 재료들로 만들어졌으며, 전혀 조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녀는 아래서 위로 쌓아가는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을 저버리고(바벨탑의 허망함을 한번 상상해 보라), 천정에서 내려오거나, 축 늘어져 매달려 있거나, 벽에 기대어 있거나 하는, 바로 '중력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작업한다(사진 15). 이 발상의 전환은 기습적인 것이었으며, 여성적 사유의 가치 전환적인 힘을 느끼게 한다. 딱딱하고 견고하게 구축해가는 대신 바느질, 뜨개질, 봉대감기 등의 폭신하고, 포용적이며, 끝도 없이 반복되는 방식을 취한다. 반복은 부조리를 강조하므로, 그녀는 '오래 전 치워둔 다락방의 잠동사나 지하실의 거미줄'에 이르기까지 기억의 먼 곳에 잠복해 있는 감성들조차 물결화시킨다. 그것은 유머러스하고, 때로 에로틱하며, 모호하거나 부조리하다(사진 16).

그녀의 작품 속에서 여성성의 힘은 '내용'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적 사유의 일면성과 통제를 공략하는 전복적인 '작업태도'로 존재한다. "예술과 삶에 대해 배우거나 가르침을 받아온 모든 것을 거역하고 나의 삶, 나의 사상, 나의 감수성 그 자체가 되는 필연적인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의 예술이 위대하다면 바로 이것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죠."

인생은 지속되지 않는다. 예술도 지속되지 않는다

20대 중반의 자신의 모습을 담은 자화상(사진 17)이 있다. 예일대학의 미술생



14



15

14. 작품 앞에 앉아 있는 에바 하세
15. 에바 하세 <자화상> (하나보다 하나 많은)
16. 에바 하세 (accession I)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버디>의 의미는 단짝친구, 형제, 동료입니다. 친한 친구와도 같은 동성애자의 모습을 반영하고, 동성간이 지니는 특별한 친밀감과 그로 인해 평등한 사랑관계를 이루어 가는 동성애자들의 모습을 대변한다는 생각 하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1973년 미국 정신의학 협회는 동성애라는 용어를 '정신적 질병에 관한 진단·통계 편람'에서 완전히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편견과 아집, 그리고 정확한 정보의 부재로 인해 아직 많은 곳에서 동성애는 금기와도 같은 질병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고정된 패러다임이 가져다주는 오류이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의 부재가 불러오는 현상과 다른 것입니다. <버디>는 이러한 사회적 의식의 오류를 타파하기 위해 이성애자로 하여금 동성애에 대해 바른 지식과 판단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개인적인 편견을 넘어서서 역사적·사회 구조적으로 가해지는 억압에 대응하며 동성애자들이 이 땅 위의 당당한 개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장을 <버디>에서 열어나갈 것입니다.

BUDDY

· 구독신청 문의 및 팩스 : (02) 232-3045

·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776호



17



18

17. 에바 하세 (자화상)
18. 엘 보서 <해세의 초상>

도였던 당시의 그녀는 내적인 변화가 가장 치열했던 분열적인 시기를 겪어내고 있었다. 이 작품은 그녀와 평생의 우정을 나눈 정신과 의사 사무엘 덩켈에게 헌정되었는데, 그녀의 오른쪽으로 피어오르는 뭉게구름 같은 형상은 자신의 정신 분열적 신드롬을 상징한다고 기록하고 있다(『에바하세』, 루시 리퍼드).

<해세의 초상>(그림18)이란 작품이 있다. 영어 단어들이 꼬아리를 틀며 뱅뱅이를 하는 이 작품은, 동료였던 한 친구(엘 보서)가 개념적인 방식으로 그녀를 묘사한 것이다. '고백', '위장', '배장', '가두다', '담요로 덮어버리다'와 같은 온폐와 온늑을 뜻하는 단어들이 쓰여 있는데, 이는 심리학의 한 전형이 될 만큼 내향적인 인간형이었던 그녀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녀의 심리적 현재는 공허로 가득했으며, 감정의 토양은 과거로의 나선형 회귀를 보이곤 했다.

뇌종양으로 고통스레 죽어가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대표작 6점을 추가로 남겼다. "인생은 지속되지 않으며 예술도 지속되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부조리다." 이는 자신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스스로의 태도를 반영하는 용기있는 선언이었다.

그녀가 작품의 재료로 선택한 소재(돌이나 브론즈가 아니라 라텍스 등을 사용한 것)들은 나고 죽는 생명의 순환구조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보이지 않는 부식이 시작되는 그것은, 삶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다.

그녀는 시간의 분해과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영원이라는 강박증과 거워낸 것으로 보인다. 정오의 외로움처럼. [1]

제미란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성장한다고 했는가. 물론 사람을 만나면서 고통 역시 시작된다. 에바하세로 글을 맺으면서 그녀의 우울한 실존으로부터 발을 벗어내기가 어려웠다. 여자라는 아나톨은 역사와 공간을 넘어서는 페르소나일까? 내가 나와 다르지 않은. 역사를 만난다는 의미는 어쩌면 자의적인 집신행위일지도 모르겠다. 난 그녀의 우울과 만났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헤어지고 싶지도 않다. 나도 그녀다.



19. 제미란

어느 여성 운전자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옆의 차가 앞으로 끼어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날뻔한 한 남성운전자. 화가 난 이 남자가 차에서 내려 끼여든 차로 갔더니 운전자가 여자였다더군요. 그 여자에게 막 소리를 치면서 욕을 했답니다.

"이런 씨필, 제수가 없으려나... 별, 여자가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건방지게 운전이라고 한답시고... 아휴, 씨필, 이걸 그 낱." 그랬더니 그 여자가 창문을 쭈욱 내리더니 이렇게 말하러 랍니다.

"야, 이새끼야! 그래 나 지금 밥하러 가는 길이다."

여자들의 남자에 대한 연령별 관심사

10대 소녀: 그 남자 잘생겼어? 키는 얼마야?

20대 아가씨: 그 남자 직업이 뭐야? 돈은 얼마나 벌어?

30대 노처녀: 아~! 그 남자 어땠어?

남자란

10대: 성난불

한참 예뻐한 시기, 살짝 금기만 해도 확 타오르고 이내 금방 꺼진다.

20대: 장작불

불도 쉽게 잘 붙고, 붙었다 하면 화력 완방!

30대: 연탄불

어찌나 불이 안 붙던지, 애먹지만 일단 붙었다 하면 날랜다.

40, 50대: 담뱃불

불붙여 놓으면, 불은 듯 만 듯, 진가는 빨아줄 때 나타난다.

우리나라 성교육의 문제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 어떻게 해서 애기가 생기나?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것

- 어떻게 하면 애기가 안 생기나?

여진 이런 남자에게 흥분을 느낀다

슈퍼맨: 힘과 스피드 그리고 무드

배트맨: 매너와 신비스러움

캡틴: 유머와 엉뚱함, 약간은 바보스러움

후레시맨: 다정함과 찬스에 강함

호랑맨: 귀엽고 맛있게 생김

스파이더맨: 끈끈함과 강력한 붙임성

어 퓨 굿맨: 전반적으로 괜찮은 무난한 스타일

모건 프리맨: 우정, 삶에 대한 반성 그리고 기다림

데몰리션맨: 반항적, 폭발장군 난폭하게 여자를 다름

레인맨: 집중력, 인간적인 면, 여성의 보호본능 자극

안녕맨: 풋풋함, 순수함, 여운을 남긴다

빨래 얘기

매일 빨래만 널었다 하면 비가 와서 애써 해 놓았던 빨래를 망치는 한 아줌마가 있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옆집 신혼부부 집의 새색시가 빨래를 널는 날은 언제나 화창하게 해가 비추는 것이 아닌가? 하도 잘 맞추는 지라 무슨 비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 아줌마는 그 새색시에게 무슨 비법이 있는지 물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새색시는 비법이 있었다.

"저희 남편의 거시기가 왼쪽으로 누어진 날은 그 날 비가 오기 때문에 빨래를 해도 밖에서 널지 않아요. 대신 오른쪽으로 누어진 날은 날씨가 화창하기 때문에 빨래를 한 후에는 반드시 밖에서 널지요."

"오호~, 그럼 만약에 가운데로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거 우?"

그 때 새색시가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그 날 왜 빨래를 하나요?"



엄마의 화장

화장 뒤에 숨겨진 '여자의 일생'

마냥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경제부흥기에, 자신만의 욕구, 자신을 위한 사치 이런 것들을 꿈도 못 꾸던 여성들에게 화장품은 유일한 자기만의 것이 아니었을까. 희생과 포기만이 강조되던 여성들에게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사치품이 있다는 그 뿌듯함과 즐거움. 그래서 화장품이라곤 분과 꾸뛰베니(립스틱)뿐이었을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었던 화장품. 매일매일 그것을 조금씩 찍어바르면서 그 순간이 아니라 즐거움을 느꼈던 것은 아닐까.



'동동구리무'를 아시나요?

18 76년 우리나라의 문호개항이 시작된 이래 미용분야도 외국상품의 유입으로 큰 변화의 바람을 맞게 된다. 먼저 미용용어부터 달라졌는데 화장(化粧)이라는 일본식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화장은 '거짓 꾸밈'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화장의 정도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존재했다. 즉 담粧(淡粧, 피부를 희고 깨끗하게 가다듬는 정도의 담박한 멋내기), 농粧(濃粧, 담粧보다 짙은 상태의 치레로 색조화장에 비유된다), 염粧(艶粧, 농粧과 비슷하되 아한 맛을 풍긴다) 등과 용粧(容粧), 아용(冶容), 단粧(丹粧), 장식(粧飾)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1910년 이후엔 청나라를 제치고 일본의 화장품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20년대엔 유럽 상품들까지 줄을 이었다. 이런 외국상품들의 유입과 그것들의 대단한 인기는 국내 화장품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

우리가 의미도 모르고 들어왔던 '박가분(朴家粉)'이 바로 그것이다. '박승직상점에서 만들어낸 분'이라고 해서 박가분으로 불리웠던 이 화장품은 사실 박승직의 아내 정정숙에 의해 부업살아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분식(납가루)와 활석가루를 반죽해 만든 전통의 화장품을 사업적으로 제조해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 박가분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급증하자 '설화분', '앵분', '징가분' 등 유사상품이 생겨났으며, 분 이외에도 머릿기름, 미백로션, 밀크로션 등이 잇따라 시판됐다.

크립의 일본식 발음인 '구리무'는 아마 TV 드라마에 종종 등장해 그리 낯선 용어는 아닐 것이다. 중일 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일본이 연달아 전쟁을 일으키면서 국내 물자가 고갈되자 화장품 재료도 부족했지만 화장품을 담을 용기의 부족은 더욱 심각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대안이 바로 '덜어 파는 방식'이었다. 방물장수들은 구리무를 큰 통에 담아두고 다니면서 손님에게 조금씩 덜어서 팔았던 것이다.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요즘 배워야 하는 판매방식이 아닌가 싶다.

특히 구리무 중에서도 '동동구리무'를 들어보셨는지. 러시아, 일본, 한국의 행상들이 큰 통에 구리무를 담아 리어카에 싣거나 등에 메고 다니면서 동동 통을 치며 판 것이 유래가 돼 결국 '동동구리무'라는 고유 명사를 탄생시킨 것이다.

어쨌든 한일합병, 일제의 수탈과 전쟁통에서도 화장품에 대한 여성들의 애정은 꺼질 줄 모르고 더 드세어졌던 것 같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수요자가 기생이나 하층계급의 여학생(그 당시 신식학교에 다니는 여성들은 기생이거나, 소실의 자녀, 하녀 등이었다고 한다), 신여성이었던 걸로 봐서 화장품 수요급증이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 동떨어진 문제는 아니었던 듯하다. 이런 여성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상황이 불안정하게 급변하고 있다는 말도 되니까.

그 당시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화장품의 주 고객이다 보니 화장한 여성들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그리 좋지 않았다.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는 화장품의 사용을 걱정하는 언론들은 하나같이 박화장 즉 얇은 화장이나 점잖은 화장



을 강조했다.

여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화장을 한다. 눈에 띄고 싶어서 또는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 결점을 감추고 싶어서, 화장하는 게 재미있어서 등등... 그러나 우리 어머니세대에게는 뭔가 한가지 더 강렬한 이유가 있었을 것도 같다. 마냥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경제부흥기에, 자신만의 욕구, 자신을 위한 사치 이런 것들을 꿈도 못 꾸던 여성들에게 화장품은 유일한 자기만의 것이 아니었을까. 희생과 포기만이 강조되던 여성들에게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사치품이 있다는 그 뿌듯함과 즐거움, 그래서 화장품이라곤 분과 구찌베니(립스틱)뿐이었을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었던 화장품. 매일매일 그것을 조금씩 찍어바르면서 그 순간이나마 즐거움을 느꼈던 것은 아닐까.

그에 비하면 요즘은 유행지나 화장품들을 다 쓰지도 못하고 처분해버려야 하는 처치곤란의 시대다. 화장을 하지 않으면 뻔뻔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억압적인 사회가 되기도 했다. 요즘 우리의 화장은 진정한 인간을 풍요롭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다. (글 편집부·자료 제공 (주)태평양화장품, 『태평양 50년사 부록, 한국생활문화 100년』, 도서출판 장원)

어머니의 영광의 흔적

지 금도 사람들은 예순살이 넘은 우리 어머니를 보면 (당신 기분을 좋게 해 드리려는 배려겠지만) "한창 때 정말 미인이셨겠어요", "어쩌면 그리도 고우세요"라는 찬사를 던진다. 젊은 시절부터 어머니를 보신 분들은 "네 엄마 정말 예쁘고 멋쟁이였다"는 말 끝에 꼭 "팔들 중에 엄마만한 미인이 없다"는 토를 던진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더 이상 귀부인 자리를 지키지 못하던 무렵 나를 데리고 도움을 얻을까 해서 아버지 친구(작고하신 방송작가 이진섭 선생님)를 만났을 때, 열정적인 그 분은 나를 보자마자 아버지 생각이 난다며 내 어깨에 기대 한바탕 울더니 엄지 손가락을 척 올려세우며 "네 엄마, 일본 유학시절, 이거였어! 일본 멋쟁이도 못 따라왔다"라는 말부터 시작했다.

엄마가 미인이라는데, 비록 딸들이 그만 못 해도 실을 리는 없다. 그런데 내가 좀더 어렸을 때, 나는 어머니에 대한 이런 식의 주위의 평가가 싫었고, 그런 평가를 은근히 즐기시는 어머니의 반응은 더 꼴보기 싫었다. 나는 학교 등록금을 제때 못 내 속상한데, 어머니란 사람이 주름진 피부와 싸우기 위해 비싼 기초화장품을 떨어뜨리지 않는 걸 보고 분노하기까지 했다. 마치 어머니는 잘 타고난 외모 덕으로 주위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데 길들여져 그걸 유지하려고 안간힘 쓰는 인형 같은 여자의 전형처럼 보였다. 무슨 일로 어머니에게 대들었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한번은 내게 화난 어머니가 거울 앞에서 당신 얼굴을 뽐아들으며 "내가 이 꼴로 이제 뭘 하겠니"라고 절규하듯 외쳤다. 마치 영화 속의 늙어버린 여배우처럼.

우리 딸들에게 어머니가 열심히 자신있게 가르쳐준 것은 기초화장품 사용순서와 맛사지할 때 손가락 놀



리는 방향이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과거 화려했던 그 때 그 시절을 후렴구로 덧붙이신다. “젊었을 때 단 걸 많이 먹어서 볼이 풍뎠었는데, 그게 싫어서 일본에 기숙사 있었을 때 OO상이랑 매일 밤 30분씩 이렇게 (뺨에서 턱으로 손가락을 쓸어내리는 손짓을 하시며) 해서 여기가 더 늘어졌다. 참... 바보같지. 거꾸로 했어야 하는데...” 나는 자의와 타의가 공모해서 만들어낸 어머니의 외모강박증을 분석하면서 반항심을 갖고 거기서 벗어난 편이라 지금도 맞사지나 기초화장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서른 살이 넘어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된 후론 자식에 대한 헌신보다 때론 당신만의 삶의 세계를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지켜온 어머니의 끈질긴 자기애를 새삼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게 이해하는 이변이 벌어진 것이다. 어려웠던 시절 당장 찬거리가 없어도, 등록금을 제때 못 내도 초콜릿과 맛있는 간식, 고급 기초화장품은 멀어뜨리지 않던 어머니식 생활방식은 나를 일찍이 어머니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분리시켜 강하고 독립적인 기질을 갖도록 부추긴 것을 깨달은 것이다. 어머니는 지금도 상식적인 한국 어머니의 근심이나 관심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게 접근하시기 때문에 (‘어머니 회생’에 보답해야 하는) 부담을 주시지 않는다. 지금도 나보고 (공부 좀 했다고, 사회에서 일 좀 한다고) 오만하지 말라고 일갈하시는 어머니의 당당함은 놀랍게도 자신의 삶에 대한 나름대로의 긍지와 자부심에서 나오는 것이리라.

십여년 전 미국으로 이민가신 어머니는 지금도 한국에 올 때마다 내게 기초화장품 몇 개를 선물로 주신다. 당신이 먼저 통을 열어 한국에 있는 동안 쓰다가 남은 것을 주고 가시기도 하는데, 나는 오히려 그게 더 반갑다. 그러면서 “이거 비행기에서 산 거라 비싸게 준 거 아니다”라고 토를 다신다. 내가 철없던 시절 “엄마는 화장품은 사면서 내 등록금은 안 준다”고 비난했던 것을 아직 기억하시는 것 같아 미안해진 나는 오히려 큰소리친다. “엄마 나이에 좋은 걸 쓰셔야죠”라고. 내가 로션을 바를 때, 제대로 순서를 지키는지 손가락 방향이 괜찮은지 안 보는 척 하면서 보시는 어머니 시선을 의식하면 나는 일부러 안 하던 맞사지하는 흉내를 낼 정도로 술수가 늘었다. 그건 어머니의 영광과 쇠락, 그 가운데서 자식들을 지켜낸 당신의 독특한 사랑법을 뒤늦게 이해한 딸의 고백이 담긴 제스처이기도 하다.

유채 지나(본지 편집위원, 영화평론가)

외모 우선의 사회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는 딸을 미인으로 만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셨다. 아침저녁으로 나의 작은 어깨를 두 발로 누르면서 목을 잡아당기셨고, 휘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 종아리를 힘대로 뭉기도 하셨다. 머리와 눈썹을 두 번, 속눈썹을 세 번 자르는 동안 퇴근후 딸의 모습에 놀란 아빠와 여러 번 싸움을 하셨다고 한다. 아침마다 잔머리가 많은 나의 머리는 고무줄로 고문당했고, 씩씩한 나의 자세는 꺾박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딸의 우람한 체격과 터프(?)한 행동에 10년의 고생이 헛되었다고 탄식하신다.

우리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정성을 쏟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4녀 2남의 막내딸로 태어나신 엄마는 누구의 관심도 끌 수 없는 위치였다. 젊은 시절 별다른 재주가 없었던 엄마는 자신이 예쁘지 않았기 때문

에 많은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도 평소에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슬픈 목소리로 “내가 못생겼다...”라고 가끔 되뇌이신다. 그리고 예쁜 친구를 옆에 둔 죄로 자주 비교당했다는 엄마의 입은 지금도 학에 들어와서야 직접 당해보고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고 엄마가 포기를 했던 건 아니다. 엄마의 최초의 화장은 볼에 태운 성냥개비로 아이라인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음엔 풀로 쌍꺼풀을 창조했으며, 화장을 시작한 뒤에는 정말 열심히 화장에 임했다고 한다. 젊었을 때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지 않을 정도였다고. 월남에 간 애인을 위해 야밤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곱게 화장하고(어두워서 잘 확인되지 않지만 추측할 수 있다) 찍은 사진에서 엄마의 눈물겨운 노력을 볼 수 있다.

그 월남에 갔던 애인과 결혼한 뒤에는 태어날 딸에 대해 큰 기대를 걸었다고 한다. 제발 머리숱이 많기를, 눈썹이 많기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쌍꺼풀이 있기를, 나와는 달지 않기를... 다행히 내가 아빠를 닮아 쌍꺼풀이 있기에망망이지 없었다면 강제로 수술을 당했을 것이다. 화장을 할 때마다 엄마는 눈썹과 쌍꺼풀이 얼마나 아쉬웠을까.

어린 시절, 새로운 장난감에 대한 열망으로 두리번거리던 나에게 엄마의 화장품들은 신기함 그 자체였다. 지금이야 별것 아니었다고 생각되지만 무어 그리 종류가 많던지.

그러나 엄마는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를 고민하며 이것저것 사용하다가 피물이 되어 있는 딸을 발견하고도 화내지 않으셨다. 심지어 마루타로서 자신의 얼굴을 맡기기까지 하였으므로 도리어 화장에 대한 나의 호기심은 금방 사그라들었다. 아마 엄마는 장차 딸이 화장을 잘하길 바라셨을 것이다. 대학 신입생 때 화장을 의무적인 것으로 알고 신나게 했을 때도 엄마는 권장하는 편이었고, 지금도 내가 화장-기acket해야 립스틱 정도지만-할 때마다 “더 둥글러, 더 섹시하게”를 외치며 옆에서 계속 따갑게 지켜보신다.

주부가 된 지 오래라 이제 별로 화장할 일이 없는 엄마지만 어쩌다가 한번 화장을 하면 잘 지우지 않으신다. 기껏 했는데 아깝게 왜 지우냐는 엄마에게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우리 시대의 광고멘트는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열등감을 이기고자 열심히 얼굴을 가꾸고 화장하던 처녀는 이제 영양크림 하나를 아끼고, 딸의 다 써가는 립스틱을 몰래 가져가며, 동네에서 단제로 눈썹문신을 하는 아줌마로 바뀌었다.

여자에게는 열심히 공부하라는 꾸중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엄마 시대에 결혼을 위한 ‘미모’는 유일한 목표였고, 선천적인 조건을 이기기 위한 후천적 수단인 화장은 엄마에게 필수적인 것이었다.

애틀을 갈 때조차도 눈썹연필만큼은 꼭 챙기는 눈썹 없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우리 엄마가 생각한다. 시험기간에 부시시하게 나타난 친구에게 장난삼아 “공부 안 해도 좋으니 화장 좀 해라, 남들이 너 화난 줄 알거야”라고 하거나, 동네 나가는데 왜 화장하냐는 질문에 “화장 안 하면 사람들이 나 무시해”라고 말하는 친구의 말에 킁킁거리고 웃긴 하지만 결혼이 유일한 목표가 아닌 우리들도 여전히 외모 우선의 사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느끼게 된다. 화장이 스스로의 선택이라면 모르지만 강요에 의한 선택이라면 여성은 여전히 대상으로서 존재할 뿐이다.

이제는 화장을 강요받을 위치에서 좀 멀어졌지만 여전히 우리 엄마는 쌍꺼풀의 부재로 인한 화장의 효과



감소를 주장하신다. 눈썹이 짙어져서 눈앞이 침침하다는 거짓말과 함께 오늘도 아빠에게 외치실 거다. “쌍꺼풀수술 안 시켜주면 몰래 혼자 해버린다!” 윤정희(이화여대 신방과 4년, 23세)

베니 하나

“여자가 화장도 좀 하고, 요즘 아가씨들처럼 섹시하게(?) 하고 다니야지, 공장 큰애기들처럼 그러고 다니면 쓰겠냐!” —전국의 공장 큰애기들엔 정말 미안하지만 수수하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내가 가끔 집에 내려가면 아버지가 늘상 하시는 말씀이다. 아직까지도 립스틱 바르는 일이 익숙치가 않아 섹소화장은 하지 않는 내게 화장하기를 온근히 강요하신다. 난 귀찮기도 하지만 해서 예쁜 거란 생각이 안 들고 화장해서 예쁜 것은 예쁜 게 아니라 라는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 립스틱은 물론 기초화장 이외의 화장은 거의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가진 직업의 특성과 ‘비주얼시대’라는 시대적인 요구, 그리고 나이 먹은 여자에 대한 기대심리 등에 부응하여 요즘은 그나마 신경을 쓰고 있다. 마모 교수가 그랬던가? 여자의 화장하지 않은 얼굴은 노골적이고 뻔뻔하기까지 하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 교수 못지 않게 ‘꾸미지 않는 여자’에 대해 이렇듯 적대적(?)이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바로 우리 엄마 때문이다!

내가 어렸을 때나 성장한 지금까지 두 분의 외출풍경을 들여다 보고 있다면 신혼 때도 저러셨을까 싶을 정도로 아버지는 같은 레파토리로 엄마에게 잔소리를 하시곤 했다. 요즘은 그래도 기력이 좀 떨어지시는지 그 어조가 사뭇 가라앉으신 편이지만 한창 때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장을 넘고도 남았다.

“뭐 하느라고 이제까지 화장도 못 하고 꾸물댄데?” (엄마는 쳐다도 안 보고 하던 동작을 계속 하신다.)
“아, 평소엔 베니(우리 부모님 두 분 다 립스틱을 베니라고 부르신다)도 사놓고 그랬어야지. 근친스럽게 다 닮아빠진 것을 써야겠어? 내가 못 살아. 한번 나갈 때마다 기분 좋게 나가는 법이 없어. 예이, 빨리 나와!” 박력 넘치는 목소리로 먼저 대문을 나서는 것으로 아버지의 잔소리는 막을 내렸다.

두 분의 외출풍경을 지켜볼 때마다 엄마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다. 도대체 꾸물거리서 화가 나신 건지, 바닥이 보이는 ‘베니’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던 건지 모르지만 두 분이 무사히 나가실 때까지 우리 형제들은 바짝 졸아 있었고, 무엇보다 엄마의 기분이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엄마쪽도 만만치 않았다. 아버지의 잔소리에 전혀 미동도 없이 더 이상 색깔이 묻어나올 것 같지 않은 금빛 케이스의 빨간 베니를 기술적으로 바르시면서 외연하게 외출준비를 끝내시곤 했으니 말이다.

“엄마, 이거 버리고 새거 사지, 왜.”

“아직도 한참 남았다.”



당신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 하시는 분이 입술에 바르겠다고 립스틱을 사시겠는가? 예나 지금이나 엄마는 화장대도 없이 책장 한 구석에 스킨, 로션 등속을 늘어놓으시고—한두 개의 베니가 어디쯤에 놓여 있겠지—, 하는 듯 마는 듯한 화장을 계속하신다. 3년 전 배낭여행 갔다가 3일치 숙박비를 아껴서 사다 드린 주름살 제거제를 아직까지 쓰고 계시는 우리 엄마! 그 화장품이 아직도 남아 있단다. 아마 다 쓰시고 버리지 못하실 것 같다. 엄마의 화장대를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지금도 엄마의 화장품들 사이 어딘가에 두 분의 외출을 식막하게 만들었던 ‘빨간 베니’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을까? 나도 엄마를 닮았나 보다. 책꽂이 한 구석에 스킨 하나, 로션 하나, 잘 안 쓰는 립스틱 몇 개... 이남경(카피라이터, 29세)

“엄마, 나도!”

딸 아이는 화장을 하고 있는 나를 유심히 바라보다 자기 볼을 가리키며, 입술을 내민다. 나는 콧테트 스펀지 뒷면으로 두어 번 아이의 볼을 두들겨주고 립스틱을 살짝 입술에 발라준다. 그럼 아이는 의기양양하여 입술을 쪽 내밀며 이방 지방 다닌다.

한번은 립스틱을 꺼내 뼈에로처럼 입술 주위에 바르고는 거울 앞에서 고개를 가웃가웃하며 흐뭇해 한다. 화장을 하는 내 모습이, 가뜰이나 ‘공주’를 선망하는 다섯 살 난 딸아이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다소 걱정은 되지만 난 거의 매일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선다.

화장을 하다보니 뺨얼굴이 더 낫설고, 지저분해진 얼굴이 내 스스로 보기가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다. 보여지기 위한 것만이 아닌 내 삶을 가꾸는 한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결국은 여성으로서의 내 얼굴의 상품가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정말 상품가치가 있는 없든)이 들어 쓸쓸할 때도 있다.

딸아이가 내 화장품을 빼앗아 팽그르르 달아날 때면 옛날 안방 서랍—서랍장이나 장식장에 팔린—속에 널브러져 있던 립스틱(그때는 ‘루즈’라고 불렀는데)들을 바라보며 눈을 반짝이던 내가 생각한다.

엄마는 부지런하지만 정돈을 잘하는 분은 아니었고, 당신 몸을 위해 치장을 하는 분이 아니었다. 내가 본 엄마의 화장법은 로션과 화운데이션을 대충 바르고 주로 꽃분홍색 루즈를 칠하는 것이 다였다. 꼼꼼한 성격은 아니셨기에 붉은색 계통의 루즈들이 여러 개 늘 서랍에 굴러다녔다. 그럼 난 엄마가 일어나고 안계신 틈에 이것 저것 발라보고는 엄마가 오기 전에 급하게 휴지로 짹짹 지워 입술은 얼얼하고 물로 씻는데도 껌껌이 지워지지 않아 입 주위엔 붉은 자욱이 남곤 했다.

사촌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처녀 적 엄마는 굉장한 멋쟁이어서, 언제나 내게 따라다니는 말은 “네 엄마가 훨씬 예뻐다!”였다. 물론 엄마가 젊었을 땐 화장을 안 해도 예뻐다. 하지만 너무 돌보지 않아 지금의 엄마는 또래의 다른 엄마들보다 얼굴이 너무 형편없어져 속상하다. 엄마는 왜 그렇게 당신을 가꾸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의 일상이 너무 고달프기도 했지만 엄마에게 화장(섹소화장뿐 아니라)은 ‘여성으로서 보여지는 것’이고 그것은 ‘결혼’과 함께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었나 싶다. 더욱이 아

버지 대신 많은 부분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엄마로서는 아버지의 시선, 주위의 시선들에 자유롭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든다. 화장품 한번 제대로 사다드리지 않은 생각없는 딸을 둔 때문이기도 하고! 나 역시 엄마를 '엄마'로서만 보았을 뿐이니까... **윤숙경(본지 영업부장, 34세)**

어머니의 향기

내가 마약 등을 넘겼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께 자전거를 배우셨다. 유난히 운동신경이 뛰어나 금세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지 않아도 넘어지지 않고 풀나게 타실 수 있었다고 한다. 내 유년의 어머니는, 그렇게 자전거를 타신 모습으로 달려와서 나의 아동기와 사춘기를 가로질러 가셨다. 나는 이따금 머리 속으로 그려보곤 한다. 늦장가를 가서 이미 그때 서른 중반을 넘긴 아버지와 수줍음 많은 이십대의 어머니가 자전거 한 대에 붙들려 기우뚱거리며 골목을 달리는 풍경을.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에 남아 있진 않지만 나는 그렇게 어머니가 자전거를 배우시는 모습을 혼자 상상해보면서 어머니가 감내해오신 삶의 한 자락을 슬며시 들춰보곤 했다.

어머니가 자전거를 배우신 건, 화장품 창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새마을운동이 성과를 거두며 진행되던 70년대 중반. 그 개발이 가져온 생활의 윤택함은 시골아낙들에게도 화장품 한두 가지는 짝어 바를 수 있는 삶의 여유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시골여성들의 피부관리와 미적 성장에 일조를 가한, 요즘 식으로 표현하자면 뷰티 플래너의 역할을 하신 셈이다. 안방 뒷목을 차지하고 있던 캐비닛 속엔 화장품들이 가득했고, 그것을 구경하는 건 어린 내게 즐거운 일이기도 했다. 그때 이름이나 용도를 하나도 몰랐지만 그 안에 모든 종류의 화장품이 다 들어 있었다. 나는 어린 나이에 여러 가지 콤팩트와 파우더를, 립스틱과 아이섀도우를 관찰했고, 그 향기를 감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엄마의 부재는 아이의 영혼에 상처를 준다. 긴 오후의 끝없는 기다림. 특히나 해질 무렵이 되면 어둑신해오는 사위의 막막한 기운과 맞물려 나의 기다림은 얼마나 청승맞았는지... 마루 아래로 다리를 붙여 어드린 채 대문 너머 길가를, 말 그대로 눈이 빠지게 바라보다가 재떨에 실용에 겨워지면 캐비닛을 열어 그 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있곤 했다. 그 속엔 엄마의 향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치냄새나 설거지물 냄새가 아닌 화장품 향기를 가졌던 젊은 엄마는, 그러나 그 향기가 삶의 여유에서 묻어난 것이 아니라 생활의 터전에서 배어버린 것이었기 때문에, 세월 흘러 그것을 추억하는 나를 슬프게 한다. 정작 어머니 자신은 맘대로 써보지도 못한 화장품들의 향기는 형제없는 무제로 어머니의 등에 짐처럼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이국적 향취들의 익숙함에 고개를 치받고 있던 어린 여자아이의 외로운 유년과 맞물려 더욱 슬프다.

언니와 나는 어렸을 때부터 화장품을 몰래 바르거나 하는 짓은 절대 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그것은 그저 옷어넘길 어린아이의 치기로 여겨지지 않



았다. 화장품들은 곧 쌀이나 반찬으로 바뀌는 재화의 효용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캐비닛 속에 고이 모셔놓아야 할 대상으로만 보였다. 나는 이따금 뚜껑을 열어보거나 코를 가까이 대본 적은 있지만 손으로 만져보는 짓은 감히 하지 못했다. 나이들어 자연스럽게 화장을 하게 된 후에도 가끔 어란시절 캐비닛과 화장품 가방의 성역을 떠올리면 입가에 씩씩한 웃음이 지나가곤 한다.

어머니는 꼬박 십오년 동안 화장품 가방을 자전거 뒷좌석에 싣고 팔타르 빛깔이 선명하던 이차선 국도를 달리셨다. 겨울날 자전거가 미끄러져 논둑에 처박힌 적도 있었고 시어머니 몰래 화장품을 샀던 며느리에게 수급하러 갔다가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어오는 바람에 몇 시간 동안 쫓겨 숨어계신 적도 있었다고 한다. 내가 일곱 살 땀 집으로 돌아오시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치기도 하셨다.

이제 선을 넘기신 어머니는 자전거를 너무 오래 타셔서 다리의 힘줄이 보기 흉하게 볼거져 나와 있다. 힘든 세월을 보내며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나이들어 가신다.

아직도 그 때의 직업정신이 남아있기 때문인지 여자는 젊으나 늙으나 스스로를 가꿀 줄 알아야 한다는 신조 또한 변함없다.

작년 가을, 오빠 결혼식 전에 사돈댁에서 어머니 앞으로 화장품 세트를 보내오셨다. 꾸러미를 풀어보시던 어머니의 소녀처럼 빛나던 얼굴을 잊을 수 없다. 평생 그렇게 많은 화장품을 갖고 다니셨으면서 뭘 그 정도에 흥분하시나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그렇게 많은 화장품들이 한번도 어머니의 뚝은 아니었다 싶어서 나는 새삼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지금도 국산 화장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찌 고맙다는 생각이 온근히 든다. 온연중에, 화장품 팔아 공부한 나의 내력이 떠오르기 때문일 것이다.

어머니가 화장품 외관을 하시던 무렵엔 외제 화장품을 쓰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불필요한 화장품을 사모으는 사람도 없었다. 계돈 타는 날이나 월급날이면 들뜬 걸음으로 우리집에 들르던 사람들, 그 '여자'라는 아름다운 향기를 가진 이들을 그리워해 본다. 그리고 그들 일상의 소소한 기쁨, 아름다움의 정갈한 포인트를 제공해주던 어머니의 직업에 자부심도 가져본다.

가족을 위해 늦도록 자전거 페달을 밟으시며 낯선 동네를 오가던 어머니의 젊은 시절, 흔들리던 뒷자리에 묶여 있던 그 화장품들은, 젊은 어머니의 생을 향한 집착을 알고나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어머니에게서 느껴지던 향기는 화장품들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박동숙(취업준비, 26세)**

화장의식

나는 아직도 엄마의 그 모습을 잊지 못한다. 직장암이 간에까지 전이돼 항암 수술을 받고 몸무게가 무려 10kg이나 빠져 아열 대로 야윈 얼굴로도 곱게 화장을 하고 병원 침대에 앉아 해사하게 웃으며 회진하는 의사들을 맞던 엄마의 얼굴을... 물론 엄마의 화장은 화운데이션과 분, 화려한 눈썹을 그리는 아이팬술과 간단한 입술 연지가 다였지만,

1년여의 투병 끝에 돌아가신 우리 엄마는 혼자서 일어나 앉을 기력이 있을 때까지는 늘 화장을 하셨다. 아침이면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하고 머리를 곱게 빗고, 간단한 화장을 마친 후에야 하루 일을 시작하셨던 어머니는 병상에서까지도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난 본래 "여자란 모름지기 화장 안 한 맨 얼굴을 남편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여자들을 싫어 하지만 우리 어머니 나이 마흔에 남편과 사별하고 그 후로 20여 년을 혼자 살았으니 화장한 얼굴을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그 병원에서 환자가 화장을 하고 의사를 맞았던 예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나는 그 모습을 그때는 예사로 보아넘겼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지 10년이 지나서 '엄마의 화장'이라는 화두를 갖고서야 그 때 엄마의 모습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다. 나는 지금에서야 엄마에게 이렇게 묻는다.

엄마, 왜 그렇게 평생을 하루같이 화장을 하셨어요? 하루종일 집에만 있을 때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끊임없이 말이예요.

어쩌면 엄마에겐 화장이 일종의 의식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가정이란 원래 정해진 물도 없고 자기만의 물을 만들었다가 켜다 한들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다. 그래서 집안일이 더 무섭다. 한번 무기력과 타성과 게으름의 늪에 빠지면 헤어 나올 길이 없이 깊디 깊은 자학으로 결론나기 마련이다. 나의 전업주부 기간 동안의 경험이 그랬다. 그래서 나는 주부들의 자기통제력을 매우 존경한다!

어쨌든 우리 엄마에게는 남편이란 존재가 줄 수 있는 긴장감마저 없었으니 나름의 자기통제시스템이 철저하게 필요했을 것이다. 들여보지도 못하고 끝낸 우리 엄마만의 자기통제 노하우가 많이 있었겠지만 화장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다.

자, 이제부터 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 개인적인 삶도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가족을 꾸려가는 일도 가정에서 이루어져,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혼재되어 있다고 남들은 쉽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내게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만이 그걸 가장 잘 알고 있지요. 내가 화장을 시작하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고, 화장을 지우는 시간이 쉬는 시간입니다. 화장을 하지 않은 시간은 자는 시간뿐이지요. 그래도 내게 일이 없다 하시겠습니까? **박미라(본지 편집장, 35세)**

「어머니들이 만든 세상」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높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편집부로 '어머니 세상' 독자투고가 적지 않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호 주제는 '부부싸움'입니다. 재미있는 원고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로 답하겠습니다. 원고는 되도록 통신을 통해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뭐 팩스나 편지로 보내신대도 할 수는 없죠. if의 독자들이 가슴 열고 이야기 나누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원고 많이 보내주세요. **if**

소설 불타는 대지

마비되어 쓰러진 '인간 정신'의 부활을 꿈꾸며

작가 이하천이 던지는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



나는 이 소설에서 마비되어 쓰러져 있는 '인간정신'의 부활을 꿈꾸어 보았다.

그것은 어쩌면 '여성성'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주인공 김상준은 자신의 심리에서 두 여성, 즉 음지를 대변하

는 김경민과 양지를 대변하는 백상희를 양과

음으로 거치면서 영혼의 마비로부터 풀려난다는 것으로 끝

나갔다." — 작가의 말에서

주인공 김상준은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한 인물이다. 그 후 10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나오

지만, 세상은 여전히 돈과 인습이라는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하고 절망에 빠진다.

이후 어느 시골의 외딴 집에서 상처받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상준은 자살을 기도하는 한 여성을 우연히 목격하고 그녀를 구한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해 정신적인 상처를

입고 있었고 그녀를 바라보는 김상준은 우울하기만 하다. 그러던 중 김상준의 대학시절 후배 백상희가 11년만에 미국에서 돌아오는데...



‘남자’가 되고 싶었던 여자아이

박영숙(주부, 35세)

여자들도 소녀시절에는 제각각 다른 무지개빛 꿈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날인가...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된 이후인가?
그 모든 꿈이, 퇴색해 버린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난은 잃어버린 여자의 꿈을 되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학 교에서 숙제로 내준 자기소개서를 만드느라 분주한 아들 옆에서 난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 애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홉 살난 아들의 꿈은 해저도시를 만드는 과학자란다. 이제 곧 공해 때문에 육지에서는 살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바다 속에 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엄마랑 아빠랑 살겠단다. 짐짓 어론스러운 그 애의 '장래희망'을 들으면서도 내가 별 다른 느낌이 없었던 건 그 애의 꿈이야기가 새삼스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때 내 젓가슴을 파고들며 어린양을 하던 딸애가 자기는 엄마가 되고 싶은 게 되겠다며 붙어다녔다. "엄만 뭐가 될 거야. 뭐가 되고 싶은데?" "글쎄." "글쎄가 뭐야? 난 그림 그리는 사람 될 거야. 화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화가가 되라. 나랑 똑같이 화가 되라. 응—" 그리고 나서 서로 엄마랑 똑같은 게 되겠다고 싸우며 난리를 친다.

그래, 이 애들 말처럼 나도 뭔가가 될 수 있을까? 아이들의 눈에도 엄마는 뭔가가 해야 하는 사람으로 비치진 거고, 그 꿈이 저희들처럼 별반 차이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인데.

난 내 꿈을 이야기하느라 삼십대의 초반을 진저리쳐 왔다. 처음엔 내 꿈이 뭐였나 기억해내느라고 진을 뻗고, 기억해낸 내 꿈들의 조각들을 이어붙이느라고, 그리곤 허망해진 내 신세를 한탄하며 머리 속의 나와 불꽃튀는 전쟁을 치르며 살았다.

난 내 꿈을 이야기하느라
삼십대의 초반을 진저리쳐 왔다.
처음엔 내 꿈이 뭐였나 기억해
내느라 진을 뻗고, 기억해낸
내 꿈들의 조각들을
이어붙이느라고, 그리곤 허망해진
내 신세를 한탄하며
머리 속의 나와 불꽃튀는 전쟁을
치르며 살았다.

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그 실존의 뒷편으로 밀려난 내 꿈을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고단한 일인가에 지레 겁먹고 물러서고 만다.

삼남매의 딸이로 태어난 나는 어릴 때 꽤 총명했던 것 같다. 다른 아이들보다 한 살 일찍 학교에 들어갔지만 공부를 제법 잘 했고, 게다가 글짓기, 그림, 웅변 등 여러 분야에서 나는 꽤 재주가 많았던 아이였다. 형편이 어려워 남들보다 특기교육을 더 받았던 건 아니지만 악바리같이 달려들어 뒤편 상을 타냈고, 그런 과정들이 우리 엄마에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딸이라는 환상을 심어주었던 것 같다.

그래서 어릴 때의 난 '남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 '남자'란 무엇이든지 잘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의 대명사로 이해했었으니까. 내가 아는 세상에서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은 항상 남자였었기에 나는 자연스레 그 '남자'의 대열에 내가 끼게 되리라는 꿈을 키워갔었던 것이다. 사내애들처럼 행동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영악하게도 난 '남자'들의 세상을 일찌감치 눈치채고 거기에 걸맞는 능력을 재미있게 키워갔던 것이다.

내가 가장 즐겨하던 놀이 중에 '우리집 만들기'라는 그리기가 있었다. 달력이나 커다란 종이 뒷면이나 상상 속의 우리집을 그리고 그 안에 방안 평면도를 아주 섬세하게 그리며 내 동생들과 시간가는 줄 모르고 놀던 기억이 또렷하다. 아마도 좁은 집에서 대가족이 지내던 당시의 형편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집이었는데,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꿈과 내가 현실에서 전혀 가져볼 수 없었던 고가품을 갖고 싶어하는 속내를 드러낸 놀이였던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림 속의 집에는 엄마, 아빠의 방이 없었고, 내가 내 동생들을 데리고 사는 구조였는데, 어느 날 엄마가 보시더니 웬지 기분 나쁘다고, 왜 부모가 있는데도 동생들을 데리고 그런 집에서 사는 상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야단치셨다. 하지만 그 후로도 꽤 오랫동안 그 놀이를 해왔고, 때면 우리집의 배치도는 달라졌고 '우리집'은 바다 속으로도 하늘 위로도 우주 공간으로도 마구 이사다니곤 했다.

내가 어릴 적 장래희망관에 무엇을 써넣었었나를 잘 기억나질 않는다. '남자'라고 써넣었다가 선생님께 혼난 후로는 형식적인 단어를 적어넣었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웅변을 시작했는데 당시의 살벌한 반공논리를 힘주어 외치는 반공웅변이었다. 교내에서는 나를 따를 애들이 없었고 서울시 대회까지 나가 상도 받아왔었으니 아마도 그때 장래희망관에는 웅변가가 적혀 있었을 게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대학시절 자동으로 지워졌고, 내가 그런 반공웅변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다는 것을 나의 이력에서 지우려고 스스로도 엄청난 노력을

사회 속에서
내 의미를 찾기가 힘들어지면서 난
그 때까지의 전과정을
함께 나누었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연인이었던 남편과 결혼을 해버렸다.
핑계는 좋았지만,
결혼 후에 나는 어릴 적 내 꿈들을
실현시킬 실력도, 경력도,
의지도 모두 결여된 상태였다.

했었다. 다른 친구들(대개는 남자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남다른 사회의식을 갖고 자랐다는 데 나는 많은 열등감을 가졌었으니까. 하지만 그때의 웅변은 나를 연약하고 아리따운 여자아이에서 목소리도 절절하고 씩씩한 남자애들처럼 만들어버렸고, 그런 모습이 이후의 나를 많이 변화시켰던 것 같다. 다른 여자애들이 징징대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스스로 남자라는 착각 속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했었으니까.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교사가 되겠다는 꿈도 꾸었던 것 같은데 그 꿈은 당시의 선생님들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 다방면에서 상복이 많았던 나는 뒷사람들이 좋아하는 전형적인 스타일이었는데, 상장들이 앨범으로도 꼭 차고 모자랄 정도였었다. 학교에서 조회 때마다 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내 등 뒤에서 "부모가 점심 한번 대접할 줄 모르는 저런 애를 회장으로 뽑으면 안 된다"는 한심한 말을 하던 선생들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선생이란 직업이 제일 더럽고 추잡할 거라는 조숙한 결론을 내리고, 죽어도 선생은 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었다.

그 이후 대학에 갈 때도 길으로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지만, 난 여자들이 가장 적은 학교를 택했고, 그 중에도 여자들이 가장 적은 과를 택했다. 왜냐면 똑똑한 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자들과 겨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었다.

대학은 마치 오래 전부터 꿈꿔 오던 '우리집 놀이' 처럼 황홀했고 아찔했지만, 83년도의 학교 상황은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버렸다. 당시의 살벌하고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서서히 학생운동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당연히 내가 가져왔던 그 꿈들은 산산조각나야 했고, 오히려 내가 가졌던 꿈들에 대한 회의적 속에서 나는 노동자로 태어나지 못했던 걸 한탄하고 고민하게 되었다. 그 아성 속에서 난 여지껏 느끼지 못했던 울분과 온몸의 피가 끓어오름을 경험하며 내 꿈의 거의 모든 걸 억지로 지워버리려 했었다. 그리고 대학 4년 내내 거리에서 지하실에서 복초가 되어갔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나는 '남자'들 속에서 진정한 '남자'로 살고 있다는 데 만족하며 그 시절을 이겨냈었다.

이후 집행유예의 꼬리표를 단 나는 일찌감치 사회인으로서의 직업찾기를 포기하고, 운동의 주변에서 맴돌았다. 모든 것이 어려웠고 사회 속에서 내 의미를 찾기가 힘들어지면서 난 그 때까지의 전과정을 함께 나누었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연인이었던 남편과 결혼을 해버렸다. 핑계는 좋았지만, 결혼 후에 나는 어릴 적 내 꿈들을 실현시킬 실력도, 경력도, 의지도 모두 결여된 상태였다.

가끔씩 그 때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나의 '여성성'을 스스로 부인한 결과였다는 생각이 든다. 똑같은 경력의 남편은 '운 좋게도' 탄탄한 직장을 얻었고



지금껏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며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고 있지만, 난 지난 10년 동안의 침기로 어눌해진 언변에 녹슬어가는 생각, 변변한 실력 하나 없는 30대 중반의 아줌마가 되어 있다.

가끔 내가 학생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꽤 괜찮았던 영어실력도 키웠을 거고, 전과자라는 딱지가 없었다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로 꽤 '성공'한 여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시절이야말로 내게는 진정한 어릴 때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삶의 가치관을 만들어갔던 시기였고 어쩌면 내가 가졌던 꿈의 허상, 세상의 '남자'들의 논리와 그 사회를 똑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 원천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결혼구조가 갖는 불합리 속에서 육아의 고됨과 여자들에게만 편중되는 희생의 논리, 모든 것들을 몸소 체험하고서야 나는 나의 여성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다만 그 세월이 너무 길었고 다시 되돌릴 수 없겠지만.

어릴 적 나의 꿈들이 어디서부터 물건너간 얘기가 되었는지는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일찌감치 '남자'들의 세상을 엿보았으면서도 여자들 속에서보다는 '남자'들의 집단 속에서 대학시절을 보냈기 때문일까? 선구자적인 결혼생활을 자신했으면서도 이 사회가 강요하는 정숙하고 바른 아내상으로 스스로를 내몰고 자살골을 넣으면서부터일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는 나의 현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 그 조건이 너무 열악하고 힘겨울지라도 돌고 돌아 결국은 원점으로 되돌아간 '여자'로서의 내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해야 하리라는 점이다.

창열거리다 내 옆에서 잠들어버린 딸애를 바라본다. 우리 사회에서 여자로서 살아가야 할 그 애와 나눌 수많은 꿈이야기가 나에게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어주길 바라면서 그 손을 꼬옥 쥐어본다. ■



나는 '쇼비니스트 피그'를 이렇게 퇴치했다

미 국에서 한국교포가 하던 조그만 회사를 다닐 때 일이다. 하루는 거래하는 인쇄소 사장한테 전화가 왔다. 그는 우리가 주문한 서식서류를 보냈는데 도저히 쓸 수 없을 정도로 엉망으로 해서 보낸 사람이었다. 나는 그가 일을 다시 해주거나 아니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겠다는 말을 하리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자기가 사창하고 형님, 동생하는 사이라며 본론이 아닌 엉뚱한 얘기만 해댔다.

엉망으로 된 인쇄물에 대한 얘기를 기대하고 있던 내가 계속 그 쪽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려하자 이 남자는 온근슬쩍 반말을 하기 시작했다. 반말과 어정쩡한 존대말이 왔다갔다 하면서 몇 번 대화가 오갔다. 나는 물론 꼬박꼬박 존대말을 썼다. 그러나 아무리 한국남자들의 후안무치성을 감안하더라도 반말이 너댓 번 반복되자 그만 울화가 치밀었다. 이 남자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작자야? 전화로 업무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상대방이 여자라고 반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너 왜 반말 하나?

물론 한국남자들은 어디에 전화를 걸더라도 여자가 나오면 무조건 아가씨이고 당장 반말을 한다. 그래도 내 나이가 열만지 켜 책이 뭔지 어떻게 알고 있거나 하는건지, 또 설혹 미혼의 아가씨라 할지라도 왜 무조건 반말부터 해대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그때 이미 서른 살도 넘었고 한 아이의 엄마였고 그 남자가 나와 비슷한 연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잠시 말을 멈추고 있다가 말했다. "아, 너 왜 반말 하나?"

그러자 전화선 너머로 그 남자가 숨을 푹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거의 경악하고 있다는 소리였다. 그러더니 숨넘어가 는 소리로 "뭐 이런 X년이 다 있어! XX년, X 같은 년!" 하고 전화통을 집어던지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 이번엔 내가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누구한테도 그렇게 험한 욕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잘못된 건 자긴데 왜 내가 욕을 들어야 하는가?

둘레가리는 상대할 물건이 못 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지만 어쨌든 난 숨을 가다듬고 다시 그 인쇄소로 전화를 걸었다. 그랬더니 동생이 받아서는 사장이 밖에 나가고 없다고 말했다. 그 인쇄소는 가족들끼리 운영하는 소규모 인쇄소였다. 그래서 중요하게 얘기할 게 남아 있으니 우리 사무실로 좀 와주십시오고 전해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자 이 남자는 자기가 형님으로 모신다는 우리 사장 부인한테까지 전화를 걸어서 도대체 내가 어떤 여자냐고 묻고 난리를 피웠다. 사장과 그 부인까지 동원되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오히려 나한테 통사정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굶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였다. 나는 어쨌든 만나서 마무리지을 이 얘기가 있다고 했고 결국 그 남자는 다음 날 회사로 찾아왔다.

우리 사장과 그, 그리고 나의 삼자대면이 이루어졌다. 그는 사과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말로 또 다시 열렁뚱땅 넘어가려 했다. 나는 엉망이 된 인쇄건에 대해 말을 한 다음 그에게 "나는 당신이 한 욕보다 더한 욕도 눈 하나 깜짝 안하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내 품위를 지키기 위해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런 얘기가 오가는 중 자존심이 상했는지 울기 띠락불그락하던 그 남자는 또 다시 사팔시팔거리며 뛰쳐나갔다.

어떻게 남자한테 반말을 하느냐고?

웃기지 마라. 한번 해보니까 너무 쉽더라! 결국 남자들도 버릇이 들어서 그렇다는 걸 이해하게 됐다. 그러니 나쁜 버릇은 고쳐야 할 것 아닌가?

그날 집에 와서 나는 차제에 이 문제를 사회문제로 만들기로 맘먹었다. 그래서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여성문제를 상담해주는 곳을 찾았다. 한인YWCA, KNCC 등 인권상담을 하는 담당자와 얘기를 했는데 그들 모두 아무리 그 쪽에서 반말을 했더라도 내가 같이 반말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재판을 하더라도 녹음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나한테 전화로 욕을 했다는 것을 증언해줄 사람이 그 쪽에서 아무도 없으니 결국 참으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

이제는 이, 눈에는 눈

사실 그에게 욕을 먹은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 그보다 더한 일도 부지기수로 일어나는데 그만한 일을 참지 못할 것은 없다. 그러나 참으로 답답한 것은 게임의 규칙을 먼저 댄 것은 그 남자였는데 대부분의 상담자(여자들)가 그래도 여자가 어떻게 같이 반말을 하느냐는 것이었다. (아마도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도 내놓으라는 예수의 말씀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랬나보다). 어쨌든 전화상으로 여자가 남자한테 반말을 한 것이 그토록 충격적이었던 것 같다.

미국은 존대말과 반말의 구별이 없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국여자들은 반말하는 꼴이 보기 싫어서 한국남자를 만나면 일부러 영어로 말을 한다. 그러나 여자한테 반말하기로 따지면 한국남자들은 은행이든 음식점이든 술집이든 회사든 집이든 어디서건 차이가 없었다. 참으로 웃기는 일 아닌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가끔 예외의 남자도 있다.)

내가 당시 그 문제를 사회문제로 하려고 그랬던 것은 한국남자들이 때와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여자들에게 반말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한국 교민사회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하고 싶었다. 내가 욕먹은 것 따위와 잊어버리고 무시하면 그만이었다. 재판까지는 안 갔지만 당시 여성단체들에서 상담을 하는 것을 보고 나는 기존의 여성운동 방법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매맞고 가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데 왜 대들어서 더 심하게 맞았느냐고, 맞을 짓을 한 게 아니냐고 피해자를 나무라는 꼴이었다.

답답했다. 당시 (15년 전의 얘기다) 한인사회에 있던 대부분의 여성단체들이 현모양처이데올로기에 여전히 매달려 있거나 교양있는 여자들의 여가선용적인 레저활동 수준이었다. 그 다음부터 나는 래디칼 페미니즘을 추구하게 되었다. 교양있고 우아한 페미니즘은 싫다. 상대가 게임의 룰을 깨면 나도 댄다. 이제는 이, 눈에는 눈의 정신이 캐어플레이를 만들 수 있다. 더구나 약자의 입장에서 그것은 정당방위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기까지 하다. 어떻게 남자한테 반말을 하느냐고? 웃기지 마라. 한번 해보니까 너무 쉽더라! 결국 남자들도 버릇이 들어서 그렇다는 걸 이해하게 됐다. 그러니 나쁜 버릇은 고쳐야 할 것 아닌가? **II**

류숙렬(본지 편집위원)

"나를 지키면서 살리는 여자들에겐 매일이 전쟁이다. 그러나 지혜가 있다면 좀 더 쉽게 그리고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다행히도 우리 앞엔 지혜로운 선배들이 있다. 그들은 이 험난한 인생길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이 난은 페미니스트들의 지혜로운 삶의 전략을 모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아울러 '이럴 때 이렇게'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경주 독자 우안영씨에게 감사드린다."



상대적이고도 적대적인 페미니스트 백과사전

난 영 지음

매사에 긍정적이지 못한 여자가 있다. 그는 모든 걸 비꼬고, 뒤집어야 작성이 풀린다. 특히 기존에 '권위 있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은 일단 뒤흔어버려야만 하는 여자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가 비꼬고 뒤집고 뒤흔들으면, 그제서야 제대로된 것같이 느껴지니 뻔할 일까.

바가지 : 남편을 격려하는 말이나 풍부한 표정. 그러나 정작 격려당하는 쪽에서는 반감지 않은 과잉친절.

첫사랑 : 사랑을 분류하면 두 가지가 된다. 지나간 사랑과 첫사랑이다. 첫사랑이 끝나면 지나간 사랑이 되고 다시 오는 사랑은 첫사랑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모든 사랑은 이전의 사랑으로부터 구별되고 이전의 사랑은 지금의 첫사랑을 위한 사소한 연습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사랑은 본질적으로 첫사랑에 다름 아니다. 새로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표정을 귀기울여 들어보라. "정말 이런 기분 처음이야." 정말 처음인 것일까?

시아머니 : 아들을 낳아 기른 여자들만이 획득할 수 있는 높은 지위. 그 권한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대상은 아들과 결혼한 여자. 자신이 씨뿌리고 가꾼 국수를 다른 여자가 거두어 오간다고 생각하기 쉬운 입장으로 인해 종종 송사에 휘말리기도 한다.

머느리 : 역사적으로 안마사와 더불어 장애인인 환영받는 희귀한 지위. 병어리, 귀머거리, 봉사가 되기를 노골적으로 권유받는 유일한 역할. 더불어 장애를 극복하고 집안의 잔일은 모두 도맡아 처리해야만 겨우 소박은 면할 수 있다.

딸 : 시대의 변화로 인해 아들과 같은 정도의 교육을 시켜야 하지만 결국 남의 집에 불모로 보내지는 서글픈 신세.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생각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남

아가 선호되는 듯.

아들 : 권력의 가장 구체적인 의인화. 산부인과에 면회 오는 시부모의 표정으로도 성별확인이 가능하다.

지아비 : 제 자식의 아버지. 아주 복잡한 절차 없이는 제 자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는 확신의 부재가 오작상의 가장 적합한 자리로 발돋움한다. 이런 원초적인 불안감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문학작품으로는 염상섭의 '빨간 띠'가 달았네가 대표적이다.

여자의 애인 : 겉모습이 남자와 비슷하다고 남자로 오해해선 이해되지 않는 제3의 인간형.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인간형으로 이 시기의 남성들은 스스로도 잠시 자신의 본성을 망각한 채 인간다운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애인이 남편이 되면서 나타나는 급격하고도 파괴적인 변화가 주는 충격을 이겨내기 어렵다.

남편 : 남자라는 존재가 가진 모든 기능들 중 최악의 형질이 발현되기 쉬운 입장. 한 여자의 남편이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의 애인이 되는 많은 경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바람 : 동쪽에서 밥 먹고 서쪽에서 임쓰는 셈.

미인 : 천연자원으로 부유한 생활이 가능한 여자. 미모는 다른 모든 능력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므로 군

이 다른 여자다운 자질을 연마하는 수고로움을 피할 수 있다.

임신 : 성관계로 인해 뱃속에 사람이 생기는 현상. 처음에는 이종단백질에 의한 항체반응으로 구역질을 하거나 특이한 음식에 대한 선호를 느끼는 사람도 있다. 중기에 접어들면 뱃속에서 사람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고 심한 경우 배가 볼록볼록 튀어오르기도 한다(영화 <예일미안>을 보면 실감나게 잘 표현되어 있다). 말기가 될수록 몸이 무겁고 거동이 불편하며 확장실을 들락거리는 횡수가 증가하다가 그 사람이 나올 때가 되면 엄청난 고통이 시작된다.

자외식 : 스스로를 의식하는 자아. 자외식이 과도하면 공주나 왕자가 되기 쉽고 이것이 부족하면 정치인이 되기 쉽다.

황당 : 아무 생각없이 땅을 사면 재수가 좋아 꼭 땅값이 오르는 여자가 남편의 임대업을 위해 사든 자잘한 부동산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을 때 느끼는 억울한 심정.

재산 :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프레스 알파.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뜨거운 감자(식어서 먹으면 되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면 다 지나가니까).

출가 : 명분을 가지고 집을 떠난다는 점에서 가출과는 구분된다. 여자는 모두 남자따라 출가하고 남자는 모두 여자를 버리고 출가한다. 남자가 큰 뜻을 세우고 출가하면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여자가 큰 뜻을 세우고 출가하면 세상에 아이를 남긴다.



페미니스트/난

절약 : 다 떨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구연하는 엉그리 정신.

폭력 : 법보다 가파른 주먹이 있어 발생하는 행위. 주먹이 근절되기 전에는 해결이 어려운 현상.

성폭력 : 이성보다 강력한 성기가 있어 발생하는 행위. 성기가 근절되기 전에는 해결이 어려운 현상.

모성애 : 아이를 가진 여자에게 강제로는 이념. 아이가 자신을 필요로 할 때는 팔뚝을 날다가도 지붕 위를 날듯이 뛰어가서 봉사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압력.

부성애 : 아이를 가진 남자에게 권유되는 이념. 아이가 자신을 필요로 할 때는 아이에게 엄마를 보내 봉사하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압력. [1]

한국귀신 서양귀신

폭죽 피는 현아를 밝이면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온갖 귀신이야기로 더위를 쫓곤 했다. 그러나 인간의 공포심에도 성(性)과 이데올로기가 있다. 이는 한국과 서양귀신 이야기들의 성별이데올로기를 파헤치며 뜨거운 여름밤의 열기를 식혀보았다. 이가 안내하는 귀신들의 세계로 독자 여러분들을 초대한다.

1. 한국귀신과 여성

- 귀신지사(鬼神之事) 여성지사(女性之事)

2. 서구 공포영화의 여성괴물

- 가부장제와 미녀(美女)가 겪는 운명



귀신지사(鬼神之事), 여성지사(女性之史)

“아아아악—” 나지막한 절규가 바로 앞에서 들리면서 어떤 형상이 원님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머리가 헝클어진 여자, 여자였다. 얼굴은 새파랗게 굳어 있었고 옷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목에 칼이 꽂혀 있었고 그 목을 따라 흘러내린 피가 흰옷을 핏빛으로 물들었다.



비소리뿐 사위는 적막하기 이를 데 없었다. “식구들 생각에 빠져드니 마음이 약해지는가 보다. 이제 마음을 다잡고 잠을 청해야겠다.”

원님은 잠을 청하려 애써보았다. 그 때였다. 다시 “으호호호...” 이

불이 갑자기 휘익 꺼져버렸다. 머리털이 바짝 곤두서는 걸 느끼는 찰나, 무엇인가 목덜미 부근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서 누군가의 숨결이 후욱 느껴졌다. 원님은 숨을 멈췄다.

“아아아악—” 나지막한 절규가 바로 앞에서 들리면서 어떤 형상이 원님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머리가 헝클어진 여자, 여자였다. 얼굴은 새파랗게 굳어 있었고 옷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목에 칼이 꽂혀 있었고 그 목을 따라 흘러내린 피가 흰옷을 핏빛으로 물들었던 것이다. 원님은 그 자리에서 그만 기절해 죽고 말았다.

강간 저항하다 죽은 아랑의 원혼...

그 일이 있고 나서 밀양에서는 새로 부임해오는 원님들마다 며칠후에 송장이 되어 죽어나가는 피변이 계속되었다.

이 소문을 들은 남촌의 이생원이라는 자가 밀양의 원이 되기를 자청했다. 그는 부임한 첫날부터 혼자 촛불을 밝히고 앉아 찾아올 이를 기다렸다.

며칠 뒤 그 역시 온몸에 피를 묻히

고 목에는 작은 칼을 꽂은 젊은 여자인 명을 목격했다. 귀신이 분명했다. 귀신은 스크르 방으로 들어와 원님 앞에서 절을 했다. 원님은 냅다 호통을 쳤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귀신인데 무고한 원들을 그리도 많이 죽였는가?”

이 소리를 들은 여자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대답했다.

“내게 깊은 원한이 있어서 이들 원님에게 고하려고 했을 뿐인데 모두 나를 보자마자 기절하여 죽었습니다.”

“그래, 무슨 원한이 있나 한번 말해 보시오.”

“나는 전에 이 고을에 원님을 지낸 이광섭의 딸 아랑입니다. 그런데 유모의 고임으로 영남루 근처 부용당에 갔다가 음흉한 속셈을 가진 젊은 아전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는 영남루 대나무 숲에 버려져 지금까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있으니 원하옵건대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님이 이 말을 모두 듣고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긴 한숨을 토해내며 이제야 출가분하다는 표정을 짓고는 사라져갔다.

그 다음날 원님은 관속들을 모두 불러모았다. 죽은 처녀가 일러준 그 아전은 마침 호장으로 있었다. 원님은 호장을 묶게 한 다음 그를 끌고 영남루로 갔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시켜 대나무숲을 찾아보니 과연 어제밤에 나타났던 여자가 칼에 찔리고, 피가 낭자한 채로

버려져 있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관속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

죽어서도 강간범에 복수할 수 있다면...

원님은 호장을 때려 죽이고, 아랑의 시체는 관과 수의를 갖추어 마을 밖에 묻은 뒤 이 사실을 그녀의 본가에 알렸다. 그 후로는 이 고을 원님이 된 사람들이 모두 무사했다고 한다.

잠궂는 보통 불행한 죽음. 한 많은 죽음을 당한 영혼들로 거지와 같은 존재다. 이들은 집안에 들어올 수 없다. 영남루에서 강간하려 했던 남자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랑 역시 잠궂에 속한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 감히 집안으로 들어왔다. 사실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은 여자귀신은 우리 민담 속에 술하게 존재한다. 그들은 자신의 원을 풀고 나면 순순히 없어지는 귀신이어서 공연히 사람들을 괴롭히는 잠궂와는 또 다른 귀신이다.

아랑은, 강간범을 응징하는 ‘용감한 피해자’의 귀감이라고 볼 수 있다. 죽어서도 강간미수 살인범을 벌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지 않은 것이다. 아랑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 대신 벌할 사람을 찾아나섬으로써 결국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했으며, 그의 노력으로 살인자를 응징하는 사회적인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죽어서도 죄지는 자를 고발할 수 있다면, 성폭력을 당하고도 침묵하지 않는다면 어느 사람도 쉽게

죄를 짓지는 못할 것이다.

순결과 정조가 목숨보다 중요한 시기였을까? 강간을 당하면 (살아 있는 여자들도) 원님에게 고해서 강간범을 찾는다는 민담이 적지 않게 전해져온다. 지금의 상식대로라면 수치스러워서 침묵하고 있어야 할 텐데, 그들은 소문을 내서 범인을 찾고 꼭 그 원수를 갚아야 한다.

강간에 얽힌 또다른 재미있는 귀신 이야기가 있다.

‘거절당한’ 여자와 ‘거절된’ 여자의 한

영조 때 정승을 지낸 유척기의 젊은 시절 이야기다. 스무 살 전에 혼인을 한 유척기는 나이 이십에 과거시험을 보게 됐다. 서울로 떠나는 길에 유척기는 어느 낯선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는데 그에게 반한 젊은 여자가 유척기에게 청혼을 했다. 젊은 여자는 유척기가 묵게 된 집의 주인으로 수천 석 거부였다. 얼마 전 전염병으로 가족을 잃은지라 유척기와 같은 반듯하고 점잖은 남자를 만나자 그에게 위탁해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척기는 그녀의 청혼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나는 이미 장가를 간 몸이라 처자가 있는데 본처 이외에 또 첩을 두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고 선비가 할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태도 또한 만만치가 않아서 유척기가 이튿날 그 집을 나서는데

경 남 밀양에 새 원님이 부임해 들어온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날 밤이었다. 그날따라 추적추적 비가 내렸다. 원님은 아직 임지로 따라오지 못한 식솔들 생각에 마음이 심란하고 외로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소리없이 타오르는 등잔불도 문 밖의 비소리를 따라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무엇일까, 갑자기 “으으응...” 하는 여자의 신음 같기도, 한숨 같기도 한 낮은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뒤척이던 원님이 고개를 들어 소리나는 쪽을 찾았다. 다시 추적이는

변연 좀 긴,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분명했다. 자신이 누운 아랫목에 처진 병풍 뒤에서 나는 소리 같기도 했고, 저 멀리 밖에서 들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원님은 벌떡 일어나 앉았다. 부임해온 지 얼마 안 되는 낯선 땅 밀양. 그곳에서 듣는 여자의 울음소리는 그리 기분좋은 리가 없었다.

“사르락 사르락” 마루에 옷이 끌리는 소리가 비소리와 함께 뒤섞이며 들려왔다. 갑자기 방안의 등잔불이 춤을 추었다. 문 닫힌 방안에 바람이 불리도 없는데 미친 듯이 춤을 추던 등잔

자신의 절절한 사랑을 매정하게 거절했다고 해서 한을 품고 죽어 끝내 상대 남자를 고사시키는 경우의 이야기도 많다. 아마도 그 시대 여자의 구애는 자존심과 목숨을 함께 내건 절박한 행위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까지 수차례 결혼하자고 매달렸다. 유척기는 그럴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재빨리 말을 몰아 달려나갔다. 그 때 뒤에서 여자의 목멘 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시오, 저기 가는 선비님, 뒤나 한번 봐주고 가시오.”

얼핏 뒤를 돌아보니 여자가 집에다 불을 지르고 자기 목을 칼로 찔러 자결을 하는 것이 아닌가. 유척기는 섬뜩했지만 두 눈을 감고 오던 길을 재촉했다.

그로부터 몇 해를 유척기는 과거시험에 번번이 낙방하고 말았다. 시험을 볼라치면 그 여자가 귀신으로 나타나 종이 위에 먹물을 끼얹는 등 방해를 하는 것이었다. 유척기는 여러 가지로 심란하여 금강산의 어느 암자에 들어가 중이 되어버렸다.

금강산 암자에는 유척기 또래의 중이 또 한 명 있었는데 어느 날 둘은 근처 계곡으로 산보를 갔다가 서로 무슨 사연이 있어 출가를 했는지 묻게 되었다. 유척기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으며 한숨을 지었다.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중이 웃으면서 천연덕스럽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필 그런 걸 가지고 죄스러워하나? 그건 죄도 아니네. 당신이 그 여자를 죽인 것도 아니고, 그 여자가 스스로 목

숨을 끊은 것 아닌가?”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나는 원래 부자집 며슴이었는데 그 집 딸을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지. 그러다 어느 날 딸이 혼자 집에 있는 틈을 타서 그 여자를 욕보이려고 했어. 근데 이 여자가 죽어라고 반항을 하는 거야. 잘못하면 일도 못 치르고 소문만 날까봐 그냥 그 여자를 죽여버리고 그 길로 도망나와 여기서 중이 된 거야. 벌써 6년째인데도 난 이렇게 멀쩡하잖나?”

유척기는 그 중이 꾀뻔해서 건넌 수가 없었다. 여자를 억지로 강간하려다 살인까지 해놓고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 있다니. 욕하는 마음에 증을 걸어 찼는데 글썽 바로 앞이 천길 낭떠러지라 그 증은 떨어져 죽고 말았다.

햇김에 한 일이었지만 유척기는 기가 막혔다. 한 여자를 죽게 만들고 이번엔 과실치사(?)이긴 했지만 살인이라니... 도대체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자살을 하려고 낭떠러지 앞에 섰다. 그런데 낭떠러지 저 아래서 귀신들의 아우성이 들리더니 갑자기 여자귀신 한 명이 유척기 앞에 서는 것이었다.

“소녀는 스님께서 차지하신 몸이 죽인 그 처자입니다. 스님께서 그 몸을

치단해주시는 바람에 수년 동안 품었던 한을 일시에 풀었습니다. 그 동안 스님을 괴롭혔던 귀신은 제가 영원히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스님은 다시 속가로 내려가서 과거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다.

“스님은 반드시 이번 해에 과거에 급제하시고 마침내 정승의 지위까지 오르실 것입니다.”

과연 그 여자귀신의 말대로 유척기는 과거에 급제하고 정승의 지위까지 오르는 영화를 누렸다고 한다.

자신의 절절한 사랑을 매정하게 거절했다고 해서 한을 품고 죽어 끝내 상대 남자를 고사시키는 경우의 이야기도 많다. 아마도 그 시대 여자의 구애는 자존심과 목숨을 함께 내건 절박한 행위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또 남자를 홀리는 귀신의 손짓을 거절하지 못해 신세를 망치고 죽음을 맞는 호색가들도 있다. 어쨌든 여자의 요구는 들어줘도 말썽, 거절해도 말썽이니 남자들에게 여자가 얼마나 처치곤란한 존재였는지 알 것도 같다.

정력 센 최영 장군 혼령

또 다른 유형의 귀신은 남자인데 멀쩡한 처녀에게 아이를 가지게 한다. 이걸 귀태(鬼胎)라고 하는데 자신이

마음에 드는 이승의 여자를 잠깐 두었다가 성관계를 가져(아마도 귀신의 성폭력이겠지) 마침내 아이까지 태게 한다는 것이다. 외국영화에서 보면 악마의 자식을 잉태한 여자가 어떻게든 그 태아를 없애려고 자살까지도 마다 않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민담에선 임신하게 되는 데까지가 클라이맥스다. 귀신의 아이를 가져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걸로 보아 아마도 그 시대에 임신한 처녀에게도 변명의 여지 또는 비난과 처벌을 면하게 할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본다.

여자를 밝히는 귀신으로 최영 장군 혼령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최영 장군을 모신 사당에 처녀를 봉공하고 그 처녀가 나이가 들면 다시 다른 처녀를 물색해 교체했다고 하니 최영장군의 정력은 죽어서도 주체를 못 했나 보다. 하긴 능력있는 병술가에 정력 센 남자는 못 남성들의 영원한 이상형인 지도 모르겠다.

귀신의 아이를 뱌 처녀

처녀가 임신을 해도 할 말을 하게 해주기 위한 또 하나의 민담이 있다.

광주 북촌에 사는 한 부자의 딸에게는 밤마다 붉은 옷을 입은 사내가 찾아온다. 이 사내는 딸과 밤새 놀이를 하다가(鬼交, 아마도 성관계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놀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나 싶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사라

진다. 잠을 못 자는 딸은 시름시름 앓을 수밖에. 그녀는 참다 못해 숙부에게 그 말을 털어놓았고 숙부는 그 사나이의 정체를 알기 위해 처녀에게 이렇게 일러 놓는다.

“같이 있을 때 물레 그 사내의 옷에 실을 꿰매놓아라.”

그날 밤에도 붉은 옷의 사내는 처녀를 찾아왔고 새벽이 되자 실을 옷에 매단 채 사라졌다. 숙부가 그 실을 따라가 보니 실은 숲 속 깊은 곳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어느 구렁이 속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땅속을 파 들어가자 그 끝에 커다란 지렁이가 매달려 있었다. 처녀는 임신을 하게 됐고 그녀가 낳은 아이가 바로 건원이었다. 지렁이는 남성 성기의 상징이다. 결국 처녀가 어떤 남자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진 끝에 아이를 낳았다는 거겠지.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민간에는 여러 갈래의 이야기들이 전래되고 있다. 어떤 사내가 처녀를 찾아와 입에서 입으로 구슬을 받은 놀이를 하다가 사라지길래 실을 꿰어 따라가보니 땅속 깊이 철구공이 또는 구슬(보물이 나오는), 재물이 묻혀져 있어서 그 처녀 집안은 부자가 되었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부자가 된다는 건 무얼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만하다.

신화가 그렇듯 귀신의 존재 역시 인간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귀신 이야기를 통해 인간지사(人間之事)의 많은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요즘 TV에서 한창 뜨고 있는, 허무맹랑하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는, 공연히 사람들의 마음을 심약하게 만드는 그런 귀신 이야기 말고 뭔가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귀신론을 펼쳐 보시는 어떨지. 이번 여름엔 공해와 전쟁으로 죽어가는 귀신들에 대해 이야기해 봐도 좋을 듯. □

박미라(본지 편집장)

가부장제의 타자(他者)가 겪는 운명



바캄스 못지 않게 여름이면 예외없이 우리를 찾아드는 특별한 이벤트는 바로 공포영화가 주는 서늘함과 쭈뼛함일 것이다. 우리는 공포영화가 조야하게 펼쳐 보이는 '어둡고 묵시록적인 상상력' 속에서 현실을 잊어버린 채 초현실적이고 악몽적인 공포의 바다 속을 유영한다. 귀신들린 자, 마녀, 다중성격자, 뱀파이어, 좀비 등이 출몰하는 그 세계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무의식적 욕망을 건드려도 발사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더욱 깊은 곳으로 안전하게 되

돌려보내기도 한다.

사실 대부분의 장르영화들은 싸구려이고 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경멸받아 온 것이 바로 공포영화이다. 그러나 장르 영화들이 지니고 있는 통속성은 오히려 그 시대를 살아가는 대중들의 심리와 욕망을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풍부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더구나 공포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폭력성과 어두운 상상력은 한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들에 대하여 사회심리화적인 통찰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받아 왔다.

공포영화와 여성의 관계

특히 공포영화와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맺어온 '문제적인' 관계는 이 장르가 가부장제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차지하게 되는 온갖 모순되고 불편한 위치들을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공포영화에서 여성들은 연약한 '희생자'이거나 엄청난 육체

적, 정신적 대가를 치루고 살아남는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러나 이것은 일면적인 인식이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공포영화들은 '괴물로서의 여성'을 또 하나의 중심축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희생자'로서의 여성과 '괴물'로서의 여성은 거의 동전의 양면과 다름없는, 하나의 본질에 대한 두 개의 상반된 이미지일 뿐이라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1930년대부터 전성기를 맞게 된 할리우드의 고전적인 공포영화들에서 여성은 관객을 흥분시키고 경악시키는 가녀린 희생자였다. <킹콩>(메리언 C. 루퍼, 1933)에서 거대한 킹콩의 손바닥 위에서 절규하는 아름다운 여성이 그 전형적인 경우인데, 여기에서 유발되는 공포는 성적 욕망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여성 자체가 합의하는 육체적인 연약성보다가 여성은 어린아이와 더불어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더해지면서, 그녀가 겪는 엄청난 고통과 공포는 일단 관객들을 최대한으로 자극하

대부분 공포영화에서 여성들은 연약한 '희생자'이거나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대가를 치루고 살아남는 유일한 생존자다. 그러나 다른 한 축에는 '괴물로서의 여성'이 존재한다. '희생자' 여성과 '괴물' 여성은 하나의 본질에 대한 두 개의 상반된 이미지다.

게 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그녀가 지르는 비명과 반쯤 벌려진 입술의 모습은 영락없는 성적 오르가즘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대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페미니즘운동에 대하여 정치적인 반격이라도 가하려는 듯이, 70년대 이후 할리우드영화들의 여성혐오 증은 점차 증폭되면서 영화 속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역시 극대화한다. 이것은 마치 여성을 파괴하는 폭력에 대한 책임이 여성 스스로에게 있다는 듯한 태도로 표현되는데, 예를 들어 여성은 원래 피학증적인 존재라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가학증적인 폭력을 온몸으로 기대하고 있다거나 여성의 과잉되고 무분별한 성욕이 그런 폭력을 불러 일으킨 원인이라는 식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공포영화에서 묘사되는 여성의 이미지는 더욱 복잡해지고 양가적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지니는 심리적, 육체적 속성과 사회적 위치는 더욱 풍부한 의미작용을 얻게

된다.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도 '모성'이라는 지위와,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육체성'을 위협적인 것으로 파악하면서 여성을 괴물의 모습으로 그려낸 영화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괴물로서의 모성: <사이코>와 <데드라이브>

<사이코>(알프레드 히치콕, 1960)는 흔히 '난도질 영화(slasher movie)'라고 불리는 공포영화의 하위 장르의 출발점이자 공포의 근원을 다룬 아난 인간 내면에서 찾는 흐름을 촉발시킨 영화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영화가 주는 공포의 핵심은 바로 괴물과 여성이 한 몸 속에서 구현된다는 사실에 있다. 어머니와 거의 근친상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노먼(안소니 파킨스)은 어머니에게 애인이 생기자 그녀를 살해한다. 그러나 모친살해에 대한 죄의식은 그의 자아 안에다가 어머니의 자아를 영원히 살려놓게 되고, 그 결과 다중성격자가 된 노먼은 여성의 유혹을 받는 순간 질투심 강한



"CARRIE"
(계단) 친구들의 장난으로 돼지피를 뒤집어쓰면서 영화는 공포의 절정으로 차달는다.

어머니의 자아가 되어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다. 이것은 결국 살인을 하는 육체는 남성의 것이지만 살인의 동기와 심리적 주체는 여성의 것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영화 사상 가장 섬뜩한 여장남자의 모습(가발을 쓰고 여성의 옷을 입은 채 칼을 휘두르는 노먼)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장면에서

뱀파이어리즘은 성적 환상과 에로티시즘을 결합시킨 경우이다.

우선 피를 빠는 행위는 모유를 빠는 행위와 더불어 남성에게서 정액을 짜내는 여성의 행위와 동격에 놓이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서 느끼게 되는 절대적인 일체감은 물론이고 노골적인 성적 흥분감을 환기시킨다.

살인의 죄를 아들에게 전가시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남성의 육체에 갖든 괴물스러운 여성(더 정확하게는 모성)의 이미지를 확고부동한 것으로 만들어낸다.

이러한 괴물로서의 모성이미지는 <테트 얼라이브>(피터 잭슨, 1993)에 이르면 더 그로테스크한 외양을 얻게 된다. 아들에 대한 병적인 소유욕 때문에 아들의 연애관계를 방해하던 어머니는 좀비가 되고, 두 청춘남녀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과 병행해서 어머니의 육체는 끔찍하게 변형되어 간다. 아들은 할 수 없이 어머니를 죽이고 말지만, 영화 마지막에 거대한 유방과 엉덩이를 지닌 괴물로 부활한 어머니는 아들을 통째로 삼켜버리고 만다. 어머니라는 존재가 자기회생적인 양육자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가장 강력한 억압자이자 금지자이기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모성의 본성을 그려낸 것이다.

이같은 모성에 대한 형상화는, 자식을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입시켜야 한다는 모성의 역할을 거부하는 어머니들을 가부장제가 가장 추하면서 사악한 존재로 묘사해 단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뿐만 아니라 모성이 지니고

있는 재생산적 기능에 대한 질서와 두려움을 악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녀의 육체: <캐리>

전통적으로 여성은 항상 '자연'으로 비유되어 왔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육체성, 즉 생리, 임신, 출산과 같은 여성의 재생산적 기능에서 기인하지만, 사회문화적으로 보자면 여성성 자체가 가부장제의 타자로 위치지워지면서 '문명'과는 대립되는 의미의 '자연'으로 귀속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육체가 표상하는 것들은 가부장제에 대해서 '위협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왔다.

<캐리>(브라이언 드 팔마, 1977)의 여주인공은 인간의 육체와 성교를 극도로 혐오하는 광신도 어머니와 살고 있는 소녀이다.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는 체육시간후 샤워하고 있는 캐리의 모습을 슬로우모션과 낭만적인 음악으로 표현하면서 시작된다. 이 장면은 마치 어머니에 의해서 과잉억압당하는 육체성을 캐리가 은밀하게 자기애적으로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곧바로 캐리의 몸 위로 흐르는 피,

즉 그녀의 초경과 이에 대한 공포로 발작상태에 빠지는 그녀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드 팔마라는 감독 자체가 원래 공포영화라는 틀 내에서 여성성이 안고 있는 문제적인 측면들을 심도있게 다루어오기도 했지만, 특히 이 영화에서는 생리로 상징되는 여성의 육체성과 여기에서 기인하는 공포를 영화의 핵심이자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캐리는 생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열동작용(telekinesis, 마음의 힘으로 사물을 움직이는 초현실적인 능력)을 하게 되면서, 괴물, 더 정확하게는 어린 마녀가 되어간다. 더구나 상급생 파티에서 율해의 커플로 뽐낸 캐리는 친구들의 장난으로 돼지피를 온몸에 덮어쓰게 되는데, 이 때부터 이 영화의 공포는 절정으로 치달는다. 마치 온몸으로 생리를 하듯이 전신에 피를 덮어쓴 캐리는 막강한 힘으로 파티장의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간 그녀는 딸의 타락에 절망하며 자신을 죽이려는 어머니마저도 죽이게 된다.

결국 여성이 자신의 '육체성'과 맺는 불편한 관계는 캐리의 어머니가 보여주듯이 극단적인 육체혐오증이나



뱀파이어 영화에서 여성은 초기에는 무기력한 희생자에 머물지만 나중에는 치명적인 유혹자와 공격자가 된다.

캐리의 경우처럼 자신과 자신의 육체를 낳아준 어머니를 함께 죽음으로 몰아넣는 파괴성으로 표상될 뿐인 것이다. 그러나 이 영화의 섬뜩한 마지막 장면(내용은 영화를 직접 보시길)은 여성의 육체성이 가하는 위협이 가부장사회 속에서 영속될 것임을 강력하게 암시해 준다.

매혹적인 뱀파이어: <악마의 키스>

공포영화의 주된 소재 중의 하나인 뱀파이어리즘은 사실 성적 환상과 에로티시즘을 가장 강력하게 공포와 결합시킨 경우이다. 우선 피를 빠는 행위는 모유를 빠는 행위와 더불어 남성에게서 정액을 짜내는 여성의 행위와 동격에 놓이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서 느끼게 되는 절대적인 일체감은 물론이고 노골

적인 성적 흥분감을 환기시킨다. 또한 이런 유형의 영화들에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는 미묘하게 변화하게 되는데, 최초에는 무기력한 희생자에 머물던 여성이 항상 치명적인 유혹

자와 공격 행위의 공모자가 되어가기 때문이다.

<악마의 키스>(토니 스코트, 1983)는 뱀파이어리즘이 담고 있는 치명적인 유혹의 이미지들을 현란하게 펼쳐 보이면서 시작된다. 여자 뱀파이어인 미리엄(까트린느 드뇌브)은 남자를 불문하고 타인의 피를 통해 불멸성과 영원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그녀는 2000년 이상 파트너들을 바꿔가며 살아왔고, 200년간 함께 해온 존(데이비드 보위)의 육체가 급속도로 노화해가자 새로운 파트너로 여성과학자인 사라(수잔 서랜든)를 선택한다.

여기에서 이제 뱀파이어의 역사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해서 다시 쓰여질 뿐만 아니라 여성들간의 관계를 정점으로 해서 매듭지워진다. 더구나 이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는 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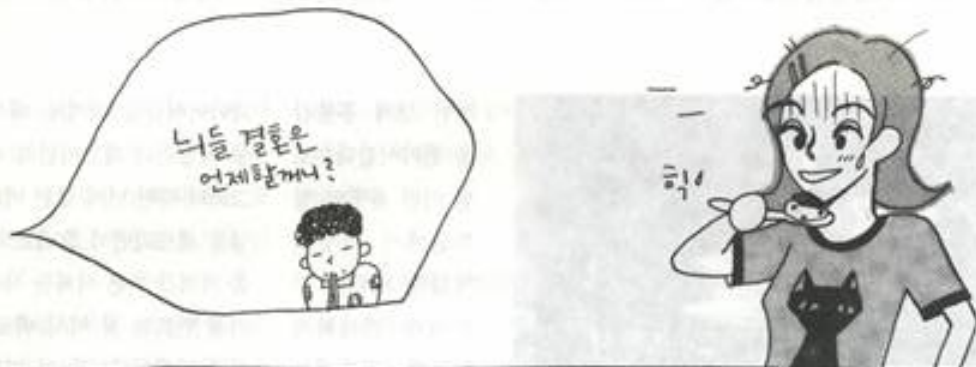
파이어리즘을 매개로 해서 표현되는 두 여성간의 레즈비언적 이미지이다. 그러나 수천 년에 걸친 미리엄의 불멸성을 깨뜨리면서 그녀로 하여금 자신을 거쳐간 짝은 시체들 사이에서 죽어 가게 만드는 것 역시 바로 같은 여성과의 관계이다. 즉 이 영화는 한편으로는 뱀파이어리즘을 통해서 여성의 섹슈얼리티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성과 매혹을 표현하고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섹슈얼리티가 여성들간의 관계로 향할 때 얼마나 치명적이고 저주받은 것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엄청난 유혹의 힘으로 표출되는 과잉된 섹슈얼리티와 파트너들을 바꿔가면서 영위되는 영속적인 섹슈얼리티가 여성의 것일 때, 더구나 그것이 동성을 향한 호모섹슈얼리티까지를 아우르게 될 때 스크린이미지가 얼마나 매혹적이면서도 끔찍한 것이 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악마의 키스>만큼 화려하고 인상 깊게 보여주는 영화는 없을 것이다. □

주유신
(영화평론가, 중앙대 영화학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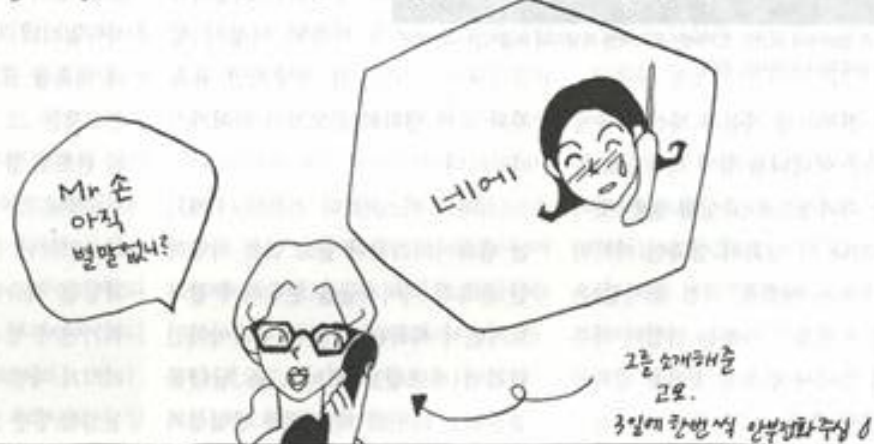
MISS NO!

ਮਾਤਿਵਧੁੰ.

결론 7월경의 남태평양의 만성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피할 수 없는 기대의 (질문) 환상들.



특히나 선이라든가 어른들의 중재로 이루어진 만행이라면 그 회사를 미화하기란 더더욱 힘들법.



평생 냉기면 무리의 나이는 스물 아홉
아홉수에는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은근히 결혼은 강요당하고 있는 춘치.



그렇긴 한데, 이쪽도 결론을 서두를 수 없는 사정이 만만치 않다고요.



언니 앞질러 시험가는 걸은
절대 보실수 없다는
완벽한 할아버지.



직장도 문제다. 기득이나 IMF 한파다 뭐다 내내 경제가 어수선한 이즈음 우리회사 사정도 예외가 아니어서 인원감축한다더라 월급삭감한다더라 하는 소문들로 새끼가 툴툴대며 덜컥 결투하고 나서 극조장장한다곤 하면 그도 큰일



경북도 경주에 있는 내지리와 상감안이 언제 폐지처분될지 모르는 모습
 상감안을 보면서 풍화가 되었다가도 내일을 준비하지 않음
 어쨌든 내일은 풍화가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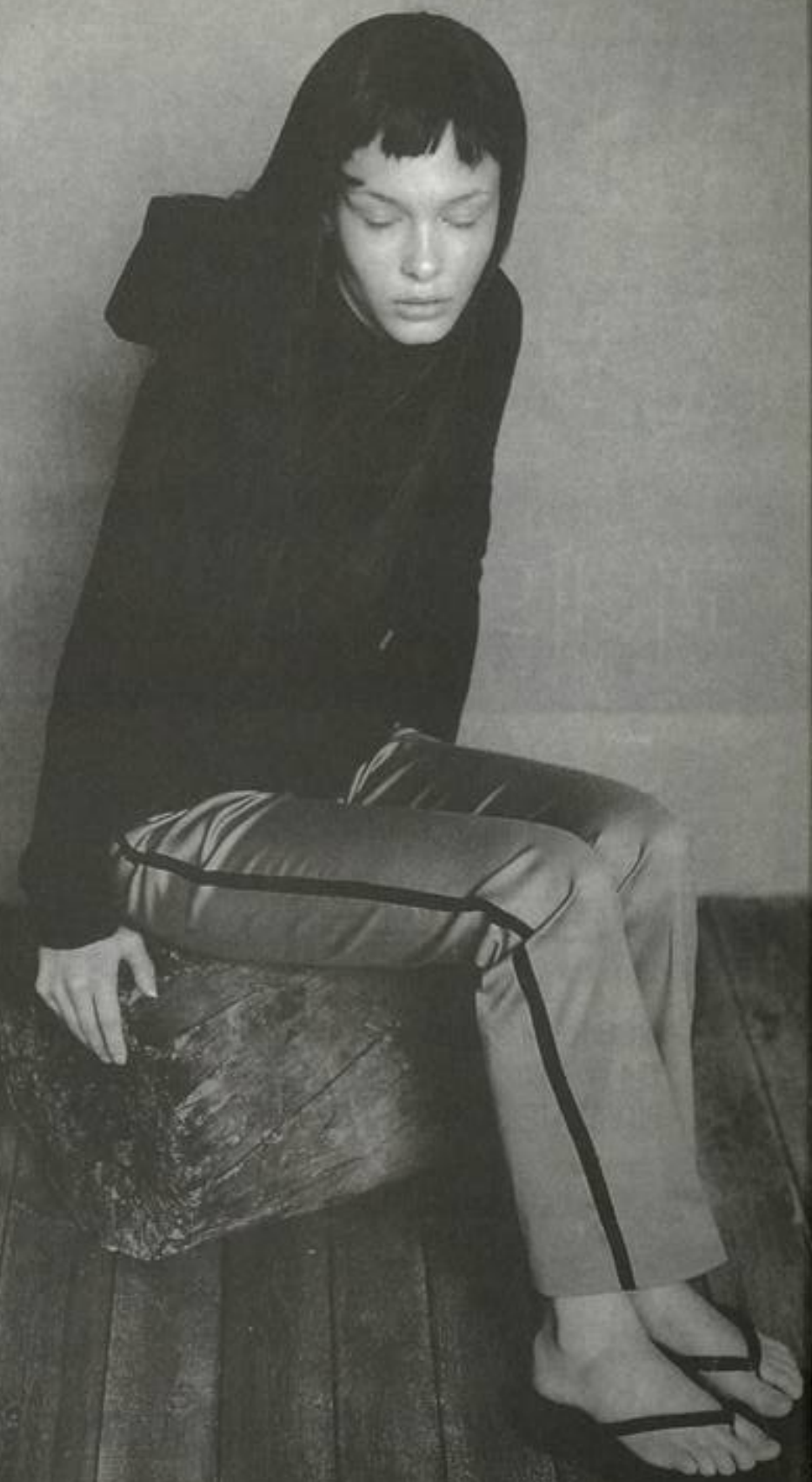


광고 패러디

너를 물렀을 때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너를 물렀을 때 세상은
고독이었습니다





ITALIENISCHE
REISE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

“새벽 3시...
아무도 몰래 나홀로 떠났다”

베네치아에서 로마, 나폴리를 거쳐 시칠리아까지
1년 9개월에 걸친 괴테의 이탈리아 예술기행.
위대한 시인의 진지한 자기 성찰과 참회의 고백.

- 낯은 관습의 틀 깨고 홀로 여행하면서 느낀 진지한 내면의 세계 담아 <세계일보>
- 관광객이 아닌 여행가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얼마나 풍부한가? <조선일보>
- 베네치아, 로마, 나폴리 등에서 접한 고대 예술작품에 대한 뛰어난 묘사력이 압권 <중앙일보>
- 문학적 상상력의 고갈 위기에서 시작된 이 여행은 괴테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남겼다. <한겨레신문>

● 박영구 옮김 / 값 15,000원

전국 서점 비소설 베스트셀러

CROSS-OVER

동굴 자신의 몸을 알아! 얼굴을 보듯 성기를 보자!
사이버윈도우 컴퓨터는 남성의 기계인가?
여자의 여행 나이 육십에 떠난 유럽 배낭여행
세계의 여성들 석기시대 주인은 여자였다! 할리우드 여성파워
대모 세리 펜싱/ APEC에 반대하는 세계의 여성들
경제계 고위직에 진출하는 일본 여성들의

새로하는 성교육 1

자신의 몸을 알아! 얼굴을 보듯 성기를 보자!

창간호부터 연재된 '동굴'은 잘못된 신화를 깨고 남성의 폭력적인 성에 억눌려 있던 여성의 주체적인 성체함과 성의식 개발을 위해 마련된 난입니다. 그동안 뜨거운 인기를 누리며(11월신방 최고의 스타) 동굴을 집필해주던 이경미씨의 연재가 지난 호로 잠정 마감했습니다. 이경미씨 연재 원고의 내용은 '자위에 대하여' (97 여름), '처녀막의 진실' (97 가을), '길들여진 쾌락습관을 벗어나서' (97 겨울), '그 여자의 첫경험' (98 봄) 등입니다. 그 동안 좋은 원고 써주신 성폭력상담소 이경미씨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사를 드립니다.

이번 호부터 동굴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한국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이 다분히 남성중심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불만의 소리에 따라 구체적이고 혁명적인 성교육을 동굴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호응 바랍니다.



여성의 성기는 모두 다 다르게 생겼다. 일견 비슷해 보이는 성기일지라도 자세히 보면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없다. 모든 여성들의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말이다. 물론 어떤 성기가 더 반듯하고 어떤 성기가 잘못됐는지 하는 평가를 할 수는 더더욱 없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번씩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 보며, 자신의 얼굴 중에서 어느 곳에 주름이 많은지 주근깨가 어디에 물려 있는지 눈꼬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성기 역시 거울로 얼굴을 보듯이 그렇게 비춰볼 수 있다. 그러나 여자들이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며 얼굴을 치장하는 데 들이는 시간과 공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성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한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은 자신의 성에 대해 무지하지만 자신이 그렇다는 사실에 대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느낀다. 여성들은 자신의 성에 대해 무지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게끔 세뇌받았으며 성에 대해 무지한 여자가 착한 여자라고 교육받아온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또 우리는 그 동안 여성 성기에 대한 혐오감을 문화적으로 학습받아 왔다. "사내아이의 고추는 예쁘고 대견스러운데 계집아이의 것은 못 생기고 부끄러워." 우리는 어른들의 이런 이야기를 꽤 많이 듣고 자랐다. 남성의 성기가 어린 시절부터 자랑스러운 것, 밖에 내놓고 과시해도 되는 것으로 여겨진 데 반해(어린이들의 백일사진에 남자아이는 고추를 내놓고, 여자아이는 가리고 사진을 찍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여성의 성기는 추한 것, 부끄러운 것, 불결한 것, 감추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었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신의 성기를 너무나 부끄러워 하고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수치스러워 한다. 그러니 자신의 성기를 거울을 통해 직면한다는 것은 너무도 낯설고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바꿔보자. 여성의 성기는 아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성관계를 가질 수도 있지만 소변을 배설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신의 성기를 한번 마주해 보자. 그냥 선 자세로 볼 수 있는 성기의 외형 말고 그 내부의 구조를 말이다. 혼자 있을 수 있는 한적한 시간에 아주 편안하게 바닥에 앉거나 의자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거울에 비춰본다. 좀 더 정확히 보기 위해 스탠드 불빛을 이용할 수도 있다.

비너스의 둔덕: 먼저 배 아래로 완만한 언덕처럼 솟아 있는 비너스의 둔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너스의 둔덕이란 선 자세로도 쉽게 볼 수 있는, 음모가 자란 곳이다. 음모는 겨드랑이 털과 마찬가지로 성년이 되었을 때 최초로 많아지다가 폐경기 이후에는 점차로 줄어든다.

외음순: 비너스의 둔덕에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골반뼈의 뒀 앞 부분을 이루는 치골이 딱딱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 치골의 양쪽 아래로 외음순이 있다. 외음순은 양다리 사이에 음모로 덮여 있으며 이제 막 솟아나오는 열대지역의 두터운 꽃잎 같기도 하지만 언뜻 보기에 단정하고 분명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

내음순: 외음순을 벌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외음순 안쪽으로 또 다른 입술 모양의 내음순이 나온다. 이것은 외음순에 비해 훨씬 얇고 부드럽고 매끄러우며 만약 성적으로 흥분돼 있을 때라면 축축하게 젖어 있을 것이다. 아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가는 혈관들이 그물처럼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외음순과 내음순은 우리의 입과 마찬가지로 큐피드의 키스마크같이 생기지는 않았다. 얼핏 봐도 예쁘게 생겼다고 말하기 어렵고 심지어 못 생겼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거울로 들여다보는 성기의 입술은 얼굴에 있는 입술과 달리 '원시적'이며 '야만적'이라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그러나 난꽃이나 그외의 많은 생물체의 모양을 상기한다면 곡선으로 휘말려 있는 성기의 입술모양이 원형적인 자연 형태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처녀막(hymen):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혼인의 신' 휘멘의 이름에서 유래했으며 흔히 '처녀막'이라고 불리는 질 입구의 근육을 의미한다. 질 입구를 완전히 뒤덮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고, 대부분 질의 입구가 장자리에 조금 남아 있다. 퇴화된 근육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보통 이 처녀막은 삽입생리대를 삽입하거나 심한 운동을 했을 때도 쉽게 찢어진다. 막이 찢어졌을 때 약간의 출혈이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특별한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막이 언제 찢겨졌는지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는 경우가 많다.

처녀막의 유무는 성경험의 유무와 아무 상관이 없다. 각 지역의 문화에 따라 초아의 출혈흔적이 있는 침구를 내보이는 것이 혼례의식에 포함된 경우도 있지만 이는 순전히 의례적인 것이며, 종종 출혈흔적을 만들기 위해서 달을 잡는 곳도 많다. 초아의 출혈흔적은 신체적인 진실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의례적이고 의식적인 차원에서 유래된 것이다.

클리토리스(clitoris): 여성의 성적 쾌감과 신화적으로 뱀어진 클리토리스(올해)는 외음순의 맨 위쪽에 자리하고 있다. 연필 끝에 매달린 고무나 뿔까지 속의 콩알처럼 생긴 클리토리스는 보통 두꺼운 피하조직에 덮여 있어서 외음순을 벌리고 손가락을 집어넣어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성기를 들여다 본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실제 이 클리토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성들도 클리토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클리토리스의 존재에 대해 성교본이나 생물학교재에 나온 그림을 통해서 안다.

어쨌든 당신이 손가락을 질입구 속으로 집어 넣고 누르면서 들어가면 지우개나 콩알같이 생긴 귀두의 일부분에 자극에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문질러주면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귀두부분이 부풀어오르는 것이 보일 것이다. 이것은 남성의 발기와 비슷한 현상이다.

자궁경부(cervix): 무릎을 꿇고 손가락을 질

속으로 깊이 집어넣어 보면 자궁의 맨 위쪽 입구 부분에 해당하는 서비스(자궁경부)를 감지할 수 있다. 배란기에는 질 벽면의 피하조직이 부드러워지며 점액질의 분비물이 나와 이 곳을 습하게 만든다. 배란이 끝나면 다시 건조해지는데 평소에는 손가락을 깊이 넣어보면 땀에 불우물이 지듯이 통로를 느낄 수 있다.

자궁(uterus): 자궁은 손가락을 넣어도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자리하고 있으며 생김새는 자궁경부에 매달린 서양배나 무화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사람에 따라 자궁의 줄기가 앞쪽으로 휘어져 있기도 하고 또는 뒤쪽으로 휘어져 있기도 하다. 자궁은 초경부터 시작해서 폐경 때까지 수축운동을 매우 활발하게 하는 활동적인 기관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폐경 이후에도 저절로 수축운동이 이루어지는 여성이 있다.

자궁은 그냥 여성의 성기 안에 매달린 자루가 아니다. 그것은 비록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특정 자극에 의해서 스스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한다. 또 생리기간 중에는 자연적으로 수축운동을 하는 살아 움직이는 근육조직의 네트워크인 것이다. 생리기간 중에 느끼는 통증은 자궁의 수축운동의 결과인 경우가 많으며 오르가즘을 느낄 때에도 수축운동이 일어난다. 때로 오르가즘 이후에도 수축운동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통증이 수반되기도 한다. 임신 중에는 일종의 리허설처럼 수축운동이 규칙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가슴 특히 젖꼭지에 자극이 가해졌을 때도 자궁이 수축운동을 할 경우가 있다. 자궁과 젖꼭지 사이에는 특정한 상관관계가 있다. 모유를 먹인 여성들은 종종 이런 관계를 알아차리기도 하는데 즉 출산 직후 며칠 동안 아기가 젖을 먹을 때마다

자궁의 통증을 경험하는 것이다.

오르가즘을 느낄 때 이 자궁근육은 0.8초 간격으로 수축운동을 일으킨다. 자궁근육은 질과 항



문을 사이에 두고 8자형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생식기관의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으며 아마도 여성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일 것이다.

여성 생식기관의 구조는 초경을 시작으로 폐경 때까지 주기적으로 극적인 변화를 반복한다. 폐경 이후에도 여성의 질과 자궁은, 성적으로 흥분되거나 오르가즘을 느낄 때 폐경 이전과 마찬가지로 극적인 운동과 변화를 경험한다. 질과 자

궁과 나팔관, 난소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혈관의 네트워크는 이들 여성 생식기관의 모양과 크기, 형태를 다양하게 변화시킨다.

부끄러운 일이 생겨 얼굴이 붉어질 경우라도 우리의 얼굴 모양은 별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궁과 성기는 마치 꽃봉오리가 활짝 벌어지듯이 모양새를 바꾼다. 혈액이 몰려 자궁 혈관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이다. 당신이 손가락으로 성기를 자극했을 때 외음순과 클리토리스의 귀두가 부풀어오르는 등 육안으로 성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자궁 깊숙히 있는 근육 조직도 변화를 겪는다.

난소: 난소는 난자를 생산하는 공장과 같다. 난소는 두 개로 이루어졌으며 한 쪽 난소는 마치 접질려 있는 아몬드 모양을 하고 있다. 한 쪽 난소가 기능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쪽이 자연스럽게 기능을 이행하며 다음 생리가 시작되기 2주일 전쯤 성숙된 난자를 내놓는다. 여성은 일생 동안 약 300회의 배란을 한다. [1]

편집부

컴퓨터는 남성의 기계인가?

요즘 내가 자주 들르는 통신망의 한 여성 토론실에서 생식 기술이 화제에 올랐던 적이 있었다.

'여성을 위한 피임법'에 대해 토론하던 중이었다. 토론에 참여한 여성들은 여성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보다 완벽한 피임법'이 무엇일지를 논의하고 있었고, 경구용 피임약(먹는 피임약)을 계속 복용할 경우의 고통들, 각종 피임도구들이 여성에게 가하는 위해성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결국 가장 안전한 피임법은 콘돔이라는 작은 결론에 이르렀지만, 폐감이 감소한다거나 남자 체면에 문제가 된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남성들이 잘 쓰지 않으려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 남성들과는 섹스하지 않는 것만이 상책일까? 그러나 그렇게 당위적으로 이야기하고 말기에는 문제가 있다. 많은 남편들이 실제로 콘돔 사용을 기피하고 있고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피임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여성 토론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남성이 하는 정관수술이 여성의 수술보다 간편하고 특히 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만일 어느 날 자녀를 갖고 싶을 때 복구가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이 때 '한 방에 통하는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생식기술이었다. 한 여성토론자가 제안하기를, 생식을 위한 정자를 따로 은행에 보관하고 평소에는 남성의 정관을 묶어둔다면 남성에게나 여성에게나 번거로움이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토론자들의 반응은 대단히 열렬했다. 생식기술의 발달이 여성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 어린 관측들이 제기되었다. 기술의 힘에 대해 이때 여성들은 신뢰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서 몇몇 여성들이 기술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나는 생식기술 자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결국, 간간히 지속된 지금까지의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생식기술적 대안'을 포기했다.

늘 그렇듯 이 자리의 핵심은 컴퓨터 기술에 대한 것이고, 오늘은 컴퓨터 기술의 남성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전에, 이번에 화제가 되었던 생식기술에 대하여 먼저 살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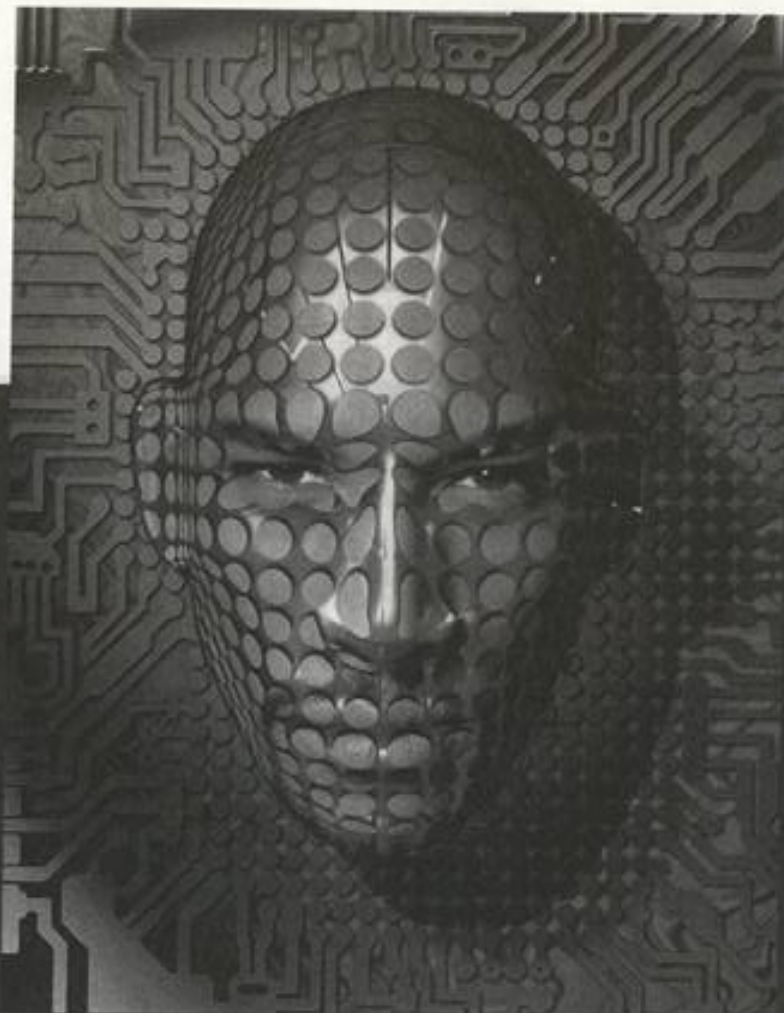
생식기술의 반여성성에 대해서는 서구 페미니스트들간에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입장은 기술의 '활용' 측면에 대해 비판을 하는 입장이다. 즉, 생식기술은 공평하게 발달하고 있지만 그 혜택이 여성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학이 저비용, 저기술의 예방보다는 고비용, 고기술의 치료에 중점을 두고 발달함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제3세계 여성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여성적 사회에서 친여성적 기술은 가능한가

이보다 근본적인 비판은, 기술 자체가 품고 있는 남성적 의도에 초점을 맞춘다. 생식기술 자체가 '여성의 완성은 모성'이라는 전제하에 모성으로서의 여성의 성역할을 강화하려는 기존 사회의 의도를 반영해 왔다는 것이다. 이 기술의 수혜가 질실할 레즈비언 부부들에게는 오히려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기술이 어떤 용도하에서만 허용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생식기술의 발달도 '가부장제를 벗어난 방향'으로는 발전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통찰한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심지어 생식기술조차도 여성의 생식능력과 역할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고 공격한다. 과학기술의 활용이 남성중심적인 의도하에 놓여져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학기술 자체가 남성적이라는 것이다. 기술은 발전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맥락하에서 하는 역할은 현상유지의 정당화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컴퓨터 기술과 우리의 가상공간은 어떠한가?—'컴퓨터가 남성의 기계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컴퓨터와 지적 기술의 등장이야말로 여성들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들떠 있었다. 육체노동으로부터 정보처리기술로 핵심 기술이 이동함에 따라 노동과정에 '남성적인 힘'이 아니라 '여성적인 섬세함'이 요구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엔지니어'나 '프로그래머'와 같은 컴퓨터 직종을 언급할 때 우리는 남성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린다. 도전적인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미래를 개척하는 컴퓨터 전문직—'해커'의 이미지는 바로 남성의 이미지이다. 반면 70년대 경제발전의 근간이었던 여공들로부터 오늘날 반도체를 조립하는 수많은 미숙련 단순노동은 여성의 육체노동에 의지해 왔다. 지적인 '핵심 기술'은 남성적인 영역으로 여성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현실은 어쩌서 기술이 예측하고 있는

이미 큰 함의를 지니고 있다. 과학기술의 불평등성과 중립성에 대해 회의하는 것이다. 과연 반여성적인 사회에서 친여성적인 기술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온라인 성희롱,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의 여성의 배제를 지적해 왔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어 보다 많은 여성들이 가상공간과 기술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기술 자체가 여성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기술에서 남성성은 무엇이며 여성성은 무엇인가? 몇

'여성성'과 거꾸로 가고 있는가?

이를 둘러싼 입장도(생식기술에 관한 논쟁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한 가지는 컴퓨터 기술은 공평하게 발달하지만 성역할에 대한 기존의 사회 통념에 따라 여성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고 컴퓨터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컴퓨터의 사용과 그에 대한 교육은 논리력과 추론력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데, 이런 영역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이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통제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자 아동들과 여자 아동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성장하면서 받는 컴퓨터 교육에 대한 미국의 한 사례

컴퓨터는 남성의 기계인가?



믿어왔다. 아니, 적어도 기술의 중립성은 의심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 기술들이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잉태되고 출산된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컴퓨터와 자동화 기술의 문화는 원래 남성적이다. 모든 공학은 반여성적인 남성의 이미지를 기획한다." 이는 당혹스런 말이다. 많은 여성들이 컴퓨터 기술만은 우리 편이라고 굳게 믿어왔다. 그러나 그 기술들이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잉태되고 출산된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조사는. 남아들과 여아들의 성역할에 대한 구분과 기대가 컴퓨터 교육에 비공식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에서 원인을 찾으면서 기술에 면죄부를 주는 설명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기술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이 있다. 바로 '컴퓨터 기술의 남성성'에 대한 비판이다. 여성학자 주디 와이즈만(Judy Wajcman)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컴퓨터와 자동화 기술의 문화는 원래 남성적이다. 모든 공학은 반여성적인 남성의 이미지를 기획한다." 이는 당혹스런 말이다. 많은 여성들이 컴퓨터 기술만은 우리 편이라고 굳게

우리가 현실을 정직하게 본다면 금세 이 비관적 사실을 통찰할 수 있다. 원래 지적인 노동은 남성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 아니, 남성의 영역/ 여성의 영역이라는 이분법 자체가 남성중심적인 사회가 만들어낸 신화였다. '기술의 여성성'이라는 말은 가정적이고 부드러운 여성의 성역할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가전제품의 개발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는 동안 실제 기술은 남성들의 것이 되어왔다—가전제품 역시 남자가 만들고, 작동한 여자들이 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 와이즈만은 이를 두고 '남성이데올로기'는 건고하지만 한편으로 대단히 유연하다. 남성성이 어떻게 설명되고 여성성이

어떻게 관측되든지 간에 여성은 본래 기술에 부적합하다고 결정나게 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컴퓨터에 쉽게 공포감을 갖는 현실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나는 "컴퓨터가 무서워"라고 말하는 여성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컴퓨터가 무섭다는 것은 발길을 혼자 걷는 것과 같다. 발길을 여성이 혼자 걷는 것처럼 컴퓨터에 대한 공포는 실제적인 위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이데올로기로 인한 효과와 같은 것일 수도 있다. 왜 컴퓨터를 써보기도 전에 여성들은 자신감부터 잃는가? 무엇이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컴퓨터에 '더' 공포감을 갖도록 만들었는가? 왜 우리는 컴퓨터의 남성성에 은연중에 동의하게 된 것일까?

여성의 경험으로 '기술' 다시 보기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이미지—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은 물리적인 힘(또거나 조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거나, 컴퓨터로 하는 작업은 고도의 수학적 능력과 논리력을 갖춘 엔지니어들의 영역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주입되어 온 탓일 게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런 주입이 거짓말만은 아니라는 데에 있다.

즉, 실제로도 '컴퓨터'는 남성적인 기계이다. 이 말은 그 기술의 주도권을 남성중심적인 사회가 쥐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남자들이 컴퓨터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리고 그 주도권은 위에 나열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 합리화되고 있다. 컴퓨터가 남성적인 기계라는 것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겁고도 힘든 첫 걸음을 떼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의심해본 적이 없는 기술의 중립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다. 기술은 친여성적이거나, 적어도 반여성적이지 아니하거나 하는 생각은 모두 환상이다. 기술은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생겨났을 당시부터 이미 기존 사회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처럼 뱀속들이 반여성적인 사회에서 기술이 여성친화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리가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 여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꿈을 꾸고 있을 처지가 못 된다. 엄혹한 현실을 목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얼마 전 나온 시청률 속에 방영을 마친 MBC 주말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에서 최진실은 출산후 직장에 복귀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여성들의 진실은 언제나 드라마와는 정반대에 놓여져 있다. 정리하고 1순위가면서도 동시에 실직한 남편 대신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등이 떠밀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물론 여성들은 본디 자신의 이런 억눌린 경험 속에서 구체적인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왔다. 이제, 현명한 여성들이 컴퓨터 기술에 대해서도 맥락 안에서 통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는 남성들은 못 하는 말이다.

나는 나와 함께 생식기술에 대해 토론을 했던 친구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한다. 자신의 입장에서 기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이 반여성적이라면 때로는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 내가 그들에게서 확인한 태도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치열한 태도이다. [1]

장여경



나이 육십이 떠난 유럽 배낭여행①

딸에게 뒤늦게나마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운하 옆의 물 위에 떠 있는 가옥들



은 경아,

하루 동안하듯 작은 배낭(너는 엄마 나이에 비해 너무 크다고 했지만) 하나만을 메고 한 달간 유럽여행을 다녀온 지도 어느덧 일년이 가까워 오는구나. 무사히 지나간 여정을 마쳤다는 안도감과 흥분으로 네게 단편적인 얘기들만 해줬다는 사실이 그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아 단단히 마음을 작정하고 편지를 써보기로 했다.

20대초부터 지냈던 유럽여행에 대한 열망을 육십세에 뒤늦게라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새삼 생각해도 참 감사하구나. 더구나 요즘처럼 IMF시대 위기에서라면 최소한의 비용을 들인 배낭여행일지라도 비난의 눈초리를 의식하지 않고 어찌 떠날 수 있었겠니? 4월 30일 은경이 너의 결혼식을

무사히 치른 지 한달만에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김포공항을 떠났었지. 오래 전 신혼 때 3년간 유럽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지금은 돌아가신 네 아빠. 80년 고2 때 걸스카웃 대표로 캄보리대회에 참가하느라 한 달간 유럽을 두루 돌아다녔던 너. 그리고 바쁜 직장생활중 틈을 내 유럽을 다녀온 경덕이(사위)와 병욱이(아들)에 이어 가족 중에선 제일 젊었었지만 내가 유럽을 여행하게 된다는 게 여간해선 실감이 나지 않았단다...

보약도 먹고 유언장도 쓰고

40년 전 엄마가 갓 대학에 입학했을 무렵, 미대생이었던 순곤이 아줌마와 진숙도로 음악을 미치도록 좋아했던 순곤 오퍼 덕에 미술과 음악을 자연스레 접하게 됐었지. 그 때부

터 시간만 나면 도서관에 틀어박혀 세계 유명화가들의 작품을 들여다보곤 했단다. 또 외국의 저명한 연주자나 오케스트라가 내한하면 내 이모를 꼬셔 부지런히 연주장을 찾아다녔었지. 이런 것들이 유럽에 직접 가고 싶은 마음을 부채질했고, 대학 졸업후 결혼했을 무렵만 해도 곧 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단다. 정말 결혼의 실상을 몰랐던 철부지였지... 내 꿈은 내가 노력해 '행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깨달았지. 하지만 나이들어 하는 여행도 괜찮더라. 막상 유럽에 발을 처음 디고 보니 '묵은 포도주와 잘 익은 사과'의 맛을 과연 젊은 시절에 알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구나. 그간 이 여행을 위해 새벽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기도를 드렸고 체력을 위해 생선 처음으로 보약이란 것도 먹어보았단다.

그런데 여행사에선 60세 환갑을 앞둔 내 나이에 대해 많이 당황스러워하며 가차없이 거절들을 하더구나. 하긴 가이드가 안내해주는 대로만 따라가는 여행엔 절대 만족 못할 거라는 내 성격을 잘 아는 너희들도 여행이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지 못했잖나? 같은 나이라도 남성이 이런 여행을 결심했다라면 그토록 여행사에서 만류했을까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한 여행사의 과장을 직접 만나 자신감을 당당히 내비쳤더니, 별 걱정 안 해도 되겠다며 오히려 내 케이스가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농담을 하며 결국 허락을 했었지.

정작 일이 결정되고 나니, 나이 들어도 집안의 크고작은 일은 영원히 주부의 몫이라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지. 다른 이들에 비해 별 부담이 없는 편이었지만, 거동이 불편한 내 외할머니 문제는 좀 심각했었지. 할머니를 비롯해 너의 외삼촌과 주변사람들이 나를 좀 매정한 딸이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지만, 여자가 일생 그런 눈치가 무서워 진정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결단을 못 내린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초라하겠나? 그래서 난 과감히 '무시'해 버렸다. 다행히 인자 이모가 가까이 살아서 할머니 문제는 걱정 말라고 해서 한시를 놓았지.



내 결혼 전엔 너와 병욱이와 함께 유럽땅을 밟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랐지만, 사실 그 당시 유럽에 가장 함께 가고 싶었던 사람은 너의 이모 바로 내 여동생이었고, 가는 곳마다 이모 생각이 늘 따라다녀 많이 안타까웠단다. 남보다 몸이 많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책임감과 헌신성이 너무 강해 우리집 일까지 날날이 봐주느라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늘 뒷전이었던 너희 이모를 강제로라도 끌고 올 걸 하는 생각을 참 많이도 했단다.

떠나기 전날 유언장을 작성하고 병욱이에게 유언장을 잘 챙기게 하고 만약의 경우 세브란스병원에 시신을 기증할 것 등을 당부한 후에야 홀가분한 맘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을 회상하면 지금도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

'걷는' 여행의 즐거움

유럽에서 처음 닿은 곳은 영국 런던이었다. 내 스케줄은 미술관, 박물관, 건축물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버스, 전철을 섬없이 갈아타느라 아무리 욕심나도 한 곳에서 기껏 3시간 정도밖에 보내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때론 차도 마시는 여유가 그만이어서 앞으로 네가 유럽에 다시 가게 되더라도 꼭 '걷는' 여행을 권하고 싶구나. 또 '걷는' 여행이 문화적 충격을 '피부에 와 닿게 느끼는' 여행이라면, 정해진 관광용 차를 타고 하는 여행은 정해진 정류장을 지나가듯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스쳐지나가는' 여행으로 비유할 수 있겠지.

이런 중에 자연사박물관 앞에서 만난 골게 성장한 70대 여성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단다. 자신이 이 박물관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 적어도 1달에 1번은 이곳에서 강좌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며 재미있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구나. 그의 안내로 박물관을 구경하면서 늙어간다는 것은 삶의 풍요로움을 농축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또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에선 영문학 전공후 책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유학온 젊은 여성을 만나 동무하며 차도 함께 마시고 피카딜리가에서 풍선중인



영국 로버트 앤드 앨버트 박물관 내의 소장품들

뮤지컬 <미스 사이공>을 같이 관람하기도 했지. 월남판 나 비부인이었어. 호텔이 예약되어 있지 않았다면 더 머무르고 싶은 곳이 런던이었던단다.

벨기에를 거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기 위해 유레일 패스로 기차를 탔는데, 병욱이가 전부 1등칸으로 예약을 해주었기에 쾌적한 여행이었다. 가끔 한국학생들을 보고 싶어 그들이 주로 이용하는 3등칸에 갔다가 너와 병욱이, 그리고 경덕이의 모교이기도 해서 한층 호감이 가는 대학 4학년생을 만났는데, 참 예의바르고 생각이 깊더구나. 자신이 끔찍히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 런던에서 그 유명한 버리코트를 꼭 사다드리고 싶었지만, 막상 샅에 가보니 우리나라 학생들 천지여서 오히려 어머니에게 그걸 사다드리지 않는 것이 좋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 포기했다고 하더구나.

네덜란드에서 만난 고희의 그림

네덜란드에선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고희의 작품만을 모은 고희미술관을 갈 것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을 지경이었어. 운하에서 배를 타고 미술관 가는 길을 따라 줄지어 있는 장난감 같은 예쁜 집들로 마치 동화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같더구나. 안네 프랑크의 집도 지났지. 고희 미술관에 도착해 감격하면서 이모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잠시 생각해 봤단다. 미술관 4층 끝까지 3번이나 반복해 다니면서 다시는 고희가 내 맘 속에서 지워지는 일이 없도록 보고 또 보며 여한없이 지냈단다. 작품 서너 개마다 감시원이 한 사람씩 서 있어 이들이 얼마나 고희를 아끼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고희 풍경화에서 흔히 보던, 하늘을 향해 불꽃처럼 휘말려 올라가 광기를 느끼게 했던 전나무와 갈가마귀매들에 대해 어떤 평론가들은 “작가의 정신병 영향 때문”이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고희의 고향인 이 곳에 와보니 그런 풍경은 바로 네덜란드 특유의 풍경이 아니겠니? 유럽 다른 곳에서도 종종 느낀 바지만 그 작가를 이해하려면

그가 생활했던 곳에 직접 와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구나.

그런데 숙소로 돌아가려고 배를 타는 중에 좀 불쾌한 일이 생겼단다. 여성안내원이 올라와 내 표만 검사하는 게 아니겠니? 왜 나만 검사하느냐고 항의했더니 전혀 미안한 기색없이 내가 표가 없어 보였더라나? 그의 유창한 영어실력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형편없이 오만한 인종차별주의자로 보인 것은 유색인종인 나의 어쩔 수 없는 과잉반응인가? 고호 전용미술관을 갖고 있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를 용서하기로 했다.

그전 그렇고 네덜란드에 온 우리나라 여대생 대부분은 왜 이런 미술관보다 섹스박물관을 더 선호하는지 참 알 수 없더구나. 더구나 보고나선 기분이 안 좋다고 하면서도...

하이델베르크를 가느라 라인강을 끼고 달리는 기차 안에서 건너편 좌석에 앉은 미국여성들과 얘기를 나누게 됐단다. 그들은 여름방학을 이용해 유럽의 고성만을 찾아다니는 스케줄을 짜 여행하고 있다고 하더구나. 편한 욕심 부리는 부실한 여행보다 주제가 분명한 여행.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니? 우리 식구들도 언젠가 유럽 고성을 꼭 돌아다니고자구나.

맥주의 본고장답게 핀헨의 맥주 맛은 내가 맛본 맥주 중 최고였다. 맥주집에서 흘러나오던 우렁찬 합창소리와 어울려, 길가에 자리한 카페의 커다란 나무 밑에 앉아 독일인들처럼 맥주와 음식을 먹던 중에 우연히 독일 여성과 동석하게 됐어. 내가 여성의 전화에서 일하던 당시에 독일 단체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이 기억나 그 얘기를 하며 그에게 저녁식사를 대



접했더니, 굉장히 놀라는 표정이더라. 내가 너무 감상적이었나. 나 자신 이렇게 느낀 바를 즉각적으로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니, 스스로가 멋진 느낌이 들



네덜란드의 풍경을 잘 묘사한 고희의 작품 <싸이프러스와 발이 있는 길>

면서 혼자 여행하는 것이 통념과는 달리 참 좋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다.

내가 언젠가 쓴 글 제목인데 ‘남성과 사회가 거들어야 아이들이 잘 자란다’라는 게 있었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핀헨의 현대미술관에서 목격한 것을 이야기할게. 칸딘스키의 작품이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는 이 곳에서 나무바닥으로 된 큰 방에 들어섰지. 울창줄망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엎드린 상태에서 칸딘스키의 대작을 보고 있더구나. 선생님은 탁자에 칸딘스키의 작품집을 쌓아놓고 가만히 앉아 있고 관람객들은 그림을 보는 학생들 걸을 조용히 지나가고... 유럽 어느 곳을 가든지 부모와 조그마한 배낭을 짊어진 어린 자녀가 손잡고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하기도 하며 함께

여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정말 부러운 교육환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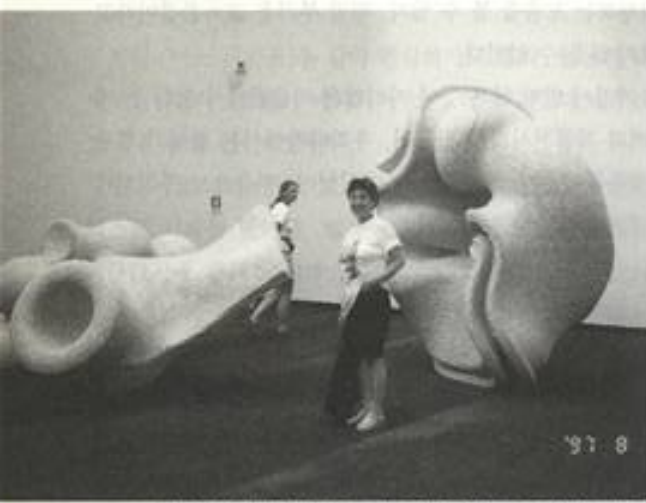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잡은 미술관에서 모더 존 베커의 작품전시회가 있었어. 우리나라에서는 접하기 힘든 작품들이었지. 따뜻함이 스며있었어. 처음으로 무리하게 베커의 화집도 구입했다.

아이들의 천국, 핀헨의 현대박물관

핀헨을 떠나기 전날 기차 타고 잘츠부르크를 다녀왔단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장소를 그대로 둘러보는 음악관광여행이었다. 동양인은 나 하나뿐이고, 잔잔한 호수가 있고 보트가 그림처럼 떠 있으며 아름다운 꽃밭에 둘러싸여 있는 곳곳에 음악 연주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잔치 분위기처럼 들떠 있고, 흥겨웠어.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관광상품을 만들 수는 없을까.

핀헨에서 프라하로 가는 밤기차를 탔지. 국경근처에서 밤기차 도둑들이 극성을 부린다는 말을 듣고 침대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 기차가 달리는 소리를 들으며 여권과 돈을 한시도 품에서 떼어놓지 못했는지라 아침에 프라하에 도착해서는 몹시 피곤했단다. 택시를 탔지만 흥정요금보다 몇 배나 비싼 값을 요구해 호텔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지배인까지 불렀지만, 자국민들이어선지 별 도움이 안 됐고, 택시운전수가 내 짐을 안 내줘서 끝내 그 영터리 요금을 물었다. 그래서 그런지 프라하에 대한 인상이 장엄한 건축물들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좋지 못했지. 관광객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고,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여전히 공산주의의 틀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고 말았어. 그러던 차에 네 전화를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프라하에선 카프카의 생가도 들르게 되었단다. 내가 좋아하던 카프카가 살던 집은 의외로 시멘트로 지은, 아주 낡고 작고 초라한 집이었어. 그 곳에 직접 가보니 그가 쓴 소설 <성>에 호르고 있는 갑갑하고 짓눌린 듯한 분위기가 쉽게 이해되더군. 후에 유대인 거주지역을 지나가면서 카프



영국 런던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의 작품 앞에서 있는 필자.

카가 살았다는 아파트 비슷한 건물도 지나갔는데, '카프카'란 이름만 작은 간판에 쓰여 있더군요.

체코는 공산국가였고 현재는 가난한 나라에 속하지만, 그들이 보유한 문화유산은 대단해서 시내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들은 우람하고 웅장하기 짝이 없고, 도시 외곽까지도 그런 건축물들로 꽉 차 있더군요. 다양한 노선의 버스시간표도 정확한 편이고, 서투른 영어로나마 친절히 가르쳐주려고 노력하는 것 하며, 나름대로 소박한 인간성을 풍기는 곳이었다. 노점상인, 버스기사 등 모두가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다.

그간 여행을 다니며 터득한 바로는, 영어가 잘 통하지 않고 관광명소를 찾아다니기 힘든 곳일수록 당일 관광코스를 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 중요한 곳마다 가보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거리를 천천히 거닐며 그 곳 분위기에 젖어보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다.

유럽 어느 국가보다 관광객맛이가 미비해 보이는 곳이 바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였다. 그러나 내 숙박호텔은 지난 날 고급 사교클럽으로 유명했던 곳이어서 19세기풍으로 귀족을 대접하던 풍습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 식사가 즐거웠던 것이 기억난다. 노트르담의 축소판이라고 불려지는

마치시성당은 몹시 아름다웠고, <어부의 성채>는 인상적인 건축물이었다. 1일 관광코스엔 박물관 관람이 들어 있지 않아 박물관을 코 앞에 두고도 외관만 훑게 돼서 속상했지만, 웅장하고 다양한 건물들을 단기간에 일별하는 맛도 괜찮더군요. 강을 따라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수많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형성돼 있었고, 가지각색의 레이스제품들과 꽃을 수놓은 조끼와 망토가 정말 충동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더군요.

유럽여행을 떠나는 수많은 딸들에게

여행 막바지가 다가오니 외아스러웠던 점 한가지가 한국 학생들은 서로 만나도 인사조차 없이 지나친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내게 거침없이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이었어. 그래서 난 그들에게 "당신들과 나는 실제 나이를 따져 보아도 할머니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겐 엄연한 이름이 있으니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지. 그후부터는 소문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박선생님'이란 호칭으로 부르며 인사하더군요. 내 나이 또래의 남성이라면 "할아버지"하고 불렀을까?

또 한가지 잔소리를 너희 젊은이들에게 해볼까?

여행중에 거리에 나서보면 어디에나 한국학생들이 보이는데 박물관이나 미술관, 또는 유적지에 들어가 보면 왜 그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걸까. 정말 궁금했다.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얼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모든 사람이 취미가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적 욕구와 호기심이 한창 활발할 나이들일 텐데...

이런 일도 있었다. 가끔은 여행중에 스케줄이 비슷한 여대생들과 한 호텔에 묵으며 그중 1명과 한 방을 같이 쓰기도 했단다. 그런데 이들 중 한 여학생이 비행장에서 언뜻 본 남학생에게 호감을 느껴 그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야. 여학생은 한국학생들이라면 반드시 들른다는, 뮌헨 최대 규모의 맥주홀에서 콧속으로 3일이나 기다린 끝에 그를 만났다고, 기적 같은 로맨스라고 우리에게 자랑



프라하의 카프카 생가. 사면으로 지은 보잘것 없는 집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을 하더라. 그 모습을 보니 좀 딱한 생각이 들었던다. 뮌헨까지 와서 한 남성을 만나기 위해 3일 동안 맥주홀에 '출근'했던 그 여학생의 여행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후에

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유럽여행 비용만 해도 그리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액수는 아니지 않나? **11**

박형욱

1937년 10월 평북 신의주에서 태어남. 길고 뽀얀 맑게 흐르는 압록강물을 바라보면서 압록강 다리를 건너 다녔던 어린 시절이 기억에 남는다. 앞날하여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학교 입학하듯이 결혼. 자신의 일을 하지도 갖지도 못한 채 두 자녀를 키우며 보낸 결혼생활의 의미없음에 항상 갈등.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지난 10여 년 동안은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펼쳐면서 능력있게 살았던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여성의 진화 자원상임위원에서 시작해 여성문제 전문상담가로, 여성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오십이 넘은 나이에 열심히 공부해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었다.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생각하거나 일할 때 여성이 아닌 당당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의 삶 자체를 즐기고 있다.

유럽여행에 관해서는 경제적으로나 자신에 대한 최초의 과분한 투자였다. 우리집 형편을 보더라도 과다한 출혈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예순, 무엇을 두려워하랴.

여행 마지막 날 파리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그 여학생은 그 남학생을 뮌헨에서부터 친구와 함께 쓰는 호텔방에 기거시키며 숙식을 '책임' 져주고 있구나? 거기다 여권과 돈을 소매치기 당해 한국대사관에서 수속을 밟고 있다고 여간 고생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나는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이 여행을 떠나 즐거움과 배움을 얻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 글을 쓰겠다고 생각했지만 참 많은 한국사람들이 여행을 제대

석기시대의 주인은 여자였다

김신명숙(본지 편집위원)

올 통통한 근육질 몸에 가죽옷을 걸치고 손에는 창을 든 채 사냥길에 나서는 용맹무쌍한 남자. 그와는 달리 아이를 옆에 끼고 동굴이나 움막에서 자갈한 집안일을 전사하는 나약하고 순종적인 여자... 우리가 흔히 원시시대를 생각할 때 떠올리게 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박물관이나 영화에서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남성우월주의자들은 요즘 남자들의 '잃어버린 야성'을 한탄하며 마초들의 천국으로 알려진 당시를 그리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실제로 그랬을까? 최근 『슈피겔』지는 기존의 주장과 생각을 뒤엎는, 한 고고학 연구결과를 비중있게 소개했다. '마초 남성과 순종적인 여성'이라는 석기시대

매머드



슬라브어 분과를 맡아 이끌고 있다.

그녀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체코의 석기시대 유적발굴지인 돌니 베스토니체. 여기에서는 수북히 쌓인 매머드의 뼈와 창날, 큰 가슴에 둥근 몸매를 한 여성 조상(원시인)들이 발굴됐다.

이 발굴물들을 놓고 그간 고고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늘 그랬듯 편한 것이었다. "이 매머드들은 야성적 사냥꾼이었던 남자들이 사냥한 것이다. 창날도 그들이 만들었으며 여성 조상은 남자들의 성적 놀이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소퍼의 생각은 달랐다. '당시 사람들이 조악한 도구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매머드를 어떻게 사냥할 수 있었는가. 또 매머드만 먹고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게 그녀의 의문이었다. 수년간에 걸친 연구 결과 마침내 그녀는 수북한 뼈가 사냥한 매머드를 먹고 남긴 게 아니라 자연에서 수집된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당시 매머드들은 특정지역에서 대규모로 집단사냥했고 그 자연적 공동묘지에서 석기인이 뼈들을 추려내 거주지로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뼈들을 이용해 각종 도구나 장식품들을 만들었다는 것.

올가 소퍼는 또 끈질긴 연구 끝에 돌니 베스토니체와 그 부근의 한 유적지에서 당시 사람들의 식생활문제 해결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얻어냈다. 철토조각에서 그들이 찍힌 흔적을 찾아낸 것이다. 이에 관한 소퍼의 결론은 이렇다.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그물로 작은 짐승들을 잡았다. 따라서 여자들도 사냥에 참여할 수 있었다."

소퍼의 새로운 이론은 석기시대의 여성을 집 앞에 쪼그리고 앉아 남자들이 사냥해온 짐승의 가죽이나 손질하는 고분고분한 모습에서 해방시켰다. 그물을 이용한 사냥은 사람들 전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작업이다. 민속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물사냥을 하는 부족들의 경우 부족원 모두가 함께 그물을 짜고 설치하며 동물을 사냥할 때도 빠짐없이 모여 인간사슬을 만들어 돌아간다는 것이다. 때문에 여자들도 남자와 똑같은 사냥꾼이 될 수밖에 없다.

여자들의 생계부양은 함께하는 사냥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 다른 미국인 여성고고학자 린다 오렌에 의하면 뿌리를 캐고 야생열매를 채취하고 낱알을 모으는 일도 여자들이 담당했다는 것. "당시 여성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칼로리의 3분의 2 이상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그녀는 주장한



다. 이들 여성고고학자들에 의해 생계부양자로서 남성의 지위는 큰 일격을 맞은 셈이다.

올가 소퍼는 발굴된 여성 조상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렸다. 그 분야 전문가와 함께 치밀한 조사를 거듭한 끝에 그것들이 성적 놀이감이 아니라 어떤 신성한 의식에 쓰였던 도구임을 밝혀낸 것. 물론 여성들은 그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리라고 추정된다. 학자

들에 의하면 석기시대의 여성은 '영적인 엘리트'에 속했다고 한다.

객관적인 역사란 존재하는가? 이에 대해 올가 소퍼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역사는 인간에 의해 끊임없이 재건된다는 것.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남성중심적으로 이해돼 온 것은 전통적으로 남자였던 고고학자들이 과거를 그들의 세계관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들에게는 남자들이 해밍웨이 같은 마초사냥꾼으로서 밖에서 활동하고, 여자들은 집에서 암전혀 있는 편이 훨씬 마음에 들었겠죠."

석기시대 여성이 사냥하고 식량을 모으고 요리하고 게다가 영적인 보살핌까지 맡았다면 도대체 남자들은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소퍼는 슈피겔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 당시 남자들의 의미는 오늘날과 같았을 겁니다. 멋지고 지적이고 편안한 저녁식탁의 상대 말이죠. 진화론적, 생식적 관점에서 보면 남자는 여자보다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결국 정자제공자에 불과하니까요."

할리우드 여성 파워의 대모 세리 랜싱

김신명숙(본지 편집위원)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할리우드의 여성' 하면 사람들은 으레 여배우를 떠올렸다. 감독이나 제작자, 영화사 사장 등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없이 남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할리우드에는 이 '카메라 뒤의 권력'을 향한 여성들의 도전과 성취가 눈부실 정도다. 시고니 위버, 데미 무어, 조디 포스터, 샤론 스톤 등이 독립적이고 용감하며 주체적인 여성상을 화면에 드러내는 것 못지 않게 여성감독, 여성제작자들의 활약도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다.

메이저 영화제작사 파라마운트의 사장인 세리 랜싱(53)은 요즘 할리우드의 여성파워를 상징하고 있는 거물. 97년 영화잡지 『프리미어』가 할리우드에서 가장 힘있는 인물들을 선정해 발표했을 때 그녀는 13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여성으로서의 첫 번째. 그 뒤는 57번째 자리를 차지한 배우 겸 제작자 조디 포스터가 따랐다.

최근 영화 〈타이타닉〉의 빅 히트로 그녀의 위력은 더 막강해졌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막강한 권력자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다. 매우 아름답고 우아하며 여성적이다. 수학교사 출신인 랜싱은 유명한 화장품 회사 맥스팩터의 모델을 했을 정도로 뛰어난 미인. 이후 그녀는 TV에서 활동하다 할리우드로 옮겨 영화 제작일을 시작했다. 그녀의 능력은 대단한 것이어서 일을 시작한 지 불과 2년만에 MGM사의 부회장이 됐고 콜롬비아사를 거쳐 80년에는 폭스사에서 일하게 됐다.

이후 그녀는 동업자와 함께 독립제작사를 세워 〈피고인〉, 〈위험한 정사〉 등의 히트작을 만들어 큰 돈을 벌어들이기도 했다. 파라마운트의 사장이 된 지는 올해로 7년째. 그간 랜싱은 〈포레스트 검프〉 등 빅히트작들을 만들어 기울여졌던 회사를 회생시켰다.



사이가 각별한 사촌 스톤(왼쪽)과 함께 포즈를 취한 세리 랜싱(오른쪽).

그녀가 만든 작품들 중에는 반페미니즘적이라고 비난받는 것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 그녀는 매우 큰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자기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나는 전 생애에 걸쳐 일했고 나 자신을 잘 돌봅니다. 나의 가치관은 여성주의적이죠. 그리고 나는 여성에 반대하는 어떤 일도 의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유태인인 그녀는 할리우드에서 매우 열심히 일하고 직선적인 사람, 겸손하고 예의바른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성취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공한 여성에게 늘 따라붙는 궁금증 하나.

직업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그녀의 견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죠. 커리어와 부부관계까지는 양립이 된다고 보지만 완전한 엄마노릇까지 더 원하는 건 우리가 아닐까요? 어느 지점에서 물러설 줄을 알아야죠."

랜싱은 7년 전에 만난 영화감독 빌리 프리드킨과 결혼해 살고 있는데 프리드킨 감독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다. 모성의 만족은 양아들을 통해 해소하고 있는 셈. 야심 많고 똑똑한 그녀식의 해결책?

독일 대학, 여성에게 소홀하면 손해본다

김신영숙(본지 편집위원)

독 일은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여성의 진출이 활발하지만 유독 여성과 관련된 말이 무색한 곳이 있다. 바로 대학사회다. 교수사회가 보수적인 탓인지 좀체로 여성의 진입이 쉽지 않다. 전체 정교수 중 여성비율이 한 자리수일 정도로 철저한 남성독점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독일 대학사회의 이런 불공평한 풍토도 조만간 큰 변화를 맞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교육부장관인 유르겐 뢰트거스가 "2005년까지 교수자리 다섯 중 하나에는 여자가 앉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는 말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대학제도법이라는 이 법률안에는 여자들이 교수직을 얻는데 유리한 몇 개의 조항이 담겨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각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해당대학의 여성지원 정도에 연계시킨다'는 것이다. 앞으로 대학들은 여성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경우 재정적으로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2월 연방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한 여성계의 반응은 문자 그대로 환영일색이다. 남자인 뢰

트거스 장관을 '숨어 있는 페미니스트'라고 지칭할 정도.

특히 그에게 만족을 표시하고 있는 여성들은 대학에서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일하는 여성문제 수임관들. 이들은 전국적인 모임도 결성하고 있는데 대변인인 브리기테 뮐렌 브루크는 "이처럼 돈문제를 연계시키지 않는다면 대학들이 여성지원 문제에 신경쓰지 않는다"며 회색을 띠었다.

이해찬 장관님, 뢰트거스 장관을 한번 만나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플라존스 성희롱 사건 지지 않는다

박미라(편집장)

미 국 최대 여성단체인 전국여성단체(NOW)는 지난 4월 22일, 클린턴 대통령을 상대로 성희롱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플라존스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천명했다. 플라존스는 클린턴 대통령이 아칸소 주지사로서 있던 당시 아칸소 주정부의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최근 클린턴을 상대로 성희롱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성희롱 사건을 지지하지 않기로 한 NOW의 입장은 다소 예외이기도 하다. 그간 NOW는 정치인들의 여성 성희롱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 사회, 정치화시켜 왔기 때문이다. 미국 대법관 클레어런스 토마스 지명 과정이나 연방 상원의원 밥 팩워드의 정계 은퇴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에 NOW는, 여성인 플라존스의 손을 들어주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전국 500개 지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번 사건은 보수파들의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고도로 정치적인 송사로서 직장 내 성추행을 막기 위한 시범케이스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결론에 이르렀다."

클린턴의 각종 성추문에 대해 이상하리만치 오랜 침묵을

지켜 세간의 비난을 받았던 NOW가 마침내 내린 이번 결정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

만 권력을 가진 남자와의 성스캔들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미국여성들의 반감이 플라존스를 외면하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

또 클린턴의 민주당이 기존의 어떤 집권당보다도 여성정책에 대해 진보적이라는 평가도 NOW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물론 민주당의 여성정책 수립에 힐러리의 입김이 적지 않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바다.

어쨌든 스캔들이 터져 곤란을 겪을 때마다 남편을 적극 지지해주는 똑똑하고 유능한 힐러리를 아내로 둔 클린턴은 이번에 여성단체 NOW의 지지까지 받아 여복이 터진 남자임을 과시했다.

백인남성우월주의와 싸우는 화이어문

정선화(자유기고가)

캐 나다에 배향 좋은 유색인종 여성들이 백인우월, 남성우월 사회에서 편견과 차별에 대항해 '화이어문(FireMoon)'이란 이름으로 모였다.

FireMoo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양계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연대모임이다. 이 단체의 이름이 갖는 의미는 매우 특별하다. 전통적으로 태양은 남성, 달은 여성으로 서구에서는 특히 동양 여성을 대표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달은 태양의 빛이나 그 주위의 구름에 의해 그 모양이 심하게 영향을 받는다. 태양의 빛은 '남성의 파워' 즉 부장제를 의미하고 구름은 '동양여성'이 당하는 여러 가지



클린턴의 '지퍼게이트'와 관련된 사람들을 풍자한 웹사이트 표지그림. 왼쪽부터 르완스키, 힐러리, 플러워즈, 포스티, 플라존스

압력과 억압'을 의미한다. 따라서 FireMoon은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동양여성의 잠재된 힘을 발산하며, 전형화된 동양여성의 모습에서 변신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모임은 1997년 5명의 여성멤버(영국계 캐나다인, 일본인, 한국인, 베트남계 캐나다인, 중국계 캐나다인)로 시작됐고, 현재는 30명으로 회원이 불어난 상태다. 그렇다면 '꽃과 꿀이 흐르는 복지국가' 캐나다에서 유색인종, 특히 동양여성들이 겪는 차별은 무엇일까.

동양여성은 백인남성들에게 아주 독특하고 매력적인(?) 대상이다. <나비 부인>이나 <미스 사이공> 등의 할리우드 영화나 브로드웨이 뮤지컬들이 만들어낸 마냥 순종적이고, 신비한 동양여성의 이미지는 바꿀 수 없는 그들의 편견이



〈화이아문〉 회원들이 자신들의 로고가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다.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자면 미지의 세계에서 (우월한) 백인남자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객시하고, 잘 길들여진 인형쯤으로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그것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러한 백인들의 시선을 동양계 여성들

이 내면화시킨다는 사실이다.

결국 어학연수를 온 한국 여학생들이 자신들에게 접근하는 서양남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성적 목적)을 알아차리지 못해 강간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 여학생들은 사랑의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 없는 일이라거나, 자신들이 정숙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쯤으로 치부하며, 죄책감을 갖고 순순히 떠나가게 된다. 동양여성이 순종적인 성적 대상으로 희생당한 단적이 예다.

캐다가 캐나다는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듯이 전통적인 백인우월주의와 남성우월주의가 철저히 관철되는 나라이다. 동양여성들 역시 여성으로서 여러 가지 차별에 시달리게 된다.

FireMoon은 동양여성에 대한 이같은 편견을 깨고 올바른 자아를 정립하고자 결성된 모임이며,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 토론과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해외에도 FireMoon의 혼을 불어넣고자 그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다. 한국 여성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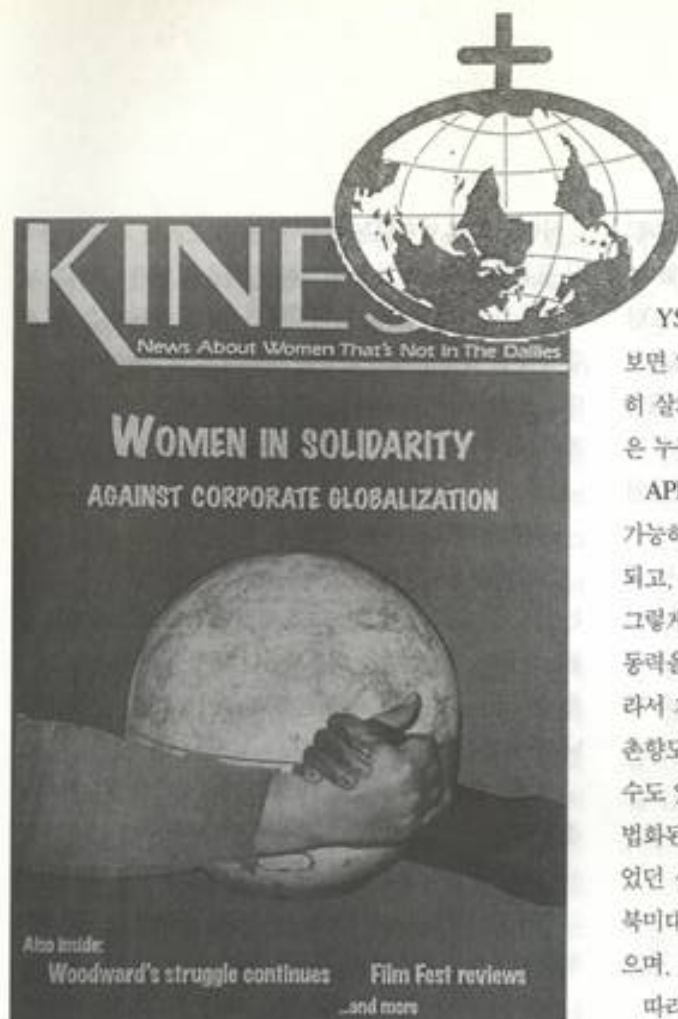
(연락처: 015-8613-0856)

에이팩에 반대하는 여성들

정선화(자유기고가)

APEC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모임이

캐나다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다. 1997년초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반APEC 모임에는 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모인다. 여기에 참가해 APEC의 실체를 알게 된 여성들 중에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생들은 팔에 빨간 휘장을 두르고,



반에이팩 여성단체들이 만드는 뉴스레터. 오른쪽 위의 로고는〈에이팩에 반대하는 국제여성회의〉중에 만들어진 캠페인의 로고.

“Against APEC”을 외쳤다. 이에 맞서는 경찰들도 최루탄 가스를 발사하고, 개까지 푸는 등 강경하다. 왜 여성들은 APEC 반대시위를 하고 있는가?

APEC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Asian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약자. 1989년에 경제포럼 형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이 기구는 아태 지역 국가들과 그들의 경제고문 국가기관 등 18개의 경제국들을 모아놓은 국제기구이다. APEC에 속한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해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등의 나라들이다. 이들은 2020년 까지 이들 국가 내에 세계 역사상 최대의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를 설립하겠다는 공

극적 목적을 갖고 있으며, 1996년부터 매년 정상 회담을 하기로 약속했다(우리나라의 전 대통령인 YS가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참석했던 그 회의를 기억해 보면 알 것이다). 그러나 이 자유무역의 실체를 좀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자유' 무역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APEC에 따르면 18개국 사이의 국경 없는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즉, 세계무역이 관세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되고, 이를 통해 기업이 자본의 증대를 꾀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본은 '경제적 발전'이란 미명하에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국경을 용이하게 넘나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도입 이후 심각하게 나타난 부작용, 즉 '이촌향도' 현상처럼, 초국가적인 노동력의 대이동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필리핀의 고등교육을 받은 수많은 여성들이 합법화된 일약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을 마다 않고 국경을 넘었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살기 위해 북미대륙으로 '인력수출'돼 '국가의 외채 갚기'에 기여했으며, 자신들의 가족이 파괴되는 대가를 받아야 했다.

따라서 여성단체들은 APEC이 주변부국가들의 가족형태와 노동조건을 백인 중심으로 바꿀 수 있게 되며 중국에는 'APEC형 가족'까지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물론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노동자로서, 어머니로서 여성들이 겪을 고통은 남성들보다 클 것이며, 가장 심각한 희생자가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런 위기감을 느낀 세계의 여성들이 '반APEC'의 슬로건 아래 단결하기 시작했다. 특히 필리핀 여성노동단체가 이런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고, 자국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성들을 교육시키고 의식을 깨우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첫번째 공식적인 여성모임이 바로 1996년 〈APEC에 반대하는 제1회 국제여성회의(The First International Women's Conference on APEC)〉. 같은 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차 APEC 경제지도자정상회담〉에 반대하

면서 같은 지역에서 열린 것. 그리고 두 번째 회의는 '제2회 APEC 정상회담'이 약속된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렸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들은 '각 국가들의 민주주의정책', '인권 보호', '환경보호'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만약 APEC를 받아들일 경우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도 숙의됐다. 이외에도 APEC의 약영향에 관해 논의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크고 작은 회의와 모임들이 끊임없이 열리고 있다.

1998년에 제3회 APEC 정상회담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는 'APEC에 반대하는 제3회 국제여성컨퍼런스' 역시 이 곳에서 개최될 것임을 의미한다. 많은 한국여성들이 이 회의에 참석해 APEC이 불러온 여성들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고위직에 진출하는 일본여성들

유재순(프리라이터)

최 근 일본경제계에 우먼파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는 불경기 속에 여성들의 경제계 진출은, 많은 일본인들을 가벼운 흥분으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정책결정권을 행사하는 고위직이어서 신선한 충격마저 낳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경제계의 중요한 직책은 여성들이 넘나들 수 없는 하나의 성역처럼 인식돼 왔던 터였다.

금융위기관리 심사위원장 사사나미 요코(佐佐波陽子, 65세),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심의위원인 시노즈카 에이코(冢本英子, 55세), 프로야구 센트럴리그 회장 다카하라 스미코 등이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경제계 여성들.

이들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환영일색이다. 금권정치와 온상으로 알려진 남성정치인들과 관료들의 부정부패에 식상할 대로 식상한 데다 불경기까지 겹쳐, 평소 근검절약하며 살고 있는 대다수 일본국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던 것.

이런 차이에 역광있는 여성인사들이 중요한 자리에 연이어 등용되자 일국민들은 일제히 반색을 표했다. 적어도 남성들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다시피한 '절대' 라든가 '너물'을 주고 받는 부정부패의 악습은 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한 것이다. 이를테면 이번 여성인사들에게 일본경제계의 사회적인 정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의 대모 사사나미 요코

그녀가 금융위기관리 심사위원장에 임명되었을 때, 놀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평생을 몸담았던 학계는 물론 그 동안 여성진출을 터부시했던 대장성 관리조차 고개를 끄덕였다. 오히려 관계(官界)진출이 늦은감이 있지 않나 하는 분위기가 더욱 강했다.

그녀는 도쿄에서 태어나 1955년 게이오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의 하버드대에서 국제경제학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당시 여성경제학도가 전무할 때여서 그녀의 학구적인 연구태도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일본유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될 정도였다.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1958년, 그녀는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고 유엔본부에서 경제조사관으로 사회의 첫 발을 내디뎠다. 그곳에서도 사사나미는 눈에 띄는 여성이었다. 50년대 당시로서는 여성이 경제분야에서, 그것도 세계무대에서 활약한다는 것이 그리 흔한 일은 아니었다. 더구나 당시 일본은 45년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전후 복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때였다. 따라서 남녀를 불문하고 경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거나 공부한 사람이 드물었다. 당연히 사사나미는 일본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

모국인 일본에서 제일 먼저 그녀를 부른 곳은 역시 모교인 게이오대학. 유엔본부생활 5년만에 대학강단으로 돌아온 그녀는, 학문에만 머무르지 않고 경제심의회 위원, 관세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이론과 현장을 접목시키는 작업도 활발하게 했다. 그래서인지 50, 60년대의 지극히

남성우월주의적인 편견들이 그녀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남성사회에서 "여성인 사사나미도 저렇게 잘하는데, 왜 못해!"라는 격려모델로 비교되곤 했다.

특히 그녀가 저술한 『국제분업과 일본』이라는 책은 1980년 최우수도서상을 받을 만큼 국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되던 경제분야에서 자기 실력으로 당당하게 인정받는 한편, 모든 능력을 압축시킨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저술로 상까지 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남성위주의 사회에 대한 통쾌한 비수라고 같은 것이었다.

금융위기관리 심사위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자금 투입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막강한 자리. 실제로 사사나미씨는 심사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공적자금투입기준'을 발표하고, 공적자금 투입후 금융기관의 경영이 개선되지 않고 자기자본비율이 악화될 경우 임원의 총사퇴를 요구한다는 기자회견(98.2.26)을 가졌다. 그런가 하면 지난 4월 24일, 사사나미 위원장은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금융위기에 대한 자신의 금융시각을 이렇게 밝혔다.

"90년대초의 미국의 금융불안은 미경기의 호황으로 해소되었습니다. 일본의 금융시스템의 미래는 앞으로의 일본 경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같은 마이너스 경제성장 상태에서는 금융만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종합경제대책 같은 총체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인기성 발언보다는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 진단하는 그녀에게 일본국민들은 한결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

여성 최초로 정책위원인 시노즈카 에이코

일본정부는 지난 3월 4일, 일본은행의 정책위원회의 새로운 심의위원으로 4명을 선정, 발표했다. 그중 일본여성계의 화제가 된 사람은 노동경제학 전문가인 시노즈카 에이코씨. 왜냐하면 일본은행에 최초로 여성 정책위원이 탄생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심의위원은 총 9명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식으로 임명하는 국가기관

이다. 때문에 심의위원 선정에 있어 매우 엄격할 뿐 아니라, 임명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명예로운 직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성이 심의위원으로 임명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여성 금지구역처럼 터부시되던 남성들만의 세계였다. 그런데 이번에 시노즈카씨가 임명된 것이다. 물론 일본 언론에서는 획기적인 인사조치로 대서특필하면서, 이제는 대장성과 은행계의 호화집대사건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함께 표명했다.

이에 대해 시노즈카씨는 여성 최초의 심의위원으로 발탁된 것을 의식함인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남성중심의 경제구조 때문에 그런 집대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 여성이 있었으면 그런 호화집대 관행은 없었겠지요. 이제는 은행계에도 약간의 긴장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남성중심사회가 만든 폐단을 비판하는 시노즈카씨는, 일본은행의 독립성 강화와 금리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야구계의 마몬으로 떠오른 다카하라 스미코

프로야구 하면 남성들만으로 구성된 스포츠게임이어서 여성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조차 없었던 세계였다. 그런데 최근 수십개의 프로야구팀을 이끌어갈 대령탑에 최초로 여성이 등극하는 대이변이 생겼다. 일본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게임은 뭐니뭐니 해도 역시 프로야구이다. TV시청률 또한 다른 종목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수익면에 있어서도 황금알 낳는 거위에 비유된다. 그래서 지명도가 있는 남성들은 프로야구계의 사령탑이 되는 것을 절실히 원한다. 그런 센트럴리그 회장에 여성이 당당하게 취임한 것이다.

다카하라 스미코, 그녀에게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원래 그녀는 마이니치신문사 계열의 『이코노미스트』지의 기자였으며, 신문사를 그만둔 후에는 프리랜

서 경제평론가로 활약했다. 그 결정체로 『남성경제론에 의 도전』, 『여자는 세 번 늙어 산다』, 『뜻밖의 장관』 등을 저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세제 조사위원, 국민생활안정 심의회위원 등 공직과는 항상 인연을 같이 했다. 경제학을 전공한 데다가 기자 출신으로서 경제현장에 밝아, 89년 가이후 총리 내각 때는 역시 민간여성으로는 최초로 경제기획청 장관에 발탁되어 국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그녀에게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녔다. 여성 최초의 행정개혁 심의회위원, 여성 최초의 일본체육회 회장, 최초의 민간여성 필란드 대사, 여성 최초의 프로야구 센트럴리그 회장 등 그녀 한 사람이 개척한 '여성 최초'의 분야는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다카하라씨는 이에 대해 할 말이 많다.

"여성최초라는 것을 강조하는 언론이 반갑지는 않아요. 그저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봤으면 해요. 이번 센트럴리그 회장직도 왜 여성과 관계가 없습니까? 프로야구 팬의 과반수가 여성이에요. 바로 이런 점을 야구와 접목시켜 야구팬

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할 생각입니다."

특히 일본체육회 회장시절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협회를 과감한 개혁으로 흑자로 돌려놓은 이력 때문에 그녀의 이번 센트럴리그 회장 취임은 우려보다는 기대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스케일이 크고 힘있는 추진력 때문에 여성계보다는 오히려 남성계에서 능력을 더 높이 평가받고 있는 그녀는, 현재의 일본 스포츠계에 꼭 있어야 될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한다.

경제계 고위직의 여성진출로 요즘 일본의 여성계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친다. 또 사회활동을 하는 모든 여성들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기대감도 상승해 의욕 넘치는 많은 여성들을 들뜨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하는 대다수의 여성들은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남녀차별 없는, 여성에 대한 편견 없는 그런 일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즘 일본여성들은 오랜만에 살맛나는 세상을 만나 날개를 활짝 펴고 있다. ■

자신의 삶을 시작하려는 젊은 여성에게 던지는 화두

자, 이제 다시 질문해 보자.

왜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좋아라 하며 결혼을 하고,

또 그렇게 좋아서 한 결혼이 왜 빛나가는가?

여자들은 왜 결혼하는가? 남자들은 왜 결혼하는가?

남녀의 관계를 못 쓰게 만드는 것은 결혼 제도 자체인가,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나면 너도나도

낡은 관습과 타성에 빠지기 때문인가?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

에스터 빌라 저 / 안인희 역 / 신국판 변형 / 226쪽 / 값 6,500원

에스터 빌라는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에서 극소수의 선택받은 이상들이 주도하는 합머니즘 페미니즘은 끝났다고 선언하면서 이제는 페미니즘도 남성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성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997년 12월 9일 『문화일보』

너는 결혼을 "성교의 가장 치사한 형식"이라고 했고 에스터 빌라는 이를 받아 결혼을 "한 사람은 물욕에서, 다른 사람은 성욕에서 맺은 거래"로 이해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은 "여자가 어떤 남자의 노동력에 대해 독점권을 획득하고, 대신 그 노동력에게 그녀의 성기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 1997년 12월 16일 『한겨레신문』

성스럽고 아름다운 결혼 이면에 여성의 '몸'과 남성의 '돈'이 자리잡고 있는 결혼 메커니즘을 파헤친 에스터 빌라의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라는 작품이 화제가 되고 있다.

— 1998년 1월 2일 『여성신문』

사람들이 결혼하는 진짜 이유는 사랑이 아니고 남자의 돈에 기대는, 자발적인 노예상태에 대한 끊임없는 동경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페미니즘 시각의 에세이다.

— 1998년 1월 16일 『중앙일보』



에스터 빌라

비즈니스 의학박사, 사회학박사, 극작가 페미니즘계의 이단아. 독일 여성 운동의 대모로 추앙받는 페미니스트 자칭 『영아』의 편집장. 알리스 슈바르츠의 맞수가 되어 여러 차례 언론의 이목을 독점하며 끊임없이 세간에 불의를 일으켜 온 화제의 인물. 대표작으로는 서구 사회 남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3부작 『갈등적인 남자들』, 『미국인인 학 남자 부러워하기』, 『남자』, 『다양한 성관계』, 『갈등적인 삶』이 있다.

도서출판 시공사
전화 02-736-2251~3
팩스 02-736-2251~2



“내 책은 내 인생에 보내는 고발장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갚아가게 하소서』 펴낸 박정원씨

“난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서 내가 받아야 할 ‘조건’을 생각하고 결혼했기에 내 삶을 ‘징벌’이라 부르는 거고, 내 책을 내 삶의 고발장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천형(天刑) 같았던 내 삶이 그 죄값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대단하게, 그것도 ‘아주’ 대단하게 보아온 자신의 모습에 대해 어느날 갑자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솔직함과 용기를 갖기란 쉽지 않다. 아니 대다수의 경우 자신을 속속들이 벗기기보다 자기 삶을 정당화하고 미화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한치의 가감 없이, ‘생자 그대로’ 아픈 상처와 과거를 드러내고 자신을 홀출 벗은 여자가 있다. 반듯하게 강성한 두 아들에, 며느리를 두었고, 이름을 대면 많은 이들이 “아, 그 박사장!” 할 만큼 관계, 재계, 정계 등에 걸친 폭넓은 인맥과 수십명의 직원을 둔 썩 괜찮은 사업가의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 박정원(55)이 그 주인공이다.

그를 가까이 지켜봤던 극소수를 빼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아픈 과거를, 자칫 말 많은 이들의 입도마질로 인해 ‘부도덕한 사랑을 했던 여자’로 인식될 수도 있는 부분까지 그는 과감히 다 벗어버렸다. “엄마, 이 책 실명으로 낼거예요?”라며 걱정하던 아들에게 “부끄러우면 니가 우리 엄마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 했던 여자, 사실 각계각층에 넓은 안면을 깔아놓은 그가 체면이나 남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을 벗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박정원은 그렇게 했다. 왜 그래야 했을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많이 ‘갇춘’ 여자로 알려진, 비록 혼자 두 아들을 힘겹게 키웠지만 이제 남부럽지 않은 사업가로 성공한 그가 “도대체 무슨 걱정이 있겠냐”고, “대단하다”고 보이주던 자신을 그전 내 모습이 아니라고 써야 했던 그 절박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박정원은 경상도 창녕의 부자집 맏딸로 태어나 유복한 어린시절을 보냈고 발레리나에 대한 꿈이 있었다. 그러나 스물셋, 그 꿈을 실현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던 만석꾼 막내아들과의 결혼이 그의 꿈을 깨버리게 될 줄이야! 자식까지 낳은 여자가 있는 남편의 과거가 그에게 안겨준 것은 화려한 무대가 아닌, 벼랑 끝에서 시작한 설렁탕집이었다. 어린 두 아들을 위해 절망을 딛고 홀로 선 그의 삶은 그렇게 시작됐고, 사업에 실패한 남편을 설득하는 카드로 내민 ‘위장이혼’을 통해 ‘진짜’ 이혼을 감행했고, 그 이혼을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지 않는 결단이었다’고 말하는 여자. 자신의 삶은 원죄에 대한 ‘징벌’이었고, 자신이 써낸 책은 스스로에 대한 고발장 같은 거라고 썼다.

“난 남편을 평생 저주하고 증오하며 살아왔어요. 그도 스스로 죄값을 감당하고 살고 있지만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를 용서할 자격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요. 난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서 내가 받아야 할 조건을 생각하고 결혼했기에 내 삶을 ‘징벌’이라 부르는 거고 내 책을 내 삶의 고발장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천형(天刑) 같았던 내 삶이 그 죄값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박정원은 두 아들을 혼자 책임져야 했다. 그러나 22년 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 것도 없었다. 부자집의 맏딸로 곱고 귀하게만 자라면서 무엇이든 ‘별기만 했던’ 체질화된 삶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다. 스스로 “오만하고 교만했다”던 그가 시작한 건 설렁탕집이었고, 고된 육체노동을 해야 했다. 그는 그렇게 사는 방식 그 자체가 죽는 것만큼 고통스러웠고 너무나 이질적인 것이었다고 했다.

“천형을 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일을 몸으로 겪고 매워야 했어요. 지금은 긴 터널을 건너왔으니까 그렇지.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는 게 자식 때문이라구요. 내 손으로 뭘 할 수 있었다는 게 기적 같고, 난 단지 술한 남자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고 하루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그는 그래서 지금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고통을 안고 있다.

그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달려야 했던 삶의 이면에는 설렁탕집 주인에서 〈동승동클립〉 운영자로의 획기적인 변신도 있었고, 늘 주변에서 그를 지켜주던 청와대 권력자와의 각별한 인연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누군가 필요할 때는 늘 혼자여야 했다. 그 와중에, 우울증으로 하루 18알씩 약을 먹기도 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마주했던 한 남자와의 만남은 너무나 큰 상처가 되어 돌아왔다. 마지막이라 느꼈던 행복의 순간에 또 다시 모든 걸 잃고, 그리고 다시 서기까지 그가 살아내야 했던 삶이, 그가 써낸 책의 큰 줄거리다. 그러나 소설형식을 빌린 자전적 고백록 『당신의 사랑을 갚아가게 하소서』의 후반부를 채운 세 남자와의 사랑은 박정원의 삶이나 책의 주제가 아니다.





"난 어쩌면 진실한 사랑을 한번도 못 해본 건지도 몰라요. 받는 것에만 익숙했던 나의 소유욕과 오만 때문에 달아놓고 산편이고, 어쩌면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토록 많이 받기만 했고, 누군가에게 내 것을 주어본 적이 없어요. 줄 형편도 시간도 없었지만, 늘 주변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어도 늘 갈증나고 모자랐어요. 내가 받았던 것은 공허와 외로움을 채울 정신적 안도감이었고,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고 거기에 안주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 던지지 못했기에 그토록 고통스럽고 외로웠던 지도 몰라요."

박정원은 이제 '주는' 게 받는 것보다 훨씬 풍요롭고 더 자기답게 채워지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난 철저하게 나를 위장하고 연출하며 살아온 여자예요. 나를 알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연출된 나를 보아온 거죠. 두껍게 옷을 껴입듯이 연출했던 내 삶이 나의 실체가 아니었기에, 그 모습에 스스로 지친 거고 그래서 벗어야 했어요. 이제 자유롭고 싶고 나다운 삶을 살고 싶기에..."

그의 이야기는 흔히 우리가 접하는, 엄청난 삶의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 이제는 "고통 끝, 행복 시작"이라거나, 보란듯이 "홀로 당당히 서 있노라"고 쓴 글이 아니다. 그의 책이 유교적 가부장제가 주문하는 '한 많은 한국형 여자'의 역세풍 같은 삶을 그린, 눈물을 자아내는 '현대판 여자의 일생'일 수 없는 이유다. 그는 스스로 벗음으로써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찾고 나다운 삶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자신의 생활을 고발하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 또 그는 자기와 비슷하게 힘겨운 삶을 사는 여자들이 많지만,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과 과정이 남다른 지점에 있었기에 자신의 삶을 얘기하고 싶었다고 했다.

사실을 고백하자면 난 책이 나오기 훨씬 전에 우연히 그를 알았고, 그의 책이 출판되기도 전에 그의 원고를 읽었고, 그후 조각그림 맞추듯 책 속의 그 인물과 책 밖의 인물을 만나고 느낄 각별한 기회가 있었다. 누군가 내게 박정원에 대해 한마디로 말해 달라고 주문한다면, 나는 그를 "누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여자"라고 말하고 싶다. 그는 결코 완벽한 여자가 아니다. 그는 자기 삶을 모범답안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 반대다. 물론 그는 자식을 책임지기 위해 모든 걸 인내했던 우리의 전형적인 어머니였고, 오만하고 이기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고, 치



밀한 것 같지만 영성하고 허점이 더 많은 쪽에 가깝다. 자기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그 자존심'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유독 외롭고 괴로웠던 여자. 박정원. 슬한 삶의 굴절을 겪은 이야기. 유독 사연 많은 남자들과의 얽힘과 사랑, 그리고 배신도 가감없이 리얼하게 고백했다.

박정원은 책을 쓰고난 소감에 대해 "그 책을 읽고 내 곁에 남아 있을 사람과 나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며 떠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흥분한 점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변하기 위해 책을 썼기 때문에 이제 곧 닥쳐올 내 삶의 구조조정 같은 것에 부담을 느껴요. 그러나 이 책이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한 '촉진제' 같은 게 됐고 고통이 따른다 해도 지금보다는 더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했다.

그의 이야기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도 흉내내기 어려운 그만의 삶의 '색깔'과 방식 때문이며, 자칫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까지 분침없이 드러낸 그 진솔함이다. 박정원은 남자들에 '달린 여자'처럼, 메인디쉬(main dish)에 딸린 사이드디쉬(side dish)처럼 살아오지 않았다. 박정원 역시 이 땅의 여자들처럼 여자라는 운명의 틀에 꽂혀 움직이기도 했지만 끝내는 거기에 묶이지 않았다. 그의 이야기 속엔 자식을 사랑했고 홀로 책임져야 했던 엄마, 사업체를 혼자 이끌어야 했던 경영주, 슬한 남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여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이 녹아 있는 것이다. ■

사진 박영숙



박정원

악히 아는 이에 대해서 글을 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 글을 마무리지었을 땐 너무 오래 미뤄둔 험겨운 숙제를 기어코 해낸 기분이었다. 그가 준 가장 큰 감동은 책 인콰으로 그는 내게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였다. 그는 책 속에서 벗은 자기의 모습과 똑같은 '바보 그 여자'였다. 스무살 정도의 나이 차이에도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여자가 박정원이었고, 이 사회가 여자란 삶의 굴레 속에 그를 가두고 싶어했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여자가 박정원이었다. 난, 우리가 천착해볼 가치가 있는 '헤스토리(herstory)'의 주인공으로 그를 초대하기에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다.



if에게



귀찮은 여러분의 참여에 감사!
더 많은 격려와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if를 살 수 있는 목표

계도 if를 사기 위해 아주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창간호는 양평, 외정부, 서울 세 도시를 다닌 후에 구입을 했구요. 두 번째는 서울 가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샀습니다. 물론 제가 사는 동네 서점을 한 바퀴 다 돈 다음에도 세 번째는 아예 책 사러 망치고 교보문고에 갔죠. 저는 근 1년여를 서점아저씨를 괴롭혀 보았지만 아직도 if가 뭔 책인지 모르신답니다. 제 간이라서 너무 뜸하게 괴롭혔나 봐요. 서점주인을 페미니스트로 만드는 것이 가장 책을 빨리 사볼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요. 어떻게 서점주인을 페미니스트로 만들 수 있나 한번 연구해 보실래요? 뽕족한 수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 주십시오.

김혜영(첫눈)

명퇴 = 여직원 내뱉기(?)

항상 무엇인가에 굶주렸던 것을 if를 보면서 많이 해소하고 있는 고졸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많은 차별을 받지만 곳곳에서 버티고 있지요. 금융기관의 명퇴로 인하여 저희 세대 마지막까지 거의 그만둔 것 같구요. 사실 명퇴라는 것이 오래된 여직원 내뱉는 제도로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직장여성들이 전업주부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 어떻게 적응을 해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송파구 송남동 222-140 변현숙

환상적인 if

이제 고3이 되는 학생입니다. 대어섯 살 적에는 모든 일을 해내는 강한 수퍼맨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눈에에도 확연히 보이는 사회 속의 성차별이란... if 창간소식을 신문에서 보고 땀을 흘려가 있습니다. 그 동안 저는 '정상적인' 사회에 불만이 많은 아이로만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if를 보면서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아이가 아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환상의 세계를 알게 된 느낌이었어요. 이 책의 목소리들이 환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날을 기다리며... 모두 힘내세요!

성북구 돈암동 한진아파트 201-106 박지은

if가 내게 희망을

제가 여자라는 사실이 너무 싫을 때가 많았습니다. 대학 4학년인 지금 꿈받고 재기에 차 있는 내가 혹시나 우리 할머니같이 우리 엄마

같이 그냥 사립가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애 낳고 키우고 살다가 한 생을 마감하면 어쩌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if를 보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기로요. 고맙습니다.

강남구 청담2동 현대아파트 201-501
곽정임

재미가 쏙쏙~

똑같은 일을 다른 시각으로 보았을 때 느끼는 느낌이랄까 '뽕뽕'하고 머리에 번개를 맞은 것 같거든요... if, 참 재밌어요. 사실 재미(?)가 아니라 유익한 거겠지요? 그렇지만 이번 호 내용중 여성정치선언에서 여성활동에 대해 뒤에서라도 다뤄준 것만으로도 그게 좀 아깝네요. 아무튼 여러 방면으로 시각을 넓히는 재미가 쏙쏙합니다.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46-19 최현주

이번 만화는 의미전달이 잘 안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간호부터 if를 관심있게 지켜본 애독자입니다. if가 갑갑한 사회풍토에 대해 시원스레 말해주어 무척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호 두 편의 만화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정의의식이나 유체에 대한 이중적 관념을 깨뜨리려는 의도였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북 김제시 백구면 학동리 149 이현희

김정복님의 글, 신선했어요!

if봉호를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

은 동네의 작은 서점은 물체치고라도 중형서점에서도 책을 구하기가 힘든지 좋은 책이라도 사보기가 힘들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폐간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봉호가 나와서 기쁩니다. 김정복님의 약력이 고졸이라는 게 참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대체로 잡지에 글을 기고하는 분은 대졸 이상인 경우가 많고 간혹 저희 같은 사람은 주눅들게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토코쇼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한 김정복님의 적절한 지적과, 적당한 칭찬, 프로를 보는 듯한 신선한 필체가 살며시 웃음을 짓게 만듭니다.

관악구 신림 11동 1576-24 김복임

"맞아, 바로 그거야"

if는 저로 하여금 "맞아, 바로 그거야" 하는 쾌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합니다. 유명인사뿐 아니라 바로 나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글도 실리기 때문에 더욱 친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 나도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도 좀 해보자"는 비장한 각오도 하게 해주었죠.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한진아파트 104-1104
조한정

IMF시대, '자기만의 방'을 더 확고하게!

연극 '자기만의 방'을 봤는데 이번 봉호를 접하면서 그때의 방은진씨의 대사가 떠오르네요. '자기만의 방'을 가지라던! 마구잡이 여성해고 기사를 보면서 온몸을 부르르 떨며 분노했어요. 여성에게 있어서 '방'을 '공간'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방'을 가지라던! 마구잡이 여성해고 기사를 보면서 온몸을 부르르 떨며 분노했어요. 여성에게 있어서 '방'을 '공간'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방'을 가지라던! 마구잡이 여성해고 기사를 보면서 온몸을 부르르 떨며 분노했어요. 여성에게 있어서 '방'을 '공간'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세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자기만의 방'을 만들고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일하는 여성동지들 화이팅!

서초구 반포1동 726-20 302호 변계희

광고패러디에서 신선한 충격을!

if는 광고와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진정한 잡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많은 문제제기와 함께 힘있는 여자들이 거부하는 if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냈습니다. '여자기를 살리자'와 광고패러디가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광고패러디는 함축적이면서 강한 문제제기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좀더 많은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스포츠인, 정치가, 사업가, 교사... 등) 또, 남성들의 if를 향한 시선도 알고 싶어요.

동작구 상도2동 184-17 최영주

세상에, 이거 무료정보예요?!

통신에서 if를 봤어요. 신나하면서 서점에서 봤던 글들을 다시 골뎠고 갈무리해 가다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 기본정보인 것 같아요. 맞죠? 아무리 정기간행물이라도 파월호도 적당한 값을 받고 팔게 돼 있는데 무료정보라니, 말도 안 돼요. 돈 받으세요!

이종주(Bacillus)

if 대문의 문제점

if를 즐겨 보는 독자입니다. 그런데 통신엔 오늘 청 들어와보네요... if대문에 이렇게 써 있더군요. 세상은 남자와 여자가 공유하는 거라구요... 왜? 우리 말은 모두 남자가 앞에 서는 걸까

요? 남네, 신사숙녀, 몇남몇녀, 아들딸, 부모 등등... 후후... 우리 학교 페미니즘 관련 글이 있더군요. 우리말에서 오직 '넌'만 여자가 앞에 있대구... 육이네요. 불행히도...

김소희(SOHUI021)

if 되도록이면 사서 보자

이런 말 하면 if창간호 나온 날 교보에서 3시간만에 서서 다 본 나부터 사서 봐야 하겠지 만... 나는 남자나만 하는 핑계로 그냥 계속 서서 본다. 그런데 어디가서 여자들에게 기존의 여성잡지와는 틀린 페미니즘 잡지가 나왔다고 하면 일의 다섯 정도는 반응을 보이지만 나머지 다섯 정도는 그리 탐하지 않은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여자가 자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f같은 잡지를 봐야 한다.

강창석(anachy)

즐겁다! 시원하다!!

간만에 너무 시원한 이야기들을 무자게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 때마다 가슴 속의 것들이 시원하게 정화되는 느낌... 넘 좋아요. 하루하루 살며 '나 역시 그렇게 길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빠져들고 있던 저에게 너무나 좋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성으로서 스스로의 주체가 된다는 것, 어려운 일이지. 최소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 여성들의 모습들이 내게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지침이 되었습니다. 힘내세요!! if화이팅!!

이미경(은빛앨리스)

넋두린 그만! 정신차렷!!

나는 왜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만 허둥지둥, 마구마구 할 일이 생각날까. 내가 무지 즐기는 공상처럼 if가 항상 내 머리 중심에 와야 하는데, 아직도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걸린다. 내 옷이 될 수 있을까? 4호에 후원기금을 모집하는 편지 글을 정기독자들에게 보냈었는데 천만에 사는 독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해택에 대한 아무런 약속도 드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솔직히 말했다. 그러자 "그런 것은 사실 바라지도 않았고 석달에 한번 if 보는 것이 기쁨"이라며 선뜻 적지 않은 돈을 보내주었다. 고맙고, 부끄럽다. 이만한 신뢰와 사랑이 내게도 있는 걸까. 오기로라도 대견함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넋두린 그만! 정신차렷!!

- 공마

나는 지도 찾으러 간다

딱 하나 없는 파란 하늘에 저녁에는 제법 쌀쌀한 바람이 저 분다. 봄과 가을, 여름이 마구 뒤섞인 5월이다. 요즘 같은 때 정신없이 왔다갔다 하는 게 어디 날씨뿐이라. 몇십 미터씩 줄을 서서 밥을 타먹는 노숙자들의 풍경 위로 조금도 줄지 않는 수많은 자동차들의 풍경이 겹쳐 떠오르며, 나는 오늘도 출근길에 길을 잃고 헤매었다. 사무실로 오는 그 먼 길에서 매일 길을 잃던 나는 드디어! 팔렸다. 팔리고야 만 것이다. 혹독, 이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했더니 다들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여태껏 안 팔리고 있었던 것이 신기하다는 듯이) 혀를 끝끝 찬다. 아무도 나의 처지를 염려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나의 인간관계 (또는 인생)에 심각한 비그가 있나 보다. 하지만, 결코, 기죽지 않을 테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길 밖에 나오지 않기. 찾아보기 쉬운 지도를 마련하기.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기 등의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지도 찾으러 간다.

- 딸마

마감 때 맘보춤

마감 때면 다들 초췌한 얼굴에 피로해진 몸집이 되는데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다. 원고마감도 만 나라 예기. 필름마감도 그러려니... 막내 주재에 감히 제일 한가하다. 오늘도 눈치없이 바쁜 선배들 사이에서 음악 '이빠이' 틀어놓고 맘보춤을 춘다. 이런 내가 if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안 봐도 비디오다. 하긴 도우면 모.

- 도마

우린 살아 있다!

수수경단에 승려를 장만하고, 실이며 국수며를 올리 두고, 태어나 열두달을 무사히 살아낸 아기를 축복하고 복과 장수를 빌었다는 돌, 생존이란 것이 그리도 힘들었던 시절의 풍속이라지만 if 한들을 맞는 심정은 목줄기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듯도 하다. 지금의 경제상황이 당시의 역병보다 나을 것 없으며, 현재의 부도율은 당시 유아사망률보다 덜할 리 없다. 우린 살아 있다. 일이 소외가 아니라 살맛이고 힘이고 기쁨이란 것을 또렷이 알게 해준 if와 if 사람들이 고맙다. if와 눈맞은 여러분들도 가슴 벅근하게 고맙다. 그래서 마구마구 if의 첫들을 자극하고 싶었다. 그래서 자제할 길 없이, 비온 뒤의 대나무 숲 나뭇 짙 곳곳에 우리 광고를 심었다. 정작은 분들을 다소 자극했는지 모를 우리의 열론 심정을 당분간은 무장해제 해야겠다. 우린 살아 있다!

- 갈마

'사전에도 성차별은 있다'

이번 호 특집 「남자대탐구」 사례글로 들어온 '나는 과연 스타킹이 싫다'는 원고에는 여류문인이나 여성지식인에 대한 남성들의 혐오증세가 엿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불루스타킹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역사적 의미까지 보아야 한다.

불루스타킹은 1750년대 영국 런던에서 문학도론을 즐기던 남녀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말로 본래는 남성의 평상복을 의미했다. 이 모임에 참석하는 남성들이 이브닝 복장인 검은 실크 예복 대신 캐주얼한 옷차림을 한 데서 이름이 붙여졌으며 1790년대부터 여류문인이나 여자지식인을 경멸하는 뜻으로 쓰이기 시작했으며 18세기 말, 19세기 초에는 참정권 운동을 펼치던 페미니스트들을 지칭하는 말로 쓰여졌다. 여류문인을 경멸하는 의미로 불루스타킹이란 말을 쓰기 시작한 사람도 남자들이고, 그렇게 사전에 쓴 사람들도 남자들이다. 그 글의 필자는 그렇게 만들어진 사전을 보고 서양남성들의 여성혐오 전풍을 그대로 수용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삼 계단계 되었다. "사전에도 성차별은 있다"

수다의 놀라운 생산성

if의 일과는 수다에서 시작해서 수다로 끝난다. 수다로 일하고, 수다를 통해 편가를 만들어내고, 수다로 마무리한다. 그 수다라는 것이 묘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끊임없이 사람의 머리를 자극하고 창조성을 부추긴다. 사실 마감 직전에도 수다로 한 건 올랐다. 죽어도 잡하지 않던 어떤 원고의 제목을 놓고 세 명의 편집진이 일없이 마주앉아 수다를 떨다가 끝내 만들어낸 것이다. 이름하야 "성의 이분법, 그 경제선을 허물다—남성사건작가 데이비스의 작품세계." 아, 또 있었다. "남량특집—귀신의 세계에도 성차별은 있다." 우하하하... 수다의 그 놀라운 생산성.

잊지 말자. 평등!

지난 4월 12일 if의 막내기자 이진화가 결혼을 했다. 예식장 무대에 오른 사람은 주례, 사회자, 축가를 불러준 친구들, 신부까지 몽땅 여자였다. 물론 신랑은 빼고, 주례를 맡아준 이혜경 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는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니라 이성이성이체(二心異性二體)라며, 지붕을 받치는 두 기둥처럼 평등하게 가정을 꾸려갈 것"을 당부했다. 행복해

라. 이진화. 잊지 말자, 평등!

if의 호박사태

if가 또 호박사태를 맞았다. 이름하야 호박두리, 광고부의 김영관과 이번 호부터 만평 「if 세상」을 연재하게 된 난나, 둘 다 if의 열렬한 애독자에서 출발해 스스로 굴러들어왔다. 프로 영업을 꿈꾸는 신세대답게 김영관은 사람 만나기도 즐기고, 없는 일도 만들어낼 줄 아는 적극성을 갖고 있다. "안녕하십니까요?"라는 '버슈식' 말투를 if사무실에 전염시키기도 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자신의 작품과 함께 A4용지 한 장 가득 자기소개를 써붙이고 사무실에 찾아왔던 난나는... 그야말로 "나는 나"다. 그녀는 신비의 베일에 싸여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할말은 많지만) 이상 끝!

if 모니터링 소모임에 오세요

if를 읽고 궁금하거나 원가 더 하고 싶은 말은 없으셨어요? 더 나누고 싶은 정보와 해주고 싶은 충고라도 좋겠네요.

if를 꼼꼼히 읽고 계신 독자들과 함께 하는 if 독서모임이 열립니다. if 애독자라면 서로 마음에 맞는 친구가 되겠죠?

참, if를 만드는 사람들도 함께 합니다.

일시: 1998년 7월 3일(금) 오후 7시

장소: 페미니스트카페 (고마)(364-5950)

참가비: 5,000원

6월 26일까지 참석여부를 알려주셔야 당일 참석이 가능합니다. (743-6715-6)

if의 젊은 가족, 대학생기획위원단을 모집합니다

if는 기획위원을 모집합니다. 젊은 if를 기획하고 만드는 일에 관심있는 분, if에 깊은 애정을 가진 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보수는 없지만 '자부심'과 '행복'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신청기한: 6월 25일(수)

신청문의: 743-6716

정기구독 안내

신청방법

- 전화나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전화 743-6715/6, 팩스 765-9059).
- 책속의 엽서를 이용해서도 됩니다.

정기구독요금

- 국내정기구독: 1년 34,000원

정기구독혜택

- 본사의 자료해택과 (사)여성문화예술기획에서 주최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회원특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구독기간중 책값이 인상되더라도 추가부담이 없으며 우송료는 본사가 부담합니다.

배달사고·주소변경

- 미착·분실·반송 등 배달사고로 책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본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 배달사고 및 주소변경에 관한 문의번호는 743-6715입니다.

구독료 내시는 법

- 지로 - 5088166(성명,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 온라인 입금

서울 16508-3421203(도서출판 이프) 국민 031-01-0415-280(도서출판 이프) 농협 029-01-171261(도서출판 이프)

한일 375-036328-02-001(도서출판 이프) 제일 458-20-031036(도서출판 이프) 우체국 010892-0071882(윤석남)

- 구독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고, 입금후 반드시 전화해 주십시오.

이프(if) 전국 거래처 한국출판유통(080-082-8240)

그밖에

- if 지만호는 페미니스트 카페 고마(364-5950)나 본사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 서점에서 구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로 직접 연락주십시오.

IF를 만든사람들

- 발행 도서출판 이프 • 발행인 윤석남 • 매니징디렉터 박혜숙 • 편집장 박미라 • 아트디렉터 재미란 • 포토디렉터 조여권
- 기자 김영선 이진화 • 편집위원 김숙진 김신명숙 김재희 김혜경 손자희 오한숙희 류숙영 유채지나 이호인 이해경
- 광고기획부 윤숙경 김영란 • 사진편집자문 박영숙 • 디자인 평일문화사 박선미 권순나 • 인쇄소 고려서적
- 배본처 한국출판유통(080) 082-8240 • 등록번호: 바-02699
- 주소: 서울 성북구 성북1동 1가 65번지 2층 도서출판 이프 • 전화: 743-6715-6 • 팩스: 765-9059 • Htel ID: iftopia
- 천리안 ID: feminif • 하이텔에서도 if를 보실 수 있습니다(go feif).

경제 살리기 이프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남, 여) 나이 세

주소

전화 직업 (기혼, 미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동 65번지

페미니스트저널 if 편집부

1 3 6 - 0 1 1



여성의 욕망을 아는 집지, 페미니스트저널 if

if 는 정직하다!

if 는 용감하다!

if 는 자유롭다!

if 는 재미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남, 여) 나이 세

주소

전화 직업 (기혼, 미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동 65번지

페미니스트저널 if <편집자에게> 담당자 앞

1 3 6 - 0 1 1



if 를 보고 싶다!